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사회학박사 학위논문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

- 성별 코호트별 차이를 중심으로 -

2021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사 사 노 미 사 에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

- 성별 코호트별 차이를 중심으로 -

지도 교수 장 경 섭

이 논문을 사회학박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21년 5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사 사 노 미 사 에

사사노미사에의 사회학박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21년 7월

위 원 장 _____

부위원장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위 원 _____

<국문 초록>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

- 성별 코호트별 차이를 중심으로 -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학과
사 사 노 미 사 에

후기 산업 사회에서는 '재생산 위기(Crisis of Social Reproduction)'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서구에서는 먼저 경험한 가족의 구조적 변화-만혼 및 미혼 증가, 만산화 및 저출산, 이혼의 증가, 무자녀 부부의 증가 등 일련의 가족 형태의 다양화-가 동아시아에서도 1990년대부터 뚜렷하게 관찰되기 시작했다. 서구에서는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서 가치관 변화를 중요한 설명변수로 여기고 이론화시켜 왔으며 남녀역할 변동에 따른 규범적 변화에 초점을 맞춰 성역할 태도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상관관계를 연구해 왔다. 기존연구에서는 동아시아 사회의 낮은 출산율에 대해 가족주의적 복지 체제와 젠더 불평등한 역할분업, 유교 가부장적 가족가치 등 공통적 배경으로 지적해 왔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에 주목하면 한일 간의 차이를 기존 이론이나 분석모형에서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다. 출산율 하락은 일본이 먼저 경험했는데 왜 한국이 빠른 속도로 일본을 추월해 세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는가?

본 연구는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는 왜 일본보다 빠른가?'라는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가족가치 변동'에 초점을 맞춰서 접근하고 국제사회인식조사(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2012년 자료를 분석해 양국 간 차이를 비교하는 것으로 한국의 특징을 부각시켰다.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전략을 취했다. 첫째, 가치관이 사회발전에 따라 이론적으로 전통에서 진보를 향해 선형 이행해 간다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넘어 가치관의 다원적 양상을 포착하고 비교분석하기 위해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했다. 가치관은 가치측면에 따라 상이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복잡한 가치구조를 가지는 다원적 구성물이기 때문이다. 둘째, 방법론적으로 연구대상을 거시적 시각에서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평균값을 사용해 사회전체 동향을 비교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집단 내부 차이(코호트 간 및 코호트 내부 차이, 성별 차이)를 분석했다. 한국처럼 '압축적' 사회변화를 경험해 온 사회에서는 코호트에 따른 가치관 차이가 큰 것으로 예상되는데 평균값 비교에서는 그러한 편차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오늘날 가족가치에는 어떤 코호트에서 어떠한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내부 집단 차이를 포착할 필요가 있다. 셋째, 방법론적으로 가족변동의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 온 가치 측면을 보다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가족가치를 성역할태도-결혼가치-자녀가치의 세 가지 측면에 대해 비교분석한 후 각각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기존연구는 성역할태도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해 주로 다루어 왔으며 결혼가치와 자녀가치는 따로 분석되어 왔는데 본 연구는 가족가치의 다양한 측면과 그것의 상관관계에 대해 분석하는 것으로 가족가치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려고 시도했다. 나아가 가족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인구학적 변수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밝혔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성역할태도에 있어서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어머니 취업에 대해 부정적이면서 여성에게 경제적 기여 책임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한국이 코호트별로 변화의 속도가 빠르며 여성을 중심으로 젊을수록 성역할 분업보다 평등을 지지하는 방향으로 급진적인 가치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남녀평등지향적 가치와 근대가족 지향적인 가치가 결합한 일본형 평등이라고 부를 수 있는 형태의 남녀평등지향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여 특히 젊은 여성 사이에서 그러한 가치규범이 강화되고 있었다. 이 유형의 특징은 남녀역할분업을 부정하면서 여성에게 가계 기여 책임의식을 부여하지 않고 전업주부를 지지하는 점에 있으며 일본 기혼여성의 취업형태가 대부분 파트타임 노동으로 유지되는 구조적인 배경이 반영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회귀분석결과를 비교해 보면 성역할 분업보다 평등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한국에서 대졸자, 미혼, 1986-1995년 코호트에서 나타났고 성별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대졸자, 미혼, 여성, 1986-1995년 코호트에서 성역할 평등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남녀 평등지향적인 가치가 지지되었다고 해도 한국과 일본에서 추구하는

평등의 형태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이다. 이 결과는 성역할규범 변화가 전통에서 평등으로 단선적으로 변해가는 게 아니라 평등의 의미는 그 나라가 처한 갖가지 상황에 따라 달라짐을 의미한다. 양국에서 지지되는 성역할 평등 형태는 공사 영역을 포함한 역할분담에서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양국 사회에 남녀가 배치된 구조와 그 변화가 반영되어 있었고 양국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매우 다른 형태의 성역할평등을 향하고 있음이 부각되었다.

결혼가치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에서는 덜 긍정적인 방향으로 변화됨이 확인되었다. 한국의 결혼가치는 성역할태도에 비해 급진적인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에서는 애정을 느끼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동거가 아닌 결혼을 해야 하며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믿는 태도가 일본에 비해 매우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에서는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규범이 오히려 강화되었으며 동시에 결혼에 대해 큰 가치를 두지 않은 집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같은 세대 내에서 변화의 방향이 양극으로 갈라지는 모습이 관찰되었다. 일본에서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강화되었다는 기존연구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으나 젊은 세대 전체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아니었다. 일본의 결혼가치는 젊은 여성 절반에게는 결혼이 더욱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만 나머지 결혼 자체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집단도 증가하고 있었다.

자녀가치에 있어서는 한국이 일본에 비해 자녀 양육으로 초래되는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녀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커리어적인 측면에서 기회나 자유가 제한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자녀가치에서도 급진적인 변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코호트별 차이도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자녀가치가 급진적으로 약화된 추세에 있는 것에 비해 일본 젊은 여성 사이에서는 자녀를 더욱 더 가치있는 존재로 여긴다는 대조적인 가치변화의 방향성이 부각되었다. 한국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기여책임이 기대되고 본인의 직업적 성취도 추구해야 하는 오늘날 고등교육까지 받은 젊은 여성들에게는 자녀양육의 책임이 여성에게 있는 상황에서 본인 커리어를 희생해서까지 우선시 해야 하는 강도 높은 어머니 노릇은 처음부터 매력적인 선택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일본에서는 한국의 젊은 여성과 대조적으로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자녀를 더욱 더 가치있는 존재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경향이 젊은 여성 사이에서만 확인된 경향이었으며 남성은 그렇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잠재가치구조 분석을 통해 도출된 세 가지 가치 측면에 대한 유형간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 결과 한국은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 결혼가치와 자녀가치의 모든 유형간 교차에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유의한 결과를 보인 유형 간 관계는 대부분 전통적인 가치는 전통적인 가치 (성역할 '분업지지', '결혼긍정', '자녀선호' 유형) 유형와 진보적인 가치는 진보적인 가치(성역할 '평등', 결혼 '중도', 자녀 '불필요' 유형) 유형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마찬가지로 전통적인 가치를 가지는 유형은 진보적인 가치를 가지는 유형과, 진보적인 가치유형은 전통적인 가치유형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세 가지 유형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어떤 성역할태도 유형에 속해도 특정한 결혼가치나 자녀가치 유형이 될 가능성이 없으며 마찬가지로 어떤 결혼가치 유형에 속해도 어떤 자녀가치 유형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출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지는 자녀의 필요성에 대한 가치관은 한국에서는 다른 가치 측면과 연동하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간 상관관계를 성별 및 코호트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한국은 코호트가 젊어질수록 성역할태도가 평등지향적인데, 흥미로운 점은 성역할태도가 평등지향적인 젊은 사람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가 그다지 약화되지 않았음에 비해 자녀가치는 급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으며 결혼가치와 자녀가치가 같은 속도로 함께 변화해 가는 것이 아님이 밝혀진 점에 있다. 한국의 젊은 여성사이에서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가족가치 변화는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에서 분명하게 나타났으나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는 다소 약화된 것 뿐이었다. 이상의 결과는 한국에서는 결혼을 한다고 해도 꼭 자녀를 낳을 생각이 있는 것이 아니며 결혼가치보다 자녀에 대한 부담감과 부정적인 생각이 먼저 확산되어 있으므로 한국에서는 앞으로 빠른 속도로 유배우 출산율의 하락이 예상된다. 한국에서는 결혼을 안하고 미혼으로 사는 것보다 결혼은 하고 자녀를 낳지 않는 무자녀 부부로 사는 삶을 보다 더 선호하는 태도가 관찰되기 때문이다. 반면 일본에서는 성역할태도 및 결혼가치와 상관없이 어떤 유형에서도 자녀지향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음과 동시에 결혼에 대한 가치와 함께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가족형성 지향적인 가치가

강화되어 있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통해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가족가치를 지향해 왔으며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가족가치의 변화 방향이 갈라진 모습이 확인되었다. 한국은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성역할태도가 급진적으로 평등 지향이 확산되고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에서 벗어나는 경향도 확인되었으나 일본에 비해 결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결혼가치규범을 유지한 채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가 먼저 급하락한 점이 발견되었다. 반면 일본은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결혼과 자녀의 필요성을 높이며, 가족형성에 대한 지향적인 태도가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강회되었다는 한국의 젊은 여성과 대조적인 방향으로 가족가치가 변화하고 있음이 관찰되었다. 한국에서는 자녀가치보다 결혼에 더 가치를 두고 있음에 비해 일본에서는 결혼보다 자녀에 더 가치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리고 가족가치는 시간 흐름에 따라 보수-진보로 단선적인 선형 이행을 그리는 게 아니라 성역할태도 평등의 의미가 각 사회 맥락에 따라 다르듯이 자녀에 대한 부담이나 불필요성의 의미 또한 서로 맥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이상 본 연구를 통해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하락을 둘러싼 가족변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비슷하더라도 젊은 세대가 가족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서로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주제어: 가족가치, 성역할태도, 결혼가치, 자녀가치, 세대, 젠더,
잠재집단분석, 국제사회인식조사(ISSP)
학번: 2011-31256

목 차

제1장. 서론 ····· 1

1절. 연구의 목적과 문제제기 ---------- 1

2절.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 5

1) 제2차 인구변천: 개인화 vs 가족주의 ---------- 5

2) 젠더 평등 접근 ---------- 12

3) 젠더 본질주의의 지속과 성역할태도 유형 분류 ---------- 16

3절. 논문의 구성 ---------- 23

제2장. 연구 시각과 방법론 ---------- 25

1절.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 25

1) 분석 자료 ---------- 25

2) 분석 변수 ---------- 27

3) 분석 방법 ---------- 30

(1) 분석 전략 ---------- 30

(2) 독립 변수: 코호트 및 성별 ---------- 32

(3) 통제 변수 ---------- 38

2절. 분석 기법과 분석틀 및 분석 절차 ---------- 38

1) 분석 기법: 잠재집단분석 (Latent Profile Analysis) ---------- 38

2) 분석 절차 ---------- 45

제3장. 가족변동의 현주소 ····· 47

1절. 가족 형성을 둘러싼 한일 양상 차이 ---------- 47

1) 만혼화: 압축적 만혼화 vs 완만한 생애미혼율 증가 ----------47
2) 저출산: 압축적 저출산 vs 장기적 저출산 ----------54
3)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노동력률 ----------60
2절. 한국과 일본의 청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66
1)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변화: 남성의 불안정화 vs 남성의 보호 ---------66
2) 여성의 고학력화: 남성보다 높은 학력 취득 vs 낮은 학력 취득--------94
3) 여성운동과 여성정책의 전개 vs 백래시와 일본형 복지정책----------114
3절. 연구 가설----------124

제4장. 성역할태도 및 규범·····127

1절. 성역할태도 유형 ----------127
1) 한일 유형: 어머니 역할과 경제적 책임의 갈등 vs 전업주부지향의 안정-127
2) 내부 차이: 여성의 급진적 평등 지향 vs 전업주부지향의 증가--------130
2절. 성역할태도 유형과 사회인구학적 특징 ----------144
1) 한국: 젊은 대졸 미혼 여성의 '평등' 지향 ----------144
2) 일본: 젊은 대졸 여성의 '전업주부' 지향 ----------153
3절. 소결----------157

제5장. 결혼가치 한일비교·····161

1절. 결혼가치 유형----------161
1) 한일 유형: 일본보다 강한 결혼지향성----------161
2) 내부 차이: 결혼규범 고수와 이탈의 양극화----------163
2절. 결혼가치 유형과 사회인구학적 특징----------174
1) 한국: 고학력자도 결혼규범 고수----------174
2) 일본: 여성 사이에서의 결혼가치 양극화 ----------176
3절. 소결----------178

제6장. 자녀가치 한일비교 ····· 181

1절. 자녀가치 유형 ---------- 181

1) 한일 유형: 양육은 인생의 부담 vs 양육은 인생의 기쁨 ---------- 181

2) 내부 차이: 자녀 불필요 vs 자녀 필요 ---------- 183

2절. 자녀가치 유형과 사회인구학적 특징 ---------- 192

1) 한국: 대졸, 미혼, 무직, 여성 사이에서 자녀 불필요 ---------- 192

2) 일본: 고학력, 미혼은 경제적 부담감 증가 ---------- 194

3절. 소결 ---------- 196

제7장. 각 가치관의 상관관계 ····· 200

1절.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 ---------- 200

1) 유형간 상관관계: 강한 상관 관계인 한국, 무상관의 일본 ---------- 200

2) 가치관 교차: 젊은 세대 양상 비교 ---------- 205

2절.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 ---------- 208

1) 유형간 상관관계: 강한 상관 관계인 한국, 일부 상관을 가진 일본 ---------- 208

2) 가치관 교차: 젊은 세대 양상 비교 ---------- 213

3절. 결혼가치와 자녀가치 ---------- 217

1) 유형간 상관관계: 강한 상관 관계인 한국, 무상관의 일본 ---------- 217

2) 가치관 교차: 젊은 세대 양상 비교 ---------- 221

4절. 소결 ---------- 224

제8장. 결론 ····· 229

1절. 연구의 요약 ---------- 229

2절. 연구의 함의 ---------- 234

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 237

참고문헌 ····· 239
ABSTRACT ····· 255

표 차례

〈표 1-1〉 서구사회의 제1차,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인구학적·사회적 특징 ····· 8
〈표 1-2〉 성역할 태도 LCA분석 기존 연구 정리 ····· 21
〈표 3-1〉 한일 출생아수 변화(1980-2019) ····· 55
〈표 3-3〉 일경련의 종업원 집단별 고용관리 방침(1995) ····· 76
〈표 3-4〉 노동시장 재구조화 유형 ····· 81
〈표 3-5〉 어머니의 자녀 고등교육에 대한 기대수준 ····· 96
〈표 3-6〉 쿼터 제도가 도입된 후의 여성의원 증가 추세, 한국(1988-2016) ····· 119
〈표 4-1〉 성역할태도에 대한 질문 ····· 127
〈표 4-2〉 성역할태도에 대한 찬반의견 한일 비교 ····· 128
〈표 4-3〉 한국의 성역할태도에 대한 잠재집단 모형 적합도 ····· 131
〈표 4-4〉 일본의 성역할태도에 대한 잠재집단 모형 적합도 ····· 134
〈표 4-5〉 한국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3단계 추정법을 적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145
〈표 4-6〉 일본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3단계 추정법을 적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153
〈표 5-1〉 결혼가치에 대한 질문 ····· 161
〈표 5-2〉 결혼가치에 대한 찬반의견 한일 비교 ····· 162
〈표 5-3〉 한국의 결혼가치에 대한 잠재집단 모형 적합도 ····· 163
〈표 5-4〉 일본의 결혼가치에 대한 잠재집단 모형 적합도 ····· 165
〈표 5-5〉 한국의 결혼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3단계 추정법을 적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175

〈표 5-6〉 일본의 결혼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3단계 추정법을 적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167
〈표 6-1〉 자녀가치에 대한 질문 ····· 181
〈표 6-2〉 자녀가치에 대한 찬반의견 한일 비교 ····· 182
〈표 6-3〉 한국의 자녀가치에 대한 잠재집단 모형 적합도 ····· 183
〈표 6-4〉 일본의 자녀가치에 대한 잠재집단 모형 적합도 ····· 185
〈표 6-5〉 한국의 자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3단계 추정법을 적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193
〈표 6-6〉 일본의 자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3단계 추정법을 적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 195
〈표 7-1〉 한국의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 ····· 201
〈표 7-2〉 일본의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 ····· 204
〈표 7-3〉 한국의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 ····· 209
〈표 7-4〉 일본의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 ····· 212
〈표 7-5〉 한국의 결혼가치와 자녀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 ····· 218
〈표 7-6〉 일본의 결혼가치와 자녀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 ····· 220

그림 차례

〈그림 1-1〉 성역할태도와 출산율의 관계 ····· 12
〈그림 2-1〉 15-34세와 55-64세의 여자 고등교육 이수 인구 국가별 비교(2020) ····· 34
〈그림 2-2〉 15-34세와 55-64세의 남자 고등교육 이수 인구 국가별 비교(2020) ····· 35
〈그림 2-3〉 연구 모형 ····· 41
〈그림 2-4〉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 42
〈그림 2-5〉 유형과 유형의 관계 ····· 44
〈그림 2-6〉 분석틀 ····· 45
〈그림 3-1〉 한국과 일본의 연령별 미혼율과 생애미혼율: 남자(1970-2015) ····· 47
〈그림 3-2〉 한국과 일본의 연령별 미혼율과 생애미혼율: 여자(1970-2015) ····· 49
〈그림 3-3〉 한국과 일본의 남녀 평균 초혼연령(1990-2016) ····· 51
〈그림 3-4〉 출생 코호트별 한국과 일본의 배우자 선택 경로 ····· 52
〈그림 3-5〉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하락 현황(1980-2019) ····· 55
〈그림 3-6〉 한국과 일본의 가족변동 양상 차이(1960-2020) ····· 56
〈그림 3-7〉 한국과 일본의 여성 연령별 출생아수 차이(1950-2015) ····· 57
〈그림 3-8〉 한국과 일본의 재생산가능인구 비율 추이(1950-2015) ····· 59
〈그림 3-9〉 주요국 여성 연령별 노동시장 참여율(2015) ····· 60
〈그림 3-10〉 한일 여성 연령별 노동시장 참여율(1980-2018) ····· 62

〈그림 3-11〉 일본 부문별 자금현황(1980-2008)····· 71
〈그림 3-12〉 일본 남녀 비정규직 비율(199-2010) ····· 72
〈그림 3-13〉 한일 남녀 비정규직 비율(2015) ····· 83
〈그림 3-14〉 한일 남녀 정규직 비율····· 84
〈그림 3-15〉 기업 규모별 직원수 비율····· 86
〈그림 3-16〉 기업 규모별 소득 차이: 한국, 일본, 미국 ····· 87
〈그림 3-17〉 비정규직 여성 고용자의 향후 취업에 대한 희망(2010)····· 90
〈그림 3-18〉 한일 여성 취업률과 정규직 비율 비교 ····· 91
〈그림 3-19〉 한일 남녀 정규직 비율 비교····· 92
〈그림 3-20〉 서울대와 동경대 여학생 비율 비교 ····· 98
〈그림 3-21〉 세계 유명대학 여학생 비율 국제비교····· 102
〈그림 3-22〉 한일 남녀 4년제 대학 진학률(1990-2018)····· 103
〈그림 3-23〉 남녀 대학 전공 비율 국가간 비교(2013)····· 104
〈그림 3-24〉 한일 남녀 2년제, 4년제 대학 진학률(2000-2015)····· 106
〈그림 3-25〉 일본 남녀 2년제, 4년제 대학 진학률(1960-2015)····· 107
〈그림 3-26〉 OECD 가맹국 남녀 고등교육 이수로 인한 사적 수익····· 109
〈그림 3-27〉 한일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 111
〈그림 3-28〉 한일 의료분야 종사자 중 여성 비율····· 112
〈그림 3-29〉 한일 여성 국회의원 진출 현황(1997-2018)····· 113
〈그림 4-1〉 한국의 성역할태도 잠재집단 유형····· 131
〈그림 4-2〉 일본의 성역할태도 잠재집단 유형····· 134
〈그림 4-3〉 한국과 일본의 성역할태도····· 136

〈그림 4-4〉 한국의 성역할태도 잠재집단 성별 분포 ····· 137
〈그림 4-5〉 일본의 성역할태도 잠재집단 성별 분포 ····· 138
〈그림 4-6〉 한국의 성역할태도 잠재집단 성별 및 코호트별 분포 ····· 139
〈그림 4-7〉 일본의 성역할태도 잠재집단 성별 및 코호트별 분포 ····· 141
〈그림 4-8〉 한일 여성의 경제적 기여 책임에 대한 태도: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에 대한 찬반의견 ····· 148
〈그림 4-9〉 한일 남성 우선 일자리 허용도: '남자가 여자보다 우선적으로 일을 할 권리가 있다'에 대한 찬반의견 ····· 150
〈그림 4-10〉 한일 부모의 아들과 딸 차별적인 교육투자 자세: '대학교육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에 대한 찬반의견(1995-2010) ····· 152
〈그림 4-11〉 한일 전업주부 지지도: '전업주부가 되는 것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다'에 대한 찬반의견(1990-2010) ····· 155
〈그림 4-12〉 한일 어머니 취업에 대한 태도: '어머니가 취업하면 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에 대한 찬반의견(1990-2010) ····· 156
〈그림 5-1〉 한국의 결혼가치에 대한 잠재집단 유형 ····· 164
〈그림 5-2〉 일본의 결혼가치에 대한 잠재집단 유형 ····· 165
〈그림 5-3〉 한국과 일본의 결혼가치 유형 ····· 166
〈그림 5-4〉 한국의 결혼가치에 대한 잠재집단 성별 분포 ····· 168
〈그림 5-5〉 일본의 결혼가치에 대한 잠재집단 성별 분포 ····· 168
〈그림 5-6〉 한국의 결혼가치 잠재집단 성별 및 코호트별 분포 ····· 169
〈그림 5-7〉 일본의 결혼가치 잠재집단 성별 및 코호트별 분포 ····· 171
〈그림 6-1〉 한국의 자녀가치에 대한 잠재집단 유형 ····· 184

〈그림 6-2〉 일본의 자녀가치에 대한 잠재집단 유형 ····· 186
〈그림 6-3〉 한국의 자녀가치 유형 ····· 187
〈그림 6-4〉 한국의 자녀가치에 대한 잠재집단 성별 분포 ····· 188
〈그림 6-5〉 일본의 자녀가치에 대한 잠재집단 성별 분포 ····· 189
〈그림 6-6〉 한국의 자녀가치 잠재집단 성별 및 코호트별 분포 ····· 190
〈그림 6-7〉 일본의 자녀가치 잠재집단 성별 및 코호트별 분포 ····· 191
〈그림 7-1〉 한국의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 ····· 200
〈그림 7-2〉 일본의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 ····· 203
〈그림 7-3〉 한국의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 유형 코호트 및 성별 교차 ····· 205
〈그림 7-4〉 일본의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 유형 코호트 및 성별 교차 ····· 207
〈그림 7-5〉 한국의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 ····· 208
〈그림 7-6〉 일본의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 ····· 211
〈그림 7-7〉 한국의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 유형 코호트 및 성별 교차 ····· 213
〈그림 7-8〉 일본의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 유형 코호트 및 성별 교차 ····· 215
〈그림 7-9〉 한국의 결혼가치와 자녀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 ····· 217
〈그림 7-10〉 일본의 결혼가치와 자녀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 ····· 219
〈그림 7-11〉 한국의 결혼가치와 자녀가치 유형의 코호트 및 성별 교차 ····· 221
〈그림 7-12〉 일본의 결혼가치와 자녀가치 유형의 코호트 및 성별 교차 ····· 223

보존용 학위논문 정오표

페이지	정정 전	정정 후
p. VI : 5	2) 젠더 평등접근----------12	2) 젠더 평등접근----------11
p. VI : 6	3) 젠더 본질주의의 지속과 성역할태도 유형 분류 ----------16	3) 젠더 본질주의의 지속과 성역할태도 유형 분류 ----------15
p. XI : 2	〈표 5-6〉 일본의 결혼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3단계 추정법을 적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167	〈표 5-6〉 일본의 결혼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3단계 추정법을 적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177
p. 8 〈표 1-1〉	FTD/ STD	FDT/ SDT
p. 12 〈그림 1-1〉	자료: 자료:	자료:
p. 22 〈표 1-2〉	3. Flexible Egalitarianism**	Flexible Egalitarianism**
p. 168 〈그림 5-4〉	중도: 남자 51.94	중도: 남자 5.19
p. 200 〈그림 7-1〉	전통	분업지지
p. 203 〈그림 7-2〉	전통	분업지지

제 1 장. 서론

1절. 연구의 목적과 문제제기

202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84를 기록했다. 조선일보[1]는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을 소개하면서 "역대 최저이자,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기록된 적 없는 수치다. 출생아 수가 사망자 수보다 적은 '인구 데드 크로스'도 사상 처음 발생했다"고 보도해 과거 4년 동안 한국정부가 128조원을 썼음에도 회복되지 않는 한국의 출산율 하락에 대해 큰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2018년부터 드디어 1.0을 밑돌기 시작했으며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이어서 2020년에는 0.84명까지 떨어진 셈이다. 일본 또한 2020년 합계출산율이 1.34명으로 과거 5년동안 연속적으로 하락했다. 일본경제신문[2]은 2020년에 태어난 자녀수가 과거 최저인 84만여명 수준으로 전년대비 2.8% 감소한 것에 비해 혼인 건수는 전년대비 12%나 감소해 52.5만여건으로 전후 최저 수치를 경신했다고 보도했다.

오늘날 후기 산업사회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이러한 가족을 둘러싼 인구학적 변동현상-결혼의 지연과 감소, 이혼의 증가, 혼외 출산 증가 그리고 출산율의 하락 등 일련의 가족 인구학적 변동-은 '가족의 위기(Crisis of the Family)'로 불리고 중요한 연구과제로 부상되어 왔다. 서구 사회에서 먼저 시작된 '가족의 위기' 현상은 오늘날 동아시아 사회에서도 관찰되는데 그 속도는 서구 사회보다 훨씬 빠르다. 한국은 2000년에 63.5만명이었던 출생아수가 2020년에는 27.2만명으로 과거 20년 동안 약 57%나 감소했다. 일본 또한 2000년의 119.1만명에서 2020년에는 84만명으로 약 30% 감소했으며 동아시아 사회는 서구 사회보다 심각한 '가족의 위기'를 겪고 있다. '가족의

---

[1] 「조선일보」, 2021/03/03 (2021/06/07 접속)
https://www.chosun.com/politics/politics_general/2021/03/03/ZHB723DODZENLJ37PXAK5MYM3A/

[2] 「일본경제신문」, 2021/06/04 (2021/06/07 접속)
https://www.nikkei.com/article/DGXZQOUA044P90U1A600C2000000/?unlock=1

위기'는 결국 사회 지속가능성의 문제로 이어져 재생산 위기는 생산노동인구의 감소를 야기하며 고령화를 가속시키는 것과 함께 그 사회의 경제성장을 더디게 하는 심각한 경제침체와 인구불균형을 초래한다. 서구를 중심으로 한 선행연구는 이 문제에 대하여 가치관 변화를 중요하게 다루어 왔으며 주로 다음 두 가지 측면에 주목하여 '출산율 하락' 원인에 대해 이론화시켜 왔다.

첫 번째 이론적 설명은 '2차 인구변천 이론'이다. '2차 인구변천이론(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이하 SDT)'(Lesthaeghe, 2010; Lesthaeghe and Moors, 2000; van de Kaa, 2001; 2002)은 결혼과 출산의 감소, 이혼이나 동거의 증가 현상에 대하여 개인주의(Individualism)와 탈물질주의(Post-Materialism) 가치로의 확산에 주목한 문화적 변동(Ideational Change)에서 그 본질을 찾는다. Beck(2002)의 '제도화된 개인주의(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Giddens(1992 [2004])의 '친밀성의 변용' 또한 제2차 인구변천으로 인한 후기 근대사회의 귀결로 이해되어 왔다. 그렇다면 동아시아 사회에서도 '개인주의화'를 중심으로 한 가치변화가 있어서 가족변화가 일어났는가? 그런데 동아시아 사회의 가족 인구학적 변동은 서구의 경험과 달리 출산율이 매우 낮고 혼인의 감소와 이혼의 증가는 관찰되지만 동거와 혼외출산 증가는 완만하다. 이는 결혼이 탈제도화가 된 서구의 경험과 달리 동아시아 국가에서는 여전히 결혼과 가족형성에 대한 가치와 규범이 강한 것으로 이해되며 가족주의적 가치관을 유지한 채 형태 차원에서만 개인화 현상이 관찰된다고 논의되었다(이미경·김미정·정혜은, 2010; 김혜경, 2013; Chang and Song, 2010; Ochiai, 2011; 2014). 게다가 한국에서는 탈물질적인 가치관이 관찰되지 않고 오히려 물질주의적인 가치가 강한 점이 지적되고 있어[3] 서구 사회의 자기 경험에 기초한 이론적 가설은 비서구사회의 2차 인구변천을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

[3] 세계 가치관조사 자료를 이용해 1986-2015년의 약 30년 동안 선진국과 한국의 탈물질주의적 가치관을 비교한 장덕진(2017)은 한국은 과거 30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요지부동으로 물질주의적 가치 제 자리를 지켜왔다고 한다. 그가 분석한 세계가치관조사 웨이브5의 결과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강한 물질주의적 가치가 55.06%, 약한 물질주의적 가치가 30.54%를 차지해 둘을 합치면 무려 85.6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한 물질주의적 가치는 미국이 20.87%, 일본이 24.95%, 스웨덴이 5.07%, 멕시코가 19.51%로 한국이 압도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장덕진, 2017: 309). 세계가치관조사 2-6차 자료를 분석한 양해만・조영호(2018)의 연구에서 또한 한국의 탈물질주의를 이끌어가는 요인들은 물질주의를 유지하는 요인들을 압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이론적 설명은 '젠더 평등(Gender Equality)'에 주목한다. 20세기 후반에 일어난 중요한 사회변화는 여성의 평생 고용(Lifetime Employment) 지향이라는 여성의 생애 변화이다. 불과 몇 십년 전까지만 해도 여성의 주된 역할은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었고 대부분의 여성들이 경험하는 당연한 생애과정으로 여겼다. 여성의 전업주부에서 평생 고용으로의 역할 이행은 여성 역할의 근본적인 변화(Fundamental Transformation)이자 혁명적 변화였다(Goldin, 2006). McDonald(2000a; 2000b; 2006)는 남녀역할 변동과 출산율과의 관계를 젠더평등 관점에서 접근하여 출산율이 낮은 국가는 젠더평등 수준이 낮은 국가들이고 젠더평등과 출산율 사이를 이해함에 있어 다음 두 가지 영역의 젠더평등을 구별하고 논의한다. 첫째 개인중심적인 제도(Individual-oriented Institutions)와 둘째 가족중심적인 제도(Family-oriented Institutions)를 구별해 이 두가지 영역의 불일치에 주목한다. 노동시장이나 교육제도는 개인을 단위로 하여 높은 수준의 성평등을 이루었으나 가족 영역은 낮은 수준의 성평등을 여전히 유지한다는 두 가지 제도 간의 불일치에 주목하여 오늘날 출산율이 아주 낮은 국가들은 가족 내 성평등 수준이 낮은 채 교육이나 노동시장 등 개인 차원에서는 높은 성평등을 이룬 불균형 상황에 놓여진 국가들이다. 여성이 노동시장에서는 개인으로서 임금노동에 임하는데 가족 영역에서는 가족을 단위로 가족내 일을 전담해야 한다는 이중부담은 출산율 하락을 야기한다. 즉 공사영역에서의 성평등 수준의 불일치가 저출산 국가들의 특징이며, 이 두가지 영역의 일치 수준이 높은 균형 상태에 있는 국가에서 출산율이 회복되었다고 본다. Esping-Andersen(2009)과 Esping-Andersen and Billari(2015) 또한 견해를 같이 하여 전통적[4] 성별분업 상태를 젠더 평형(Gender Equilibrium) 상태로 보고 이 상태에서 벗어나

[4] 여성의 '가족형성기 탈취업' 현상의 심화 경향은 사회변동의 한복판에서 전개된 현상으로서 전통의 유제라기보다는 근대의 구성물로 보아야 한다(최선영·장경섭, 2004). 본 연구자 또한 남성과 여성의 성역할분업이 전통적 잔재가 아니라 근대사회 구성의 핵심원리였다고 보지만 사회과학 분야의 근대가족 기존 연구에서는 이 시기를 기준으로 현대를 바라보기에 근대가족의 역할분업체제를 전통으로 부르고 있어 본 연구에서도 문맥을 함께 하기 위해 근대가족을 전통이라 부른다. 이 맥락에서는 전업주부 또한 근대화 과정에 탄생한 근대의 산물이지만 기존연구의 표현과 맥락을 같이 하기 위해 전통적인 역할이라고 부른다. 서구 기존연구에서 표현하는 '전통적' 혹은 '보수적' 가족가치는 '남자가 돈을 벌고 여자가 가정의 책임'을 지는 근대가족의 의미를 담고 있다. 전통의 기준은 시대와 사회마다 달라지기에 명확히 정의하지 않으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에서 논의되고 사용되는 표현을 그대로 살려서 소개한다.

성역할 평등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출산율이 하락하지만 이후 성평등 규범이 사회절반으로 확산된다면 출산율이 다시 회복된다는 U자형 이행을 가정했다.

이상 서구 중심의 이론적 접근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회의 출산율이 낮은 이유는 강한 가족주의적 가치관 유지와 젠더 불균형한 사회구조 및 가치규범을 유지하여 성역할 평형 상태에서 벗어난 불균형 상태에 있기 때문이라고 이해된다. 즉 평등한 성역할규범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전통적 가족가치 성역할태도-남녀역할 분업 긍정적인 태도-가 뿌리 깊게 남아 있어 남녀역할이 균형을 잡지 못하는 것에서 원인을 찾아왔다. 또한 동아시아의 저출산을 이러한 젠더불평등을 기피하는 젊은 여성으로 인한 결혼의 지연 혹은 미혼의 증가로 이해해(Takahashi, 2004; Atoh et al, 2004; Choe et al, 2004) 결혼을 한 사람은 자녀를 낳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Shirahase, 2000; McDonald, 2009; 이철희, 2012). 그렇다면 출산율 하락은 일본이 한국에 앞서 오래전부터 지속되어 왔는데 왜 한국이 빠른 속도로 일본을 추월해 세계 최저 수준까지 하락했는가? 기존 서구 중심의 이론에서는 동아시아는 늘 같은 하나의 집단으로 취급되어 왔기에 동아시아 속 차이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는데 동아시아 사회 속에는 이미 하나의 집단으로 다루기 어려운 정도의 여러 차이가 관찰된다. 서구 중심의 이론적 논의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결혼과 출산을 둘러싼 가족 변동의 배경은 설명할 수 있으나 양국 사이에 존재하는 양상 차이는 설명되지 못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서구 중심의 기존연구에서 논의되어 오지 않았던 동아시아 속 차이에 주목한다. 본 연구의 관심은 한국의 '가족 가족변동 속도', 특히 '출산율 하락 속도'에 있으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 일본과 비교하고자 한다. 서구에서는 가족의 인구학적 변동에 대해 포스트 모던적 가치관 확산에 주목하여 가치 변화가 가족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했다고 논의해왔는데 그렇다면 한국과 일본 사이에도 가치관의 차이가 있어 오늘날 가족변동의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 기존의 국제비교연구에서는 거시적 지표를 사용해 국가 간 비교를 해 왔는데 본 연구는 '한국의 가족변동 속도'를 이해하기 위해 내부 집단 차이-성별 차이와 코호트 간 및 코호트 내부 차이-에 주목하고자 한다. 그리고 기존 가족가치 변동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성역할태도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해 분석해 왔는데 본 연구에서는 가족가치의 다양한 측면-성역할태도, 결혼가치, 자녀가치-에 대해 분석하는 것으로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한다. 과연 한국과 일본 사회 구성원들 사이에는 가족가치에 있어 어떠한

핵심적인 차이가 있는가? 양국에서 결혼과 출산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으며 성역할 태도 또한 어떤 차이가 있는가? 그것이 성별로 코호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가?

본 연구가 한일 비교라는 비교사회학적 접근방법을 취하는 이유는 개별 국가의 가치관 수준이 다른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더욱 명료하게 평가될 수 있기 때문이며 그 속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비교는 크게 보면 사회·문화·경제적 구조가 유사한 반면 세부적으로는 많은 미묘하고도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하기에 "큰 틀로 보면 비슷하면서도 세부적으로는 다른 사회를 비교하는 것으로 때로는 당연시되어 온 각 사회의 특징을 드러내는 것이 가능하여 서로 간과하기 쉬운 핵심적인 요소들을 짚어보는 데 있어서 매우 유효한 분석방법"(아리타(有田), 2016: 8-9)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후쿠시마(福島, 2005) 또한 한일 비교연구의 장점으로서 문화인류학자 이간(Eggan)이 제기한 '통제된 비교법'에 대해 검토한 스멜서(Smelser)의 고찰을 소개하면서 "너무나 상황이 다른 두 사회의 비교는 그 차이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요인들 중에서 어떤 요인이 실제로 영향을 주고 있는지 고찰하는 것을 어렵게 한다. 오히려 서로 유사한 사례를 선택함으로써 그 유사성을 갖는 측면을 '통제'한 상태에서 다른 요인의 영향관계를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게 된다"고 논의하고 있으며 한국과 일본의 비교는 '통제된 비교법'의 실행에 적합한 케이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까지 가족을 둘러싼 가치 측면에서 서구 사회와 비교해 공통점만 논의해 온 두 사회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간과되어 온 중요한 핵심적인 차이점을 부각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2절. 이론적 배경

1) 제2차 인구변천: 개인화 vs 가족주의

오늘날 후기 근대 사회의 많은 지역이 '재생산 위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가족의 구조적 변화–혼인 연령의 상승과 미혼의 증가, 만산화 및 저출산, 이혼의 증가, 무자녀 부부의 증가, 혼외 출산의 증가, 동성애 결혼의 합법화 등–는 근대화 시기에 성립한 근대가족을 침식해 가족형태의 유동화를 야기했으며 '작은 가족(Less Family)'으로 향해 왔다. 1970년대부터 서구사회가 경험해 온 '재생의 위기'는 오늘날 동아시아 사회도

직면하고 있는데 그 속도는 서구사회보다 빠르며 출산율이 인구대체 수준 이하까지 떨어졌다(Anderson and Kohler, 2015; Goldstein, Sobotka, and Jesilioniene, 2009; Ogawa, 2003). 동아시아와 서구사회는 시점과 정도는 달리하지만 '가족의 변동'을 후기 근대사회의 주요한 특징으로 여겨 왔다. 그런데 서북유럽에서는 21세기 들어 출산율이 회복됨에 따라 어떤 국가들은 출산율이 회복되고 어떤 국가들은 회복되지 못하는가에 대해 관심을 두게 되었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난 초기 단계에서는 여성 사회진출이 출산율을 하락시키는 것으로 이해되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 여성의 사회진출이 늘어난 국가에서 오히려 출산율이 높다는 역전 현상이 관찰되기 시작했고 오늘날 출산율이 낮은 나라들의 특징은 여성의 사회진출이 저조한 가족주의 국가들이며(Dalla Zuanna and Micheli, 2004; Mills et al. 2008; Frejka, Jones, and Sardon, 2010; McDonald, 2009; Ochiai 2011) 남유럽과 한국 및 일본으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사회가 여기에 해당된다. 1970년대까지만 해도 여성의 취업 증가는 출산율 하락을 야기했기에 고취업-저출산으로 이해되었는데 오늘날은 고취업-고출산, 저취업-저출산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렇다면 '작은 가족(Less Family)'으로 향하는 것이 후기 산업사회의 특징이 아니라 어떤 사회에서는 일시적인 현상이었고 어떤 사회에서는 새로운 시대로의 진입이라고 봐야 한다면 이 현상을 단지 서구사회의 경험에 입각한 이론적 틀에서만 이해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특히 동아시아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출산율 하락 현상은 남유럽 국가의 성격과도 차이가 있기에 가족연구에서는 이러한 국가간 차이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기초가 요구된다.

이 '재생산 위기' 문제에 대한 기존연구의 접근은 주로 다음 세 가지 영역으로 이루어져 왔다. 첫째, 정책 영역에서 국가별 복지레짐 유형(typology)에 따른 자녀 보육 담당자 차이를 비교하는데(Lewis, 1992; 1997; Sainsbury, 1999; Esping-Andersen, 1990; Taylor-Gooby, 2004), 한국과 일본은 사회복지를 국가나 시장이 아닌 주로 가족(여성)이 맡고 있기 때문에 가족주의 복지레짐 유형에 들어간다고 논의되어 있으며(Sung, 2014; Won, 2016; 신카와(新川), 2014) 여기에 해당하는 국가들이 남유럽이나 동아시아 등 출산율이 매우 낮은 국가들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한국과 일본에서는 돌봄 책임이 국가에 있는 사민주의 복지레짐, 시장에게 맡겨진 자유주의 복지레짐과 달리 돌봄 책임이 가족(여성)에게 맡겨져 있기에 국가의 연금, 의료, 교육 관계 지출이 높은 것에

비해(Taylor-Goody, 2004:13) 보육 서비스나 출산육아 급여 등 저출산 대책이 미비하다는 특징이 있다(신카와(新川), 2014: 38). 이러한 사회에서는 제도의 미비나 공백을 가족이 보완해야 한다는 점에서 '제도적 가족주의'(장경섭 외, 2015)라고도 파악할 수 있다. 자녀교육, 부양, 재생산 비용이 가족에게 부과되어 돌봄의 과부하성, 젠더관계의 비민주성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한국과 일본 같은 가족주의 체제를 지닌 사회에서는 남자는 경제 책임을, 여자는 가정 책임을 맡는, 성별로 분리된 역할을 수행해야 하기에 성평등 지수는 낮다고 이해되어 왔는데 양국 간에 존재하는 차이는 설명할 수 없다.

둘째, 형태적 측면에서 접근해 노동시장의 성평등 수준에 착안하고 주로 여성노동시장 참여율과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한다(MacDonald, 2000a; 2000b; Inglehart, Norris, & Ronald, 2003; Mills, 2010; Anderson & Kohler, 2015; Arpino, Esping-Andersen, & Pessin, 2015; Esping-Andersen, and Billari, 2015; Goldscheider, Bernhardt, & Lappegård, 2015; 김영미, 2016). 성평등(Gender Equality) 접근에서 출산율 하락은 전통적 성별분업의 평형상태에서 성평등적 성별분업의 평형상태로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해한다. 이 틀에서는 베커균형(Becker Equilibrium)을 벗어난 초기의 단계에서는 여성이 노동시장 참여와 가사 및 돌봄 노동을 양립해야 하기에 역할 과다로 인해 출산율이 하락한다. 그런데 성평등한 성역할 규범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고 균형을 잡으면 출산율이 다시 회복된다.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참여 성격은 젠더 분절적이며 21세기 오늘날에도 양국의 여성이 교육-일-결혼-출산을 거쳐 노동시장을 한번 퇴진하고 나중에 다시 노동시장에 참여하는 M자형 생애과정을 보여주기에(이승윤 외, 2016; 은기수, 2018; 정이환 외, 2012; Ochiai et al., 2008), 한일사회는 거시적으로 봤을 때 형태적 차원에서는 성별분업에서 성별평등 상태로의 이행과정 초기의 역할 갈등적인 상황이라기보다는 강한 성역할 분업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 접근 또한 가족변동 양상에서 나타나는 한일 차이를 설명할 수 없다.

셋째, 가치관 영역에서 접근한다. 서구 이론에서는 '가족변동'을 이해하기 위해 '가치관 변동'을 아주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 연구해 왔다. 가치 변동에 주목한 연구는 우선 '개인주의'의 확산과 출산율 하락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Dalla Zuanna & Micheli, 2006; Ochiai, 2011; Raymo, James M., et al., 2015; 허은, 2017). 이는 서구 가족변동의 중요한 설명으로서 이론화되어 온 제2차 인구전환론에 근거하여 다음 가치관 변화에 주목해 왔다.

〈표1-1〉 서구사회의 제1차, 제2차 인구변천에 관한 인구학적·사회적 특징

FTD	STD
제1차 인구 변천	제2차 인구 변천
A. 결혼	
기혼율 상승, 초혼연령 저하	기혼율 저하, 초혼연령 상승
동거 수준 낮음, 혹은 감소	동거의 증가(혼인전, 혼인 해소후)
이혼율 낮음	이혼 증가, 조기화
재혼 많음	이별, 사별 후 재혼은 감소
B. 출산력	
고연령 출산 저하로 인한 유배우출산력 저하, 첫째 출산연령은 저하	만산화로 인한 출산력 저하, 첫째 출산 연령의 상승, 구조적 인구대체수준 이하의 출산율
불충분한 피임과 원하지 않는 출산	효과적인 피임
혼외출산 감소	(10대의 의도하지 않는 임신 제외) 동거 커플의 출산으로 인한 혼외출산의 증가
혼인 커플의 낮은 무자녀율	커플의 무자녀 비율의 증가
C. 사회적 배경	
물질적 욕구: 소득, 노동조건, 주택, 건강, 취학, 사회보장, 연대 중시	고차(高次) 욕구의 고조: 자립, 자아실현, 표출적 일이나 사회화된 가치, 승인, 관용성 중시
정치적, 시민적, 지역사회적 네트워크로의 참여, 사회적 결합의 강화	민주적 및 지역사회적 네트워크에서의 이반(離反), 표출적・정서적 사회자본으로의 이행, 사회적 결합은 약화
국가와 교회로 인한 강한 규범적 규제. 초기의 세속화 운동, 정치적 및 사회적 「주상화(柱状化)」	국가의 약체화(弱体化). 전후 세속화 운동, 젠더 혁명, 반권위주의, 정치적 「주상화(柱状化)」
성역할분업, 가족주의적 정책, 중산계급화, 남성 생계부양자 가족모델의 보급	성역할의 대칭화. 여성의 경제적 자립
순서대로 밟는 생애과정, 신중한 결혼, 획일적인 가족모델 석권(席巻)	유연한 생애과정 형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불확실성

자료: 이와사와(岩澤, 2015) 표2에서 인용

출처: Lesthaeghe(2010; 2011)

Lesthaeghe(2010; 2011) Van de Kaa(2001; 2002)는 1960년 이후 인구대체수준 이하까지 출산율이 하락한 배경으로 북서구 사회에서 관찰된 자아실현, 세속화, 탈물질주의화 등으로 후기근대 사회론 흐름에 따른 가치변화에 주목해 그것이 피임 기술의 보급과 함께 만혼화, 출산율 하락, 혼외출산의 증가, 이혼의 증가 등 가족변동을 야기했다고 설명한다. 이러한 가치 변동은 이후 다른 선진국이나 신흥국에서도 관찰된다고 지적해(Lesthaeghe, 2010) 한국과 일본의 연구자 또한 개인주의화를 중심으로 한 가치변화에 주목해 왔다. 그런데 장덕진(2017)의 연구에서 제시되듯이 한국은 여전히 강한 물질주의 가치를 공유해 서구에서 논의되는 제2차 인구변천에서 나타나는 가치관과 제1차 인구변천에서 나타난 가치관이 섞여 있다. 한국사회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실현된 '압축적 근대화'로 인해 가치관 또한 '압축적 가치 변동'을 경험해 왔기에 서구사회와

달리 단계적인 변화가 아니므로 제2차 인구변천으로 인한 가치변화로 한국의 출산율 하락을 서구사회의 경험과 맥락을 함께 해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포스트 모던 사회에서 벌어지는 가치 변화는 가족생활에 대한 전통적인 가치보다는 자아실현을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보다 개인주의적인 가치의 우선순위를 높여왔다. 반면 개인주의와 대비되는 가족주의 이념은 가족으로부터 해방된 개인을 지지하는 개인주의적 자유주의 이념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개인의 행복보다 가족을 위한 의무를 우선으로 하는 이념이다. Chang and Song(2010)과 장경섭(2011)은 가족주의가 강력한 한국사회에서 벌어지는 미혼, 만혼, 저출산에는 서구사회에서 경험한 탈가족화 현상에서 나타나는 뚜렷한 탈가족주의적 가치지향이 발견되지 않는 점을 강조해 '개인주의 없는 개인화(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로 규정했다. 은기수는 '아시아적 가족가치'라고도 명명한 '부계중심의 가족의식', '남성중심적', '상하수직관계'는 유교적 가족가치의 특징이며(은기수, 2009) '보수적', '전통적' 가족가치로 파악되는 이러한 가치 규범은 탈근대적 '개인주의'와 대비된다고 봤다(은기수・이윤석, 2005). 즉 서구의 '성평등'적, '개인주의'적 가치와 대비되는 동아시아적 가족가치 규범을 공유하고 있기에 동아시아의 출산율 하락은 '개인주의화' 가 아닌 '가족주의' 맥락에서 이해되어 왔으며 제2차 인구변천론에서 설명하기에 무리가 있다. 그런데 그렇다면 '개인주의'화가 진행되어도 저출산, '가족주의'가 강해도 저출산이라는 이론적 자기 모순에 빠져버리기에 '개인주의'-'가족주의'라는 이념으로 이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서구 사회가 가족변동의 원인으로서 특히 가치관 변동을 중요하게 다루어 출산율과의 관계에 대해 논의해 왔다면 한국과 일본 연구자들은 결혼 감소에 대해 주목해 왔다. 서구에서는 혼외출산이 늘어나고 더 이상 결혼과 출산의 관계가 정적인 관계를 가지지 못하기에 결혼 감소를 출산율 감소의 주요인으로 논의하지 않았음에 비해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출산이 오로지 결혼 제도 안에서만 이루어지기에 출산율 감소를 설명하기 위해 결혼 감소에 주목해 왔다. 이혼율, 초혼연령, 미혼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은 서구사회와 달리 혼외출산이 일어나지 않는다(Lesthaeghe, 2011; Ochiai, 2011). 혼외출산이 거의 없는 사회에서는 연령별 유배우율과 유배우 출산율이 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한국에서는 결혼의 감소가 출산의 감소를 야기했기에 출산율을 올리려면 미혼 및 만혼 추세를 방지해야

한다고 언급되어 왔고(이철희, 2012; 2018) 일본에서도 부부 완결출산아수는 2015년에 1.94명으로 1970년의 2.2명보다 하락은 했지만 여전히 결혼한 부부는 2명쯤의 자녀를 낳고 있어(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2015) 일본의 유배우 출산율의 저하와 만산화·미혼화 요인 비중은 3:7이라고 분석되고 있다(히로시마(廣嶋), 2000a; 2000b; 이야사와(岩澤), 2002). 또 일본에서는 오늘날 결혼신고의 1/4이 혼전 임신을 계기로 하고 있어 결혼과 출산의 관계가 강한 것으로 볼 수 있다(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 2015).

이상 재생산 위기를 둘러싼 기존 논의들을 보면 한국과 일본은 저출산 원인이 거의 유사하고 국제 비교 연구에서는 제도적, 형태적, 가치관 차원에서 늘 같은 유형에 속한다. 또 한국과 일본의 국내 연구동향을 보면 서구 선진국 사례를 준거대상으로 두고 서구의 경험적 연구에서 나오는 이론을 사용해 논의를 전개해 왔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큰 차이가 있는 사회와 비교하면 상이점이 눈에 띠고 그 차이가 생기는 요인에 대해 고찰하는 게 어려워진다. 예를 들어 서구와 비교하면 일본이나 한국의 실태 및 가치관은 '아시아적 특수성'으로 논의되기 십상이고 그 속의 차이가 잘 설명되지 못한다. 따라서 동아시아 속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같은 문화권인 사회의 비교연구가 필요하다. 요즘 '아시아의 가족과 젠더'의 공통점이나 다양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는 비교연구도 이루어져 왔으며(오치아이(落合)·야마네(山根)·미야사카(宮阪)편, 2007) 한일사회의 제도 비교연구 또한 그동안 많이 이루어져 왔다(예를 들어 도남희, 2019; 신윤정, 2015; 안현미, 2007; 조성호, 2015; 홍승아 외, 2018; 김(金), 2014; 소우마(相馬), 2012; 배(裵), 2012; 마츠에(松江), 2009). 많은 기존 연구에서 한일 출산율 하락 원인에 대해 서구의 개인주의와 대비되는 가족주의적인 가족제도나 보수적인 가족가치, 성별분업적인 노동시장 등의 공통점을 지적해 왔다. 아울러 한국의 연구자들은 일본이 먼저 저출산을 경험했기에 일본을 연구하는 것이 한국의 미래를 예측한다는 시각으로 연구해 왔다[5]. 그러나 기존

[5] 한국과 일본은 서구 사회에 비해 복지국가 체제 성립이 늦은 후발국으로의 특징이 있기에(안(安)·하야시(林)·신카와(新川), 2015) 한국의 연구자들은 '한국과 일본을 비교하는 가장 큰 이유는 일본에서 먼저 경험한 것들이 시간의 격차를 두고 한국에서도 나타나기 때문에 일본의 현재를 분석하는 것은 한국의 미래를 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고 보거나(조성호 외, 2017: 5), '각종 보육지원 정책의 내용과 양국의 노동시장 구조의 유사성 등을 감안할 때 일본의 과거가 우리 나라의 미래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시각(이철희·김규연, 2019: 12)으로 한국의 미래를 예측하기 위해 일본의 사례를 분석하여 비교 연구해 왔다. 그러나 후발 사회는 선발 사회의 변화를 단선적으로 따라서 성장하는

연구들이 한국과 일본에서 벌어지는 가족변동에서 가족주의의 어떤 성격 차이가 한국과 일본의 가족변동 속도 차이의 원인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존재하는 '출산율 하락 속도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서구 이론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온 가치관 변동 측면에 주목한다. 한국과 일본에서 가치관 변화에 주목한 연구들은 출산 감소를 초래한 결혼 감소에 대해서 한편으로는 결혼을 자발적으로 하지 않는다고 보고 또 한편으로는 경제적 이유로 못한다고 보는 이분법적인 시각으로 논의해 왔다. 한편에서는 여성의 자립으로 인한 주체적인 선택임을 강조해 결혼의 가치가 떨어졌다고 보고 다른 한편에서는 경제적 조건 부족으로 인해 결혼을 비자발적으로 못한다고 봤다. 그러나 결혼 및 출산을 둘러싼 가치 변화는 모든 여성들 사이에서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에 여성 간 차이에 주목해야 하며 결혼 및 출산을 못하거나(강제) 안하거나(의지), 기존의 이분법적인 시각을 넘어 실증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생각으로 개인주의-가족주의, 결혼 못함-안함, 출산 못함-안함, 성역할 분업지향-평등지향 등 기존의 이분법적인 시각을 넘어서서 이 문제에 대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 가족가치 체계의 복합적인 가치체계를 그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가치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고 가치관의 변화가 있다면 변화의 시점과 성격을 실증분석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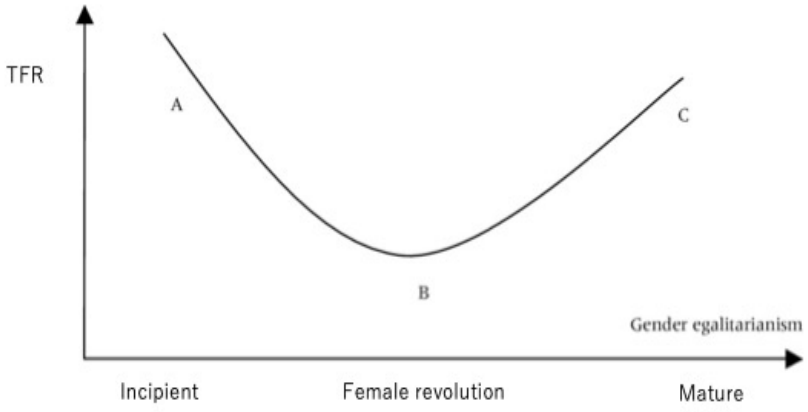
2) 젠더 평등 접근

한국과 일본이 형태적, 제도적 차원에서는 큰 차이점을 찾기 어려워 양국간에 존재하는 출산율 하락 속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각사회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가치변화에 주목하고자 하는데 앞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개인주의'로의 가치전환을 근거로 하는 제2차 인구변천 이론은 동아시아 상황에 적용해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것이 아니다. 선발 사회에서 여러 임팩트를 받으면서 본인 사회를 본인 노력으로 변용시켜 온 것이며 단선적인 척도로 측정하여 '발전되어 있다', '뒤떨어져 있다'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된다. 출산율 하락은 일본이 먼저 경험했으나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지 이미 20년이나 지났기 때문에 단순히 한국이 일본을 따라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연구에서는 서구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 온 또 하나의 가치변화인 성역할태도에 주목하고자 한다. 성평등적 접근에 따르면 저출산은 전통적 성별분업의 평형상태에서 성평등적 성별분업의 평형상태로의 전환기에 나타나는 현상이다(김영미·계봉오, 2015). 다음 〈그림 1-1〉에서 성역할태도와 출산율의 관계에 대해 확인해 보자.

〈그림 1-1〉 성역할태도와 출산율의 관계



자료: 자료: Esping-Andersen & Billari, 2015. p.9.

Figure1. Schematic Fertility Trend Over the "Female Revolution"

이 관점에서 보면 Becker(1981)의 성별분업 모델은 성역할이 균형을 잡은 상태(A)에 있어 '베커 평형(Becker Equilibrium)'이라고 부를 수 있다. Esping-Andersen(2009)의 의하면 1990년대 이후 서구사회는 '젠더평등 균형(Gender Equality Equilibrium)'의 도전을 받게 되었으며 베커 균형에서 벗어나고 '성평등 평형(Gender Equality Equilibrium)' 상태(C)로 향하는 이행과정(B)에서 출산율이 떨어진다. 즉 성역할 평등 지수와 출산율의 관계는 정적인 선형관계가 아니라 U자형을 그리고 분업상태에서 평등상태로 향하는 과정의 성역할 불균형 상태에서 출산율이 하락한다고 보는 것이다. Esping-Andersen and Billari(2015)는 '다중 평형(Multiple Equilibrium)'이라는 개념을 제시해 성역할에는 복수의 균형상태가 존재해 균형잡힌 역할 분업상태에서 성평등을 향하는 과정에서 불안정한 균형(규범적 혼란)이 나타나(B) 몇 가지 대체적인 다른 균형 상태가 새로운 안정적인

균형으로 자리를 잡기 위해서는 일정수준의 사람들 사이에서 새로운 가치규범이 지지될 필요가 있다고 가정했다.

McDonald(2000a; 2000b) 또한 성역할 평등수준과 출산율의 관계는 U자형을 가정했는데 그는 성역할태도는 공사영역으로 나눠봤을 때 같은 속도로 변하는 게 아니라 교육이나 노동시장에서 먼저 개인단위로 공적영역의 평등지향이 이루어지는데 비해 가정영역의 성역할 규범이 뿌리깊게 남아있어 변화의 속도가 늦은 사회 즉 공사영역의 가치변화가 불균형을 이루는 사회일수록 출산율이 매우 낮은 경향에 있다고 해석했다. McDonald(2013)는 젠더평등을 논의할 때 'Gender Equality'와 'Gender Equity'를 구별한다. 'Gender Equality'는 교육, 고용, 임금, 노동시장참여, 가사부담 등 결과가 남녀 사이에서 어떻게 다른지를 논의하는 것이라면 'Gender Equity'는 결과에 관계없이 공평성과 기회에 대한 인식에 관한 것으로 봤다. 이 입장에서 보면 영국이나 호주, 네덜란드 등 여성의 파트타임 비율이 높은 사회에서는 출산율이 비교적으로 높은데 '같은 노동시간'으로 인한 남녀불평등은 저출산으로는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하며 이러한 역할분업상태는 'Ggender Equality'라고 할 수 있으나 'Gender Equity'라고는 할 수 없다고 한다. 여기서 성역할평등과 출산율의 관계는 'Gender Equity'가 보다 관련성이 높은 개념이긴 하지만 공평성에 관한 인식은 사회마다, 커플마다 달라서 측정하고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기에 'Gender Equality'를 대리 변수로 사용해 비교연구해 왔다고 한다. 본 연구에서도 한국과 일본의 성역할과 성역할태도를 비교분석함에 있어 측정가능한 'Gender Equality'에 대해 다루고자 하며 여기서 McDonald가 언급하고 있는 'Gender Equity'는 Esping-Andersen(2009)이 제시한 '젠더평등 균형(Gender Equality Equilibrium)'의 개념과 맥을 같이 하고 있어 남녀가 맡은 역할이 균형잡혀 있는지가 출산율과의 관계를 해석하는데 중요하다고 본다. 즉 남녀평등의 모습이 국가별 맥락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상의 시각은 근대화에 따라 성역할이 분업에서 평등으로 이행해 가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미국의 젠더혁명이 왜 90년대에 들어 침체 혹은 미완으로 그쳤는가라는 문제의식을 제시한 Cotter, et al.(2011), 혁명이 절반만 이루어졌다고 보고 'Second Shift'라는 개념을 제시한 Hochschild(2012), '미완의 혁명(Incomplete Revolution)'이라고 표현한 Esping-Andersen(2009) 모두 근대화에 따라 성역할이 평등으로 이행해 가는 것인데 아직

완성되지 못한 채 진행 혹은 침체중에 있다고 보고 있다. 여기서 침체의 원인은 앞에서 살펴봤듯이 성역할 변화과정에서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 사이에서 속도와 양상이 다른 것에서 초래된다. 성역할태도 역시 여성이 임금노동에 참여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유의하게 진전되었지만 남성이 가사 및 돌봄노동을 함께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는 정체되고 있다(England, 2010). 따라서 젠더혁명의 1단계는 여성의 생산활동 참여가 증가하는 것이며 2단계는 남성의 재생산활동 참여 증가를 통해 완성된다(Goldscheider, Bernhardt, and Lappegard, 2015). 가치관 뿐만 아니라 형태적 차원에서도 변화는 여성이 주도해 왔다. 남성이 무급노동으로 진입하는 대가가 여성이 유급노동으로 진입하는 대가보다 작기 때문이라고 여겨지는데 젠더혁명은 미국 및 유럽에서도 아직까지 완성되지 못했다. Cotter, et al.(2011)은 젠더혁명이 완성되지 못하는 이유를 '젠더 본질주의(Gender Essentialism)'의 지속에서 찾는다. 성평등으로 향하는 도중에 남자와 여자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젠더본질주의적인 가치와 충돌을 일으키기 때문에 혁명은 침체 혹은 미완으로 그쳤다고 본다. 이 시각은 젠더 평등을 보편적인 종점으로 두고 여기까지 도달 못하는 이유를 정지 혹은 일시적인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가치관의 선형이동을 전제로 한 시각에 대한 반박으로 Knight and Brinton(2017)는 젠더역할은 평등주의라는 하나의 형태로 수렴되는 게 아니라 다양한 상태의 평등주의가 존재한다고 주장해 아직까지 어떤 나라에서도 젠더혁명이 완성되지 못한 이유는 정지나 침체가 아니라 평등주의의 평등 성격 자체가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 때문이라고 봤다. 그들은 유럽 17개국을 대상으로 성역할태도의 거시적인 변화를 비교분석하여 그 속의 복잡한 다원성을 파악하기 위해 LCA분석을 한 결과 유럽 17개국에는 1.자유주의적 평등주의(Liberal Egalitarian), 2.평등주의적 가족주의(Egalitarian Familism), 3.유연한 평등주의(Flexible Egalitarian), 4.전통(Traditionalism)의 네 가지 차원의 성역할 유형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리고 전통적인 요소와 평등주의적인 요소가 결합된 가치 규범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가치규범이고 평등주의로의 이행이 침체된 '과도기'라고 본 Hochschild(2012)와 '침체(stalled)'로 보고 전통적인 가족주의와 페미니스트의 평등주의 요소가 결합된 상태로 본 Cotter, et al.(2011)를 비판해 평등주의로의 경로는 직선적인 경로가 아니라 그 경로 또한 다양하다고 봤다. 따라서 젠더평등주의를 추구하는 것이 젠더 본질주의를 부정하는 게 아니고 침체된 가치가

발견되었다면 그 상태가 젠더 평형을 이룬 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치관은 단지 하나의 형태로 수렴되는 것이 아니기에 젠더 평등주의와 젠더 본질주의가 함께 공존할 수 있어서 성역할태도는 같은 국가 내에서도 또한 나라마다 다양한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에서 젠더혁명이 공적 영역과 사적영역에서 진도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주목해 「GSS」자료를 사용해 1977년부터 2014년 사이의 변화를 연구한 Ray(2017)와 같은 자료와 수법으로 2016년까지 분석대상을 확장시킨 연구(Scarborough. et al., 2019)에서도 Cotter, et al.(2011)의 평등주의와 본질주의가 결합된 새로운 문화적 틀이라는 주장을 기각했다. 그는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젠더 본질주의적 태도가 증가해 마치 젊은 세대 전체에서 그러한 가치규범이 확산된 것처럼 해석한 오류를 지적해 평등주의적 본질주의 가치를 공존한 사람이 예전부터 일정 수준 있었으나 그 비율만이 시간 경과와 함께 변화되었다고 봤다. 잠재집단분석(Latent Class Analysis. 이하 LCA)을 이용해 성역할태도를 분석한 기타 연구에서도 공사영역을 포함해 가치규범이 평등주의적인 측면과 본질적인 측면이 공존할 수 있으며 단지 하나의 평등형태로 수렴되어 가는 것은 아니라는 견해와 같이 한다(Brinton & Lee, 2016; Grunow, D., Begall, K., & Buchler, S. 2018).

그러나 한국과 일본의 상황을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성격이 여전히 M자를 그리는 것으로 공적영역에서의 젠더혁명도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이해되기에(젠더 혁명의 1단계) 젠더 혁명의 2단계인 가정 영역에서의 젠더 평등이 왜 침체하는지에 대해 논의하는 서구 상황과는 거리가 있다. 그러나 아직 형태적 차원에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더라도 가치관 차원에서는 일어나고 있을 수도 있다.

3) 젠더 본질주의의 지속과 성역할태도 유형 분류

해당 사회의 전반적인 성역할 가치규범을 이해하는 것은 그 사회의 젠더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젠더 시스템이란 사회적 및 문화적으로 구축된 여성 및 남성의 행동을 둘러싼 가치규범의 총체를 가리키며 이것으로 인해 젠더 역할이 규정된다(사토우(佐藤)·카네코(金子), 2016: 136). 한국과 일본의 전통적인 젠더 시스템은

경제활동이 남성의 역할인 반면 가정 역할은 여성의 책임으로 성별로 인한 역할 분업을 엄밀히 규정해 왔다. 젠더 시스템은 또한 성별로 인한 계층으로서 많은 사회에서 제도화되어 있어(Mason and Lu, 1988: Mason, 1995) 이러한 의미에서 성역할규범은 남녀의 역할이나 지위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사회제도의 일부라는 성격을 지닌다. 따라서 남녀의 사회적 지위나 역할로서의 젠더 규정 요인을 몇가지 변수만 가지고 분석하는 한 문화적 배경이나 제도적 측면을 포함해 그 사회의 젠더 체계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렵다. 그 사회의 젠더 질서와 그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변화가 가장 현저하게 나타나는 사회현상의 측면을 복수 선정하여 대표성 있는 대규모 데이터를 사용해 성별, 세대별로 그 가치 규범을 비교 분석해야 하며 그 분석 결과의 의미를 문화적 배경까지 포함한 사회경제적 배경과 함께 해석해야 한다.

그런데 가치관 비교에 관한 기존의 많은 연구에서는 한 가지 혹은 몇 가지의 단면적인 지표를 가지고 그 지표의 '평균값'을 구해 거시적인 시각에서 한국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언급해 왔다(예를 들어 백주희, 2009; 은기수, 2009; 김영미·류연규, 2016; 김영미·계봉오, 2015;원숙연, 2013; 2015). 구체적으로 한국의 가치관이 국제사회에서 진보와 보수, 평등과 전통 사이에서 어느 위치에 있는지, 몇 가지 지표의 '평균값'을 산술해 이분법적인 가치 사이에서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 주로 검토되었다. 이러한 분석은 그 나라의 특징이 진보와 보수 혹은 전통과 평등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속의 가치관의 복잡한 양상을 파악할 수는 없다.

성역할태도는 다원적인 가치 구성물이다(야마토(大和), 1995).

김영미·계봉오(2015)는 여성들의 선호와 실현가능성의 관계에서 한국의 저출산을 설명하기 위해 국제사회인식조사(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이하 ISSP) 2012 자료를 사용해 38개국과 한국을 비교하였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사용한 성역할태도 지표는 '남성의 일은 돈을 벌어 생계를 유지하는 것, 여성의 일은 집안 일을 돌보는 것'이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한 찬반 의견으로 전통과 평등의 이분법 구분을 한 지표를 만들고 국가별로 비교했는데 단 하나의 문항으로 성역할태도에 대한 가치 및 그 나라의 위치를 평가하는 것은 아주 단면적인 가치 판단이라고 본다. 또 대부분의 국제 비교연구에서는 세대 차이를 고려하지 않고 그 나라의 평균값을 사용해 비교하고 있는데 한국처럼 압축적 근대화를 이루어 세대차이가 큰 사회를 연구할 때는 평균값에서 요즘

변화 추세가 사라져 버리기에 여전히 한국이 보수적인 나라라는 평범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 여성들이 맡고 있는 성역할과 가족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단 하나의 문항으로는 판단할 수 없고 몇가지 문항을 사용해도 평균값 비교에서는 가치의 복합성을 보지 못해 오로지 진보와 보수, 전통과 불평등의 이분법 사이 어디에 있는지 밖에 검증하지 못한다.

요즘 들어 성역할은 나라의 발전단계에 따라 전통에서 평등으로 단순히 이동하는 게 아니라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서도 변화 속도가 다르고 나라마다 다양한 가치규범이 얽혀 있기에 선형적인 변화과정을 밟는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성역할태도 또한 다원적인 가치관의 집합이기에 문항마다 전통지향과 평등지향이 공사영역에서 다르게 나타나므로 최근 연구들은 어느 위치에 있다는 평균값 비교가 아니고 잠재집단분석(LCA)을 통해 유형화시키고 파악하려고 한다(Brinton & Lee, 2016; Knight & Brinton, 2017; Ray, 2017; Grunow, D., Begall, K., & Buchler, S. 2018; Scarborough, William, Ray, and Barbara, 2019).

〈표1-2〉는 이때까지 이루어 온 성역할 태도에 대한 잠재집단 분석에서 사용한 분석자료와 분석지표 그리고 분석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표를 통해 기존연구에서 어떤 자료를 사용하여 각국의 성역할태도를 유형화시켜 국제비교해 왔는지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기존연구의 지표와 유형을 참고로 하여 유형 이름을 명명했다. 가장 먼저 성역할태도를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유형화시킨 연구자는 야마구치(山口, 1999)이다. 그는 1995년 일본 「SSM(Social Stratification and Social Mobility)」 자료와 1980년 미국 「Marital Instability over the Life Course Data」를 사용해 일본과 미국의 성역할태도를 유형화시켰다. 이 연구에서는 일본이 「성별역할지지형」, 「성별평등지지・직업지향형」, 「성별평등지지 ・ 비직업지향형」의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고 세 번째 유형인 「성별평등지지・비직업지향형」 유형이 전후 일본에서 증가한 유형이라고 분석했다. 두 번째 유형인 「성별평등지지・직업지향형」은 전체의 10%에 불과했다.

성역할태도 유형과 출산율의 관계를 연구한 Brinton and Lee(2016)는 「세계가치관조사(WVS)」 2000년 자료를 사용해 한국과 일본을 '노동지향적-보수(Pro-work Conservative)'라는 같은 유형에 묶고 아시아 국가들은 여전히 가족주의적인 가치관을 지니고 남녀의 성역할 분업을 지지하면서 여성의 경제적 기여 책임이 강하다는

점을 특징으로 지적했다. 그러나 이 연구결과는 일본 여성의 성역할태도는 '성별평등지지·비직업지향형' 유형에 많이 속한다고 보고한 야마구치(山口, 1999)의 결과와 대조적이다. 그런데 Brinton and Lee(2016)의 연구는 2000년 자료를 사용하고 있어 오래된 정보라 업데이트가 필요하다는 점과 24개국이라는 많은 국가를 연구대상에 놓고 분석했기에 한국과 일본이 서구 국가에 비해 공통점이 도출되기 십상이고 같은 유형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 LCA 또한 LPA와 마찬가지로 문항마다 사람의 대답 패턴을 묶고 같은 응답을 하는 사람들을 유형화한다.[6] 따라서 국제비교연구에서는 다양한 나라 전체의 값을 모집단으로 하기에 실제로는 국가간 차이가 있더라도 비교적 비슷한 가치지향을 갖는 나라를 같은 유형으로 묶기 때문에 미시적 국가간 차이는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공통점이 부각된다. 나아가 연령 차이와 성별차이라는 국가내 집단 차이는 고려하지 않고 단지 그 나라 전체를 거시적인 시각에서 어떤 패턴을 보이는지를 비교분석한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으로는 그 나라 속에 있는 다양한 집단들이 보유하는 다양한 양상까지는 비교하지 않는다. 비교하는 국가가 늘어날수록 단순화시켜 연구를 해야 하기에 내부의 다양성까지 보지 않는 것은 당연할 수도 있지만 한국 같은 압축적 사회변화를 경험해 세대마다 경험해 온 생애과정에 큰 차이가 나는 사회에서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가치관 또한 크게 나타나는 것이 예상되는데 거시적 지표에서는 젊은 세대에서 변화가 있더라도 기성세대의 보수적인 성향과 상쇄되어 지표에 나타나지 않는다. 따라서 서구에 비해 압축적 근대화를 이루어온 동아시아 속 가족주의 그 자체를 세분화하여 이해하려면 거시적인 국제비교 뿐만 아니라 미시적인 내부의 집단 차이까지 포함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국내에서는 채민진(2019)이 문제의식을 함께 하고 한국의 2,30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와의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그러나 이 연구는 모집단을 2,30대로 한정했기에 기성세대에 비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비교가 불가능하다. 또 한국만을 분석대상으로 했기에 그것이 과연 한국의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는지도 확신할 수 없다. 그럼에도

[6] LCA가 분석자료의 문항을 이항 변수로 코딩해 분석한다면 LPA는 연속변수로 취급해 분석한다. 문항이 4단계로 설계되어 있으면 이항 변수로 코딩해 분석하는 경우가 많고 5단계로 설계되어 있으면 연속변수처럼 취급해 분석할 수도 있다. 잠재가치구조를 도출하는 원리는 같고 결과도 유사하게 나온다. 본 연구에서는 '강하게 찬성'과 '찬성',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 그리고 '강하게 반대'와 '반대'의 차이를 분명하게 구별해 분석하기 위해 5단계 척도를 살려 KPA를 실시했다.

불구하고 이 연구는 공사영역을 포함한 다양한 문항을 사용해 한국의 2,30대 일부의 성역할태도가 규범적 맥락으로부터 급진적 변화를 일으켰다는 점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결혼가치와의 관계를 분석했다.

마지막으로 이때까지 기존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만 분석하거나 결혼가치만 비교하거나 또는 자녀가치만 비교분석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성역할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도 성역할태도와 TFR지표를 사후 연구로 연결시키고 분석하고 있다. 성역할태도와 출산의 관계를 중요시하게 논의해 왔으나 이 두 가지 가치관에 대해서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고 분석하지 않았다. 대부분 성역할, 결혼가치, 자녀가치를 따로 따로 분석해 왔으며 같은 자료를 사용해 이 세 가지 가치관의 관계에 대해 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한 국제 비교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한국과 일본의 성역할태도, 결혼가치, 자녀가치에 대해 다루어 몇 가지 가치 지표의 평균값을 구해 그 나라의 위치를 거시적인 시각으로 비교한 연구가 대부분일 뿐 그 나라 속의 다양성(내부집단 차이)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과연 한국과 일본의 '가족변동 속도' 차이는 어떤 가족가치 변화 측면에서 찾을 수 있을까? 결혼가치와 자녀가치는 서로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가치관일까? 그것이 성역할규범과는 어떤 관계를 맺는가? 젠더 평형 상태(젠더 분업 혹은 젠더 평등)에 있는 사람이 결혼이나 자녀가치 또한 이중부담적인 가치를 내포하는 개인보다 높게 평가되는가? 나아가 성평등 지향과 결혼가치의 관계는 어떠한지, 또 자녀가치과의 관계는 어떤지, 그러한 양상에 한일 차이가 있는지, 각각 따로 논의되어 온 가치관에 대해 그 관계를 체계적으로 이해해 실증적으로 밝히는 게 이 연구의 목표이다.

이상 기존 연구의 연구결과와 한계를 염두에 두고 본 연구에서는 서구 중심의 기존 연구에서 늘 같은 유형, 배경으로 설명되어 온 한국과 일본을 자세히 비교하는 것으로 보다 세부적인 차이까지 살펴보도록 한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가족변동을 일으키는 주체인 젊은 세대에 주목하여 다른 세대와 비교하는 것으로 어떤 세대에 어떤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지, 세대 간 차이에 주목할 뿐만 아니라 세대 내부의 차이에도 주의를 기울인다. 한국인이 하나의 집단이 아닌 것처럼 여성 또한 하나의 집단이 아니며 젊은 세대 또한 하나의 집단이 아니다. 가치관 또한 성역할태도가 어떤 지표에서 평등지향인 사람이 다른 나머지 모든 지표에서도 일관하게 평등지향적인 태도를 나타내지 않을 수도 있다. 지표마다 분업지향적인 태도와 평등지향적인 태도가 섞여 나타날 수도 있으며

공사영역에 따라 변화의 속도가 다를 수도 있다. 나아가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 자녀가치 관계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가치규범을 내재할 수도 있어 성역할태도는 분업지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자녀가치에 대해서는 자녀가 불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본 연구의 목표는 그러한 각 가치관의 복잡하고 동태적인 양상을 그대로 파악하고 기술하기 위해 양국을 비교하는 데 있다.

〈표1-2〉 성역할 태도 LCA분석 기존 연구 정리

Auther	Thesis Title	Data	LCA Variables	LCA Class
山口一男(1999).	기혼여성의 성별 역할 의식과 사회계층: 일본과 미국의 공통성과 차이성에 대하여.	SSM 1995 Data(Japan), Marital Instability over the Life Course(1980) Data(U.S.A)	일본:	
			1.남자는 밖에서 일하고 여자는 가정을 지켜야 한다.	
			2. 남자와 여자는 다르게 키워야 한다.	「성별 역할 지지형」
			3.가사나 육아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더 적성이 있다.	「성별 평등 지지・직업 지향형」
			4. 전업주부라는 일은 사회적으로 유의의하다.	「성별평등지지・비직업지향형」
			5. 여자도 본인 직업 생활을 중시한 생활을 해야 한다.	
			6. 전업주부는 밖에서 일하는 여성보다 많은 점에서 혜택 받고 있다.	
			미국:	
			1. 여성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은 육아에 있다.	
			2. 남편은 처보다 많은 수입을 얻어야 한다.	
			3.처의 업무상 외박에 대해 남편은 신경 쓰면 안된다.	「성별역할지지・양립부정형」
			4. 남편이 가계를 지원할 수 있다면 처는 직업을 가질 필요가 없다.	「성별역할 지지・양립긍정형」
			5. 유업의 어머니도 전업주부와 같은 좋은 모자 관계를 가질 수 있다.	「성별평등지지형」
			6. 처가 유업이라도 남편은 가계에서, 처는 가사 육아에 주된 책임이 있다.	
Yamaguchi, Kazuo(2000).	Multinomial logit latent-class regression models: An analysis of the predictors of gender-role attitudes among Japanese women.	SSM 1995 Data(Japan), Marital Instability over the Life Course(1980) Data(U.S.A)	1. Men should work outside the home and women should maintain the home.	Traditional Gender Role Supporters
			2. Men and women should be brought up in different manners.	Prowork Gender-Equliaty Supporters
			3. Women are more suited for household work and child rearing than men are.	
			4. Through their family roles, fulltime housewives make valuable contributions to society.	Antiwork Gender-Equality Supporters
			5. Work life should be an important element of life for women just like for men.	
Mary C. Brinton and Dong-Ju Lee(2016).	Gender-Role Ideology, Labour Market Institutions, and Post-industrial Fertility.	World Value Survey, 1990-1994(the second waves) ; 1995-1998(third waves) ; 1999-2004(fourth waves)	1. When jobs are scare, men should have more right to a job than women.	Traditionalism
			2. A women have to have children to be fulfilled.	
			3. A pre-school child suffers with a working mother.	Pro-work conservative
			4. What women really want is a home and children.	
			5. Having a job is the best way for a woman to be an independent person.	Flexible Egalitarian
			6. Both the husband and wife should contribute to household income.	
			7. A working mother can establish just as warm and secure a relationship with her children as a mother who does not work.	Full Egalitarian
			8. Being a housewife is just as fulfilling as working for pay.	
Ray Sin(2017).	The Emergence and Persistence of Gender Ambivalence: A Latent Class Analysis from 1977-2014.	General Social Survey, 1977～2014	1. Women in Public Offices: Most men are better suited emotionally for politics than are most women	Pro-work Strong Traditionals
			2. Family Social Roles: It is much better for everyone involved if the man is the achiever outside the home and the woman takes care of the home and family.	Pro-work Traditionals
			3. Working Motherhood (Child): A working mother can establish just as warm and secure a relationship with her children as a mother who does not work.	Egaritalian
			4. Working Motherhood (Preschool Child): A preschool child is likely to suffer if his or her mother works.	Strong Egaritalians

Knight, Carly R., and Mary C. Brinton(2017).	One egalitarianism ore several? Two decades of gender-role attitude change in Europe.	World Value Survey ; European Value Survey. Wave 2(1990-1992), wave 4(1999-2000), wave 6(2012).	1. When jobs are scare, men should have more right to a job than women.	Liberal Egalitarianism
			2. A women have to have children to be fulfilled.	
			3. A pre-school child suffers with a working mother.	
			4. What women really want is a home and children.	Egalitarian Familism
			5. Having a job is the best way for a woman to be an independent person.	
			6. Both the husband and wife should contribute to household income.	3. Flexible Egalitarianism**
			7. A working mother can establish just as warm and secure a relationship with her children as a mother who does not work.	Traditionalism
			8. Being a housewife is just as fulfilling as working for pay.	
Scarborough, William J., Ray Sin, and Barbara Risman(2019)	Attitudes and the stalled gender revolution: Egalitarianism, traditionalism, and ambivalence from 1977 through 2016.	General Social Survey, 1977~2016	1. Women in Public Offices: Most men are better suited emotionally for politics than are most women	Pro-work Strong Traditionals*
			2. Family Social Roles: It is much better for everyone involved if the man is the achiever outside the home and the woman takes care of the home and family.	Pro-work Traditionals*
			3. Working Motherhood (Child): A working mother can establish just as warm and secure a relationship with her children as a mother who does not work.	Egaritalian
			4. Working Motherhood (Preschool Child): A preschool child is likely to suffer if his or her mother works.	Strong Egaritalians
Grunow, Daniela, Katia Begall, and Sandra Buchler(2018).	Gender ideologies in Europe: A multidimensional fram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0(1): 42-60.	2008 European Values Study	1. A working mother can establish just as warm and secure a relationship with her children as a mother who does not work.	Egalitarian
			2. A preschool child is likely to suffer if his or her mother works. (reversed)	Egalitarian Essentialism
			3. Being a housewife is just as fulfilling as working for pay. (reversed)	
			4. A job is alright, but what most women really want is a home and children. (reversed)	Intensive Parenting
			5. Both the husband and wife should contribute to household income.	Moderate Traditional
			6. In general, fathers are as well suited to look after their children as mothers.	
			7. Men should take as much responsibility as women for the home and children.	Traditional
최민진(2019).	한국 2,30대 남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 인식.	한국종합사회조사, 2016	1. 불경기에 남자보다 여자를 우선적으로 해고해도 괜찮다.	전통
			2. 아내는 자신의 경력을 쌓기 보다는 남편이 경력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더 중요하다.	
			3. 남자가 하는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이중역할
			4. 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하면 가정 생활은 상당히 어려워진다.	
			5. 어머니가 취업하면 취학 전 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평등
			6.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도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Pro-work Traditional 는 'Pro-public Ambivalent'(William J. Scarborough and Ray Shin, 2019) , 'Egalitarian Essentialism'(Cotter, Hermen, Vanneman, 2011; Pepin and Cotter, 2018), 'Gender Ambivalence'(Ray Shin, 2017), 'Egalitarian Familism'(Carly R. Knight and Mary C. Brinton, 2017), 'Egalitarian Essentialist'(Charls and Grusky, 2004)과 함께 진보적인 측면과 보수적인 측면을 동시에 내포하는 집단을 가리킨다. 본 연구에서는 일본의 '전업주부지지-평등(Pro-housewife Egalitarian)', 한국의 '이중부담(Double Burden)'이 비슷한 유형이라 볼 수 있다.

** Essentialism (Cotter et al, 2011)과 비슷한 유형.

3절. 논문의 구성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문제제기에 대해 논의하고 본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기존연구 논의를 검토한 후 논문 구성에 대해 소개한다.

2장에서는 본 연구의 시각과 분석전략 그리고 방법론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다.

3장에서는 통계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가족 형성을 둘러싼 한일 양상 차이에 대하여 기술한다. 그리고 경제 위기 이후 양국의 청년을 감싸고 있는 환경 변화에 대해 기존연구와 통계자료를 사용해 검토하여 오늘날 가족변동을 일으키는 주체인 청년세대가 놓여져 있는 상황 차이를 비교한다.

4장에서 6장까지는 ISSP 2012년도 자료를 사용해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나타난 연구결과를 기술한다. 먼저 4장에서는 성역할태도에 대하여 한일 각각 유형화 시키며 유형의 특징과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사람 비율을 코호트별, 성별로 나누어서 비교한다. 다음 분석에서는 각 유형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본 연구의 독립변수는 국가, 코호트, 성별이며 기존연구를 참고로 하여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진 이하의 변수-교육수준, 수입, 혼인상태, 어린 시절 어머니 취업 여부-를 통제하였다. 회귀분석의 결과 어떤 변수들이 양국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지도 비교분석한다.

5장에서는 4장에서 실시한 자료와 분석방법으로 결혼가치에 대해서 분석한다. 한국과 일본 각각의 결혼가치에 대해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유형을 도출한 후 코호트별, 성별로 각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의 비율 차이를 살펴본다. 그 다음에 같은 방법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한국과 일본의 결혼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특징을 비교분석한다.

6장에서는 4장과 5장에서 사용한 자료와 분석방법으로 자녀가치에 대한 분석을 한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자녀가치 유형을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유형을 도출한 후 코호트 및 성별로 각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의 비율과 그 변화 양상을 비교한다.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회귀분석을 통해 한국과 일본사람들의 자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특징을 비교분석한다.

7장에서는 4장에서 6장까지의 분석에서 도출된 한국과 일본의 성역할태도, 결혼가치, 자녀가치에 대한 유형에 대해 유형간 관계를 분석한다.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의 관계,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의 관계, 결혼가치와 자녀가치의 관계에 대해 유형간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 교차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밝힌다.

마지막 8장에서는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여 연구의 의의와 함의에 대해 논의한다. 그리고 이상의 한일 가족가치 양상차이와 변화의 방향에 대하여 2장에서 논의한 한일 청년이 놓여져 있는 구조적, 제도적, 형태적 차이와 본연구에서 나타난 가치관의 관계에 대해 총합적인 이해를 시도하며 마지막으로 연구의 의의와 한계에 대해 논의한다.

제2장. 연구 시각과 방법론

1절.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

1) 분석 자료

연구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국제사회인식조사(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2012년도 자료를 분석 자료로 사용한다. 그리고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데 있어서 보조자료로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이하 WVS) 1990년도에서 2010년도까지의 분석결과를 사용한다. 아울러 한국과 일본의 각종 국가 통계도 해석에서 사용한다.

먼저 주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ISSP의 2012년 모듈인 「가족과 변화하는 성역할(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에 관한 조사 자료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이 자료는 유럽, 북미, 중남미, 아시아, 호주 등 37개국의 전국적 대표성을 갖는 무작위 가족단위 표본으로부터 가족 구성, 가족 내 자원 분배, 성역할 이데올로기, 결혼가치, 자녀가치, 양육태도 등 가족과 젠더 관련 정보를 수집한 자료이다(ISSP Research Group, 2014). ISSP는 개인의 결혼, 자녀, 성역할에 관한 인식 정보를 제공해 주는 대표적인 국제비교 데이터셋으로 알려져 있고 '가족과 성역할 변화' 모듈은 1988, 1994, 2002, 2012년 네 차례에 걸쳐 조사되었으며 2012년 자료가 최신자료이다. 일본은 1994년부터 이 조사에 참여했고 한국은 2012년부터 참여했다. 다만 한국의 「한국사회종합조사(Korean General Social Survey: 이하 KGSS)」 2003년의 조사는 ISSP 2002년과 비교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어 같은 문항을 사용하고 2002년도 ISSP자료와 비교분석이 가능하다. 그런데 ISSP 2002년 자료에는 본 연구 관심인 자녀가치에 대한 문항이 없고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에 대한 문항만 분석할 수 있어 본 연구에서는 ISSP 2012년 자료를 주 분석자료로 삼았다. 「ISSP」 2002년 자료와 「KGSS」 2003년 자료도 함께 사용해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에 대해 2012년 자료와의 비교도 시도했으나 2002년 분석 결과는 유형 및 가치관 변화 측면에서도 2012년 결과와 큰 차이가 없어 본 연구에서는 2012년 자료만 다루도록 한다.

이 연구에서 밝히고자 하는 종속변수는 한국과 일본 여성에게 부과된 가족 역할 유형이며 그것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를 국가, 코호트 그리고 젠더로 보고 분석한다. 먼저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국가 간 비교를 한 다음에 코호트 분석을 통해 어느 코호트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하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Inglehart와 동료들은 사람은 일단 성인이 되고 나면 가치관이 별로 변하지 않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는 연령효과(Age Effect)보다 세대교체에 의한 코호트효과(Cohort Effect)에 의해 더 크게 초래된다고 보고 있다(Inglehart et. al. 2005). 실제로 예비 분석에서 2012년 자료 분석에 앞서 10년 전인 2002년 자료도 분석해봤는데 2012년도 자료의 연구결과와 비교해 봐도 연령효과보다 코호트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즉 10년 전과 10년 후를 비교해 봐도 출생 코호트에 따라 가치관 변화가 다르며 그 집단 간에서 10년 후 가치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예를 들어 사람이 20대에서 30대에 걸쳐서 어떤 가치변화가 일어난다기 보다는 언제 태어났는지에 의한 세대 집단에 따라 가치관 차이가 큰 것을 의미한다. 이 점을 논의하기 위해 국제사회인식조사(ISSP: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이하 ISSP) 2012년도 자료를 주 연구자료로 이용해 양국의 가족 역할 관련 가치관-성역할규범, 결혼가치, 자녀가치-에 대해 각각 잠재집단분석(LPA)을 통해 유형화시키고 양국의 가족가치에 대하여 다음 세 가지 측면(종속변수 1. 성역할규범 유형, 2. 결혼가치 유형, 3. 자녀가치 유형)에 대한 유형을 도출한다. 그리고 성별, 코호트별로 해당 유형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아가 같은 코호트 내부에서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함께 분석한다(독립변수1. 한국과 일본, 2. 코호트, 3. 성별).

보조 자료로 세계 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이하WVS)의 1990년, 1995년, 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6차 조사) 자료를 사용한다. 이 조사는 시계열로 가치관 이행을 분석할 수 있어 ISSP 2012 이전의 가족가치에 대한 관련 질문 중 같은 질문과 조금 다르게 묻는 질문을 모두 사용해 주자료로 사용하는 ISPP 2012연구결과의 해석을 보완하기 위해 사용한다. 한국인과 일본인의 가족가치 규범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 동일하게 묻는 질문에서도 연구결과와 같은 경향이 확인되는지, 다르게 묻는 문항에서도 일관성 있는 태도가 확인되는지에 대해 보조자료로 사용한다. 이 자료는 Wave1(1981-1984), Wave2(1990-1994), Wave3(1995-1998), Wave4(1999-2004), Wave5(2005-2008), Wave6(2010-2012)까지 여섯 번의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Wave1은

한국이 1982년도, 일본이 1981년도에, Wave2는 한국과 일본 모두 1990년도에, Wave3은 한국이 1996년, 일본이 1995년도에, Wave4는 한국이 2001년, 일본이 2000년도에, Wave5는 한국과 일본 모두 2005년도에, Wave6은 한국과 일본 모두 2010년도에 조사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에서 발표된 각종 국가 통계도 보조자료로 함께 사용한다.

2) 분석 변수

주 분석자료인 ISSP 2012 자료에서 본 연구의 주 관심은 한국과 일본의 성역할태도, 결혼가치, 자녀가치에 대한 비교이기에 먼저 37개국 중 한국과 일본을 연구 대상으로 뽑았다. 한국과 일본의 여성이 맡고 있는 가족 역할과 선호를 이해하는 것은 각 나라의 젠더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를 성역할태도, 결혼가치, 자녀가치의 세 가지 측면에서 파악한다. 따라서 종속변수는 1. 성역할태도에 관한 일곱 가지 문항, 2. 결혼가치에 관한 네 가지 문항, 3. 자녀가치에 관한 여섯 가지 문항이고 문항에 대한 대답 패턴에 따라 사람들을 묶고 유형화시킨다. 문항에 대한 대답은 매우 찬성(1점)에서 매우 반대(5점)의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인 가치규범을 갖도록 코딩했다(1=strongly agree ~ 5=strongly disagree). 문항은 다음과 같다.

① 성역할태도: 사용 변수 7문항

1: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도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A working mother can establish just as warm and secure relationship with her children as a mother who does not work). (Reverse coded)

2: 어머니가 취업하면 취학전 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A Preschool child is likely to suffer if his or her mother works).

3: 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하면 가정생활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All in all, family life suffers when the woman has a full-time job).

4: 여성이 취업하는 것도 괜찮으나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 머무르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A job is all right, but what most women really want is a home and children).
5: 전업주부가 되는 것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다(Being a housewife is just as fulfilling as working for pay).
6: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Both the man and woman should contribute to household income). (Reverse coded)
7: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A Men's job is to earn money, a women's job is to look after the home and family).

② 결혼가치: 사용 변수 4문항
1: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Married people are generally happier than unmarried people).
2: 아이를 가지려면 결혼하는 것이 좋다(People who want children ought to get married).
3: 결혼 안하고 같이 사는 것도 괜찮다(It is all right for a couple to live together without intending to get married). (Reverse coded)
4: 결혼생활에 어려움이 있다면 이혼하는 게 해결책이다(Divorce is usually the best solution when a couple can't seem to work out their marriage problems). (Reverse coded)

③ 자녀가치: 사용 변수 6문항
1: 아이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다(Watching children grow up is life's greatest joy).
2: 아이는 부모의 자유를 방해한다(Having children interferes too much with the freedom of parents). (Reverse coded)
3: 자식을 가지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크다(Children are a financial burden on their parents). (Reverse coded)
4: 아이를 가지면 부모의 커리어 기회가 제한된다(Having children restricts the employment and career chances of one or both parents). (Reverse coded)
5: 아이가 있으면 사회적 지위 상승에 도움이 된다(Having children increases people's

social standing in society).
6: 성인이 된 아이는 노후 생활에 중요한 도움을 주는 존재다(Adult children are an important source of help for elderly parents).

보조 자료로서 성역할태도의 시계열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세계가치관조사(World Value Survey, 이하 WVS) 자료에 대한 설명도 하자. 이 자료는 시계열로 가치관 이행을 분석할 수 있어 ISSP 2012년도 자료 이전의 가족가치에 대한 관련 질문 중 같은 질문과 다르게 묻는 문항에 대해 한국인과 일본인의 가치 규범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보조자료로 사용한다. 사용하는 문항은 다음과 같다. 이 자료에서도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인 태도를 나타내도록 코딩을 했다. 이하 문항은 매우 찬성(1점)에서 매우 반대(4점)의 4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① 전업주부가 되는 것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다(Being a housewife is just as fulfilling as working for pay).
②대학교육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University is more important for a boy than for a girl).
③어머니가 취업하면 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When a mother works for pay, the children suffer).
④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Husband and wife should both contribute to income). (Reverse coded)
⑤남자가 여자보다 우선적으로 일을 할 권리가 있다(Men Should have more right to a job than women).

3) 분석 방법

(1) 분석 전략

연구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다음 분석적 전략을 선택한다. 먼저 이론적으로는 가치관이 전통에서 진보로 향해 선형 이행해 간다는 이분법적 시각을 넘으려고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지표(Index)에서 하나의 지표를 작성하여 그 값을 사용해 한국과 일본이 각각 진보와 보수 사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취하지 않는다. 사람의 가치관은 지표에 따라 한 사람 안에 전통적인 측면과 진보적인 측면이 동시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같은 성역할태도에 대해 측정하는 지표에서도 몇 가지 지표가 있다면 모든 지표에서 일관되게 비슷한 가치관을 내재하는 게 아니라 지표마다 진보적인 측면과 보수적인 측면이 동시에 다양하게 내재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며 여자가 하는 일은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문항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하면서도 '여성이 취업하는 것도 괜찮으나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 머무르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에 대해서는 찬성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상은 일-가정이라는 공사 영역에 따라 가치의 변화 속도가 다르다는 기존연구의 지적들과 함께 여성의 사회진출이 이루어져도 남성의 가정내 진출이 이루어지기 어려운 사람들의 기치규범의 복잡성 그대로를 파악하려고 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사람들의 때로는 모순적이고 복잡한 다원적 가치체계를 포착하고 비교하기 위해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한다. 이 방법을 통해 지금까지 밝혀지지 않았던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에 관한 잠재가치구조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보통 어떤 잠재변수를 복수의 관찰된 변수로 유형화시킬 때 요인분석(Factor Analysis)을 사용한다. 요인분석이 변수의 유형화를 목적으로 한다면 잠재집단분석은 같은 대답 패턴의 사람들을 유형화하기에 한 개인 안에 보수적인 측면과 진보적인 측면이 섞여 있다는 그러한 모순되는 대답 패턴의 양상까지 발견할 수 있다. 이 분석방법은 일정한 이론적 가설을 검증하기보다는 분석 결과에 대한 이론적 의미부여를 검토하는 귀납법적 연구방법이다(야마구치(山口), 1999). 이 연구방법의 장점은 한국과 일본 여성에게 부과된 가족 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마찬가지로 결혼가치와 자녀가치에 있어서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어떤 측면에서 부정적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점에 장점이 있다.

기존연구에서는 한편에서 노동시장 참여가 요구되고 한편에서 가정 책임이 부과된 한국과 일본 여성들이 일과 가정 역할 양립의 부담으로 인해 오늘날 결혼 및 출산을 회피한다고 논의되어 왔으며 특히 젊은 세대 여성들 사이에서 일-가정 양립 곤란이 미혼화·만혼화의 요인으로 지적되어 왔다(Raymo and Ono, 2007; Tsuya, 2015). 그런데 한국과 일본 여성에게 기대되는 일-가정 역할은 완전히 같다고 볼 수 없으며 어떤 측면에서 같고 다른지 양국 사이에 핵심적인 차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과 일본 여성에게 기대되는 가족역할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양국 간에는 어떤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는지 실증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마찬가지로 결혼가치와 자녀가치에 있어서 양국 사이에 어떤 측면에서 긍정적이며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는지, 양국간에 존재하는 가족형성가치를 단지 긍정적-부정적, 진보적-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넘어 구체적인 가치체계의 양상 차이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다음으로 방법론적 전략으로는 연구대상을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해 거시적인 시각으로 사회 전체 동향을 비교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는다. 이 때까지 국제비교 연구에서는 거시자료에 기초한 국가 간 비교에 초점을 두었다. 그러나 한국처럼 압축적인 교육의 팽창을 경험한 사회에서는 세대간 교육수준 차이가 매우 크다. 교육수준이 가치관에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이미 많은 기존연구에서 밝혀진 만큼 가치관 분석에 있어서도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한국은 일본에 비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가치관 차이가 큰 것으로 예상되기에 내부의 이질성을 포착하고 어떤 집단에서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를 비교하는 작업은 '가족변동 속도'에 대한 이해를 위해 중요한 시각이라고 본다. 한 코호트와 다른 코호트의 차이는 각 코호트에 반영된 사회적/역사적 경험의 차이를 의미하므로, 코호트 간의 차이 분석은 사회적 변화와 지속의 정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식이 되기 때문이다(최선영, 2020: 3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거시적인 비교(국가 비교) 뿐만 아니라 미시적 비교(코호트 간 및 코호트 내부 차이, 성별 차이)를 중요한 연구시각으로 다룬다.

세번째 연구전략으로 가족변동에 중요한 변수로 다루어 세 가지 가치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한다. 서구 연구에서는 성역할과 자녀가치, 한일 국내연구에서는 결혼가치와 자녀가치에 대해 중요한 상관관계를 찾으려고 해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따로 논의되어 온 이 세가지 가치 측면을 동일한 자료를 분석하는 것으로 체계적인 이해를

시도한다. 즉 이 세 가지 가족가치 측면이 서로 어떤 상관관계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검증하는 것이다. 성역할태도가 전통적-분업지향적-인 사람은 결혼가치에 있어서도 긍정적인지, 자녀가치에 있어서도 자녀지향적인지, 어떤 성역할과 결혼가치를 가지는 집단에서 자녀가치가 긍정적이며 부정적인지를 검증한다. 서구를 중심으로 한 기존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가 평형상태-완전 분업 혹은 완전 평등-일 때 출산율이 높고 여성이 일-가족 이중부담을 맡아야 할 때 출산율이 하락한다고 논의되어 왔다. 그렇다면 가치규범에서도 성역할태도가 평형 상태일 때 결혼가치와 자녀가치가 각각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되며 이중부담 상태에서 결혼과 자녀가치가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 점에 대해 검증한 기존연구가 없으므로 본 연구를 통해 확인해 보도록 한다. 이에 대해 세 가지 가치 측면에 대해 각각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도출된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 및 자녀가치 유형에 대해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서구 이론 및 국내 연구에서 따로 논의되어 온 성역할태도-결혼가치-자녀가치의 관계에 대해 체계적인 이해가 가능하다. 한국과 일본은 서구와 달리 출산이 결혼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출산의 감소는 일차적으로는 결혼의 감소에 기인한다. 그러나 과연 결혼가치의 약화가 자녀가치 약화를 야기했는가? 결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데 자녀에 대한 선호가 먼저 약화됐는지, 혹은 결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이지 않으나 자녀에 대해서는 지향적인지 등 결혼과 자녀가치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각 가치관의 관계에 대해 담론이나 추론이 아닌 실증분석을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이상의 세 가지 연구전략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를 이해하기 위해 '가치관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접근한다. 본연구에서는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한국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를 짚어보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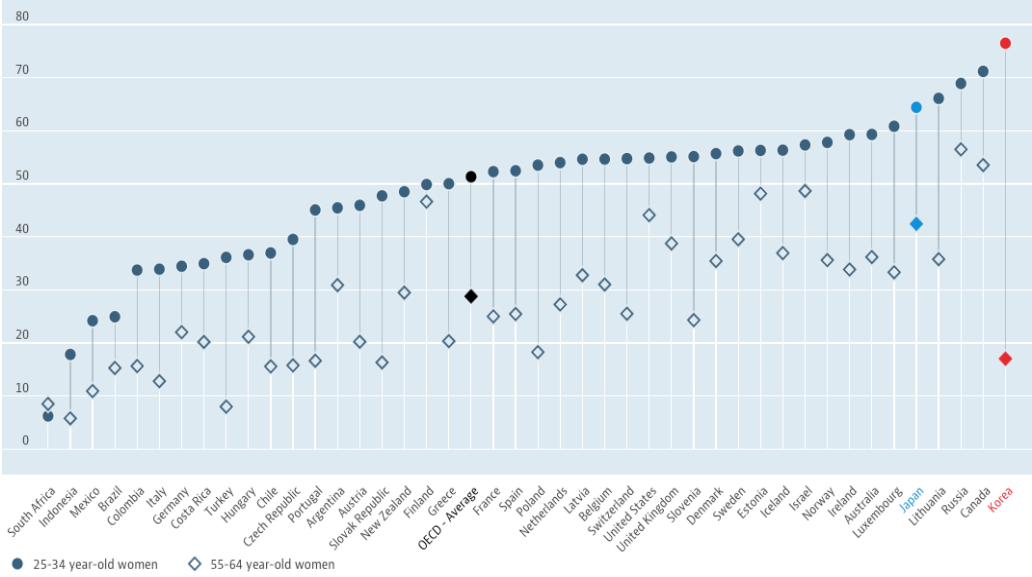
(2) 독립변수: 코호트 및 성별

성역할 인식과 결혼, 자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는 본 연구에서는 1. 국가 차이(한국, 일본), 2. 성별(남성, 여성), 3. 출생 코호트(10세별로 구분한 5개 하위 코호트: 1. -1955, 2. 1956-65, 3. 1966-75, 4. 1976-85, 5. 1986-95)로 설정하여 분석한다.

본 연구의 관심은 한국과 일본의 가치관 차이를 비교하면서 최근 코호트에서 벌어지는 혼인 및 출산 행동 변화 속도를 이해하는데 있어 성별 및 코호트에 주목하여 어디서 어떤 가치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다. 이 때까지 많은 기존 연구에서는 국가간 가치관 차이를 거시적인 시각에서 한가지 혹은 몇가지 지표의 평균값 사용으로 비교해 왔으며 그러한 연구에서 한일은 늘 비슷한 가치를 가지는 국가로 평가되어 왔다. 예를 들어 성역할태도를 국제비교한 타케노시타(竹之下)·니시무라(西村)(2005)의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를 묻는 문항마다 각각 대답의 평균값을 구해 7가지 국가의 가치관을 비교한 다음에 요인분석을 하고 있다. 연구결과 양국간에는 성역할태도에 있어서 내적 구조에 상이점이 확인되지 못하고 공통점만 부각되었기에 양국은 동일한 성역할태도를 가지는 국가로 결정짓는다. 이렇듯이 기타의 한일 거시적인 비교연구에서는 양국은 서구와 비교해 비슷한 보수적인 가족가치를 지닌 나라로 평가되어 왔으며 양국 간의 차이점이 잘 부각되지 않았다(예를 들어 류연규, 2012; 김영미・계봉오, 2015; Brinton&Lee, 2016; 정선영, 2017). 거시적인 비교연구에서 한일 양국은 이질성보다 공통점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는데 내부 집단 차이 및 여러 지표를 사용한 체계적인 가치체계를 자세히 비교분석한 연구는 찾기 어렵다. 그 이유는 연구 관심이 다른 것은 물론이지만 국가 차이는 거시적인 시각으로 비교해야 나라 특징을 파악하고 비교하기가 수월하고 내부 집단 차이까지 분석한 미시적인 비교분석은 해석이 복잡하며 이를 위해 연구자가 양국에 대한 배경차이, 문맥까지 이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미시적인 연구는 보통 질적연구에서 인터뷰 조사, 신문이나 잡지를 포함한 문헌 분석, 제도 분석 등 텍스트 자체를 연구대상으로 하는 방법을 취한다. 본 연구는 통계분석을 시도하지만 거시적인 분석에 그치지 않는 양적연구와 질적연구의 각각의 장점과 부족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연구를 목표로 하고 연구를 설계하였다. 기존 잠재가치 분석에서도 거시적인 유형 차이에 대해 국제 비교해 왔고 그 속의 내부 집단차이까지는 분석하지 않았는데 한국처럼 단시간에 경제발전을 이루고 압축적 사회변화를 경험해 온 사회는 기성 세대의 생애과정과 젊은 세대의 생애과정 차이가 매우 크기 때문에 거시적인 평균값 비교는 적절한 연구방법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평균값은 최근 사회 변화 트렌드가 사라져 버리고 가치관 측면에서도 기성세대의 영향으로 젊은 세대의 변화가 상쇄되어 한국은 여전히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사회로 비쳐지기 때문이다. 코호트 및 성별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2절 2) 여성의 압축적 고학력화 현황을 확인한 바 있으나 젊은 세대와 기성 세대의 차이에 대해 교육수준 차이를 확인해 둘 필요가 있다. 〈그림2-1〉에서 가족 가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교육수준의 세대 차이를 확인하자.

〈그림 2-1〉 15-34세와 55-64세의 여자 고등교육 이수 인구 국가별 비교(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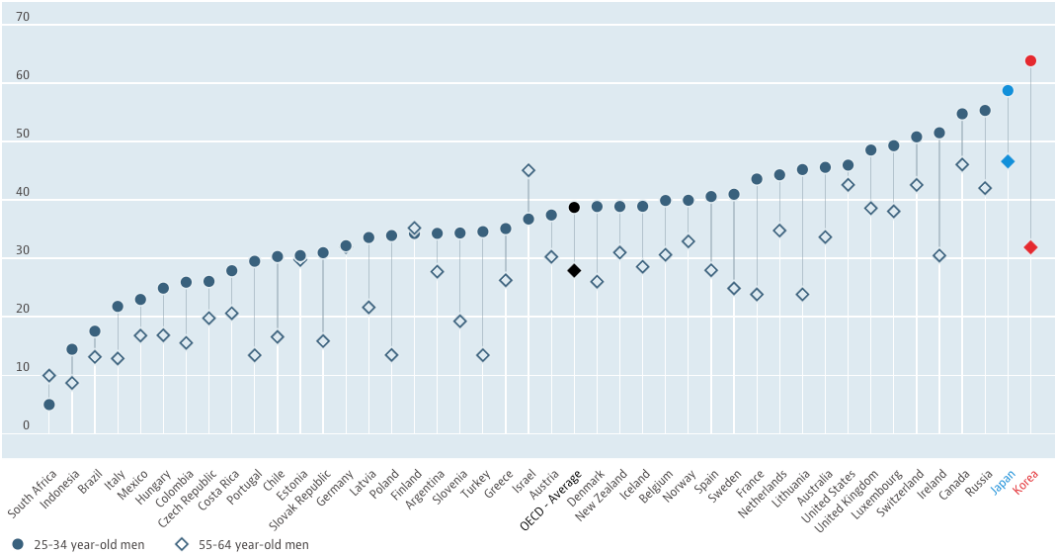
출처: Education at a glance; Educational attainment and labor-force status[7]

〈그림 2-1〉에서 가장 오른쪽이 한국 여성이고 오른쪽에서 네 번째가 일본 여성이다. 서구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듯이 후기 근대의 가장 급속하고 혁명적 변화는 여성의 삶이 전업주부에서 평생 고용으로 역할이 이행된 것에 있다(Goddin, 2005; Espin-Andersen, 2007). 결혼하고 자녀 양육과 가사일에 헌신하는 것을 기대한 부모세대와 달리 고등교육(Tertiary Education)을 받고 임금노동자로 일하게 된 딸의 삶은 단시간에 일어난 사회의 근본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고등교육 이수 또한 여성 삶에 일어난 또 하나의 혁명이라 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의 경우 어머니-딸 사이의 교육 간 차이가 OECD국가에서 최대로 큰 것이 확인되며 어느 나라도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혁명적인 교육 팽창이

[7] Population with tertiary education 25-34 year-olds / 55-64 year-olds, % in same age group, 2020. https://data.oecd.org/eduatt/population-with-tertiary-education.htm

일어난 것이 확인된다. 다음 〈그림 2-2〉에서 남자의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 변화와 비교를 통해 부모 자녀 세대 사이에 벌어진 삶의 급격한 변화가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컸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 15-34세와 55-64세의 남자 고등교육 이수 인구 국가별 비교(2020)



출처: 〈그림 2-1〉과 같음

〈그림 2-2〉에서 가장 오른쪽이 한국 남성이고 오른쪽에서 두 번째가 일본 남성이다. 〈그림 2-1〉과 〈그림 2-2〉를 보면 왜 연구자가 한국을 평균값으로 비교하는 게 적절한 연구방법이 아니라고 주장한 바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한국은 부모 자녀 세대간 교육 격차가 남녀 모두 OECD 국가 중 최대로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모-자식 간의 교육격차는 남자보다 여자 사이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하고 교육수준이 높아진 것은 서구 사회에서도 마찬가지여서 OECD 모든 국가에서 남자의 부모자녀 간 교육 격차보다 여자의 그 차이가 더 크게 나타난다. 그런데 그 변화의 폭에 있어서 한국이 어떤 나라보다도 크고 그 만큼 세계 어느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여성의 생애과정이 급변해 왔다는 것이다. 2019년 OECD 평균 25-34세 남자의 고등교육 이수 비율은 38.71%인 것에 비해 부모세대인 55-64세는 27.90%로 10%정도 차이가 난다. 그것에 비해 같은 해 한국의 부모 아들 고등교육 이수 차이는 63.84%와

31.89%로 무려 2배의 차이가 난다. 일본을 보면 아들세대가 58.73%인 것에 비해 부모세대는 46.58%로 부모세대 교육수준도 높았고 아들세대 또한 10%정도 상승에 불과하다. 한국의 아들과 부모 세대의 교육수준 차이는 어느 나라보다도 큰데 딸 부모세대는 더욱 더 그 차이가 현저하다. 아들보다도 차이가 큰 한국의 딸 세대 여자의 25-34세 고등교육 이수 비율은 2019년 76.49%인 것에 비해 부모세대인 55-64세는 17.00%로 그 차이는 부모아들보다 훨씬 커서 무려 약 60%나 차이가 난다. 같은 해 일본은 딸들이 64.41%인 것에 비해 부모는 42.44%로 20%정도 차이가 나는데 OECD 평균 또한 자녀세대 51.31%에 비해 부모세대는 28.77로 20%이상 차이가 나고 그 만큼 단시간에 여성의 교육수준이 전세계적으로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빠른 변화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지표를 각각 평균값을 구해 비교해 보면 한국이 46.76%, 일본이 53.43%로 양국 간 차이는 작아 보이고 일본이 한국보다 평균적으로 여성이 교육을 더 잘 받았던 것으로 파악되며 그 속 편차가 사라져 버린다. 이렇듯이 평균값으로 구해 보면 한국과 일본이 늘 거시적인 비교에서 비슷한 나라로 분류되어 왔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세대간 생애 차이가 바로 가치관에도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가족 변동에 대해 거시적 분석을 통해 한국이 일본보다 여전히 보수적인 가족가치를 공유한다고 판단해 온 기존 연구에 대해 본 연구는 또 다른 시각을 던지려고 한다. 그런 이유로 한국의 가족변동 속도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코호트와 성별 교차로 자세히 분석해야 한다고 판단되며 본 연구에서 중요한 변수로 다루고 독립변수에 둔다. 가치관 비교연구에서 사회의 평균적인 성평등적 태도의 높은 수준이 출산율의 높은 수준과 정(+)적인 관계에 있을 뿐만 아니라 남성의 성평등적 태도의 차이가 작고 서로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는 나라의 공통점이라고 지적되고 있다(Arpino, Esping-Andersen and Pessin, 2015).

본 연구에서 출생코호트를 같은 역사적 사건을 경험한 세대집단으로 보고 유사한 시기에 태어난 집단이 공유하는 생애사건과 그것의 지속적 효과에 주목한다. 한 코호트와 다른 코호트의 차이는 각 코호트가 경험해 온 역사적 경험의 차이를 반영하기에 코호트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작업은 역사적 변화 속도와 지속의 정도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된다. 이러한 맥락으로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는 코호트 간 차이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코호트 간 차이를 깊게 비교하려면 코호트 내부의 차이, 코호트의 성격을 규정하는 구성

변수들의 분포 변화를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Ryder, 1985)라는 지적에도 주의를 기울이며 코호트 내부에서 벌어지는 양상을 확인하는 작업이 코호트 간 차이의 양상과 함께 시간에 따른 사람들의 가치관 변화 양상과 그 의미를 파악하는 게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코호트 분석 구분을 10세별로 구분하지만 10대, 20대 혹은 1980년생, 1990년생처럼 기계적인 구분은 취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각 나라에서 경험한 사회 변화 배경을 고려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특히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는 젊은 세대의 생애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친 사건으로 알려져 있고 일본에서 잃어버린 세대, 한국에서 88만원 세대로 불리는 불쌍한 청년 담론의 주인공들이다. 이들은 풍요 속에 태어나 유소년기를 보냈으나 취업할 때 취업난에 부딪힌 세대이며 각각 1970년 후반 출생 코호트로 파악된다. 1975년생이 대학을 졸업한 시점이 바로 1998년 3월 IMF 경제위기와 마주친다. 일본 또한 버블 경제는 1990년대 초반에 무너졌지만 본격적인 불경기 진입은 1997년11월말 일본의 대표적인 증권회사 야마이치 증권이 파산한 이 시기부터이다. 야마이치 증권의 파산 이전에 일본 대표 대형 은행, 금융기관들도 잇따라 파산했고 1997년 말은 본격적인 금융위기가 시작된 시기였다. 1998년도 졸업생은 그 전인 1997년 초반에 미리 취업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확보했기에 본격적으로 피해를 입은 세대는 1998년도에 취업활동을 통해 일자리를 구해야 했던1999년도 졸업생들이다. 한국은 군대도 있고 취업 활동도 일본과 다소 차이가 나지만 1998년도에 취업 활동을 하게 된 집단이 취업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게 된 맥락은 같을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1998년도에 취업활동을 하게 된 1999년도 졸업생인 1976년 출생 코호트를 변화의 시기로 구분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1976년생 이후 코호트를 불경기를 겪게 된 첫 세대로 중요한 구분 기준으로 두고1976년생부터 1985년생을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 한국의 IMF세대 시작으로 파악해 10세별로 묶고 코호트를 구분했다. 마찬가지로 1986년생은 2009년 졸업을 맞이하여 2008년 리먼 쇼크를 겪고 취업활동을 하게 된 세대로 또 다른 경제위기를 맞은 세대이다. 따라서 이 연령 집단 또한 중요한 연령 구분의 기준으로 두고 구분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연령 구분을 기계적으로 1980년생, 1990년생 식의 10세별로 구분하지 않고 배경을 고려해 1975년생부터 1985년생, 1986년생부터 1995년생으로 10세별 구분을 하여 분석했다.

(3) 통제 변수

기존연구에서 밝혀진 가족가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이하의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했다. 먼저 인구학적 요인인 학력수준인데 '중졸'을 더미변수로 설정하고 '중졸', '고졸', '2년제 대학 졸업', '4년제 대학 졸업'으로 구별했다. 다음으로 결혼여부에 대해 '기혼'을 더미변수로 설정하고 '기혼(married)', '미혼(single)', '이혼・사별(widow and divorced)'로 구성했다. 그리고 사회경제적 요인인 어린 시절의 어머니 취업 여부에 대해서 '일하였음'을 더미변수로 설정하고 '일하였음'과 '일하지 않았음'으로 구성했다. 마지막으로 현재 취업 상태에 대해서는 '임금 노동자(paid worker)'를 더미변수로 설정하고 '임금 노동자(paid worker)', '전업주부(housewife)', '일하지 않음(not working)', '학생(student)'으로 구성하였다. 마지막으로 소득 수준은 한일 통화 단위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 0-1 사이의 연속변수를 나타내는 비율로 대체시켜 통제변수에 놓았다.

2절. 분석 기법과 분석틀 및 분석 절차

1) 분석 기법: 잠재집단분석 (Latent Profile Analysis)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성역할태도, 결혼가치, 자녀가치에 대한 응답 패턴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나라별로 성별, 코호트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각 가치관에 대한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 잠재집단분석(LPA)을 사용한다. 잠재집단분석은 분석대상들이 지닌 드러나지 않은 이질성을 발견하여 유사성에 따라 분석 대상을 유형화할 수 있는 방법이며(Nylund, Asparouhov & Muthen, 2007) 이를 이용하여 집단 간 차이를 부각시켜 비교분석하는 방법이다(Geiser, 2012; Bakk, Tekle, & Vermunt, 2013). 따라서 응답 데이터에서 연구자가 직접 관측하지 못한 잠재된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많은 관측 값 사이의 관계를 비교적 소수의 잠재 변수로 축약하는 것으로 보다 단순한 해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 있으며, 측정 오차를 제거한 잠재 변수 간의 관계 측정도 정밀도가 높다(미와(美輪), 2009). 잠재변수를 군집화하는

몇가지 연구방법이 있는데 그 중 다음의 두가지 방법이 일반적이다. 하나는 변수 중심의 접근 방법(A Variable-centered Approach)과 사람 중심의 접근 방법(A Person-centered Approach)이다(Bergman and Magnusson, 1997; Bergman and Trost, 2006; Dyer and Day, 2015). 요인분석은 관측변수, 잠재변수 모두 연속변수일 때 사용하는 모델이다. 요인분석이 문항 중 같은 유형의 질문을 유형화하는 것(A Variable-centered Approach)에 비해 잠재집단분석은 같은 응답 패턴을 취한 개인들을 유형화하는 것(A Person-centered Approach)이다. 그리고 관찰된 범주형 변수들을 사용하여 변수들 간의 공분산(Covariate) 관계를 설명할 수 있으면서 관찰되지 않는 즉 잠재된 범주형 집단을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기존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 결혼가치, 자녀가치에 관한 가족가치 분석에 있어서 대부분이 전통적 대 평등(진보)이라는 가치관의 선형이행을 가정해 일차원적 척도로 파악해 왔다. 예를 들어 전통적-성별분업 지향적-성역할태도를 취한 사람 중에서도 어떤 응답에서는 진보적-성별분업 평등지향-인 태도를 취할 수도 있다. 반대로 진보적인 응답 패턴을 취하는 개인이 어떤 응답에서는 보수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다. 특히 성역할태도의 가치 변화 속도가 공사영역에서 다르다는 기존연구의 지적에서는 사람들의 가치관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에 따라 서로 다르게 예측된다. 여성의 사회진출이 이루어져도 남성의 가정내 진출이 좀처럼 이루어지기가 어려운 것은 가치 측면에서도 공사영역에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잠재집단분석은 그러한 응답의 이질성도 하나의 응답패턴 특징으로 파악하여 비슷한 대답 패턴을 취한 사람들을 군집화시켜 다르게 응답하는 패턴을 가지는 집단과 비교할 수 있다. 따라서 응답자들의 가치관 속에 있는 진보적인 측면과 보수적인 측면의 혼재, 복잡한 양상도 하나의 특징으로 파악할 수 있기에 단순히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으로 나눠 각 나라의 가치 체계 위치를 매겨온 기존 분석보다 자세하고 엄밀한 가치구조체계를 포착할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성역할태도에 어떤 가치관들끼리 서로 충돌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으며, 여러 대답 패턴 중 어떤 패턴을 취하는 집단이 많은지, 대답 패턴에서 나타나는 가치체계에는 한국과 일본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부각시킬 수 있다. 마찬가지로 결혼가치와 자녀가치에 있어서도 양국 사이에 어떤 대답 패턴을 취하는 집단이 많은지, 대답 패턴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포착할 수 있다. 나아가 집단 내에서 성별, 코호트별로 어떤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많은지 소속

비율도 비교할 수 있다. 이 방법을 통해 한국과 일본 사이에는 가족가치가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 체계적이며 구제적인 차이를 이해하고자 한다. 이 분석방법의 장점은 분석결과에서 밝혀질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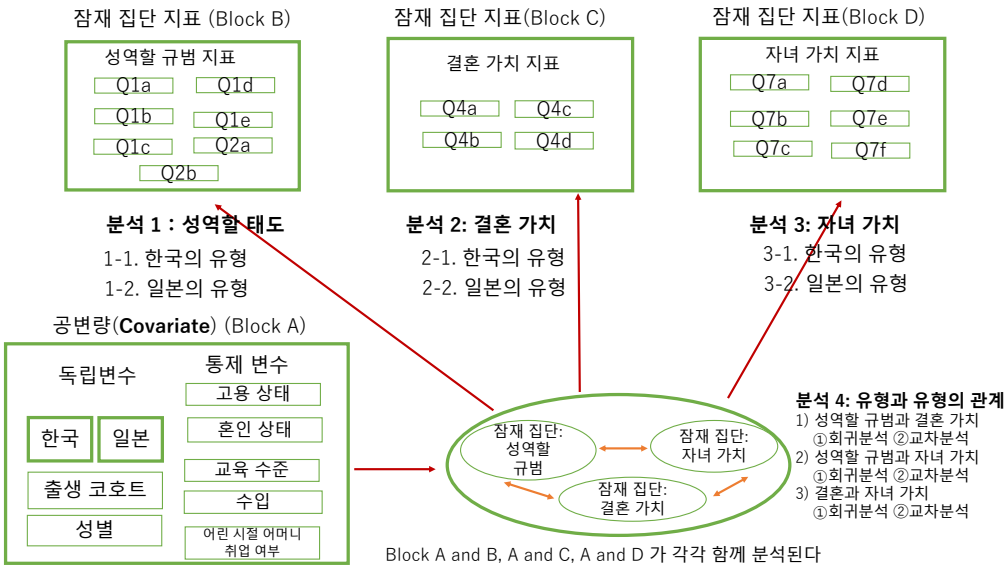
잠재집단 유형의 모형적합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기준지수 IC(Information Criteria)는 주로 아카이케 정보지수인 AIC(Akaike, 1987)와 베이지언 정보지수인BIC(Schwartz, 1978), 수정 베이지언 정보지수 adjusted BIC(aBIC)(Sclove, 1987)이며 각 IC값은 낮을수록 잠재유형수가 최적인 모형임을 의미한다(Tofighi & Enders, 2008). 따라서 집단 수를 늘려가며 이들 지수의 값이 작아지는 것을 통해 모형의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또 모형의 적합도를 나타내는 Entropy값은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모형의 분류가 정확히 이루어졌음을 의미하고(Muthen & Muthen, 2000) 0.7 이상일 경우 모형의 분류가 적합하고 오류가 적음을 의미한다(Tein, Coxe, & Cham, 2013). k-1개 집단에 비해 k개의 집단이 더 적합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LMR을 활용했다. LMR값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우 k개의 집단이 k-1개 보다 적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Tofighi & Enders, 2008; Nylund, Asparouhov, & Muthén, 2007). 마지막으로 기존연구의 분류를 참고해 집단 간 사례 수의 비율과 해석상의 분류 정확도를 포함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최종 잠재집단 수를 결정하였다.

위 과정을 통하여 선정된 잠재집단을 대상으로 사후 소속 확률, 응답 확률 등 각 집단의 특성을 분석하여 성역할태도에 대한 잠재집단 분석을 시도한 기존 연구 결과(Brinton & Lee, 2016; Knight & Brinton, 2017; Shin, 2017; Scarborough, W. J., Sin, R., & Risman, B, 2019; Yamaguchi, 2000)를 참고해 집단 이름을 명명했다. 순서는 먼저 한국인과 일본인이 소속하는 잠재집단수를 결정하여 유형에서 나타나는 가치관 차이를 파악한 다음에 잠재집단 유형과 사회인구학적 특성 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성별과 코호트의 교차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잠재집단 유형 분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가치관 유형을 종속변수로 둔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잠재집단 유형을 도출한 후 다음 단계에서 별도로 회귀분석을 실시해왔으나 이러한 전통적인 방법은 실제 분류된 집단이 잠재집단이라는 것을 반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김세원 외, 2019).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Vermunt(2010)가 제안한 3단계 추정 방법 (3 Step Approach)을 이용해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를 함께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을 했다.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잠재모형 도출 시에 모형에 포함시키면 각 변수가 집단 분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할 수 있고 보다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잠재집단분석 및 3단계 추정 방법에는 Mplus 7.0를 사용하였다. 1단계에서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없이 기본 혼합모형(Mixture Model)을 추정하고, 2단계에서는 각 개인에 대해 가장 가능성이 높은 잠재집단을 추정하며, 3단계에서는 분류오류를 고려한 상태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효과를 추정할 수 있다(홍세희, 2019). 이 연구에서는 3단계를 각각 시행하는 Manual 3단계 방법을 이용하여 한국과 일본의 성역할태도, 결혼가치, 자녀가치에 대한 각각의 잠재집단을 도출하여 모형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처음부터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연구 모형은 다음과 같다.

〈그림 2-3〉 연구 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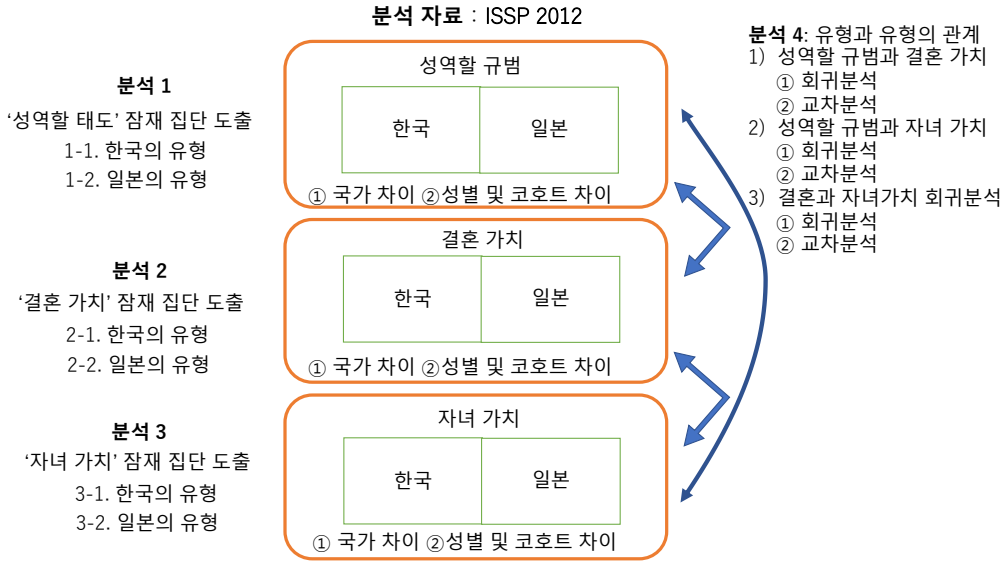


〈그림 2-3〉은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변수와 분석 절차를 함께 확인할 수 있는 본 연구의 전체 설계도에 해당되는 그림이다. 분석1에서는 성역할태도에 대해Block A와 Block B가 함께 분석되며, 분석 2에서는 결혼가치에 대해 Block A와 Block C가, 분석

3에서는 자녀가치에 대해 Block A와 Block D가 각각 함께 분석된다. 마지막으로 분석 4에서는 분석 1, 2, 3에서 도출된 각 유형과 유형의 관계에 대해 분석한다. 그리고 분석 1, 2, 3에 대한 분석도 각각의 모형을 한국과 일본 따로 분리하여 분석하는 것으로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보다 명확히 파악하려고 했다.

분석 1-3에 대한 설명을 보다 자세히 그리고 보다 쉽게 설명하기 위해 나타낸 그림이 다음 〈그림 2-4〉 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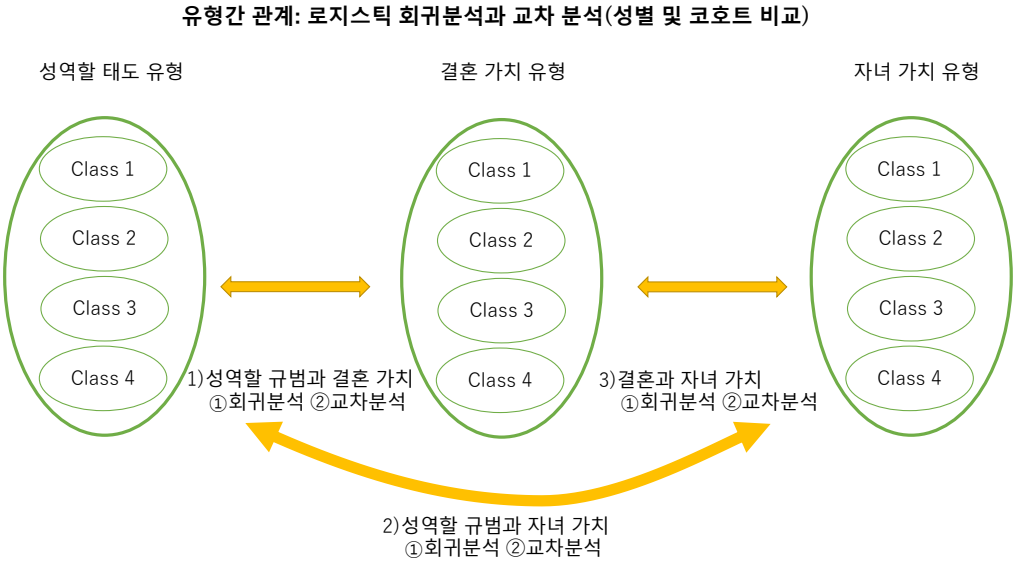
〈그림 2-4〉 분석자료와 분석방법



〈그림 2-4〉는 〈그림 2-3〉의 분석과정을 보다 이해하기 쉽게 통제변수를 제외하여 정리한 그림이다. 분석 1, 분석 2, 분석 3 각각에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투입해 각 잠재집단 유형을 도출하는데 그 단계에서 보다 자세한 비교를 위해 모집단을 1.한국, 2. 일본의 두 가지로 나눠 결과를 비교하였다. 기존 국제비교 연구에서 이루어진 잠재집단분석은 한국과 일본을 같은 모집단에 투입하여 그 안에서 비슷한 대답패턴을 취하는 개인을 묶기 때문에 양국의 공통점이 부각되어 왔다. 예를 들어 Brinton&Lee(2016)는 WVS자료를 이용해 세계24개국을 연구대상으로 뽑아서 24개국 중에서 4가지 유형을 도출해 어떤 나라에서 어떤 유형이 압도적으로 많은지를 비교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에서는 세계 24개국 중 서구보다 비슷한 사회경제적 배경을 가지는

한국과 일본이 비슷한 가치규범을 취하는 집단이 많다는 공통점이 부각되어 '동아시아 사회'의 특징으로 묶여 버린다. 이에 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성역할태도는 보수적인데 여성에게 경제적 기여 역할을 요구하는 모순된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로 분류된다. 그런데 대조적으로 야마구치(山口, 1999)의 연구는 일본과 미국의 성역할태도를 비교하고 있는데 분석에 있어서 자료가 서로 다르기에 양국 모집단을 따로 투입하여 유형을 도출해 비교하고 있다. 이 연구결과에서는 '일본에서는 성역할 평등을 지지하는 집단이 증가하였으나 여성의 경제적 기여책임에 대해 동의하는 집단은 늘어나지 않았다'는 '성별 평등지지-비직업지향형' 유형에 속하는 일본인이 많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일본사람의 성역할에 대한 서로 상이한 대조적인 연구결과는 바로 모집단을 어떻게 처리했는지에서 나타난다. 본 연구는 양국의 공통점을 찾는 것이 연구 목적이 아니기에 양국의 차이를 부각시키기 위해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에 대해 각각 따로 유형을 도출하여 비교분석한다. 따라서 분석 1은 성역할태도에 대한 잠재집단모형은 한국인 유형과 일본인 유형을 각각 도출하는 것으로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분석 2는 결혼가치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유형을 각각 도출해 유형별 차이와 공통점을 비교하였다. 마찬가지로 분석 3은 자녀가치에 대해서도 한국과 일본의 유형을 각각 도출해 유형별 차이 및 공통점을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그림 2-5〉에서 분석 4의 유형과 유형의 관계 분석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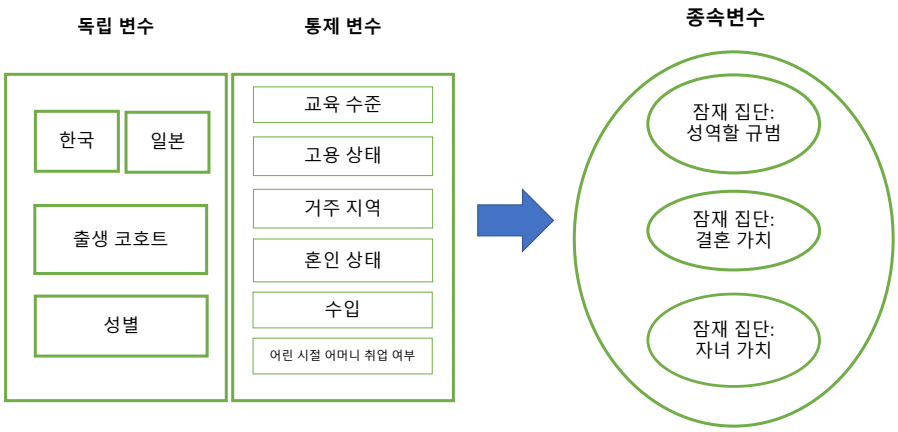
〈그림 2-5〉 유형과 유형의 관계



마지막 분석 단계는 분석 1-3에서 도출된 한국과 일본의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 자녀가치에 대한 각 유형간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 그리고 결혼가치와 자녀가치가 관계를 가진다는 기존 연구들의 견해를 이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하려고 했다. 가족가치 연구에서 같은 자료를 가지고 이 세가지 측면의 가치관 관계를 살펴보며 비교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못했기 때문에 새로운 견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한번 연구 절차를 정리하면 이 연구의 종속변수는 1.성역할태도, 2.결혼가치, 3.자녀가치의 각 유형이고 독립변수는 1.국가(한국과 일본), 2.젠더, 3.코호트가 된다. 그리고 나머지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지적되어 온 변수를 통제하여 회귀분석을 통해 변수의 영향력을 확인한다. 통제 변수는 1.학력 수준, 2.혼인 상태, 3.어린 시절의 어머니 취업 여부, 4.현재 취업 상태, 5. 소득의 다섯 가지 변수들이다. 이 연구에 대한 독립변수와 통제변수 그리고 종속변수의 관계에 대해 분석틀을 보다 심플하게 이해하기 위해 그린 그림이 〈그림 2-6〉이다.

〈그림 2-6〉 분석틀



이상의 분석과정에서 잠재집단유형 도출에는 Mplus7.0을 이용하였고 나머지 자료의 정리(Data Cleaning)와 연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RStudio를, 보조자료인 WVS 시계열 분석에는 STATA를 사용하였다.

2) 분석 절차

주 자료로 ISSP 2012자료를 사용해 한국과 일본의 일-가족역할-성역할, 결혼, 자녀가치를 각각 유형화시켜 국가별로 압도적인 가치규범은 어떤 유형인지 그리고 그것이 성별, 코호트별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나아가 세대 내부에서 어떤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잠재집단분석을 활용해 실증적으로 분석한다. 먼저 성역할규범에 대해 한국만을 모집단으로 한 유형, 다음으로 일본만을 모집단으로 한 유형을 각각 도출해 이 두 가지 유형 모델을 비교하는 것으로 두 나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다음으로 3단계 추정 방법(3 step approach)을 이용한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각각의 유형에 들어가는 사람들의 인구학적 특징을 밝힌다. 3단계 추정 방법은 독립변수와 종속변수를 잠재집단과 함께 모형에 포함시켜 분석하기에 집단 분류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통제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집단(유형)이 독립변수로 인해 변경되는 것을 방지하는

장점을 가진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국가, 성별, 코호트를 각각의 독립변수로 두고 종속변수에 1.성역할태도, 2.결혼가치, 3.자녀가치 유형을 둔다. 그리고 동일한 분석을 결혼가치, 자녀가치에 대해서도 유형을 도출해 각각의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을 성별, 코호트별로 비교한 다음에 회귀분석 결과를 제시한다.

본 연구는 오늘날 가족 변동을 일으키는 주체인 젊은 세대에서 가족에 대한 가치 규범에 어떤 변화가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성별 및 코호트별 비교를 통해 기성세대의 가치규범과 어떤 차이가 있으며 어떤 방향으로 가치가 변해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한다. 나아가 세대 차이뿐만 아니라 같은 세대 내부에서 벌어지는 가치규범 변화 양상도 포착하고 코호트 간 차이와 코호트 내부 차이를 동시에 파악한다. 따라서 기존의 1. 코호트와 성별을 구별하지 않고 평균값을 사용해 국가간 비교를 한 연구, 2. 몇가지 단편적인 지표를 선정하여 가치규범에 대한 찬반 의견을 분석한 연구, 3. 지표에 대해 사람들의 가치관을 전통과 진보 사이의 일차선적 이동을 가정하여 전통과 진보 사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대해 비교한 연구, 4. 저출산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성역할태도, 결혼가치, 자녀가치에 대해 각각 따로 분석한 연구와 차별화되며 기존연구의 틈을 메우는 것과 동시에 가족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학술적인 공헌은 동일한 자료를 사용해 동일한 대상자가 대답하고 있는 가족가치의 다양한 측면-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 및 자녀가치-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와 이해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 있다. 나아가 한국과 일본을 거시적인 시각으로 한가지 혹은 몇가지 지표의 평균값으로 비교하는 것은 각 가치규범의 복잡한 양상을 그대로 포착한 다음에 그것이 집단내에서-코호트와 성별로-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기술하는 것으로 기존의 평균값 비교연구에서 사라져버리던 오늘날의 변화양상을 포착하여 한일 비교한다는 점에서 기존 연구와 차별화된다. 이 연구를 통해 한국과 일본의 가족 변동을 일으킨 사람들의 가치체계의 구조적 차이를 부각시키는 것으로 기존 연구에서 막연하게 논의되어 온 여성들에게 부과되는 무거운 '가족 책임', '이중 부담'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이며 그것이 한국과 일본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받아들이며 결혼과 출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구체적이며 동태적인 양상을 기술함으로써 한국과 일본의 가족가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던지는 연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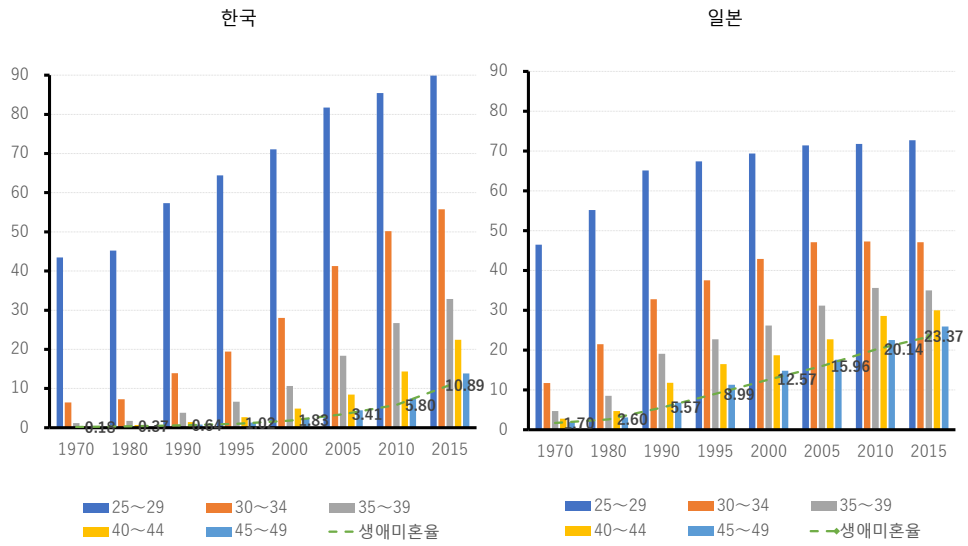
제3장. 가족변동의 현주소

1절. 가족 형성을 둘러싼 한일 양상 차이

1) 만혼화: 압축적 만혼화 vs 완만한 생애미혼율 증가

가치관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과 일본의 가족형성을 둘러싼 현재의 양상 차이를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형태적 차원과 가치관이 얼마나 같고 다른지 또 어떻게 연관되는지 검토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혼인 지연 현상을 확인해 보면 한국은 1990년까지만 해도 30대의 미혼 인구가 없는 나라였음을 알 수 있다. 다음 〈그림3-1〉은 한국 남자의 미혼인구 증가 추세를 일본과 비교한 것이다.

〈그림 3-1〉 한국과 일본의 연령별 미혼율과 생애미혼율: 남자(1970-2015)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총인구, 미혼인구, 유배우인구에서 연구자가 계산
일본, 총무성 통계국, 「남녀 연령별, 배우관계별 인구」에서 연구자가 계산

〈그림 3-1〉의 통계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의 남자 미혼율은 1990년대에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지만 2000년까지만 해도 생애미혼인구는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 그야말로 강력한 보편혼 사회였다. 2000년 기준 50세를 맞이할 때까지 미혼인 1950년생 남자의 생애미혼율[8]은 한국이 1.83%인 것에 비해 일본이 12.57%로 10배 가까이 차이가 난다. 한국의 미혼인구는 이후 2000년부터 빠른 속도로 증가해 가지만 2015년 기준 한국의 남자 생애미혼율은 10.89%로 일본 남자의 23.37%와 비교해 그 격차가 크며 아직까지 2000년의 일본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일본은 이미 2015년 기준 남자 4명 중 1명은 평생미혼인구로 살아가는 '오히토리사마[9]'가 진행된 사회이다. 그러나 한국의 초혼연령은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높아졌다. 이 지표 또한2000년까지는 25-29세 미혼율이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빠른 속도로 상승해 2015년 현재 한국의 25-29세 미혼율은 88.9%로 일본의 72.7%보다 훨씬 높아졌다. 그런데 2015년 현재 30-34세 미혼율은 한국이 일본보다 높지만 30대 후반에서는 일본보다 낮아진다. 2015년 현재 35-39세는 1976-1980년 코호트에 해당한다. 이 코호트까지는 한국이 일본 남자보다 40세 이전에 더 많이 결혼을 했었지만 1976-1980년 이전 세대에서는 그보다도 결혼율이 훨씬 높았었다. 반대로 1980년 이후 세대에서는 앞으로 일본보다 미혼인구가 빠른 속도로 증가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 〈그림 3-2〉에서 한국과 일본 여자의 미혼율을 비교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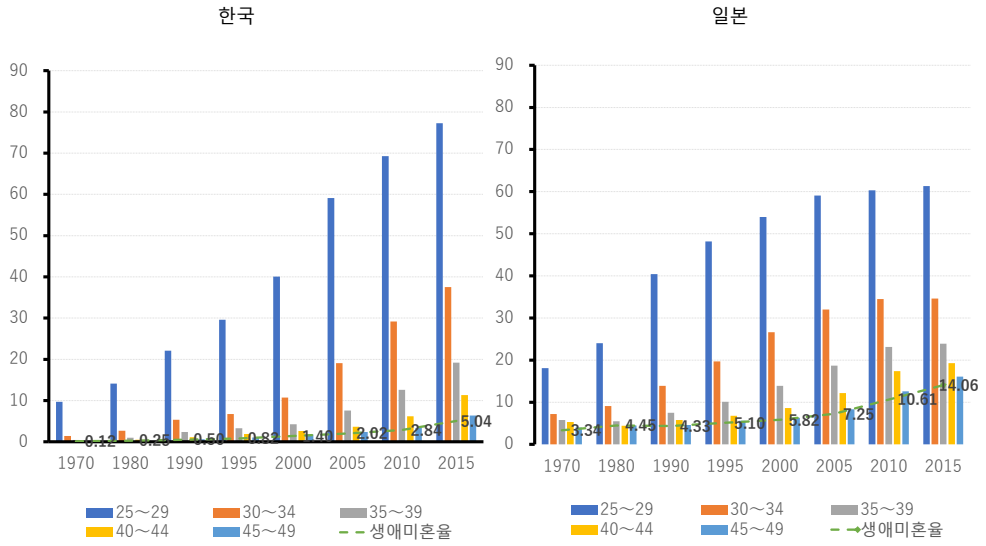
---

[8] 50세를 넘어도 한번도 초혼을 경험하지 않는 인구를 가리키며 45-49세 미혼율과 50-54세 미혼율의 평균값으로 계산된다.

[9] 일본에서 '히토리(一人)'는 '혼자'를 뜻하고 '사마(様)'는 '님'을 뜻한다. 음식점 등에서 혼자 오는 손님을 가리키고 사용했었으나 최근 '유원지' 등 원래 그룹 이용이 많은 시설을 혼자 이용하고 즐기는 사람', '정신적으로 자립하고 혼자 행동할 수 있는 사람', '미혼 혹은 배우자와의 사별로 인해 혼자 생활하는 사람' 등 많은 의미로 사용된다(일본 goo사전).

우에노(上野, 2007)는 『おひとりさまの老後('오히토리사마'의 노후)』라는 책에서 고령화가 진행된 현대 사회에서는 결혼했든 안했든 누구나 마지막은 혼자 살아가는 사회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우에노(上野), 2003) . 일본의 미혼화 현상은 한국보다 오래된 만큼 한국에 비해 '오히토리사마'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림 3-2〉 한국과 일본의 연령별 미혼율과 생애미혼율: 여자(1970-2015)



자료: 〈그림 3-1〉과 동일한 자료에서 계산

한국의 여성 또한 1990년까지 30대 미혼인구가 거의 없었으며 나아가 2000년까지도 없었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다. 2000년 한국의 생애미혼율은 불과 1.4%로 50세 넘은 여성 중 한번도 결혼을 경험한 적이 없는 여성이 매우 적었다. 여기까지는 1950년 코호트까지의 상황이다. 이후 서서히 미혼인구가 증가해 가지만 초혼연령의 상승은 확인할 수 있으나 남자에 비해 훨씬 미혼인구가 적다[10]. 20-29세 미혼율은 2005년부터 일본을 추월했으나 30-34세 미혼율은 2010년까지만 해도 일본보다 낮았다. 이후 2015년에는 30-34세 미혼인구가 일본을 추월했으나 30대 후반에는 남자의 경우와 같이 일본보다 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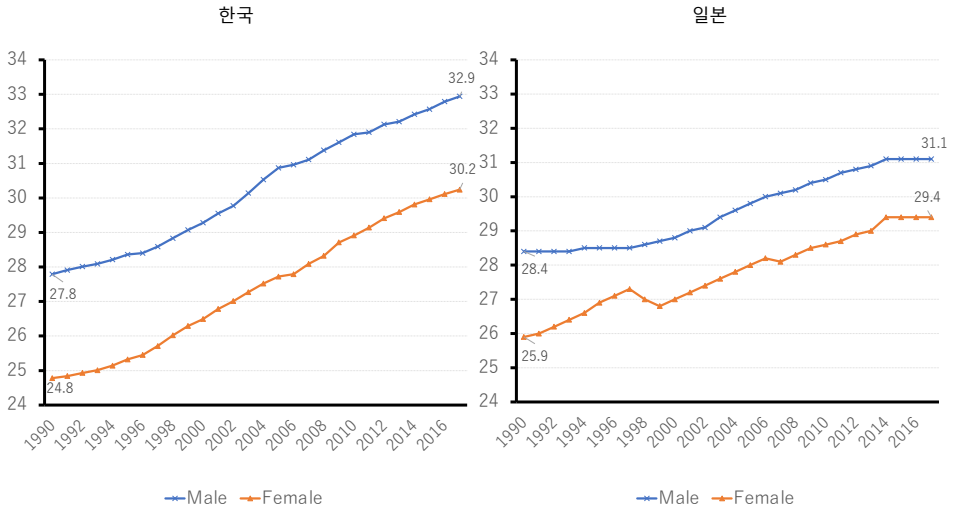
[10] 일본의 인구학자 코우노(河野, 2007)는 남녀별 인구를 같은 연령별로 비교함에 있어서는 남자가 특별히 더 많다고는 할 수 없고 성비가 결혼 적령기에 갑작스럽게 상승하는 것도 아닌데 결혼 적령기의 남자가 과잉 상태가 되어 버리는 메커니즘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결혼 인구의 공급 문제를 논의할 때 결혼 예비군으로서 무배우인구 즉 미혼+사별+이별의 세 가지 연령의 인구를 남녀 간으로 비교해야 하는데 남성이 원하는 여성의 연령 폭이 좁고 반대로 여성 쪽은 폭이 넓어서 남자가 과잉으로 남게 된다고 설명한다. 일본 데이터를 예로 들면 1980년 28세 남녀의 성비는 250을 넘는다. 그것이 2005년이 되면 국선이 평평해지며 130정도로 안정화되고 남성 과잉 상태는 이후55세 정도까지 이어진다. 20대, 30대 무배우자의 성비가 이상하게 높아지는 이유는 이렇듯이 남녀 간에 결혼 상대로 원하는 연령 폭에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많이 결혼을 하고 있다. 이 역시 1976-1980년 코호트까지의 상황이다. 남자와 마찬가지로 한국의 1980년 이후 코호트에서는 일본보다 미혼인구가 서서히 증가해 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결혼이 늦어지고 있는 것이지 결혼을 안하는 인구가 늘었다고는 보기 어렵다. 2015년 현재 한국의 생애미혼율은 5.04%에 불과해 일본의 1995년 수준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그 만큼 한국은 결혼에 있어 일본보다 보편혼 규범이 강한 사회였다. 결혼이 늦더라도 꼭 하고는 있었던 것이다. 그런 사회에서 1990년대에 여성의 미혼율이 상승해 가는 것을 최선영(2020)은 '생애과정 혁신'으로 표현했다. 그 만큼 한국 사회에서 미혼으로 사는 것은 새로운 사회현상인 것이다. 이에 대해 그는 서구사회가 전후의 풍요 속에서 보편혼을 실현한 경험과 달리 한국을 포함한 동아시아에서는 이미 전통적으로 보편혼이 오랫동안 유지되어왔다고 논의한다[11]. 다음으로 평균 초혼연령 상승 추세를 확인하자.

---

[11] 그러나 일본은 같은 동아시아 사회이지만 보편혼사회가 아니었다. 일본 역사 사회학자들에 의하면 일본은 대도시로 노동을 위해 나갔다가 결혼도 못하고 혼자 죽은 인구가 많았다고 한다. 이는 일본 친족 개념으로서 '이에'는 계승하는 사람이 한 명이기에 차남, 삼남은 도시로 노동자로서 유출할 수 밖에 없었기 때문이었고 도시에서는 남자 인구보다 여자 인구가 적기 때문에 인구의 자연 증가율이 낮았다고 한다. 일본 농촌 또한 '이에'의 노동자를 확보하기 위해 '이에' 속에 결혼을 안 하는 딸을 '오바(이모)'라고 불리는 가내 노동자로 남기고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측면은 촌외(村外)로 혼출(婚出)시키는 게 일반적이었던 중국과 다르고(우에다(上田), 1995) 보편혼 사회였던 한국과도 다르다. 오치아이는 일본의 이러한 '이에'제도 문화와 인구학적 조건으로 인해 근대화 시기에 장남 이외에는 도시로 인구가 유출되며 분가하여 누구나 핵가족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고도성장을 맞아 모든 국민이 '생계 부양자로서의 직장인 아버지, 전업주부인 어머니, 자식은 2명'인 근대가족을 이룰 수 있는 고도성장의 풍요로움을 배경으로 '재생산 평등주의'를 실현할 수 있었다(오치아이(落合), 2004 [1994]). 일본 또한 서구와 같이 전후 풍요 속에서 실현할 수 있었던 일시적인 형태의 재생산 평등현상인데 일본 가족제도는 이때 근대가족을 기준으로 제도화되어 있고 1980년대 '일본형 복지사회'라는 정책목표 하에서 가족주의가 강화되었다(落合, 2013: 87-90).

〈그림 3-3〉 한국과 일본의 남녀 평균 초혼연령(1990-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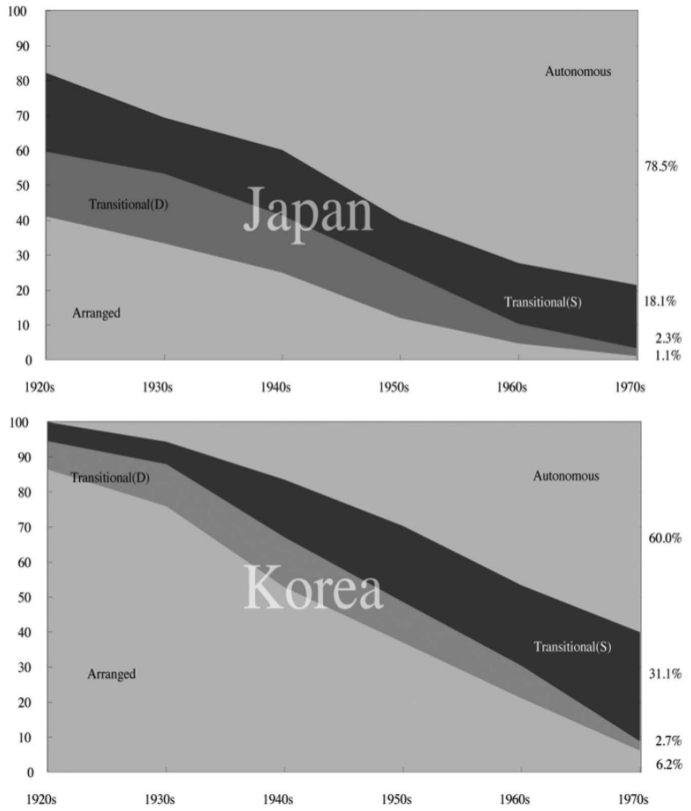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이혼편) 」; 일본,후생노동성「인구동태통계」

한국의 평균초혼연령 역시 1990년대부터 빠른 속도로 상승한다. 1990년에서 2016년까지의 26년 사이에 한국 여성의 평균초혼연령은 24.8세에서 30.2세로 약 5세 이상 상승한 것에 비해 일본 여성은 같은 시기 25.9세에서 29.4세로 약 3세 정도 상승했다. 남자 역시 한국이 27.8세에서 32.9세까지 5세이상 상승한 것에 비해 일본 남자는 28.4세에서 31.1세로 약 3세 정도 상승했다. 같은 자료에서 이전 세대까지 살펴보면 1955년 일본 여성의 평균 초혼연령은 24.7세로 한국의 1990년도 수준과 큰 차이가 없었으며 그 만큼 과거 반세기 동안 서서히 초혼연령이 상승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비해 한국은 1955년 초혼연령은 20.5세[12]로 과거 반세기 동안 약 9세나 가파르게 상승해 왔다. 많은 기존연구에서 지적된 바 있는데 이 초혼연령 상승 배경에는 교육수준의 상승이 있다. 이에 한국과 일본은 '20세기 중반의 아시아 사회의 결혼 패턴을 특징짓는 조혼・보편혼'에서 이탈한 것이 확실하다(스즈키(鈴木), 2010a; 2000b).

마지막으로 한국은 1990년까지만 해도 보편혼 사회였는데 어떻게 그것이 가능했는지를 살펴 보자. 다음 〈그림 3-4〉는 배우자와의 만남 경로를 분석한 것이다.

[12] 자료: 권희완(1982) "최근 우리나라의 가족주기 변천에 관한 고찰." 〈인구보건논집〉 1(1).

〈그림 3-4〉 출생 코호트별 한국과 일본의 배우자 선택 경로 (단위: %)



자료: Junya Tsutsui(2013), 「The Transitional Phase of Mate Selection in East Asian countries」에서 인용

이 그림은 EASS(East Asia Social Survey) 2006년도 자료를 이용해 Tsutsui(2013)가 배우자와의 만남 경로를 출생 코호트별로 분석한 것이다. 2006년 조사 당시 20-89세인 1917년생에서 1986년생까지가 조사대상이다. 현재 배우자와 어떻게 만났는지, 결혼을 결정할 때 부모의 영향이 있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을 사용해 결혼 경로를 구분했으며 가장 밑에서부터 '전통적 중매(Arranged)', '부모가 소개(Transitional, D)', '부모의 영향 있음(Transitional, S)', '근대적 연애 결혼(Autonomous)'으로 구분하여 나타냈다. 이를 보면 일본에서의 만남은 본인이 결정한 근대적 연애가 50%를 넘은 것이 1950년

코호트(단카이 세대[13])부터이다. 이 코호트까지만 해도 일본에서의 만남은 부모가 준비하거나, 부모의 영향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 본인이 결정한 케이스가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반대로 한국의 같은 세대에서는 40% 정도가 전통적 중매로 만났으며 부모의 소개나 부모의 영향을 받은 사람이 대부분이다. 이는 1920년생의 90%가 중매혼을 한 한국에 비해 일본에서는 40% 정도였던 것으로부터 양국의 결혼 경로와 의사 결정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에서 근대적 자유연애가 과반수를 차지하게 된 것은 1960년대 후반생과 1970년대생부터이다. 그런데 1970년대생에서도 결혼시에 부모의 영향을 받는다는 사람이 30%를 넘어 한국에서의 결혼이 완전히 개인의 자유로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일본 또한 1970년대생의 18.1%가 부모의 영향을 받고 있어 결혼이 완전히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은 아니지만 그래도 약 80%의 사람들이 본인 의지로 결혼하고 있어서 한국에 비해 부모의 영향을 덜 받는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부모의 영향은 근대화를 먼저 이룬 유럽에서도 어느 정도 있었지만, 상대방 선택을 부모가 했었던 것으로부터 점차 부모가 선택한 상대를 거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영국에서는 17세기 중반 이후 결혼 상대방 선택에 자식 거부권이 인정되기 시작했다 (히메오카(姫岡), 2008 : 33) .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2015) 최신 조사에 의하면 현대 일본의 중매혼은 전체 결혼 중 5.3%까지 감소하고 연애결혼이 87.9%까지 증가해 집안의 균형을 우선시한 중매결혼이 사라졌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혼 경로의 근대적 이행은 어떻게 보면 주변에서 마련해 주던 결혼을 스스로 상대방을 찾아야 함으로 인해 미혼인구 증가로 이어진 것이다. 일본에서는 과거에는 중매 역할을 한 직장에서의 상사 소개나 직장 내 연애 결혼이 최근에 들어 감소해 그것을 대신할 연애결혼 형태가 출현하지 않았다고 지적되고 있다(이와사와(岩澤)·미타(三田), 2005; 이와사와(岩澤), 2010, 2013; 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2017). 야마다(山田, 2007)는1980년 이전 사회처럼 연애하면 책임을 지고 결혼으로 이행한 시대와 달리 1980년 이후 일본에서는 ①연애와 결혼이 분리가 되고

[13] 이 세대는 전후 1947-1949년의 3년 사이에 연간 약 270만 명 규모로 태어난 '제1차 베이비붐 세대'로 불리며 일본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영향력이 큰 집단이다. 이 세대는 남편의 화이트 칼라화, 아내의 전업주부화, 자녀의 교육 기회 확대라는 3종 세트가 고도 경제성장기의 가족의 변화라 할 수 있다(사사노 미사에, 2017). 落合(2004: 94-110)가 '가족의 전후체제(家族の戦後体制)'라고 부른 일본의 근대가족은 1955년부터 1975년에 걸쳐 대중화되었다.

②남녀의 교제 기회가 증가하여 ③매력의 격차가 현재화(顯在化)되었다고 지적하고 남녀교제의 자유화[14]는 자유롭게 상대방을 고를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역으로 결혼을 감소시켰다고 했다. 한국의 결혼 감소 또한 같은 맥락으로 주변에서의 결혼 소개나 지원이 적어지는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경제적 조건 취약은 예전 세대에서도 취약한 계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인구가 결혼한 보편혼이라는 사회현상에는 주변의 지원없이 불가능하다고 여겨지며 주변의 지원 없는 자유연애는 앞으로도 미혼인구를 증가시켜 갈 것으로 여겨진다. 다른 시각으로 보면 주변 도움을 받거나 혹은 압력으로 소개를 받아 결혼을 해야 하는 시대에서 결혼을 안해도 되는 자유도 생겼다고 볼 수 있다. 과연 현대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해도 되는 자유로 받아들이고 결혼을 안하는 것인가? 혹은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것인가?

2) 저출산: 압축적 저출산 vs 장기적 저출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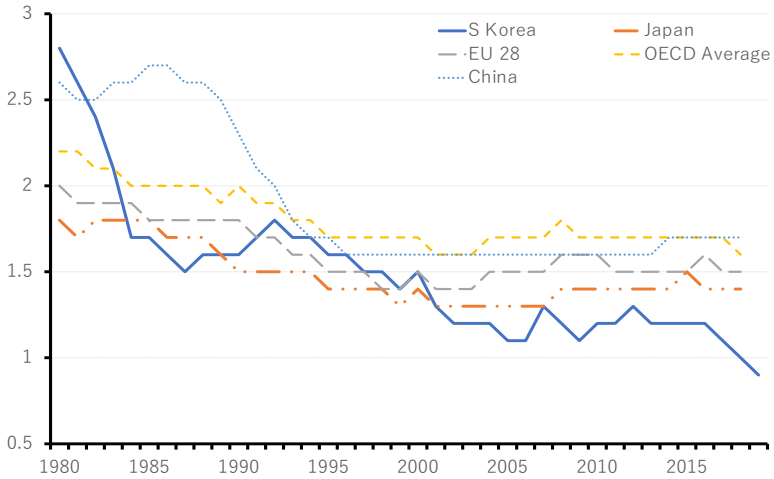
앞서 본 결혼의 감소가 2000년 이후 서서히 나타난 현상이었다면 한국의 출산율은 1960년[15]부터 어느 나라보다 빠른 속도로 하락해 왔다. 다음 〈그림 3-5〉에서 가족의 인구학적 변동의 대표적인 지표인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하락 현황을 확인해 보자.

---

[14] 근대적 연애 보급 전에는 남녀 교제 기회가 적기 때문에 중매든 직장 만남이든 지금 애인을 놓치면 다음 기회는 없을 수도 있다는 인식을 형성하고 결혼을 촉진시켰으나 자유연애가 일반화되면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생각하거나 상대방에게 선택 받지 않거나 하는 수요와 공급의 미스매치가 발생한다고 했다. 본인이 스스로 직장을 찾고 애인을 찾는다는 '개인화'된 근대사회 제도하에서는 사회적 지원없는 자유연애는 만남의 기회를 제공해도 그 속에서 매력이 있는 사람끼리 매칭되어 대다수는 '비교 대상'으로 남겨진다고 한다.

[15] 1960년의 합계출산율은 한국이 6.0명, 일본이 2.0명이다(OECD Fertility Rates: https://data.oecd.org/pop/fertility-rates.htm). (2021. 06. 10. 접속)

〈그림 3-5〉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하락 현황(1980-2019)



자료: OECD(2021), Fertility rates(indicator)[16]

출산율 하락 속도를 보면 일본은 1980년에 이미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 이하로 밑돌았던 것에 비해 한국은 이때까지만 해도 평균 3명의 자녀를 낳고 있었다. 이후 1980년부터 2000년까지에 걸쳐 한국의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해 갔으나 2000년까지만 해도 일본보다 높은 수준을 유지했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일본의 출산율 하락속도는 완화되어 약간 회복한 데 비해 한국은 이후 빠른 속도로 하락해 가며 2018년 이후 합계출산율이 1.0을 밑돌았으며 세계 최저수준까지 하락했다. 다음 〈표 3-1〉 한일 출생아수 변화를 통해 하락 속도를 확인해 보자.

〈표 3-1〉 한일 출생아수 변화: 1980-2019 (단위: 만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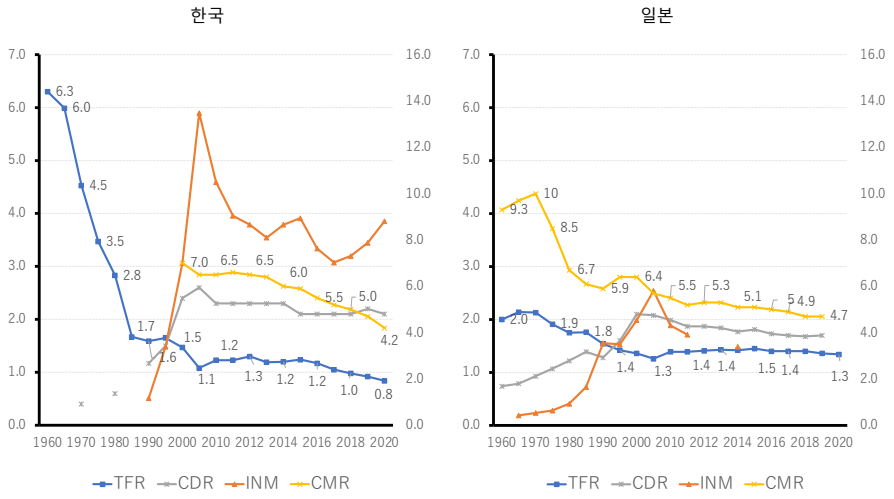
	1980	1990	2000	2010	2015	2020	1980-2000	2000-2020
Korea	86.3	65.0	63.5	47.0	43.8	27.2	-26.4	-57.2
Japan	157.7	122.2	119.1	107.1	100.6	84.0	-24.5	-29.5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동태」; 일본, 후생노동성 「인구동태」

[16] OECD Fertility Rates: https://www.oecd-ilibrary.org/social-issues-migration-health/fertility-rates/indicator/english_8272fb01-en (2021. 04. 14. 접속)

〈표 3-1〉을 보면 1980년부터 2000년 사이의 출생아수 감소 비율 변화와 2000년부터 2019년 사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1980년에 비해 2000년의 출생아수는 한국이 26.4%, 일본이 24.5% 각각 감소했으며 이 시기 비슷한 비율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2000년에서 2020년에 걸쳐 한국의 감소 비율이 가속된다. 2000년에 비해 2020년 출생아수는 한국이 57.2%나 감소해 일본의 29.5% 감소보다 약 2배의 감소폭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의 출생아수 감소는 2000년 이후에 가속한 것에 비해 일본은 한국보다 완만하게 감소하는 상황임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그림 3-6〉에서 한국의 가족변동 속도를 보여주는 또 다른 지표를 살펴보자.

〈그림 3-6〉 한국과 일본의 가족변동 양상 차이(1960-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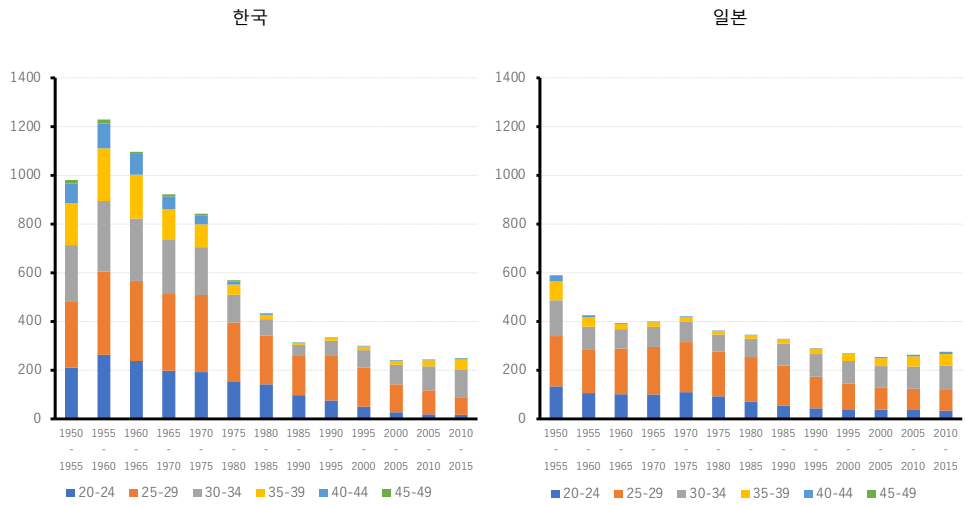


자료: 한국, 통계청 「인구동태조사」, 일본, 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

〈그림 3-6〉에서 TFR은 합계출산율, CDR은 조이혼율, INM은 국제결혼비율, CMR은 조혼인율을 나타낸다. 우측은 국제결혼비율, 나머지 지표는 좌측이 각각 지표의 비율을 나타낸다. 한국의 가족변동이 일본보다 훨씬 역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한국이 일본에 비해 합계출산율의 대폭 감소, 조이혼율의 상승, 국제결혼의 급증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본이 한국에 비해 변화의 폭이 완만하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한국의 조혼인율은 다른 변화 지표에 비해 변화의 폭이 적고 2015년까지 완만한 감소를 보였다가 2015년 이후에 급 하락한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조혼인율(노란색)과

합계출산율(파란색) 차이 폭을 양국 비교하면 한국이 훨씬 폭이 넓고 일본이 좁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2000년에서 2015년 사이의 비율을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혼인율이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데 비해 출산율이 일본보다 낮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은 결혼의 감소가 출산의 감소를 야기했다기 보다는 먼저 출산의 감소가 일어났고 나중에 결혼이 감소한 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일본은 반대로 2000년 이후에도 비슷한 수준의 출산율을 유지한 채 먼저 결혼비율이 서서히 하락해 간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중요한 결혼과 출산의 감소 시기와 속도 차이는 나중에 가치관 측면에서도 반영되어 있을지도 모른다. 한국은 2000년 이후 서서히 감소한 결혼의 공백을 메우듯이 국제결혼이 급증해 다른 대체적 형태의 결혼이 급증했으나 일본에서는 한국보다 일찍부터 혼인율 감소를 경험해 와 한국과 달리 국제결혼 급증현상은 관찰되지 않는다. 한국은 혼인율 감소를 국제결혼으로 대체해 왔으며 혼인율 감소도 일본에 비해 완만했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한국의 미혼인구 증가는 2000년 이후의 이야기이고 그 전의 한국사회는 보편혼을 지키는 강한 결혼규범을 가지는 사회였다. 결혼을 지키려고 하는 규범이 강한데 비해 출산율이 빠른 속도로 하락해 가는 것은 결혼가치와 자녀가치가 함께 변화해 가는 세트가 아니고 따로 변해가는 규범이라서 그런가? 그러한 생각을 가지게 되는 또 다른 자료를 확인해 보자.

〈그림 3-7〉 한국과 일본의 여성 연령별 출생아수 차이(1950-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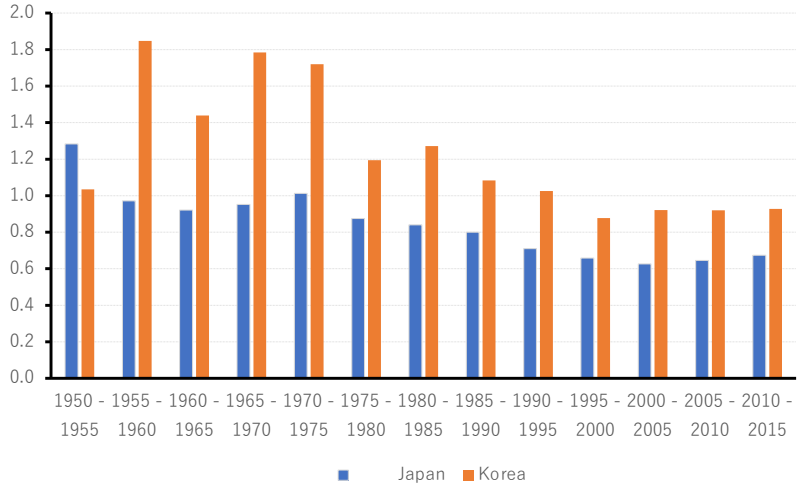


자료: United Nations, Department of Economic and Social Affairs, Population Division (2015)

〈그림 3-7〉에서 보면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국의 연령별 출산율이 일본보다 훨씬 높은 수준에 있었는데 2000년이후 일본보다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전의 결혼 통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한국의 미혼인구는 2000년 이후 증가해 갔지만 2015년까지만 해도 일본보다 결혼 비율이 높았었다. 따라서 한국의 출산율 저하를 단순히 결혼인구의 감소로만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발견은 비교연구가 중요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출산율 감소는 복합적인 요인들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으로 어느 하나의 요인만으로 설명될 수 없다. 그러나 한국의 많은 연구자들이 저출산은 가임기 여성 감소와 이들의 결혼 감소 혹은 결혼 지연으로 초래된 현상이라고 간주해 왔다(예를 들어 이철희, 2012; 우해봉·장인수, 2017: 149-151; 조성호 외, 2019: 10, 최선영, 2020: 11). 그렇다면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일본보다 낮아진 한국의 출산율 하락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가임기 여성이 일본보다 낮아야 하고 또 가임기 여성의 혼인율이 일본보다 낮아야 한다. 그런데 〈그림 3-6〉에서 확인한 조혼인율 및 〈그림 3-1〉과 〈그림 3-2〉에서 확인한 연령별 혼인율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결혼연령은 가파르게 상승했으나 아직까지 가임기 여성의 기혼율이 일본보다 높았다.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출산 가능한 인구인 가임기 여성의 숫자 자체가 일본보다 낮아서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은가? 가임기 여성을 비교할 수 있는 '재생산 가능인구'를 확인해 보자.

〈그림 3-8〉 한국과 일본의 재생산가능인구 비율 추이(1950-2015)



자료: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 (2019).
「World Population Prospects: Net Peproduction Rat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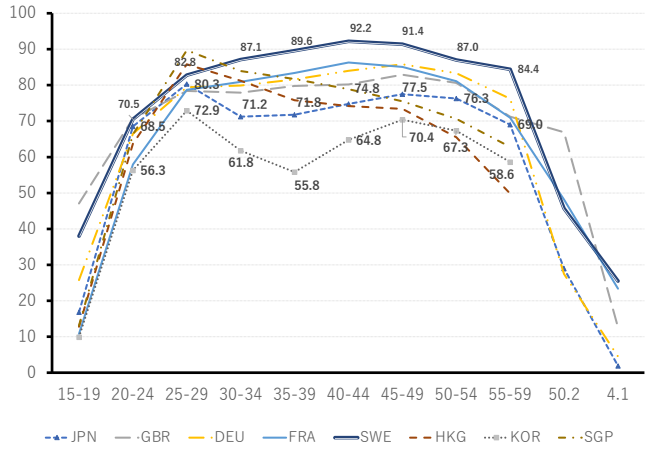
한국의 저출산이 본격화된 것은 2000년 이후 이야기이다.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한국의 출산율은 2000년전까지만 해도 일본보다 훨씬 높았다. 따라서 재생산가능인구도 2015년 기준으로는 당연히 일본보다 높다. 오늘날 인구대체수준은 한 여성이 평균 2.2명정도의 아이를 낳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것은 어머니가 두 명의 아이를 낳을 때 그 중에 한명이 딸이면 그 사회의 재생산 가능인구는 1명이라는 것을 의미하며 사회의 지속가능성의 하나의 지표로 사용된다. 2명의 아이를 낳아도 모두 아들일 수 있으니 평균 2.2명 정도의 자식을 낳아야 재생산가능인구가 이어진다고 이해된다. 이 지표를 보면 일본이 이미 1955년 이후부터 재생산가능인구가 1명이하로 떨어진 것에 비해 한국은 1.8명이나 되었었다. 2015년 오늘날 한국도 빠른 속도로 감소했지만 아직 1명 가까이의 여성이 있다는 것은 가임기 여성이 인구 중 차지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이다. 일본은 이미 0.6명 수준까지 떨어졌기에 만약에 앞으로 여성이 2명씩 출산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어머니의 수가 많이 감소한 탓에 인구는 계속 감소해 간다는 것이다. 그만큼 일본의 저출산은 오래된 현상이라는 것이며 그만큼 한국의 저출산은 최근에 급격하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한국이 아직까지 노동인구도 많고 어머니의 수도 비교적 많다는 인구구조적 혜택이 있음에도 한국의 출산율이 일본보다 낮은 것은 만약에 인구구조를 오늘날

일본구조로 표준화시켜 출산율을 계산해 보면 지금보다 훨씬 낮게 계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혼의 약화 속도보다 출산율이 급진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면 단순히 혼인 인구감소가 출산율 감소를 야기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고 결혼가치와 자녀가치 자체에 있어서 일본과 차이가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다.

3) 여성의 사회적 지위와 노동력률

다음 〈그림 3-9〉는 주요국 여성노동력률을 보여준다.

〈그림 3-9〉 주요국 여성 연령별 노동시장 참여율(2015)



자료: 일본,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조사」(2016), 기타 「OECD database」[17]

2015년 현재 선진국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성격이 M자형을 그리는 국가가 한국과 일본밖에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 가장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 국가는 한국이며 그 다음으로 낮고 M자를 그리는 국가가 일본이다. 이는 한일 대부분의 여성들이 결혼 전에는 일을 하지만 결혼이나 출산을 계기로 일을 그만뒀다가 자식이 어느 정도

[17] http://stats.oecd.org/

성장한 후에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온다는 생애 패턴임을 보여 준다.[18] 한국과 일본 여성들 사이에서 이러한 비슷한 성격이 보이는 배경에는 많은 공통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구조적으로 양국에서 양육이 시장화 및 사회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생계부양자인 남성이 노동시장에서도 장시간 노동을 수행하며 여성이 가사와 육아를 부담하는 역할분업체제가 강하게 유지되어 왔다. 즉 한국과 일본에는 성별역할분업형 인생 모델이 정착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생애 패턴은 국제비교 관점에서는 '가족주의'라고 일컬어져 왔다. 그 근거로서는 남성을 경제적 책임, 여성을 가족 돌봄의 담당자로 하는 성역할 분업이 유지되어 있다는 점, 고령자에 있어서는 자녀와의 동거율이 높고 사람들의 복지가 가족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는 규범이 강한 점, 기업이 직원과 그 가족에 대한 복리후생이 극진하다는 점들이 지적되어 왔다(Esping-Andersen, 1999=2001; 이와이(岩井), 2013에서 재인용). 이와이(岩井, 2013)는 여기에 교육비가 가계에 크게 의존하다는 점도 포함시킬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가정에서 남편의 가사 부담률이 매우 낮고[19] 육아의 책임 또한 어머니 몫이라는 사회 규범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에서는 '완오페 육아'[20], 한국에서는 '독박 육아'라는 단어가 등장해 여성이 혼자 양육 책임을 맡아야 하는 육아의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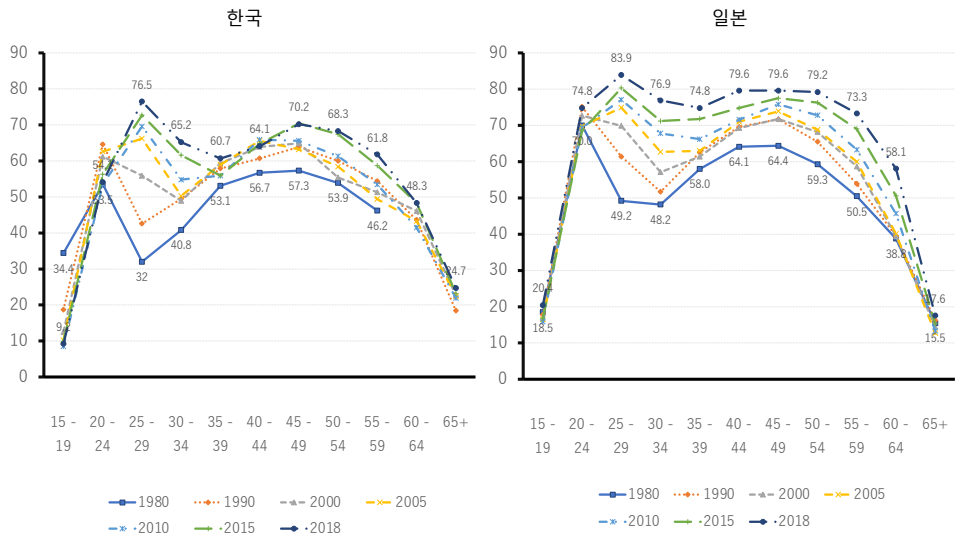
[18] 반면 중국이나 태국에서는 남성과 동등하게 취업 중단 없이 일하는 여성이 압도적으로 많은데, 대만, 홍콩, 싱가포르 국가들은 M자가 아니라 노동시장 참여율이 20대 때 정점에 이르렀다가 30대 이후에는 서서히 낮아져 간다. 이러한 사회에서는 자식이 어릴 때 일을 하고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일을 그만두는 생애과정을 밟는다. 이러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성격만으로도 현대 아시아 사회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데, 여성 취업이 사회 발전단계에 따라 단순히 북유럽, 서유럽, 북미 사회처럼 남녀가 동등하게 평생 일하는 방향으로 수렴해 간다고는 할 수 없다.

[19] 국제 사회 조사 프로그램 (ISSP)이 2012 년에 실시한 '가족과 성역할에 관한 의식조사(Family and Changing Gender Roles Ⅳ)'에서18 세 미만의 아이가 있는 남녀가 집안 일에 투자하는 주간 평균 시간을 조사한 결과, 일본에서는 남편 주 평균 가사 부담률이 18.3%로 아내의 5 분의 1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조사 대상국38개국 중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 또한 25.8%로 4번째로 낮은 수준에 있다. (계산식: 남성의 평균 시간/(남성의 평균 시간+ 여성의 평균 시간). 일본의 경우 남성이 12.0시간, 여성은 53.7 시간으로 부부 합산에서 남편 가사 분담률을 계산하면 12.0 / (12.0+ 53.7) = 18.3 %). OECD(2012)에서도 하루당 남성 무상노동(가사·육아 등) 종사 시간이 일본은 45분으로 가장 낮았고 한국이 59분으로 그 다음으로 낮았다. 양국 모두 OECD 평균 140분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한다.

[20] '완오페'는 '원 오퍼레이션'의 약자로, 패스트푸드점이나 편의점 등에서 혼자 근무하는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 '혼자서 모든 걸 다'라는 상황이 혼자서 일 · 가사 · 육아를 모두 해 나가야 한다는 어머니의 '고립 육아'와 비슷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중심으로 널리 사용되는 표현이다.

고립 상황 또한 양국의 유사한 사회문제라고 지적할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여성노동시장 참여율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시계열로 살펴보자.

〈그림 3-10〉 한일 여성 연령별 노동시장 참여율(1980-2018)



자료: 한국,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일본, 총무성 「노동력조사」

1980년부터 2018년까지 한일간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을 비교해 보면 양국 모두 시간 경과에 따라 여성 취업률이 상승해 왔으나 증가의 폭은 일본이 더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2018년 현재 일본의 여성 취업 성격이 M자의 바닥은 낮아졌으며 2015년까지만 해도 30대 초반에서 바닥이 가장 낮았는데 2018년에는 30대 후반의 취업률이 가장 낮아져 노동시장 이탈 연령이 상승했다. 그래도 2018년에는 가장 낮은 비율인 30대 후반의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74.8%로 과거에 비해 크게 상승했다. 한국 또한 혼인 연령과 출산 연령의 상승으로 인해 M자 바닥이 오른쪽으로 이행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30대에서 크게 하락한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바닥으로 떨어지는 연령이 상승해 2015년 이후에는 30대 후반이다. 2018년 현재 노동시장에서 가장 이탈하는 경향을 보이는 35-39세는 1979-1983년생이며 노동시장 참여율이60.7%까지 떨어진다. 같은 세대 일본은 74.8%인 것에 비해 15%정도 차이가 난다. 오늘날 이러한 M자형 여성 노동생애 성격을 마치 한국과 일본의 특징인 것처럼 지적하지만 M자형 취업 패턴은

산업화 시기에 다른 선진 국가에서도 존재했었다(이와이(岩井), 2013).[21] 그런데 남녀평등의 흐름과 함께 서구 사회에서는 1970년대 이후 서서히 사라진 것이다. 한국과 일본은 다른 선진 국가가 남녀평등 사회로 변해간 시기에 변화하지 못했기에 오늘날까지도 양국의 취업 패턴 특징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그런데 오늘날 한국이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일본보다 많음에도 왜 여성노동시장 참여율이 일본보다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일까? 그에 관해서는 Nishimura & Kwon(2016)의 연구에서 자세히 분석되어 있으니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한국과 일본은 가족주의와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반영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았으나 과거 20년 사이에 일본은 유급노동자가 증가한 것에 비해 한국은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어 그 차이가 확대되는데 그 이유를 첫번째 고용 시스템, 두번째 여성 유급노동에 대한 태도, 세번째로 육아정책의 세 가지 측면에서 검토하고 있다. 먼저 고용시스템 차이를 비교해 보면 첫째 남녀임금격차가 일본이 과거 20년동안 축소된 것에 비해 한국은 축소되지 않았고 OECD에서 가장 큰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22] 한국 여성은 한번 노동시장을 이탈(opt-out)하면 다시 복귀하는 동기부여가 낮다는 점과 두번째로 질이 높은 파트타임 노동이 한국에는 없다는 점을 지적한다. 일본 기혼여성은 파트타임 노동자가 대부분인데 이는 Esping-Andersen(2014)이 제시하는 1.5인 브레드 위너 모델(1.5 Breadwinner Model)에 해당되며 독일, 네덜란드, 영국처럼 여성에게 모성이 요구되고 전통적인 젠더 역할을 수행하면서 경제활동도 하기 위해 단시간 노동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일본 파트타임 근로 여성의 급여가 정규직의 70% 수준이라면(2016년) 한국은 26.2%(2015년)밖에 되지 않으며 노동의 질과 급여 액수 모두 낮기에 자녀가 있는 어머니에게는 매력적인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이다. 다음으로 여성 유급노동에 대한 태도 차이에서는 양국이 서구사회보다 보수적(Conservative)이라는 공통점이 있고 전업주부 가치를 높게 인정하고 있으나 남녀역할분업에 대해서는 최근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 여성 취업에

---

[21] 스웨덴, 미국, 독일과 일본의 1970년대부터 2005년까지 여성의 연령별 취업률을 비교한 그의 연구에서 1970년대에는 위 3개국 사회에서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성격은 M자형이었으나 1970년대에서 1990년대에 걸쳐 사라진 것이다.

[22] 최신 통계를 보면 2019년도 OECD남녀임금격차는 한국이32.5%로 1등, 일본이23.5%로 2등을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도 결코 낮다고는 할 수 없다. (OECD, Gender Wage Gap, 2019: https://data.oecd.org/earnwage/gender-wage-gap.htm 2021년6월9일 접속)

대해서는 한국이 오히려 일본보다 중립적(Liberal)이지만 어머니의 자녀 양육 책임(Childcare Responsibilities)이 일본보다 무겁기에 어머니가 취업하면 자녀에게 해를 끼친다고 생각하고 부정적으로 본다. 일본은 과거 20년 동안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 비교적 중립적인 입장으로 바뀐 반면 한국은 부정적으로 바라보기에 이러한 차이가 어머니 취업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고 봤다. 세번째로 육아 정책 차이를 검토하고 있는데 한국의 보육 서비스 제공이 양적으로 급속히 확대되어 시설이용률이 2012년 62%까지 상승했음에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시설의 질이 아직 부모의 기대수준 이하에 있다는 점과 육아휴직 중에 받을 수 있는 급여가 전 월급의 40% 혹은 월 100만원까지밖에 안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하물며 그것도 고용보험 대상자에게만 해당하는 제도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육아유직의 첫 6개월은 전 월급의 67%를 받고 나머지 기간은 50%를 받을 수 있는 점과 비정규직자에게도 그것을 받을 자격이 있다는 점에 차이가 난다고 한다. 이러한 세 가지 이유로 한국이 일본보다 여성 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데 통계분석 결과에서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출산 전후에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사람이 많지만 양국이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출산 전에 대부분 일을 그만둔다. 그러나 인적자본이 높은 여성(여기서는 정규직과 전문직)은 한국·일본 공히 출산 후에도 노동시장에 머무는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이 연구에서 보면 일본은 남편의 수입이 낮은 여성이 노동시장에 머무는 가능성이 높지만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가설이 지지되는 결과가 나왔다. 이에 대해서는 일본에서 잃어버린 20년 동안 남성의 임금 수준이 거의 수평적으로 머물고 있어서 여성이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은 과거 20년 동안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월급은 물론이고 물가 및 금리도 상승하지 않았기에 그것을 설명 변수로 본다면, 1990년말부터의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한국이 오히려 여성이 일해야 하는 상황임에도 왜 남편 수입이 낮은 여성조차 일을 하지 않고 생활해 가는지가 오히려 의문이기도 하다[23].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에 머무는 여성의 코호트

---

[23] 경제위기 이후 양국의 종합 물가 상승률(전년대비)을 살펴보면 일본이 1998년에 +0.2%에서2005년까지 매년 마이너스로 오히려 물가가 내려갔으며 2006년에도 +0.2%, 이후 비슷한 수준으로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왕복하고 있다(2021년 총무성 통계국 소비자물가지수 장기시계열 데이터 각년도). 이는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말해지는 이유로 경제도 월급도 상승하지 않았으나 물가는 오히려 내려갔기에 국민이 생활수준 하락을 느끼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이다. 반면 한국은 1998년에는 +7.5%, 경제위기 직후의 1999년에는 +0.8%로 떨어지지만

효과가 일본에서는 확인이 되며 젊은 세대[24] 일수록 노동시장에 머무는데 한국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결과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한국이 일본보다 여성노동시장 참여율이 낮은 기제를 결정 짓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측면은 첫째 노동시장에서 임금차이가 있어 한국이 일본처럼 월급이 좋은 파트타임 노동에 종사할 수 없다는 점과 노동시장 남녀 임금격차도 일본보다 크다는 점, 둘째 한국이 일본에 비해 어머니의 육아 책임이 무겁고 어머니 취업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가진다는 점, 셋째 육아 휴직 중에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한국이 일본보다 적다는 점으로 정리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일본 여성이 노동시장에 남는 사람이 젊은 세대일 수록 높아지고 있는데 비해 한국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한국이 일본보다 더 남녀분절적인 노동시장구조를 가지고 여성이 놓여져 있는 조건도 좋지 않으며 사람들의 생각 또한 어머니 취업을 좋게 받아들이지 않는 문화가 남아있다는 것이다. 여성이 취업을 지속할 수 있는 여건이 개선되지 않아서 코호트 효과도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며 가정에서의 어머니 역할이 일본보다 중요하기에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일보다 가정을 선택하여 살고 있다는 점에서 일본보다 남녀분절적인 성별역할분업을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연구는 코호트 분석을 하고 있으나 설명에서 제시된 지표들은 여성의 유급노동에 대한 거시적인 지표를 사용한 논의에 그치고 있다. 예를 들어 남녀임금격차나 어머니 취업에 대한 태도 등 거시적으로 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보수적이고 여건이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어도 세대별로 자세히 살펴보면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세대에서는 개선되어 있을 지도 모른다. 한국사회는 너무나 빠른 속도로 변화해 왔기에 거시적인 '평균값'으로 논의하면 코호트 및 성별 차이가 사라져 버리기 때문이다. 따라서 다음 절에서는 젊은 세대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근 추세를 살펴보도록 한다.

2000년 +2.3%, 2001년에도 +4.1%로 경제위기 이후에도 한번도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진 적이 없었으며 매년 높은 수준으로 물가가 상승해 왔다(통계청 소비자물가지수 각년도). 매년 이 정도 물가가 올라간다면 월급도 같은 수준으로 올라가야 여성이 취업하지 않아도 생활할 수 있기에 단순히 한일 남성 월급 상승률 비교 만으로 일본 취약층 여성이 노동시장으로 나가고 한국은 나가지 않는 이유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본다. 한국의 여성은 남편의 수입이 낮아도 일본 여성과 달리 노동시장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한국 남성의 고용이 여성이 일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안정적이고 월급도 높다는 것일까?

[24] 이 논문에서는 1960년대생, 1970년대생, 1980년대생의 3 가지 코호트를 비교하고 있다. 젊은 세대는 1980년대 코호트를 가리킨다.

2절. 한국과 일본의 청년을 둘러싼 환경 변화

1) 경제위기와 노동시장 변화: 남성의 불안정화 vs 남성의 보호

먼저 거시적인 자료에서 한국과 일본 여성이 놓여져 있는 사회적 지위를 확인하자. 세계경제 포럼(World Economic Forum)에서 발표한 세계 성별차 보고서(The Global Gender Gap Report)를 살펴보면 2018년에는 조사 대상국149개국 중 일본이 110 위(Score 0.662), 한국이 115 위 (Score 0.657)로 양국 모두 남녀 평등한 사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조사는 경제, 교육, 건강, 정치의 네 가지 분야 데이터에서 작성되며 0이 완전 불평등, 1이 완전 평등을 의미한다. 중요한 것은 이 순위가 2021년 156개국 중 한국이 102위로 상승한 것에 비해 일본이 120위로 순위가 하락하여 양국의 평가가 역전된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25]. 한국이 일본을 추월한 것은 2020년부터이며 이 때 163개국 중 일본이 121위로 하락한 것에 비해 한국이 108위로 상승했으며 2021년에는 한국의 순위가 더 상승했다[26]. 세계 성별차 지수(The Global Gender Gap Index)에서는 경제 시장 참여와 기회(Economic Participation and Opportunity), 교육 성취(Educational Attainment), 건강과 수명(Health and Survival), 정치 임파워먼트(Political Empowerment)의 네 가지 측면에서 남녀 차이를 측정 및 평가하고 있다. 내역을 자세히 살펴보면 2021년 경제 시장 참여와 기회는 한국이 123위(일본은 117위), 교육 성취는 한국이 104위(일본은 92위), 건강과 수명은 한국이 54위(일본은 65위), 정치 임파워먼트는 한국이 69위(일본이 147위)였다. 남녀평등을 측정하는 국제적 지표를 하나 더 살펴보자면 유엔이 발표하는 젠더 개발 지수(GDI, Gender Development

---

[25] 102위인 한국의 주변에는 그리스(98위), 헝가리(99위), 캄보디아(103위), 중국(107위) 등 동유럽과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모여 있으며 120위인 일본 밑으로는 이집트(129위), 터키(133위), 카타르(142위) 등 중동국가들이 줄지어 있다. 자료: Global Gender Gap Report 2021 http://www3.weforum.org/docs/WEF_GGGR_2021.pdf

[26] 13년전인 2006년에는 115개국 중 일본이 80위(Score 0.645), 한국이 92위(Score 0.616) 였던 것을 고려하면 조사대상국이 늘어났음에데도 한국이 빠른 속도로 개선되어 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Index) [27] 가 있는데 이 조사는 평균수명과 교육 수준의 남녀 차이를 포함한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를 작성하여 남녀차이를 평가한다. 인간개발지수(HDI)의 남녀 격차는 2020년 일본이 189개국 중19위(0.919포인트), 한국이 22위(0.916 포인트)로 평가 받았으며 평균수명과 교육수준을 주요 지표로 한 이 조사에서는 양국이 낮은 순위가 아님을 알 수 있으나 2000년 이후 한국의 고등교육 이수자가 일본보다 높아졌고 또 한국이 일본과 달리 오늘날 여성의 고등교육 이수자가 남자보다 높은데 여성 교육수준은 위 두 가지 지표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낮게 평가되어 있다. 본 연구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은 한국의 세대간 교육격차가 OECD국가 중 매우 크기에 평균값으로 계산하면 모든 숫자가 기성세대 여성의 열악한 조건이 반영되어 낮게 나타난는 점에 있다. 2000년 이후 벌써 20년 넘게 한국이 일본보다 고등교육을 받는 젊은 사람이 훨씬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 교육수준이 일본보다 낮게 평가 받을 정도로 기성 세대 교육수준이 낮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 전체 평균값에서도 세계 성차별 지수에서 한국이 일본을 추월했다는 것은 그 만큼 젊은 세대에서 빠른 속도로 성별 차이가 축소되어 있다는 것이다. 그래야 기성세대의 삶 지표와 상쇄되어 순위가 약간 올라가기 때문이다.

세계 성별차 지수에서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 부분은 정치 임파워먼트이다. 순위가 아주 낮은 일본은 국가 정책 의사결정 자리에 여성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여성을 위한 정책도 중년 이상 남성을 중심으로 논의되기 때문에 여성을 위한 사회정책이 전개되기 어려운데 비해, 한국은 2005년 여성부를 개설하고 여성의 권익을 증진시키는 여성정책을 추진해 왔다. 그 중 하나가 국회의원 여성비율을 일정수준 증가시키는 쿼터제도 도입이며 2000년대부터 빠른 속도로 여성을 위한 정책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한 일련의 노력이 국제지표에서도 정치 임파워먼트 순위를 크게 상승시킨 결과로 이어졌으며

---

[27] GDI는 인간 개발의 세 가지 기본 측면 성취도의 남녀 격차를 나타낸다. 세 가지 측면은 건강 (남녀별 출생시 평균 수명), 교육 (남녀별 입학 연령 아동의 예측 취학 년수 및 25 세 이상 성인의 평균 취학 년수), 경제 자원의 가용도 (남녀별 1인당 GNI 추정치)이다. GDI의 산출 방법에 대해서는 인간 개발 보고서 웹사이트 http://hdr.undp.org/en/data의 '기술 노트 3'에 설명되어 있다. 각국의 GDI 순위는 HDI의 남녀 평등에서의 절대 편차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즉 남성 우위의 불평등과 여성 우위의 불평등도 동일 취급으로 랭킹에 반영된다.

반대로 일본은 과거에 만들어진 제도를 고집해 왔기에 경제위기 이후 전통적 가족[28]을 지키자고 남녀역할 분업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펼쳐 왔다. 물론 쿼터제도 도입 배경에는 한국은 민주화 운동 이후 여성의 권리 또한 인권문제로 중요하게 다루어왔으며 오랜 시간에 걸친 여성들의 요구 끝에 법적인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뒤에서 확인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경제위기 이후의 남녀 노동시장 위치 변화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양국의 경제 시장 참여와 기회에 대한 평가를 살펴보면 한국이 123위, 일본이 117위였다. 이 지표에서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기회에 대하여 참여율이 중요한 지표로 다루어져 있는데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은 한국이 일본보다 낮지만 여성 관리직 비율 평가에서는 한국이 15.6%로 일본 14.7%보다 높게 측정되어 있다. 이 때까지 서구 중심의 국제비교연구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 참여와 기회 상황을 살펴보는 지표로 경제활동 참여'율'을 중요한 지표로 다루어 왔다. 나아가 이 지표를 사용해 여성 경제활동 참여와 출산율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다. 특히 20세기 후반 서구에서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출산에 대한 여성의 기회비용이 증가해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부의 상관관계가 관찰되었다. 그런데 2000년 이후 이 상관관계가 역전되어 거시적인 시각으로 비교할 때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높은 국가에서 출산율의 회복이 관찰되며(Brewster& Rindfuss, 2000 ; Engelhardt, Kögel, & Prskawetz, 2004)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뒤쳐져 있는 사회에서 오히려 출산율이 낮다고 논의되어 왔다. 오늘날 이러한 틀에서 바라보면 한국이 일본보다 여성 경제활동 참여'율'이 낮아서 출산율도 낮다고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여성의 경제적 기회와 참여 그리고 그것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할 때에는 여성이 그 사회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는지 일의 '질'을 중요한 지표로 다루어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만약 남성보다 열악한 조건과 환경에서 양적으로 여성의 취업이 늘어났어도 '취업률'은 상승했기에 그 사회의 여성 사회진출이 활발하다고 논의해 버리는 함정을 피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성노동시장 참여 성격인 '질'적인 측면에 주목하여 한일 비교해 보도록 한다. 특히 한국의 출산율 하락은 2000년 이후에 가속화된 현상이자 젊은

[28] 일본 정치가가 말하는 '전통적 가족'은 근대화 과정에서 보급된 '일본형 근대가족'을 가리킨다.

세대에서의 출산행동 변화인 만큼 2000년 이후의 청년을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변화에 주목해 보고자 한다.

정이환(2011)은 한국 고용체제의 성격을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점이 많은 일본과의 비교가 유효하다고 하면서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최근까지 한국과 일본 정규직 고용관행의 변화를 분석하고 있다. 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경제위기 이후 '일본에서는 장기고용관행이 유지되었다면 한국에서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비자발적 고용조정이 증가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성이 약화되었다'는 차이점을 지적한다(정이환, 2011: 52-55). 즉 경제위기 이후 양국에서 기업 내 고용 안정의 추이가 상당히 다르다는 이야기이다. 한국에서는 내부 노동시장의 약화로 인해 남성 고용 안정성이 하락했다(정이환, 2013; Kwon, 2015)는 논의가 일반적인 평가이다. 물론 일본 국내에서도 경제위기 이후 중년을 중심으로 임원 삭감 등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는 논의도 있다(오고시(小越), 2006; 하마구치(濱口), 2014). 그렇지만 일본이 경제위기 이후에도 일본형 고용[29] 체제를 유지했다고 보는 시각이 일반적인 평가이다(오오타케(大竹), 2001; 닛따(仁田), 2003; Song, 2014; Vogel, 2006). 일본 '고용동향조사 보고서 각년도'에서 연간 이직률과 해고율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1997년에 0.7%에서 1999년에 1.5%, 2001년에 1.5%로 증가한 것은 확인되지만 2005년에는 0.6%까지 하락하여 1980년대 수준까지 회복한다(정이환, 2011:41-42). 반면 '사업체 패널조사(2002년도)' 자료를 확인해 보면 한국의 2002년도 응답 사업체 1,991개 기업 중 '명예퇴직 또는 정리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실시한 사업체 비율'이 21.4%, 2003년에는 23.6%로 증가했다. IMF직후인 1998년에 실시된 '기업체의 인력관리 및 고용조정 실태조사' 를 보면 600개 사업체 중 69.6%가 종업원 수를 조정했다고 했으며 79.9%가 임금 조정, 30.7%가 기업조직

[29] 여기서 말하는 일본형 고용 체제란 Abegglen(1958)이 처음으로 제시한 것인데 그는 일본 공장의 관찰을 통해 서구에는 찾아볼 수 없는 다음 네 가지 -'종신고용', '연공 임금', '기업내 조합', '기업내 복지'-를 일본적 고용 제도의 '네 가지 기둥(柱)'이라고 정리했다. 이후 일본 고용 관행에 관한 연구는 발전되어 갔으며 오늘날 일본의 '고용'이 가지는 의미와 역할이 '구성원임인 것', 즉 '멤버쉽'의 의미를 가진다는 성격에 대해 많은 연구에서 지적되어 있다. 구성원인 정규직 사원과 비구성원인 비정규직 사원을 대우 면에서 명확히 차별화 시킨다는 것이다. Imai(2011)는 '기업별 시민권(Company Citizenship)'이라는 관점을 사용해 일본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대우 차이를 논의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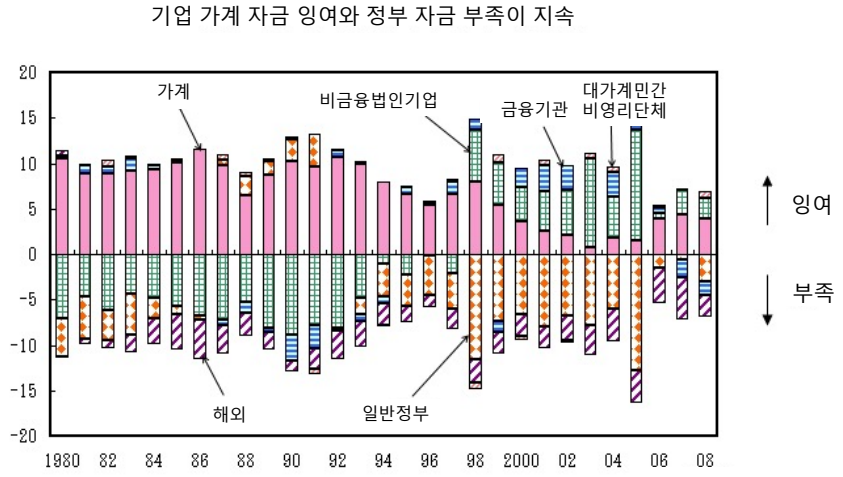
재구축을 하고 있다고 조사되었다(정이환, 2011: 47). 이러한 비교를 통해 한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희망퇴직도 많이 사용되었을 뿐만 아니라 권고사직도 더 자주 활용되었다고 한다. 경제위기 이후 양국의 기업 내 고용 안정의 추이가 상당히 달랐는데 이에 대해서는 일본은 경로의존적으로 종신고용관행을 유지해 왔음에 비해 한국에서는 경제위기 이전에도 장기고용관행이 제도화 되지 못했다고 보고 있다.

왜 같은 경제위기를 맞이하였는데도 일본은 경로의존적으로 종신고용관행을 유지할 수 있었음에 비해 한국에서는 남성 고용까지 포함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해야 했을까? 이에 대해서는 양국의 경제위기 성격 자체가 달랐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일본 국내의 자금 상황은 가계부문, 기업부문 그리고 정부 부문으로 나눠서 살펴볼 수 있다. 〈그림 3-11〉에서 그 현황을 살펴보자. 내각부 보고서에 의하면[30] 일본은 1990년 초반의 버블 붕괴 전에는 가계부문은 과도한 자금 잉여, 기업부문은 과도한 자금 부족이었다가 경제붕괴 후 가계부문 자금은 서서히 감소하였으며 기업부문의 자금부족 또한 축소되었다. 정부자금은 1988년부터 1991년까지 자금 잉여였으나 버블 붕괴 후 자금 부족으로 전환되었다. 그러다가 1997-1998년의 금융위기 전후에 다시 변화가 일어났고 가계부문은 일시적으로 자금 잉여를 확장시켰다가 이후 축소해 간다. 그런데 기업부문은 자금 잉여로 전환되었다. 정부부문의 자금 부족은 대폭 확대되어 그 상태가 오랫동안 이어졌다. 일본은 국가가 가금이 없어도 개인과 기업이 자금을 가지고 있었으며 총 국내 자금이 잉여 상태였던 것이다. 따라서 외국 자본을 빌려서 경제위기를 극복한 것이 아니라 국제를 발행하여 자국민이 국가 부채를 부담해 온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국가 부채가 많아도 그 부채를 국민 돈으로 보전하고 있기에 외국의 자본을 필요로 하지 않고 본인들 의지로 구조조정이 가능했으며 일본형 고용제도를 지킬 수 있었다는 점에서 한국과 차이가 있다.

---

[30] 내각부 경제제정백서 '2009년도 연차 경제재정보고' '제3절 '위기 후' 일본 경제를 생각하는 시점' https://www5.cao.go.jp/j-j/wp/wp-je09/09b02030.html

〈그림 3-11〉 일본 부문별 자금현황(1980-20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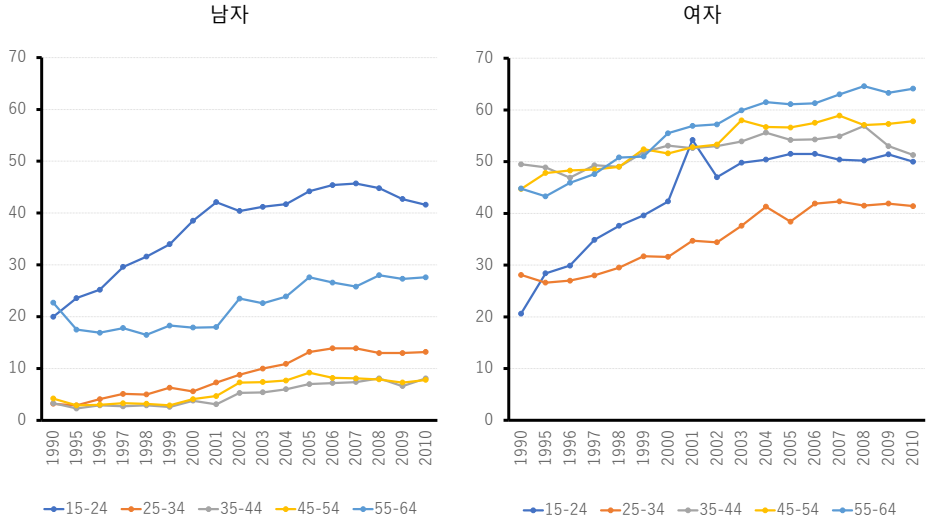
자료: 내각부 경제재정백서 「2009년도 연차 경제재정보고」 제3절 「'위기 후' 일본 경제를 생각하는 시점」에서 인용. 출처: 일본은행 「자금 순환 통계」, 내각부 「국민경제계산」에서 작성됨

이러한 배경으로 일본은 일본형 고용을 지키려고 했고 한번 고용한 사람을 해고하기 어렵기에 신규로 채용할 청년 취업을 억제했다고 보는 게 일반적인 평가라 2000년 이후 '불쌍한 청년' 담론이 탄생했다. 고도성장도 멈춰 전후부터 일본사회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체제나 가치관이 무너지면서 '잃어버린 20년'에 돌입할 무렵 대학 졸업 시기를 맞이하여 취업을 못한 젊은이들이 증가하는 '잃어버린 세대(로스트 제너레이션)[31]'가 등장하여 20세기의 소비 주인공에서 약자로 전환했으며 새로운 사회적 배제 및 격차

[31] 2006년 8월 아사히신문에 처음으로 이 명칭이 등장했고 이후 버블 경기 붕괴 후인 '잃어버린 10년' 사이에 사회진출을 해야 했던 취업 난민세대 청년을 가리키는 말로 퍼져 나갔다. 신졸일괄채용(新卒一括採用)이라는 채용방식을 택한 일본에서는 학교 졸업 전에 신졸(新卒)이라는 신분의 청년을 기업이 미리 인재로 확보하기 때문에 학교 졸업시기의 경제상황이 매우 중요하다. '취업 빙하기'라고 불리는 불경기에 취업활동을 해야 했던 이 세대에서 비정규직 고용자가 증가했다. 1993년 에서 2005년 사이에 취업활동을 한 세대로서 학력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대졸이면 1975년생부터 1982년생 세대가 해당된다. 그러나 같은 1975년생이어도 고졸이면 버블 경제 절정 시기에 취업했기에 오히려 혜택을 받고 좋은 조건으로 취업할 수 있었고 같은 세대 내에서 생애가 갈라지기 시작한 세대라고 볼 수 있다. 그 중에서도 1998년에 취업활동을 한 세대는 신규 구인경쟁률이 가장 어려운 세대였다(리쿠르트사 취업 저널).

문제가 부각되었다. 니트, 프리터, 비정규직의 증가와 히키코모리 문제 등이 부각되며 젊은 세대를 수식하는 단어 또한 '절망적', '불행', '변모', '빈곤', '희망 격차', '착취' 등으로 표현되었다(아사노(浅野), 2006; 아베(阿部), 2006; Genda, 2003, ; 하마구치(濱口), 2010; 후루이치(古市), 2011; 혼다(本田), 2005; 2008; 미야모토(宮本), 2002; 야마다(山田), 2007a; 2007b). 그런데 '불쌍한 청년' 담론은 1990년 후반 이후 사실은 젊은 여성 사이에서 확대한 노동조건의 악화를 '여성 문제'로 파악하는 게 아니라 '청년 문제'로 논의하는 것으로 마치 젊은 세대 전체가 피해를 얻은 것처럼 담론화시켜 젠더의 문제라는 문제의 본질을 은폐했다(사사노(笹野), 2017). 다음 〈그림 3-12〉에서 일본 남녀 비정규직 비율 차이를 살펴보자.

〈그림 3-12〉 일본 남녀 비정규직 비율(199-2010)



자료: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조사」

이 자료는 연령구분을 통계국이 발표하는 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5세별로 자세히 살펴볼 수 없는 아쉬움이 있으나 그래도 남녀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먼저 왼쪽의 남자를 살펴보자. 15-24세에는 학생이 포함되어 있기에 1990년대 이후 대학진학률 증가와 함께 아르바이트로 일하는 학생 비율이 높은 점과 55-65세는 60세로 은퇴[32]한

[32] 일본에서 정년퇴직 연령은 대체적으로 60세가 일반적이었으나 고령화 흐름으로 2013년에

사람이 포함되어 있어 이 두 집단은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사실 가족을 형성하고 부양하는 시기에 있는 20대 중반 이후부터 50대 중반까지의 남자 비정규직 비율을 보면 경제위기를 맞은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다소 증가하긴 했으나 그 비율은 미미하다. 버블 경제 붕괴 시기인 90년대 초반부터 살펴봐도 마찬가지이다. 변화의 시작은 2000년 이후 25-34세 젊은 층에서 약간 비율이 높아진 것에서 찾을 수 있는데 이들이 바로 '잃어버린 세대' 담론의 주인공이다. 대략 이들 1975-1985년생 세대가 '취업 빙하기'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비정규직 증가 시기도 이들이 대학을 졸업할 시기와 때를 같이 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업의 신규채용 억제로 인해 정규직으로 취업하지 못했고 취업활동이 장기화되면서 '히키코모리[33]'가 되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부상했다. 내각부가 2019년에 발표한 '헤이세이 30년도 조사'에 의하면 오늘날 40-64세의 히키코모리가 전국에 61만3000명이 있다고 추계되어 있다. 이 세대는 지금 와서는 이미 젊은이가 아니고 40대가 되었는데 부모에게 기생하여 생활하는 수가 적지 않아 7040문제로 불린다[34]. 40대가 70대에 기생하고 같이 산다는 것이며 부모와 살면서 월급을 본인 소비에 다 사용하는 젊은이를 가리킨 90년대에 등장한 '파라사이트 싱글[35]'과 양상이 많이 달라졌다. 결국 1990년 이후 경기 악화로 인해 많은 기업이 신규채용을 억제하여 청년 특히 여성의 정규직 고용이 뚜렷하게 어려워졌는데 그 속에서 사회적 약자로 전락해 버린

'고연령자 고용 안정법'이 일부 개정되어 65세까지의 고용책임이 의무화되었다. 그러나 이 자료는 2010년까지 경제위기 이후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60세 이후는 은퇴한 사람들이 포함되기에 비정규직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

[33] 학교나 직장으로 가지 못하고 집에 머물고 가족 외 거의 교류가 없는(사회관계자본을 가지지 않는) 사람을 가리킨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여러 요인으로 인해 사회적 참가를 회피하여 원칙적으로는 6개월에 걸쳐 대부분 가정내에 머물고 있는 상태를 가리키는 형상 개념'이라고 정의한다(2018). 원래 영어 'social withdrawal(사회적 철퇴)'라는 영어였다. 후생노동성은 히키코모리 상태에 있는 사람(20-49세) 중에 니트를 포함시키고 있다. NHK복지 네트워크에 의하면 2005년도 당시 히키코모리는 160만명 이상에 이른다.

[34] 2018년 노동력조사 집계를 살펴보면 취업도 안하고 학생도 아닌 사람이 약 40만명(35-44세 인구의 2.4%)에 이른다. 이러한 관계가 장기화되어 이제 8050문제라고도 불린다. 1980년대 전반에 태어난 이 세대는 다른 세대보다 소비를 하지 않는 경향이 확인되며 '현소비 세대'라고도 불린다(마츠다(松田), 2009).

[35] 야마다(山田, 1999)가 제시한 개념이고 파라사이트는 기생충, 싱글은 독신이며 '학교 졸업 후에도 부모와 동거하여 기초적인 생활조건을 부모에게 의존하는 미혼자'를 가리킨다.

청년 남성들이 사회문제로 부상했던 것이다. 여성들은 원래 비정규직이 많았고 경제위기 이후에 더욱더 타격을 받았음에도 젠더문제는 청년문제로 담론화되어 갔다. 스즈키(鈴木, 2005)는 청년 취업난은 기득권을 가진 남성 기성 세대가 상대적 약자인 청년에게 '타카루[36]' 구도로 유지되었다고 지적한다. 게다가 청년은 그러한 구조 속에서 보호를 받은 부모 세대 기득권자에게 '타카루' 존재로 머물면서 비정규직고용 상태를 장기화해 왔다. 결국 일본 경제위기 이후 부모 자녀 세대가 서로 '타카리아이(서로 타카루)' 하는 구조 속에서 장시간 유지되어 왔던 것이다. 이 잃어버린 세대 이후의 세대는 저출산으로 인해 인구 규모도 적은데다가 기업의 호황으로 인해 인재부족으로 취업 여건이 매우 좋아져서 '우리테 시장[37]'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잃어버린 세대'는 '낀 세대'나 '불운 세대',' 빙하기 세대' 등 여러 호칭으로 남았다[38].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담론과 달리 통계에서 확인되는 것은 남성은 비정규직이 약간 증가한 것에 비해 여성은 대폭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여성의 비정규직화를 살펴보자. 학생을 제외한 25-34세 젊은 세대는 남자는 2000년 이후에도10% 약간 넘는 수준으로 상승한데 비해 여자는 원래도 30%가 넘긴 했으나 2000년 이후 더 빠른 속도로 상승해 40% 이상에 도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족을 돌봄 및 부양하는 시기인 20대 후반부터 50대까지에서는 여성의 비정규직이 50%를 넘어 비정규직 비율이 10% 이하 수준인 같은 연령대 남자와 크게 대비되는 것을 확인할 수

---

[36] 남에게 돈을 요구한다는 뜻이며 한국어로 '조르다'와 가까운 뜻이다.

[37] 시장에는 물건을 파는 '우리테'와 물건을 사는 '카이테'가 있는데 파는 사람이 유리한 조건을 가진다는 뜻으로 취업상황에 대해 학생이 더 유리한 상황일 때 쓰인다. 버블 경제 때도 1988-1992년 사이에 '우리테 시장'이 강세였으나(대졸이면 1966-1970년생) 이후 취업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져서2005년 이후 처음으로 다시 '우리테 시장'이 돌아왔다. 이럴 때는 기업이 오히려 학생을 확보하기 위해 대접한다. 리쿠르트 워크스 연구서의 대졸 구인배율(구인총수를 민간기업 취업 희망자수로 나눈 값)로 확인하면 2005년부터2009년 졸업생(대졸이면 1983년-1988년생)은 구인비율 2를 넘은 호황기였다. 이후 리먼 쇼크로 다시 불황기를 맞이하나 2014년부터 2018년 졸업생(대졸이면 1992년-1996년생) 은 다시 '우리테 시장'인 호황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신형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해 2021년 졸업생의 취업환경은 '우리테'에서 일전하여 새로운 취업 빙하기 도래가 염려되고 있다.

[38] '잃어버린 세대'는 경기가 좋은 시대에 학생시절을 경험해 전형적인 경제적 성공을 직접적으로 보고 자란 세대이기에 '경쟁'이 요구되어 학력경쟁에 참여한 세대이다. 반면 교육내용이 줄어든 유토리 교육을 받고 '경쟁'보다 '개성'이 중요시된 교육을 받은 '유토리 세대'(1987년-2004년생)는 '나다운 사람'을 추구해 개성을 중시하는 교육으로 인해 삶에서 추구하는 것이 경쟁 세대와 다르다고 지적된다(타카야마(高山), 2014).

있다. 이는 2000년까지도 여성의 고용은 불안정했지만 문제시되지 않았는데 2000년 이후 남성 사이에 비정규직 고용이 다소 증가함에 따라 처음으로 젊은이 취업 문제로 부상되어, '젠더 비대칭 문제'는 은폐된 채 '청년 취업문제' 담론으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남자 고용이 안정성을 지키는 와중에 정규직 틀에서 벗어난 남자의 '상대적 박탈감'은 심각할 것으로 여겨지며 같은 연령대 친구 속에서 취업 실패한 10% 남자는 오늘날 히키코모리 인구 증가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39]. 여자 비정규직이 많은 이유는 일본에서는 1959년에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었는데 당시 이미 종신고용이나 연공서열이라는 일본형 기업문화가 정착되어 있어 남성에게 안정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것을 통해 주부의 취업은 가계유지를 위한 성격이 아니었기에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이다. 이는 일본에서는 주부의 파트타임형 노동을 지원하는 세제 및 연금제도 우대를 정책으로 도입하고 있다[40]. 이러한 배경으로 〈그림 3-12〉에서 확인되듯이 1990년에서 이미30대-50대의 여성 노동 절반이상이 원래 비정규직이다. 그렇다면 경제위기 이후 남자의 비정규직은 그다지 늘어나지 않았는데 왜 젊은 여성 사이에서는 비정규직이 늘어났을까?

그것은 1995년에 일경련(日経連, 오늘날 経団連)이 발표한 '신시대의 "일본형 경영": 도전해야 하는 방향과 그 구체책'에서 찾을 수 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 경영자는 노동자를 이하 세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인재관리하라고 제언한다. 첫째 장기축적능력활용형(관리직, 종합직), 둘째 고도전문능력활용형, 셋째 고용유연형(파견, 임시, 계약, 파트 등 비정규직 고용)이다(우에노(上野), 2013). 다음 〈표 3-3〉을 살펴보자.

---

[39] 후생노동성 조사결과에 의하면 '히키코모리'는 남자가 4배 많고 부모가 고학력인 가정에서 20인중 1명의 확률로 '히키코모리'를 경험한다고 한다(후생노동성, 2018년). 종신고용 문화가 남아있는 일본에서는 전직 시장이 활발하지 않아 한번 정규직 틀에서 벗어나 버리면 무직이나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고용으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배경도 작용한다.

[40] 1961년 일본에 연금제도가 도입된 당시에는 후생연금은 가구 단위 급여 설계가 되어 있었기에 월급을 받는 남편의 전업주부에게는 임의 가입이었는데 1985년 개정으로 인해 샐러리맨(봉급 생활자) 가구의 전업주부에 대해서도 '제3호 피보험자'로서 국민연금의 강제적용대상으로 하여 연금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인해 전업주부에게는 따로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고 기초연금급여에 필요한 비용은 피용자 연금제도 전체로 부담하기로 결정되었다.

〈표 3-3〉 일경련의 종업원 집단별 고용관리 방침(1995)

구분	고용형태	대상	임금	상여	퇴직금 연금
1. 장기축적능력활용형 그룹	무기계약	관리직	월급제	정률+ 업적 슬라이드	포인트 제도
		종합직	연봉제		
		기능부문의 기간직	직능급/승급제도		
2. 고도전문능력활용형 그룹	유기계약	전문 부문 (기획, 영업, 연구개발 등)	연봉제	성과 배분	없음
			업적급		
			승급 없음		
3. 고용유연형 그룹	유기계약	일반직	시간급	정률	없음
		기능부문	직무급		
		판매부문	승급 없음		

자료: 정이환((2011) p.44 〈표2-4〉 「일경련의 종업별 집단별 고용관리 방침」에서 인용
출처: 일경련(1995) p. 32 〈도표8〉의 일부

첫번째 장기축적능력활용형은 신규졸업자로 채용하고 사내 연수로 인재육성을 하며 이동과 전근(転勤) 반복으로 멀티 인력을 육성하자는 종래형 고용이다. 즉 취직(就職)이 아니고 취사(就社)형 고용이다(熊沢, 1995). 이에 대해 하마구치(濱口, 2013)는 서구사회와 비교하여 일본 고용 시스템의 특징은 '멤버쉽(Membership)형 사회'라는 특징을 가진다고 한다. 먼저 서구의 '잡(Job)형 사회'는 어떤 '잡'이 있고 거기에 알맞는 스킬을 가지는 사람을 결원보충으로 채용하는 '취업'이 이루어지는 것에 비해 일본의 '멤버쉽형 사회'에서는 먼저 회사에 맞는 사람을 '신졸일괄채용(新卒一括採用)'으로 '입사' 시킨 후에 적당한 '잡'을 맡기고 실제로 일을 시키면서 스킬을 습득시키는 온 더 잡 트레이닝(On the Job Training, OJT)이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고 한다. 일본에서의 고용이 '구성원인 것'이 중요하고 구성원에 대해서는 장기고용과 연공 임금이 제공되지만 비 구성원에게는 그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 점을 지적하는 연구는 다수 존재한다(예를 들어 Gordon, 1988; 이마노(今野), 2010; 오구라(小倉), 2013; 히사모토(久本), 2010).이러한 일본형 고용 시스템은 서구 사회가 공적으로 지원한 복지를 기업이 대신하여 연공서열 제도 속에서 제공해 왔다. 교육비, 주택지원 등 기업이 지원하는 것을 전제로 해 왔기에 일본 사회보장 시스템은 은퇴 이후 고령자 지원으로 집중된 반면 현역 세대 지원은 누락되어 왔으며

청년고용대책실이 설치된 것도 2004년이었다(하마구치(濱口), 2013: 17-19; 2014: 19-23). 여기서 일경련이 말하는 장기축적능력활용형은 '총합직'으로 '취사'하고 '멤버쉽'이 된 기간노동자(基幹労働者)를 장기고용과 정기승급 제도를 적용하고 키우는 것이다. 이렇듯이 일본에서는 '멤버쉽'인지 '비멤버쉽'인지가 중요한 고용 구별이기에 한국과 비교했을 때 기업규모별 대우 차이가 적은 것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두번째 고용전문능력활용형은 법무업무나 어학능력 등 높은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사내에서 인재를 육성할 필요 없이 아웃소싱하자는 것이다. 이는 '파견 사원'을 유기계약(有期契約)으로 쓰는 것이다. 세번째 고용유연형은 다르게 말하면 고용 조정형이며 경기 상황에 따라 조절되는 노동력 즉 '일회용 노동자'이다(우에노(上野), 2013: 67). 이 보고서가 말하는 것은 장기축적능력활용형 노동자를 줄이고 고용전문능력활용형은 되도록 아웃소싱하여 사내 코스트를 억제하며 그 이외의 노동자는 비정규직으로 채용하여 고용유연형으로 일상의 업무나 비숙련 부문을 대체해 가고 인건비를 억제하자는 전략이다. 이 결과 고용이 이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이분화되어 총합직 사원은 중요시되는 반면 일반직 사원은 축소해 비정규직으로 대체되어 갔다. 경제위기로 기업이 이미 여력을 잃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일본형 경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은 첫번째 장기축적능력활용형은 종래대로 지키면서 그 이외의 인력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용하자고 하기 때문이다(우에노(上野), 2013: 68). 이후 상기 그림에서 확인된 것처럼 일본 비정규직은 증가해갔으나 어디까지나 첫번째 기간노동자인 남자의 고용은 유지하면서 두번째와 세번째의 여성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으로 대응해 간 것이다. 이후 일본 노동시장에서 여성이 마주하고 있는 남녀차별적인 구조 및 그 지속에 대해 원인을 찾는 연구들을 보면 '일본형 고용제도', '일본형 노사관계'-장기고용제도, 연공임금제도, 직능 자격제도, 기업내 인재육성제도, 기업별 노동조합-와 성별분업이 서로 상호 의존관계에 있어서 오랜 기간 합리성을 가지고 유지되었다고 분석되어 있다.

한가지 덧붙이자면 일본에서 이렇게 일본형 고용제도를 강화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1986년에 시행된 '남녀고용기회 균등법'으로 인해 고용상의 모집 ·채용·배치·승진·교육훈련·복리후생 · 정년 퇴직 · 해고에 있어서 여성노동자를 남성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이 금지되자 남녀별 고용관리를 해온 대부분의 기업들이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에게도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의무화했기에 일본기업이 '코스별 인사(고용)관리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아사쿠라(朝倉), 1999). '코스별 고용관리제도'는 노동자를 일경련이 첫번째 기간노동자라고 말하고 있는 관리직 코스인 '총합직'과 승진과 전근(転勤)이 없는 '일반직'으로 구분하여 코스별로 다른 고용관리를 하는 것으로 임금체계나 승진에서 차별화시키자는 것이다(쿠메(久米), 1995). 2014년 '코스별채용관리제도의 실시 및 지도 상황[41]'(후생노동성)에 따르면 총합직 채용자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22.2%, 일반직 채용자에서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82.1%이다. 그리고 총합직 채용 비율이 여전히 여성이 남성보다 높아 여성이 44배 경쟁을 이겨야 하는데 비해 남자는 30배이며, 총합직으로 채용된 여성의 10년 후 이직률은 48.6%로 절반 가량 이탈하는 현실이 보고되고 있다. 결국 남자도 '일반직'이 될 수도 있고 여자도 '총합직'이 될 수도 있다는 표면상의 평등적인 제도 도입으로 인해 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 대응한 일본기업 관행은 오늘날에도 남녀의 일하는 방식을 결정짓고 있다. 남녀고용기회 균등법은 같은 '고용관리구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성차별을 금지하는 것이었기에 '총합직'과 '일반직' 여성 간의 차별은 '고용관리 구분'이 다르기 때문에 불법행위가 아니지만 여성을 '총합직'으로 하지 않기 위해 기업이 일부로 전근 요청을 요구한 사례도 종종 있었다(하마구치(濱口), 2014).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가정 책임을 맡은 여성에게 전국 이동이라는 근무형태는 일-가정 양립이 어렵기에 선택 및 지속이 어려운 근무형태이며 남녀를 구분하게 만든 간접적인 남녀차별을 강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반면 같은 시기인 1985년에 제정된 '기초연금제도'는 '제3호 피보험자'라는 '여성 피부양자 모델'을 내포한 '가족단위형 세제(税制) 및 사회보장 레짐'을 확립해 갔다. 1985년 이 시기부터 일본 여성은 '전업주부', '커리어 우먼', '파트 노동'의 세 구분으로 나뉘어졌다.

카와구치(川口, 2008)는 일본형 고용제도를 게임 이론 용어의 '전략적 보완성'이라는 표현으로 '남이 특정 전략을 채용하게 되면 본인도 같은 전략을 채용하는 인센티브가 높아지는 상황'이라고 보고 있다. '일본형 고용제도'는 '가정에서의 성별분업'과 강한 상호 의존관계가 있다는 것인데 장기고용에 기초한 인재육성 제도는 이직 확률이 높은 여성을 기간노동자에서 배제한다. 기업에서 배제된 여성은 전업주부가 되어 가사와 육아에 전념한다. 가사 육아 책임에서 해방된 남자는 일에 전념한다. 이렇게 해서 야근, 출장,

---

[41] '후생노동성 2015년10월 발표 평생26년도(2014년) 코스별 고용관리제도의 실시 및 지도 상황(확보판)' https://www.mhlw.go.jp/stf/houdou/0000101661.html

배치 전환, 이동 등 기업이 자유롭게 노동자를 사용할 수 있는 유연한 고용제도가 가능하게 된다. 그는 일본형 고용제도 하에서는 안정적 고용과 가족 임금이 남자노동자에게 제공되기에 그것으로 안정적인 성별분업이라는 상호의존적인 두 가지 제도가 일본의 젠더 경제격차를 확대시키면서 안정적인 구조를 만들어왔다고 지적한다. 오구마(小熊, 2019)는 일본사회를 움직이는 '시스템(仕組み)'은 첫째 무엇을 배웠는지가 중요하지 않은 학력 중시, 둘째 하나의 조직에서의 근속 연수 중시라는 두 가지 축이 '일본사회 시스템'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했다. 그는 취업인구의 증가로 인해 비정규직 종사자는 늘어났으나 정규직 종사자 자체는 감소하지 않았다고 하며 일본형 고용은 '코어(core)' 부분은 별로 변화하지도 않았고 오래 유지된 일본형 고용관행이야말로 일본사회를 움직이고 규정시키는 시스템이자 삶의 방식(生き方)까지 규정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이상 일본은 경제위기 이후 '일본형 고용관행'을 지키자고 하고 남자 기간노동자를 보호하면서 기혼여성뿐만 아니라 미혼여성까지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보내며 노동시장을 지켜왔고 여성 또한 안정적인 고용을 얻은 남편과 결혼하는 것으로 가정을 우선으로 하는 성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혜택을 받았기에 상호의존적인 관계에 있었다는 구조가 오늘날까지 유지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기타 연구에서도 일본형 고용관행을 지키기 위해 여성은 파트타임 노동자로서 경제변동의 유연인력으로 기능해 왔다는 점은 일찍부터 지적되어 왔으며(타케나카(竹中), 1989; 쿠마자와(熊沢), 1989; 오오사와(大沢), 1993; 타케나카(竹中)·히사바(久場), 1994; Brinton, 1993) 일본여성의 취업 성격은 대부분 커리어 추구형이 아닌데(Osawa, Kim and Kingston, 2013; Mun and Brinton, 2014) 일부 남자와 같은 조건으로 '총합직'으로 채용된 여성은 남녀평등한 교육단계에서 형성한 '자아실현 압력'과 결혼 및 출산 후의 '출산도 하고 일도 하고 육아도 하라 압력'에 직면하게 된다는 '육아휴직(을 당연하게 받을 수 있게 된) 세대의 딜레마'라고 표현한다(나카노(中野), 2014). 대졸 남성 중 취업활동에 실패하여 니트, 프리터, 히키코모리가 된 기득권에서 배제된 남성은 일부 성공한 여성을 '가상적'시하는 경향이 생겼으나(우에노(上野), 2013) '총합직'으로 일하여 승자가 된 여성도 결혼을 안하면 '마케이누(싸움에 진 개)[42]'라고

[42] 사카이 준코(酒井順子, 2003)가 출판한 이 책은 코단샤(講談社)에세이상, 부인공론 문예상(婦人公論文芸賞)도 수상했다. '마케이누(負け犬)'는 2004 년 유행어 대상 상위 10위에도

불리며 결혼 후 출산을 하면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일-가정 평형을 유지하기 어려워서 출산 휴가 취득 후 결국 여전히 대부분 회사를 그만 두게 된다(나가세(永瀨) · 야마타니(山谷), 2011; 나카노(中野), 2014). '내각부 남녀공동참획, 2019'에 따르면 출산 전에 정규직이었던 여성은 54.7%가 육아휴직을 받고 다시 복귀하고 있는데 비해 비정규직이었던 여성은 78.9%가 그만 두고 있다(국립사회보장 인구문제연구소 제15회 출생동향 기본조사(부부 조사) 2016년 데이터에서 계산됨). 일본에서는 커리어 추구형인 '총합직'으로 취업하면 일을 지속할 수 없으며 커리어를 추구하지 않는 '일반직'으로 취업하면 오래 일을 할 수 있다는 아이러니한 현실이 기다리고 있기에 최근 들어 명문대 졸업 여성 중 일부러 '일반직'으로 일을 하려는 여성들도 많다[43].

한국에서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정이환(2013)은 한국 고용체제 특성 중의 하나로 젠더에 다른 분절을 꼽는다. 기업규모, 고용형태와 함께 젠더가 노동시장 분절의 중요한 축으로 작동한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경제위기를 통한 변화를 일본과 비교해 보면 1990년대 후반 이후 정규노동자의 고용관행을 유지한 일본과 달리 한국에서는 정규노동자의 고용도 불안정해졌다(정이환, 2011). 즉 내부노동시장이 약화되어 남성 고용이 불안정화된 것이다. 노동시장의 불안정화는 일본 또한 겪었으며 200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된 신자유주의 영향으로 양국의 비정규직은 증가해 간다. 일본에서 남자는 기간노동자로서 일하고 여성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면서 보조적인 역할을 수행해 서로 주된 역할을 맡은 상태에서 상대방의 역할을 보완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왔으며 기혼 여성 또한 그러한 남성 고용의 보호를 받으면서 본인 역할을 내재화하고 단시간 노동이지만

들어갔다. 사카이는 '아무리 미인이어도 30대 이상, 미혼, 자녀 없는 여자는 '마케이누'라고 정의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마케이누'는 결혼은 안해도 사회적 지위가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보내는 여성이었으나 이후 미혼여성들이 스스로를 '마케이누'라고 부르며 일종의 유행어가 되었다.

[43] 아사히 신문에서 출판되는 잡지 'AERA' (2018년 7월23일) '동경대 졸업인데도 일부러 '일반직'을 선택하고 그 이유를 숨기는 현대 여성의 현실' https://dot.asahi.com/aera/2018071800012.html; 동양경제(2020년2월28일) '와세다 케이오 졸업 여자가 일부러 '일반직'을 선택하는 근본적 이유: 출세보다 소중한 전근 회피·생활우선' https://toyokeizai.net/articles/-/332106; 반면 결혼 전까지 근무하는 것이 일반적인 '일반직' 자리는 2000년 이후 파견사원이라는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어 감소해 갔다. 이후 확대한 것이 여여격차(女女格差)(타치바나키(橘木), 2008)이며 일부 '총합직'으로 일하는 여성이 탄생하는 반면 대부분 여성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기에 1985년을 '여성의 빈곤 원년'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다(동양 경제 2014년6월18일 '우에노 치즈코 선생님 동경대 여자는 행복합니까?' https://toyokeizai.net/articles/-/40336).

안정적인 파트타임 노동자로서 일해 왔다. 정이환(2011)은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 여성 비정규직자 사이에서 직업 만족도가 높다는 지적 또한 이런 맥락에서 온다고 지적한다. 그에 비해 한국은 정규고용으로 일하던 생계부양자 남자의 고용조차 불안정화되었다는 점에서 일본과 차이가 난다. 동시에 한국은 남녀평등의식 상승을 배경으로 경제위기를 계기로 여성노동시장 진입이 가속화되어 갔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과 일본의 노동시장 변화를 젠더의 시점에서 분석한 Song(2014)의 연구를 살펴보면 한국과 일본의 대응 방식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다음에서 살펴보자.

〈표 3-4〉 노동시장 재구조화 유형

		노동시장 재구조화 유형	
		외부자를 재구성	모든 노동자를 재구성
노동시장 불평등과 이중성 증가 정도	높음	a.내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된 외부 노동자를 재구성	a.내부노동자와 외부노동자의 포괄적 재구성
		b. 높은 노동시장 불평등과 이중 노동시장	b. 높은 노동시장 불평등과 이중 노동시장
		(e.g., 일본, 독일)	(e.g., 한국)
	낮음	a.내부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 선택된 외부 노동자를 재구성	a.내부노동자와 외부노동자의 포괄적 재구성
		b. 낮은 노동시장 불평등과 이중 노동시장	b. 낮은 노동시장 불평등과 이중 노동시장
		(e.g., 스웨덴)	

자료: Song(2014) P. 5. Table1. 「Variations in labor market reform」에서 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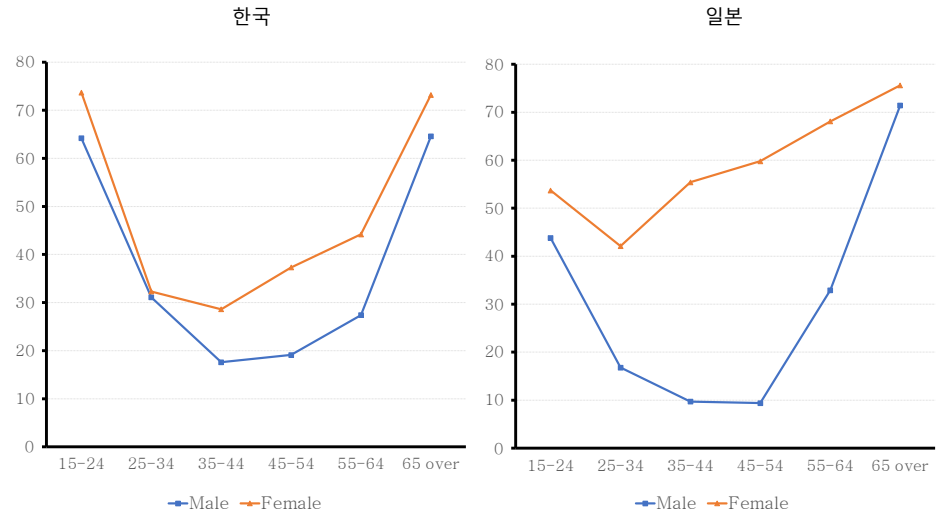
Song(2014) 역시 한국은 정규직, 비정규직, 남자, 여자를 포함한 모든 노동자를 재구조조정했다면 일본은 내부노동자를 보호하면서 외부노동자를 재구조 조정했다고 보고 있다. 한국은 일본과 달리 남성이라는 이유로 고용 안정성을 보호받지 못했다는 것이다. 위기 이전에는 숙련도가 높은 고임금 노동과 고용 안정이 보장된 상위 직업을 남성이 차지해왔다면 여성은 저숙련, 저임금, 고용불안의 하층부 직업에 종사해왔으며 성별 직종 분리가 엄격했고(허은, 2013; 이순미, 2015) 위기 이후 여성의 일자리의 주변화 현상이 가속화되었다(권현지·김영미· 권혜원, 2015). 남성 일자리가 불안정화되자 여성 노동에 대한 수요는 확대되어 갔으나 어디까지나 '여성의 1차적 자리는 가정'이라는 성역할의식이 강해 여성 우선적 구조조정 및 여성 노동의 주변화 등 성차별적 노동시장 정치가 심화했다(권현지, 2008). 여성은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한 젠더화 된 일자리 중심으로 일을

했으며 그러한 일자리는 대부분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이었다(권현지·김영미·권혜원, 2015). 그런데 그러한 일련의 연구는 이미 경제위기 이전부터 일을 했던 여성을 대상으로 분석한 기혼여성 중심의 담론이다. 물론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해야 하던 청년 또한 취업이 어려워지자 한국에서도 불쌍한 청년 담론이 확산되어 갔다. 2000년대에 대두한 '88만원 세대'는 사회적 약자로 전락한 청년을 논의했으며 그 이후 '3포 세대'론으로 이어져 갔다. 그런데 담론은 늘 연구 대상자를 과도하게 일반화시킨다. 청년 세대가 놓여져 있는 상황은 다 동질적이지 않으며 다 같이 피해자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그러한 세대 담론은 주로 생계부양을 맡아야 했던 남자를 중심으로 한 근대가족 형성에서의 이탈을 우려하는 담론이며 젠더 시각이 빠져 있다. 결혼, 출산, 커리어 모두 다 이루어진 여성은 경제위기 이전 한국사회에서는 대세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결혼과 출산을 위해 노동시장을 이탈한 경력단절론은 남자에게 해당되지 않는 담론이다. 위기 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세대는 1990년대부터 급격히 진행된 고학력화로 인해 여성 노동시장 참여 성격에도 차이가 커지고 있다. 이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성격도 세대에 따라 달라지고 있기에 '여성의 주변화'라고 여성을 한 집단으로 논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위기 이후 여성 노동시장 참여 성격이 남성보다 더 주변화되어 갔다고 바라보지 않는다. 여성 및 젊은 세대가 다 같은 열악한 조건 속에서 주변화된 노동을 맡고 있다는 시각은 오늘날 한국 사회를 너무나 일반화시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한국의 노동시장은 여전히 성별 직업 분리가 뚜렷하고 상대적으로 여성이 낮은 위치에 놓여져 있지만 젊은 세대의 고학력화와 경제위기 이후 남자의 불안정화와 함께 오늘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는 허은(2013)의 표현을 빌리자면 '고학력·저연령 여성의 상층진입과 동시에 저학력·고연령 기혼여성의 하층 진입'이 동시에 늘어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이상직(2020)은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해 과거 20년동안의 한국인 노동 이력 변화를 분석했는데 1976-1984년 코호트를 '남녀차이 축소세대'라고 표현한다. 이들이 고등교육 이수에 있어 남녀차이가 없어지면서 여성 내부의 이질성이 확대해 간 세대임을 밝히고 있다. 이 세대는 한마디로 '성별 차이보다 교육수준으로 인한 차이'가 확대되어 젠더 또한 계층화되었다. 한마디로 '젠더 사회에서 계층사회'로 이행했으며 이 세대는 여성의 노동시장 퇴장도 약화되어 대기업 정규직 진입

또한 성별 차이를 좁힌 세대이자 중소기업 진입에 있어서는 남녀차이가 사라진 세대임을 밝힌 바 있다.

한가지 더 일본과의 중요한 차이는 한국에서는 남성에게 가계부양자 책임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실제로 장기 고용에 기초한 안정적인 부양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남자는 제한적이었다는 점에 있다. 고도성장기에서도 한국남성 노동자들은 불안정한 노동생애였음이 밝혀져 있다(최선영·장경섭, 2012). 한국의 가부장적 가족·사회체제는 대체로 남성생계부양자의 안정적 장기 고용상태를 매개로 한 물질적 지원으로 확립·유지된 것이 아니었고 오히려 이에 관련된 인식론적 오류에 의해 가족, 국가, 산업현장의 이미 불평등한 양성관계가 더욱 복잡한 사회적 갈등 구조로 귀결되었다고 한다. 즉 한국사회는 규범과 담론 수준으로는 남성의 생계부양자 역할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수행할 수 있는 남자는 제한적이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남자와 일본 남자의 고용 불안정성을 확인해 보자.

〈그림 3-13〉 한일 남녀 비정규직 비율(20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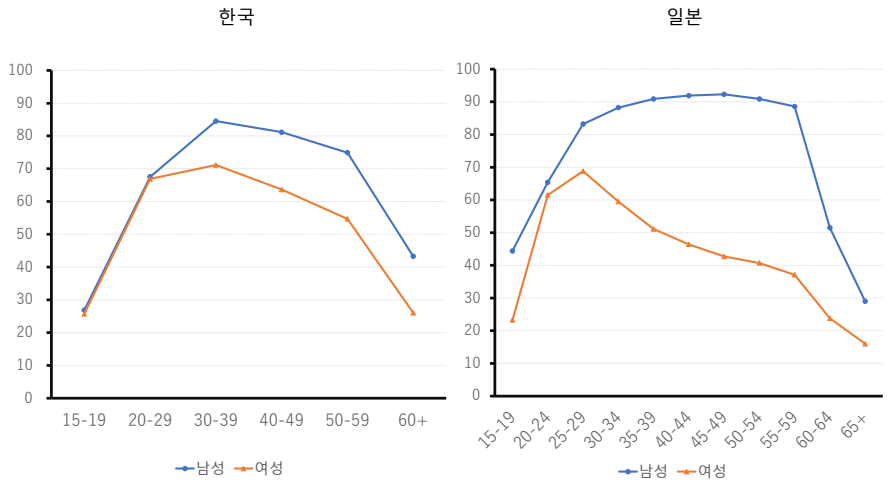


자료: 金明中(2015) 표1 「일본과 한국의 남녀 연령계급별 비정규고용 노동자의 비율」에서 인용
출처: 일본, 총무성 통계국 「노동력조사」; 한국,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그림 3-13〉을 보면 시각적으로도 바로 확인되는 것이 한국은 남녀차이가 일본에 비해 훨씬 적다는 점이다. 기존연구의 지적대로 한국의 남자 비정규직 비율은 2015년

기준으로 볼 때 낮은 수준이 아니다. 25-34세는 고학력화와 군대를 다녀와야 하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하면 높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30대-50대 남자의 비정규직 비율도 일본과 10% 정도 차이가 난다. 그런데 양국의 차이는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에서 나타난다. 일본은 2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층에서 절반 이상의 여성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다. 그에 비해 한국은 비정규직 여성의 비율이 남자보다 높지만 남녀차이는 일본보다 훨씬 적다. 이른바 '젠더분절적인 노동시장'이라는 표현은 한국보다 일본을 보다 더 정확히 표현하는 단어라 할 수 있다. 한국 국내만 비교하면 남녀분절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비교대상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르게 보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정규직 남녀비율 또한 한국보다 일본이 보다 더 '남녀분절적인' 성격을 지닐까? 다음 〈그림 3-14〉에서 확인해 보자.

〈그림 3-14〉 한일 남녀 정규직 비율



자료: 한국, 통계청 「근로형태별취업자」 2017년도; 일본, 「국민생활 기초조사」 2019년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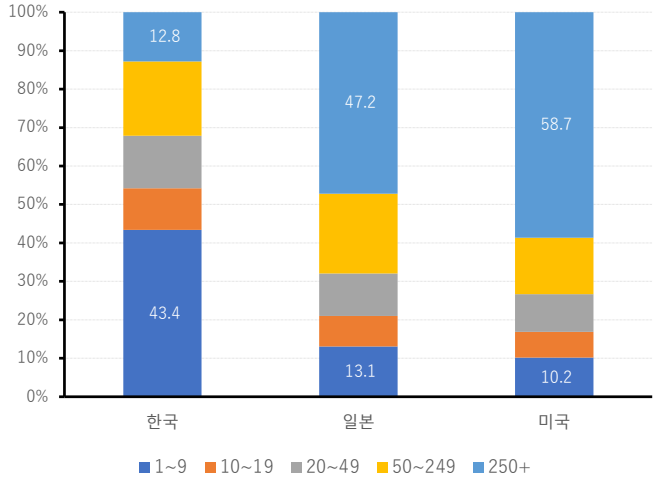
정규직 비율에 있어서 연령 구분이 양국이 다르게 공개되어 있어 꼭 같은 구분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충분히 양국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비정규직 비교에서도 확인했듯이 한국의 남자 고용이 일본보다 불안정하다고 할 수 있다. 비정규직 비율이 일본보다 높고 정규직 비율은 일본보다 낮다. 특히 일본 남성의 고용이 20대 후반부터 60세까지 약 90%의 남자가 정규직 고용자로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는 점이 확인되며

60세가 되기 전에 정규직 비율이 크게 하락하는 한국과는 차이가 있다. 반면 여성의 정규직 비율은 일본보다 한국이 더 높고 한국의 여성 정규직 비율은 남성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들이 M자형을 그리지는 않는다. 오히려 출산시기인 30대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유지하는 점이 확인되기에 2017년 현재 30대인 1978-1987년생 사이에서 이전 세대보다 노동시장에 남는 여성이 늘어났다는 것을 시사한다. 한국 노동패널을 사용해 지난 20년간 한국의 남녀노동이력을 분석한 이상직(2020) 연구에서도 통념과 달리 경제위기 이후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수준이 높아졌는데 이는 참여 수준이 높아진 측면과 퇴장하는 수준이 높아진 측면이 함께 나타난 결과라고 했다. 그 중에서 특히 1976-1978년생부터 노동시장 참여성격의 남녀 차이가 크게 좁혀졌다는 결과가 제시된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위기 이후 여성을 비정규직 고용으로 전환시켜 대응해 나간 일본과는 대조적이며 핵심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한일 간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남녀 분포 차이뿐만 아니라 성격에 있어서도 차이가 존재한다. 2005년도 SSM 자료를 사용해 한국, 일본, 대만의 고용안정성을 비교한 有田(2016)의 연구결과에서는 비정규직 고용자는 정규직 고용자에 비해 일본에서 66%, 한국에서 77%, 대만에서 57% 수준의 소득밖에 받을 수 없는데 기업별로 비교해 보면 소기업보다 대기업에서 일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43%, 한국에서는 58%, 대만에서는 43% 소득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아리타(有田), 2016:45-56). 한국에서는 비정규직 고용으로 일하는 것이 일본, 대만보다 상대적으로 소득감소 폭이 작은 데 비해 대기업인지 아닌지에 대한 기업규모가 소득에 미치는 영향이 3개국 중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과 일본, 대만의 고용 안정성을 비교한 정이환·전병유(2004)의 연구 결과에서도 고용 안정성 측면에서는 일본이 가장 높고 그 다음이 대만 마지막으로 한국인 것으로 한국의 고용 안정성이 낮음이 보고되고 있다. 정이환(2007)의 연구 결과에서도 성별, 교육년수, 경력년수, 근속년수, 산업, 직업, 노동조합 유무를 다 통제한 경우 기업 규모 효과는 고용형태변수 효과의 2-3배에 달하고 있음을 밝히면서 '한국의 노동시장에서는 고용형태 차이보다 기업규모 차이가 불평등을 만들어내는 요인으로 보다 중요하다'고 결론짓는다. 이렇듯이 일본에서는 정규직인지 비정규직인지의 '고용형태'가, 한국에서는 대기업인지 아닌지의 기업규모가 각각 소득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그러한

양국간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하나의 구조적 차이가 기업규모의 분포차이에서 오는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림 3-15〉 기업 규모별 직원수 비율



자료: OECD 「Employment by enterprise size, business economy」[4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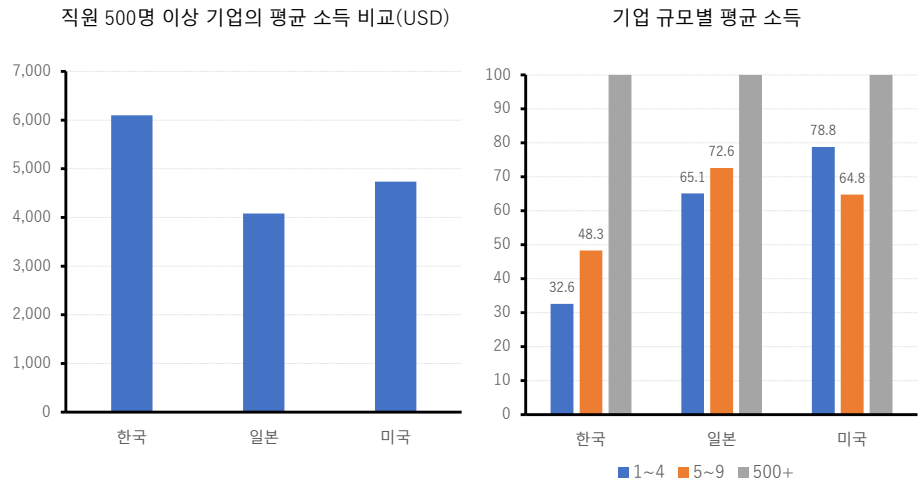
〈그림 3-15〉는 한국과 일본, 미국의 직원수에 따른 기업 규모별 분포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 한국은 250명 이상의 직원이 근무하는 기업 비율이 불과 12.8%로 OECD 국가 중에서 그리스와 함께 가장 낮은 것으로 확인된다. 반면 1~9명 규모의 기업 비율이 전체 43.4%로 약 절반을 차지해 일본의 13.1%, 미국의 10.2%와 비교해 매우 높은 수준에 있는 것도 확인된다. 그 중 자영업자 비율이 한국에서 24.6%를 차지해 일본의 10.0%, 미국의 6.3%와 비교해도 꽤 높은 수준에 있음을 알 수 있다(OECD, 한국은2019년도, 일본과 미국은 2020년도[45]). 반면에 일본은 250명 이상의 기업이 47.2%로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으며 OECD국가 중에서 미국, 영국 다음으로 높은

[44] Percentage of all persons employed, 2014, or latest available year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entrepreneur_aag-2017-6-en.pdf?expires=1625214988&id=id&accname=guest&checksum=F93462B8591EB3966DB1D366DB952CCD

[45] OECD Self-employment rate, total of employment, 2020 or latest available Source: Labour Force Statistics: Summary tables
https://data.oecd.org/emp/self-employment-rate.htm

수준에 속한다. 이렇듯이 한국에서 대기업이 사회 전체에 차지하는 비율이 낮은 것과 소기업이 사회에서 약 절반을 차지한다는 구조로 인해 기존연구 결과에서 제시되듯이 기업간 소득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에서는 기업규모별 소득 차이가 다른 나라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또 다른 자료를 살펴보자.

〈그림 3-16〉 기업 규모별 소득 차이: 한국, 일본, 미국



* 한국은 2017년, 미국은 2015년, 일본은 2016년 기준, 국가별 구매력평가(PPP) 기준
자료: 곽정수(2018). 한겨레 신문 2018년11월27일[46]
출처: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정책토론회(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 자료)

한국에서는 직원이 250명 이상인 기업도 전체 10%정도 밖에 되지 않기에 500명 이상인 기업은 더욱 적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그래서 그만큼 다른 나라보다 '기업 규모'에 따른 소득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오른쪽은 500명 이상 규모의 회사에서 제공되는 소득을 100%로 봤을 때 1~5명 기업과 5~9명 기업에서 어느 정도 소득을 얻을 수 있는지를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또 왼쪽 그림은 500명 이상 규모의 회사에서 얻을 수 있는 소득을 한국, 일본, 미국 사이에서 비교한 금액이다. 한국은 500명 이상 규모의 기업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이 6,097불로 일본의 4,079불과 미국의 4,736불에 비해 아주

46 곽정수. "한국 대 · 중기 임금격차, 선진국보다 크다" 한겨레 신문 (2018년11월27일) https://www.hani.co.kr/arti/PRINT/871966.html

높은 수준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대기업에 비해 소기업에 근무하면서 얻는 소득은 500명 이상의 대기업에 비해 1-4명 규모 회사에서는 1/3이하 밖에 되지 않아 일본의 65.1%, 미국의 78.8%와 비교해 매우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중요한 것은 한국에서는 직원이 9명 이하의 소기업이 사회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직원이 250명 이상의 대기업이 10%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1990년대 후반 경제위기를 배경으로 좋은 배우자를 만나기 위한 요소로 평가받고 온 교육이라는 자원이 남성의 고용이 불안정화됨으로써 여성 또한 노동시장 참여 수단으로 인적자본을 활용하기 시작했으며 한정된 소수의 대기업 자리를 둘러싸고 경쟁이 심해졌다.

이상직·김이선·권현지(2018) 및 김이선·이상직·권현지(2019)의 연구는 패널 자료를 이용해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으로 진입한 세대의 노동이력을 분석하고 있는데 이제 남녀 차이뿐만으로 설명할 수 없는 남성간 및 여성간 차이의 확대를 기술하고 있다. 남성이 경제위기 전후로 노동이력 이분 구도가 지속되고 있는 상태에서 불안정화 경향이 점진적으로 나타난다면 여성 이력은 남성에 비해 '안정 이력군'의 비중이 낮고 '비취업군'의 비중이 여전히 높다는 젠더 격차가 지속되고 있지만 '안정 이력군'과 '유동 이력군'에 속할 여성의 증가 경향은 단지 '불안정화'나 '비정규화'라는 말로 요약하기 어려운 내부의 분화를 확인했다. 그리고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난 특기할만한 변화는 졸업 후 상당한 기다림 혹은 준비 끝에 안정성이 낮은 중소기업 일자리로 진입한 이력의 비중이 증가했다는 점이며 위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대다수의 중소기업 대 아주 한정된 대기업 일자리를 둘러싼 남녀의 경쟁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증가로 인해 심해졌다. 최근 코호트로 올수록 '남성-내부', '여성-외부'라는 구조가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1998-2002 졸업 코호트는 그 이전 코호트와 달리 노동시장에 대거 진입했다는 점에서 변화의 시작 세대라고 볼 수 있으며 대기업의 안정적 '좋은' 일자리에 취업한 여성들은 15년간 지속적으로 일해온 것이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도 여성의 노동이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의해서만 가늠되는 것이 아니라 기업규모에 따라서도 달라지는 점이 확인되었다.

아리타(有田, 2016) 또한 일본에서 비정규직 고용이 대부분 여성의 파트타임 노동이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노동시간을 통제하여 비정규직의 소득 차이에 대해 한·일·대만 비교한 결과에서도 비정규직 고용자가 정규직에 비해 받는 소득 비율이 일본 5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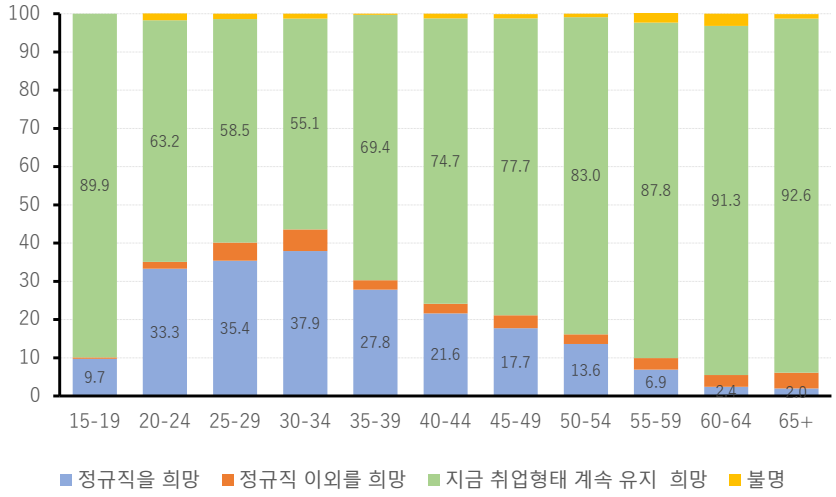
한국 77%, 대만 63%로 나타났으며 일본사회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멤버쉽으로 대우에 큰 차이를 부여하고 있는 점이 역시 확인된다. 일본 남성의 경우 '정규직'인지 아닌지의 '고용 형태'가 소득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한국 남성은 '학력 수준'과 '기업규모'가 크게 작용하고 있다. 다만 여성의 경우 일본은 남성 사이에서 확인되는 혜택이 살펴지지 않기에 일본 사회에서는 연공서열 제도로 인한 안정적인 고용 은혜, 소득 프리미엄은 실질적으로 남자에 대해서만 주어진 구조라고 말할 수 있다(아리타(有田),2016:62-63).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는 같은 '정규직', '비정규직', '대기업', '중소기업'이라고 언급될 때 그 단어 속에 담겨진 사회적 배경이 서로 다르고 각 요소들이 고용시장에서 미치는 영향력이 매우 다름이 부각된다. 많은 양적 비교연구에서는 그러한 개념차이까지 검토하지 않기에 '남성 비정규직', '여성 비정규직'으로 언급할 때 그 집단이 각 사회에서 놓여져 있는 위치 차이를 간과해 버린다.

정이환(2011) 또한 양국의 비정규직 노동이 첫째, 한국의 비정규노동자의 대표적 집단은 임시직 노동자이지만 일본에서는 단시간 노동자인 점, 둘째, 한국과 달리 일본에서 정규노동자들은 심각한 고용불안에 시달리지 않는다는 점, 셋째, 한국의 비정규노동은 비자발적 고용형태의 성격이 강하지만 일본의 비정규노동은 자발적 고용의 성격을 많이 띠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고 지적한다. 정규노동자에 비하여 비정규노동자의 직무 만족도도 한국보다 일본에서 높다는 것이다. 일본에 견주어 한국에서 비정규노동자의 사회적 저항이 훨씬 강한 것도 상당 부분 이런 차이에 따라 설명할 수 있다(정이환, 2011: 387). 일본은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인한 소득 차별이 한국보다도 훨씬 큰 것이 확인되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에 대한 만족도가 높다는 이유는 기혼여성 대부분이 성역할을 내재화하여 전업주부 역할에 충실하면서 보조적 역할로써 비정규직노동에 임하는 여성이 대부분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OECD(2021)가 발표한 주당 노동시간이 30시간 내의 파트타임 노동에 임하는 인구는 일본이 25.8%로 가장 높은 수준에 있는 데 비해 한국은 15.1%로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에 있다[47]. 일본은

[47] OECD 2021 「Part-time employment rate」 자료: 『Labour Market Statistics』 Full-time part-time employment - common definition: incidence https://data.oecd.org/emp/part-time-employment-rate.htm

한국과 달리 비정규직은 대부분 기혼 여성이 맡고 있으며 생계 유지형 노동이 아닌 생계 보조형 노동이기에 불만이 낮다고 이해된다.

〈그림 3-17〉 비정규직 여성 고용자의 향후 취업에 대한 희망(2010)(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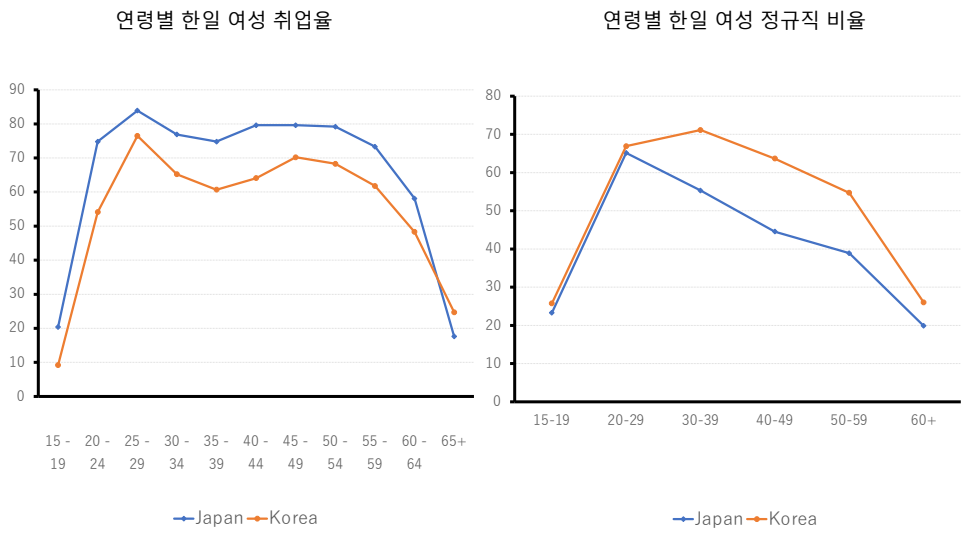
자료: 후생노동성 「취업형태 다양화에 관한 종합 실태조사」 (2010)

〈그림 3-17〉은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일본 여성의 향후 취업에 대한 희망을 나타내는 것인데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의 취업 만족도가 대체로 상당히 높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이는 기혼과 미혼이 포함된 자료이기에 미혼 여성이 스스로 비정규직을 선택하여 만족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생긴다. 기혼 여성은 Esping-Andersen(2014)이 말하는 1.5인 생계부양자 역할을 맡으면 되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가계 보조적인 파트타임 노동을 맡으면 되지만 미혼 여성의 경우 생계를 유지해야 하기에 정규직과 소득 차이가 큰 비정규직을 선호해서 선택한다고는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자료에서 추론할 수 있는 것은 30-34세 전후에서 '정규직 희망'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데 2010년 30-34세인 이 세대는 1976-1980년생 바로 잃어버린 세대이다. 이 세대는 본인이 원해서 비정규직화가 되었다기 보다는 기업의 인사전략으로 여성이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환되었기에 비정규직이 늘었던 세대이다. 이 집단이 30-34세 때인 2010년 미혼율이 34.52%로 나타나 결혼을 안하면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 취업을 해야 하는 일본 여성의 모습이 '정규직 희망' 비율과 비슷한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겹쳐 보인다.

윗세대는 기혼자가 많아서 '지금 취업형태 계속 유지를 희망' 비율이 높아지며 밑세대는 다시 취업 호환기가 찾아와서 '우리테 시장(수요 과다)' 속에서 취업활동을 했기에 정규직으로 일한 여성의 증가와 함께 '정규직 희망' 비율 또한 감소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때까지 여성 노동생애 성격이 일본보다 깊은 M자형을 그리는 것으로 알려진 한국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기회가 제한적이며 젠더에 따른 직종 분절이 한국의 고용체제의 특성으로 지적되어 왔다(정이환, 2013; 허은, 2013; 이순미, 2015). 여성의 취업 기회가 제한된 환경 속에서 한국 여성은 가정역할에 더 충실해야 하기에 여성의 취업성격이 여전히 깊은 M자형을 가리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그러나 그러한 일반적인 통념과 달리 여성 취업률이 아닌 여성 취업의 '질'로 비교해 봤을 때 일본이 더 남녀역할분업이 강화된 사회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점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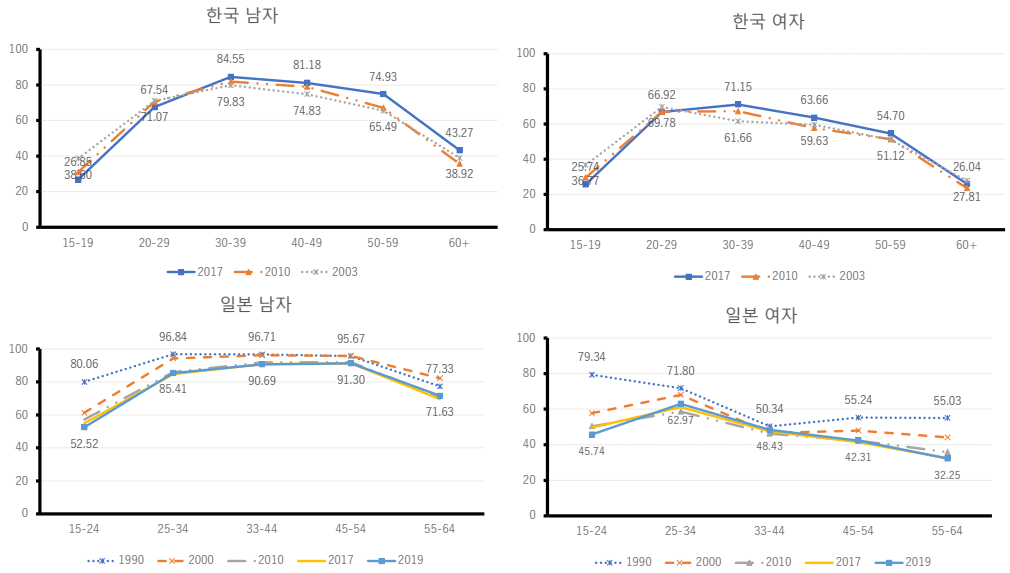
〈그림 3-18〉 한일 여성 취업률과 정규직 비율 비교



자료: 한국, 통계청 「근로 형태별 취업자」(2017); 일본, 「국민생활 기초조사」(2019)

먼저 왼쪽 그림 상의 한일 여성 취업률을 비교해 보면 위에서도 확인한 것처럼 한국보다 일본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오른쪽 그림을 보면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은 한국이 일본보다 많아 역전된다. 따라서 일의 '양'을 따지면 한국이 일본보다 적지만 '질'로 따지면 한국 여성은 일본보다 나은 조건으로 일하고 있다고도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한일 남녀 정규직 비율 시계열 변화를 비교해 보고자 한다.

〈그림 3-19〉 한일 남녀 정규직 비율 비교



자료: 한국, 통계청 「근로 형태별 취업자」(2017); 일본, 「국민생활 기초조사」(2019)

먼저 일본 남성과 한국 남성을 비교해 보면 1990년에서 2019년 사이에 남성의 정규직 비율이 다소 낮아졌으나 그래도 가족 부양 시기의 남성은 여전히 90% 이상이 정규직으로 일을 한다. 한국에서는 2003년에서 2017년 사이에는 비율이 다소 상승했으나 정규직 비율이 낮고 일본과는10%이상 차이가 난다. 반면 여성을 비교하면 일본의 정규직 비율은 1990년에서 2019년 사이에 해마다 하락해 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과거 약 30년 동안 남녀 모두 정규직 비율이 감소했으며 여성은 원래 비정규직 비율이 높았으나 남성보다 더 큰 비율로 하락했다. 반면 한국은 2003년에서 2017년 사이에 여성 정규직 비율이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30대 여성 사이에서는 무려 10%나 상승하여 30대부터 대폭 감소하는 일본과는 대조적인 면모를 보이고 있다. 일본에서는 출산을 계기로 여전히 많은 여성이 노동시장에서 이탈하고 있고 취업 여성 중 정규직으로 계속 일하는 여성은 절반도 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M자의 비율이 높은 것은 그 만큼 원래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이 많고 출산을 계기로 한번 이탈한 뒤 비정규직으로 복귀하는 여성이 많다는 것이다. 반면 한국은 M자의 여성노동력 비율이 일본보다 낮지만 정규직으로 비교해 보면 M자는 사라지며 오히려 30대 출산 시기 여성의 취업률이 높게 나타난다. 그만큼 정규직으로 일하는 여성이 출산시기에도 출산휴가를 이용해 취업을

유지하고 있거나 혹은 출산을 하지 않는 여성이 많아져서 그럴 수 있다는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하다. 중요한 것은 한국은 더 이상 노동시장에서는 남녀 분절적인 구조라고 하기 어려울 정도로 여성의 정규직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그것도 청년 취업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벌어지는 변화라고 보면 이제 여성은 남성의 보호해 줄 대상이라기보다 생존을 위해 대등하게 경쟁해야 하는 경쟁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일본은 남녀역할분업이 오히려 강화되어 여성의 취업률은 상승했으나 정규직은 감소했고 대부분 비정규직으로 가계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성격의 취업이라 남성의 보호를 받아야 안정적인 생애를 유지할 수 있게 설계되어 있고 남녀의 취업 성격에도 뚜렷한 차이가 존재한다.

이상 경제위기 이후의 노동시장 변화는 양국이 다른 방향으로 향했다. 일본이 남성의 고용을 지키는 것으로 여성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환시키고 남녀역할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해 나갔다면 한국은 남성 또한 불안정한 고용체제로 재구조조정이 되어 여성에게도 임금 노동의 중요성이 커졌다. 게다가 한국이 경제위기 이전부터 일본과 달리 남성의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차이점도 확인되었다. 세치야마(瀬地山, 1996; 2017; Sechiyama, 2013)는 여성의 학력수준과 노동력률의 관계를 분석해 학력수준 상승이 여성의 노동력률을 상승시키지 않는 '한국이 동아시아에서 가장 가부장적이며 양방문화의 영향으로 여성의 취업을 안 좋게 받아들이는 문화가 강해 전업주부의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높아 일본보다 전업주부가 소멸하기 어려운 사회'라고 진단했으며 (瀬地山, 1996: 238-239; Sechiyama, 2013: 170) 그러한 구조는 20여년이 지난 2017년에서도 변화하지 않았다고 진단했다(瀬地山, 2017 : 12—17). 즉 동아시아 사회에서 한국이 가장 여성 노동력 활용에 대해 소극적인 사회이라면 대만이 가장 적극적이고 일본이 그 중간에 위치한다는 것이며(瀬地山, 2017: 36), '일본에서 여성의 노동시장 위치를 결정 짓는 키워드가 '어머니'라면 한국의 경우 '여자'라는 이유로 노동시장의 위치가 정해진다고 논의하여(瀬地山, 1996 : 231, 238-239; Sechiyama, 2013 : 160-161, 169-170) 과거 20년 동안 한국이 일본 여성보다 가부장적인 사회문화적 환경 속에서 보수적인 가족가치를 공유해 왔으며 고학력여성의 전업주부 지향이 강한 성역할 분리가 분명한 사회라는 시각을 일본연구자에게 제공해 왔다. 그의 제자 柳采延(류채연, 2020; 2021) 또한 '고학력 여성일수록 노동시장 참여율이 높아지는 현상'이 한국에서 관찰되지 못해 여전히 대부분의 고학력 여성이 전업주부화 하고

어머니역할을 스스로 강화하여 자녀교육에 매진하는 한국의 '고학력 전업주부'라는 현상을 '어머니역할 강화'하는 여성 스스로가 재구조화 시켜간 현상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이때까지 확인해 온 한국의 여성은 일본 기존연구에서 논의된 것처럼 일본보다 취업에 대해 소극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모습이 확인되었다. 비록 아직 여성노동력'률'은 일본보다 낮다고 하더라도 여성노동의 '질'(여기서는 정규직 비율)은 일본 여성보다 높았다. 한국 여성은 기존 거시적인 국제 비교연구에서 논의되는 것처럼 가부장적 사회의 억압 속에서 보수적인 가족가치를 내재화해 온 주체라는 평가는 너무나 지나친 일반화라고 본다. 경제위기 이후 한국과 일본 여성들이 노동시장 구조조정으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기 시작했는데 양국의 여성들이 결코 수동적인 주체가 아니라 서로 주어진 구조 속에서 상황에 맞게 최선의 선택을 택해온 능동적 주체로 봐야 한다. 1990년대 이후 한국 여성들이 경제적인 기여 책임 의식을 확대해 가는 배경에는 남자의 노동 안정성의 취약뿐만 아니라 한국 여성의 압축적 고학력화라는 측면 또한 놓칠 수 없는 변화라고 생각하기에 함께 확인하도록 하자.

2) 여성의 고학력화: 남성보다 높은 학력 취득 vs 낮은 학력 취득

England(2010)는 미국의 '젠더 혁명'이 왜 정체되며 완전한 '젠더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지에 대해 분석하면서 다음 다섯 가지의 남녀 차이를 중요한 지표로 다루었다. 1. 교육성취(Educational Attainment), 2. 고용률(Employment), 3. 고등교육 전공분야(Fields of Studying Higher Education), 4. 직업(Occupation), 5. 소득(Earning: 남녀월급차이, Gender Gap in Pay)의 다섯 가지 지표들이다. 교육 성취 및 전공분야는 노동시장 진입 시 직업 선택의 중요한 자원으로 작동한다. 그런데 미국에서도 '젠더 평등'이 정체되어 '젠더 본질주의'가 지속되는 이유는 '여성 스스로가 젠더화 된 진로를 선택해 버리기 때문'이라고 한다. 사회학은 구조적인 측면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어 문화적인 측면의 중요성을 간과해 왔다고 지적한다. 즉 사회학은 노동시장에서의 남녀차별적인 기회, 소득을 제공한다는 구조를 분석하여 문제로 삼아왔으나 사실 여학생이 대학에서 선택하는 전공이나 직업의 선택 등 문화적으로 형성된 '선호(Preference)'를 무시할 수 없는 변수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나중에 선호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더 강조한다. 사회학은 '피해자를

비판'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문화적 설명을 피해 구조적 설명을 지지하는 경향이 있는데 선호(Preference)나 열망(Aspiration)은 성별 인종 등 사회적 위치·입장에 기반된 '간접적' 사회적 제약으로 재정의'했다(England, 2016). 즉 사회는 개인적인 선호의 집합체이기에 구조와 상호작용하는 선호도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에 견해에서는 '성별 직업 분리'가 지속하는 것은 계급·성별로 인해 스스로 다른 선택들을 해 왔기 때문인데 여성이 학문 및 직업 성취를 이루려면 사회환경 및 가정환경 또한 크게 작용하기에 본인 능력 외의 구조적 제한과 그 속에서의 여성의 선호(선택)라는 측면을 함께 봐야 한다. 본 연구에서도 England(2010)가 제시한 지표를 중요한 설명변수로 다루어 교육성취, 전공분야, 직업선택의 측면에 주목해 한일 여성이 놓여져 있는 위치 차이를 부각시키고자 한다.

앞서 이상직(2020)의 연구 결과에서 보듯이 한국의 1976-1984년생은 '젠더'보다 '학력' 차이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계층화되어 가는 세대였다. 이 세대가 대학에 진학하는 시기였던 1990년대에 고등교육 팽창이 일어났는데 그 전제로는 부모 세대가 딸에게도 고등교육을 시킬 자세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본 또한 1990년대에 대학진학률이 상승해 갔다. 한일 모두 국가의 공적 지원이 높지 않기에 자녀의 고학력화는 부모의 지원이 필수적인 조건이므로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 자세를 살펴보는 것이 양국 차이를 이해하기 위해 중요하다. 한국의 대학진학률은 1990년대에 급속도로 상승해 가는데 그 전인 1987년에 조사한 자료를 살펴보자.

〈표 3-5〉 어머니의 자녀 고등교육에 대한 기대수준(단위: %)

	Sons	Daughters	Sons-Daughters
South Korea	88.3	81.2	7.1
Japan	73.0	27.7	45.3
United States	68.9	65.8	3.1
Sweden	31.3	30.8	0.5
West Germany	19.6	14.3	5.3
Great Britain	48.1	44.1	4.0

자료: 한국갤럽조사연구소(Korea Survey(Gallup) Polls Limited), 1987. Brinton et al(2001) pp. 139, Table 5.1 「Mother's University Aspirations for Sons and Daughters」에서 인용. 아들 딸 교육 기대수준 차이 값은 연구자가 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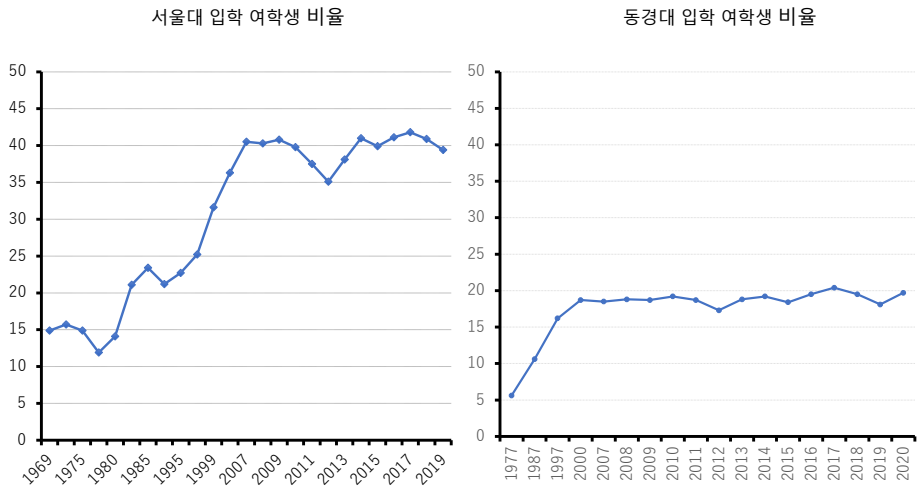
Notes: 자료는 아들이나 딸에게 대학 이상 교육수준을 기대하는 부모의 비율을 나타낸다. 이 자료는 1982년 일본 내각부가 조사한 일본, 미국, 스웨덴, 서독, 영국에 대해 조사한 자료이다. 조사 대상자는 각국 1,200명씩의 기혼 여성이며 나중에 한국 갤럽조사연구소가 1987년에 한국 기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이 자료를 공개하였다.

〈표 3-5〉를 보면 한국 부모가 어느 나라보다도 자녀에 대한 높은 고등교육을 기대하는 자세가 눈에 띄는데 중요한 것은 아들과 딸 모두에게 높은 고등교육 진학을 기대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비록 아들보다 다소 낮은 기대수준이라도 해도 딸에게도 80%이상의 부모가 대학까지 보내고 싶다는 대답을 하고 있고 여건만 된다면 아들 딸 구별없이 고등교육을 시키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장경섭(1999)은 '한국사회에서 학력은 단순히 지적 훈련의 정도만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정치사회문화적 위계상의 위치를 가리키며 딸에 있어서 결혼시장에서의 교육수준은 핵심적 경쟁조건으로 작용한다'고 논의한 바 있다(장경섭, 1999: 249-254). 계층간 동질혼 즉 교육차별적인 혼인시장이 한국사회에서 중요한 특징(Lee, 2001; Park, 1991)이기에 여성의 교육수준이 바로 노동시장 참여로 이어지지 않았던 시절부터 한국은 딸에게 높은 교육수준을 기대했던 것이다. 따라서 한국 부모들은 '사회활동을 통해 정당한 직업적 보상을 받지 못하더라도 이들 교육에 못지않게 딸 교육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다(장경섭, 1999: 254). 이렇게 일찍부터 아들 못지않게 투자한 딸의 교육이라는 인적 자본이 나중에 경제위기를 맞아

여성 노동시장 참여가 요구되어 가면서 결혼시장에서의 경쟁적 장점 뿐만이 아니라 남자의 경쟁자가 되어갔던 것이다.

반면 일본을 보면 아들에게는 73.0%나 대학 진학을 원하는 반면 딸에게는 27.7%밖에 고등교육 달성을 원하지 않으며 그 차이는 무려 45%나 되고 이 정도로 아들 딸에게 차별적인 교육성취를 기대하는 어머니는 다른 선진국가에서는 확인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모의 자녀교육에 대한 자세 차이가 바로 차세대 딸의 생애에 영향을 미친다. 이 조사가 실시된 1982년은 일본 근대가족의 안정기인데 다음 단계에서 살펴보겠지만 1970년대에 일본정부가 내세운 '일본형 복지사회' 정책으로 인해 가족(여성)이 돌봄책임을 맡는 것이 강요되며 가족이 일본형 고용제도에서 보호 받는 대신 장시간노동을 요구하는 고용관행과 손을 잡아 여성이 돌봄노동에 전념해야 한다는 남녀역할이 강화되어 간 시기이다. 1980년대 대부분의 여성이 안정적인 전업주부 생활을 실현할 수 있었던 당시의 일본 부모들은 자녀에게도 같은 안정적인 근대가족 형성을 기대했으며 딸에게는 '여자로서의 행복'을 기대해 아들만큼은 교육투자를 하지 않았다. 다음 〈그림 3-20〉로 한국과 일본의 부모가 딸에게 기대하는 핵심적인 차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고등교육 성취 차이를 확인해 보자.

〈그림 3-20〉 서울대와 동경대 여학생 비율 비교



자료: 한국, 대한민국 대표 진로진학뉴스 에듀진 기사(2019.02.01)[48]; 일본, 동경대 남녀공동참획실 「동경대에 있어서의 남녀공동참획 대처」[49]

〈그림 3-20〉은 서울대와 동경대의 여학생 비율 차이를 나타낸 것인데 동경대학은 과거 한번도 여학생 비율이 20%를 넘은 적이 없었다. 일본 아사히 신문은 "동경대가 한번도 넘은 적이 없는 '여학생 20%의 벽' 그 배경은"이라는 기사를 내면서 동경대 여학생들이 느끼는 차별에 대해 취재하고 있다.[50] 일본 4년제 대학 전체 학부 여학생 비율은 2020년 44.4%인데 비해[51] 동경대 학부생 입학 비율은 2020년 19.7%로 과거에는20%를 넘은 적이 없었으나 2021년 합격자에서 차지하는 여학생 비율이 역대 최고인 21.1%를 기록했다(아사히 신문2021년3월10일차 개재) . 동경대 남녀 공동

[48] http://www.eduj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23101 (2021. 06. 14 접속)

[49] https://www.mhlw.go.jp/file/05-Shingikai-11901000-Koyoukintoujidoukateikyoku-Soumuka/0000037168_1_2_2_1.pdf (2021. 06. 14 접속)

[50] https://www.asahi.com/articles/ASN2X4V2QN2NUTIL047.html
아사히 신문 (2020.02. 29기사) (2021. 06. 14 접속)

[51] 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 2020년도 '도도부현별 남녀 학생수'에서 비율 계산. 대학생에서 차지하는 여학생 비율이 지방마다 차이가 나지만 여성 비율이 50%를 넘는 지역은 효고현(兵庫県)과 나라현 (奈良県) 의 각각 55.9%와 52.6%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대부분 지역에서 남성 대비 여성 대학생 비율이 40%대였으나 47지역 중 11 지역에서 40%이하 수준이다.

참획실에 의하면 2019년 동경대는 재학생의 10명 중 8명이 남성이며 여성은 대학원생의 28.3%, 교수는 불과 7.6%밖에 되지 않으며 남녀비율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이유로 '남자는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일자리를 얻고 여자는 가정을 지키고 남자를 지원한다'는 성역할 분업의식이 강하게 남아있어서 대학입시부터 동경대를 목표로 하는 여학생이 적다고 지적한다[52]. 또 여자를 혼자 멀리 떨어진 동경에 보내는 것을 거부하는 부모도 많다고 한다. 그렇다면 전공에서도 남녀 차이가 존재하는가? 2021년 5월1일 현재 학부생의 전공별 여학생 비율을 살펴보면 법학부 (法学部) 22.7%, 의학부(医学部) 18.1%, 공학부(工学部) 10.4%, 이학부(理学部) 8.8%, 경제학부(経済学部) 16.7%, 문학부(文学部) 26.6%, 농학부(農学部) 21.8%, 교양학부(教養学部) 32.7%, 교육학부(教育学部) 38.3%, 약학부(薬学部) 29.1%로 공학계열이나 이공계열로는 여학생이 거의 진학하지 않는 부분과 교양이나 교육 계열에 여학생이 많은 현황이 확인된다[53]. 동경대 학생과 고교 3학년 총1,000명에게 실시한 앙케트 조사에 의하면 '집에서 다닐 수 있는 학교로 다녀라'고 부모로부터 들은 적이 있는 고등학생 중 70%는 여자였다. 교토 대학도 마찬가지로 2020년 현재 여학생 비율이 22.3%이다. 이들 결과에 나타난 현실은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일본 부모들이 딸에게 아들과 달리 차별적인 교육을 시키는 자세로부터 나타나는 결과의 한 측면이다. 동경대 명예교수인 우에노 치즈코가 2019년도 동경대 입학식의 축사에서 이러한 일본 여성이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 호소해 '2016년도 학교 기본조사에 의하면 4년제 대학 진학률은 남자 55.6%, 여자 48.2%로 7%나 차이가 난다. 이 차이는 성적의 차이가 아니다. 아들은 대학까지, 딸은 2년제대학까지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부모의 성차별 결과이다'라고 지적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수상한 파키스탄의 마라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씨가 일본을 방문해 '여자 교육'의 필요성을 호소하면서 "어차피 여자니까라고 여기며 여자의 진로를 방해하고 발목을 잡는 것을 의욕의 냉각 효과(Cooling Down)라고 한다. 마라라씨 아버지는 어떻게 딸을

---

[52] 동경대학교 남녀공동참획실 '동경대에서 기다리겠습니다: 누구나 활약할 수 있는 켐퍼스를 목표로 마추키 노리오 남녀공동참획실장으로부터' https://www.u-tokyo.ac.jp/kyodo-sankaku/ja/campus-voice/s0902_00002.html

[53] 자료: 2021년5월1일 현재, 동경대학 홈페이지 공개자료 '교육통계자료 학생수 연구생수'에서 공개되는 여학생과 남학생 숫자에서 여학생 비율을 연구자가 계산. https://www.u-tokyo.ac.jp/content/400163041.pdf (2021. 06. 28 접속)

키웠느냐는 질문을 받자 딸의 날개가 꺾이지 않게 해 왔다고 대답했다. 그의 말대로 일본의 많은 딸들은 아이면 누구나 가지는 날개를 꺾여왔다"고 일본의 성차별 현실을 이야기했다. 동경대학 입학식 축사 자리에서 학생들한테 호소하는 만큼 일본 학생들이 이미 몸에 배어있는 차별에 대해 자각적이지 않으며 국민들 사이에 뿌리깊게 내재화되어 있는 남녀역할분업 의식은 쉽게 바뀌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54].

반면 서울대 여학생 비율은 1999년에 30%를 넘어선 후에 2007년에는 40%도 넘었으며 이후 안정적으로 40% 전후를 유지하고 있다. 서울대에서 전공별 남녀비율 차이는 어떻게 될까? 2015년 자료를 살펴보면 자연과학대학 21.5%, 공과대학 16.6%, 경영대학 28.5%로 이 세가지 전공에서는 여학생 비율이 아주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나머지 농업생명 과학대학 39.6%, 사회과학대학 45.0%, 사범대학 49.3%에서 거의 남녀 차이가 없어지고 있으며, 바로 전문직으로 이어지는 전공인 수의과대학 57.1%, 약학대학 58.5%, 의과대학 38.5%에서도 여학생 비율이 꽤 높은 것으로 확인된다[55]. 여성의 교육 자체는 결혼시장에서 유리하게 작동하지만 '지나친 고학력(overeducated)'은 결혼시장에서 우려가 된다는 지적(Brinton, 1990)은 이제 한국에 대해서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다. 한국의 부모는 마라라씨 아버지처럼 딸의 날개를 꺾지 않고 딸의 학력 성취와 직업적 성취를 전면적으로 지지해 왔다고 볼 수 있다.

동경대가 공개하고 있는 2013년 자료에서 여성 교수 비율을 살펴보면 전체 1,267명 교수 중 남자 교수는 1,201명, 여성 교수는 66명에 불과해 전체 5.2%밖에 되지 않는다[56]. 교수와 준교수, 강사, 조교까지 포함한 전체 동경대 교원수는 남자 3,335명에 비해 여자 414명으로 전체의 11.0%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대는 2015년 교수 중 남성 1,305명에 비해 여성이 11.2%, 부교수는 20.23%, 조교수는 29.1%로 전체 14.55%에 불과하지만2020년 현재는 교수, 부교수, 조교수를 합친 전체 교원 2,245명 중 여성 교원은 384명으로 17.1%를 차지해 해마다 증가해 가는 추세에 있다. 오세정 서울대

---

[54] 축사 내용은 동경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어 있다.
https://www.u-tokyo.ac.jp/ja/about/president/b_message31_03.ht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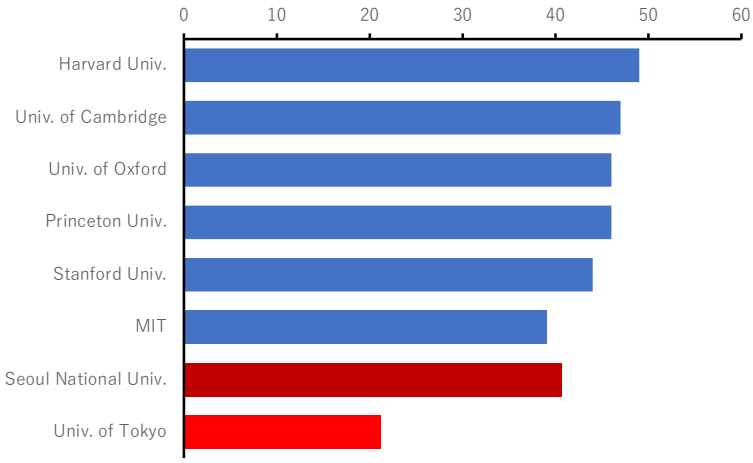
[55] 서울대학교 70년사: 1946-2016 '서울대학교 학부 신입생 남녀 현황(1980-2015)'
https://www.snu.ac.kr/webdata/uploads/kor/file/2020/02/snu70th.pdf

[56] 동경대 여성 교원의 현황. 여성교수비율. https://www.mhlw.go.jp/file/05-Shingikai-11901000-Koyoukintoujidoukateikyoku-Soumuka/0000037168_1_2_2_1.pdf (2021. 06. 25 접속)

총장이 2030년까지 25% 수준으로 올리는 방안을 '혁신 과제' 가운데 핵심 사안으로 추진한다고 한다. 또한 한국은 전에도 확인했듯이 기성 세대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일본보다 훨씬 낮았고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의 세대 차이가 OECD 국가중 최대로 큰 만큼 여성 교수비율은 누적 숫자로 나타나기에 곧바로 개선되기는 어렵지만 빠른 속도로 교육의 남녀평등이 이루어져 왔기에 서울대 입학 여학생 급증과 함께 앞으로 계속 여성 교수 비율도 상승해 가리라 예상된다.

그 나라에서 최고 학벌 즉 최고의 교육을 받는 여성의 비율은 리더쉽 인재를 육성한다는 관점에서 중요한 상징이라 할 수 있으며 England(2010) 또한 젠더 평등을 헤아리기 위해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지표가 바로 교육성취 남녀차이이다. 그는 그 중에서도 대학 진학률 뿐만 아니라 교육의 성격, 전공, 전문성을 중요한 지표로 다루어 왔고 앞에서도 일본과 한국의 상황을 비교해 봤는데 오늘날 양국의 여성들이 달성해 가고 있는 교육수준에는 큰 차이가 있었다. 교육의 내용 및 성격이 바로 직업으로의 이행 과정에서 중요하게 작동하기 때문이며 젠더 본질주의가 지속하는 이유 또한 여학생이 선택한 진로에서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한 의미에서도 일본은 최고의 고등교육 이수 여학생 비율이 선진국가 중 최저 수준이며 이는 일본의 젠더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이자 젠더본질주의의 지속을 재생산하는 기제이기도 하다. 여학생의 진로 선택은 여성 스스로의 선택이자 구조적 제한이기도 하며, 구조가 여학생의 선택을 제한하게 만들고 있으나 여학생 또한 이러한 구조를 강화시켜 재생산해 나가는 주체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고등교육이 무상이 아닌 한국과 일본에서는 딸의 진로 선택의 배경에는 학비를 지원해 대학으로 보내주는 부모의 교육에 대한 태도가 크게 작동하고 있다. 다음 그림으로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여성 고등교육 이수 기회에 대해 세계 다른 유명 대학과 비교해 보자.

〈그림 3-21〉 세계 유명대학 여학생 비율 국제비교



자료: The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 202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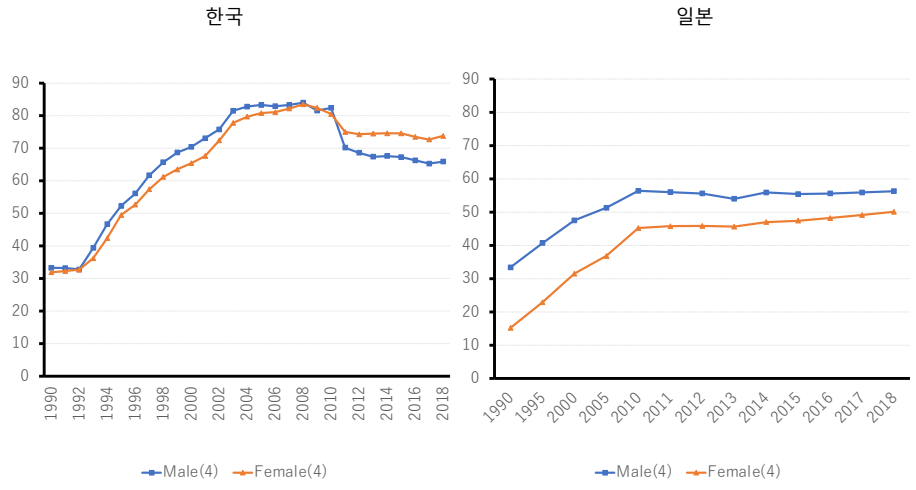
〈그림 3-21〉은 세계 유명대학과 서울대 및 동경대의 여학생 비율을 비교한 것이다. 서울대는 여학생 비율이 2007년부터 40%를 넘기 시작했고 이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에 세계 다른 대학과 큰 차이가 없어졌다. 반면 일본 동경대는 2021년에도 아직 20%를 겨우 넘은 수준에 있어 한국이 빠른 속도로 세계 추세를 따라가는 것에 비해 강력한 성역할규범을 여전히 유지하는 사회처럼 보인다.

1990년대 이후 한국과 일본에서 고등교육이 보급되어 대학진학이 대중화되었으며 2009년 시점에서 일본의 4년제 대학진학률이 49%, 단기대학 진학률이 27%로 합치면 76%에 달한다. 한국은 4년제 대학진학률이 71%, 2년제 대학진학률이 36%로서 합치면 100%가 넘는데 이는 2년제 대학 졸업 후에 대학으로 진학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마츠다(松田)・배(裵), 2013: 74). 배(裵, 2013)는 한국과 일본에서는 고학력 이수자 여학생 중에 커리어 지향을 내면화하는 층과 가정 지향을 내면화하는 층이 공존해 그 결과로서 고학력화가 진행되어도 고용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이러한 이유로 역시 여성의 학력에는 여성 자신이 여성으로서의 '성역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지의

[57] 60위인 서울대와 36위인 동경대는 남녀비율이 「n/a」로 되어 있어서 연구자가 각각 데이터를 추가하여 작성한 그림이다. 'The Times Higher Education World University Ranking 2021' https://www.timeshighereducation.com/world-university-rankings/2021/world-ranking#!/page/0/length/25/sort_by/rank/sort_order/asc/cols/stats

문제가 포함되어 있어서 상급학교로의 진학 의욕(교육 아스피레이션)은 성역할분업의식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金, 2002). 이런 성역할의 내재화 현황을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가 바로 〈그림 3-21〉의 최고 상급 학교로의 진학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한국보다 일본 여학생이 성역할태도를 스스로 내재화하고 있는 상황임을 읽을 수 있다. 학생 스스로 내재화하고 있는 배경에는 사회 분위기, 학교 교육, 부모의 양육태도 모두가 어린 시절부터 여성 교육 성취에 반영된다. 한국이 남녀 구별을 강조하는 유교적 규범이 침투한 사회이기에 일본에 비해 보수적인 성역할분업의식을 나타내며(세치야마(瀬地山), 1996), 20년이 지난 오늘날도 그 구조에는 변화가 없다고 지적되어 왔으나(瀬地山, 2017), 상급 고등교육을 이수하려는 자세에서는 오히려 일본이 남녀차이가 현저하고 선진국 중 최고 수준에 있다. 한국은 이제 고등교육 취득 기회에 있어서 남녀차이가 거의 없고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높은 수준에 있다. 오히려 한국은 오늘날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고등교육을 받는 비율이 더 크다. 〈그림 3-22〉에서 확인해 보자.

〈그림 3-22〉 한일 남녀 4년제 대학 진학률(1990-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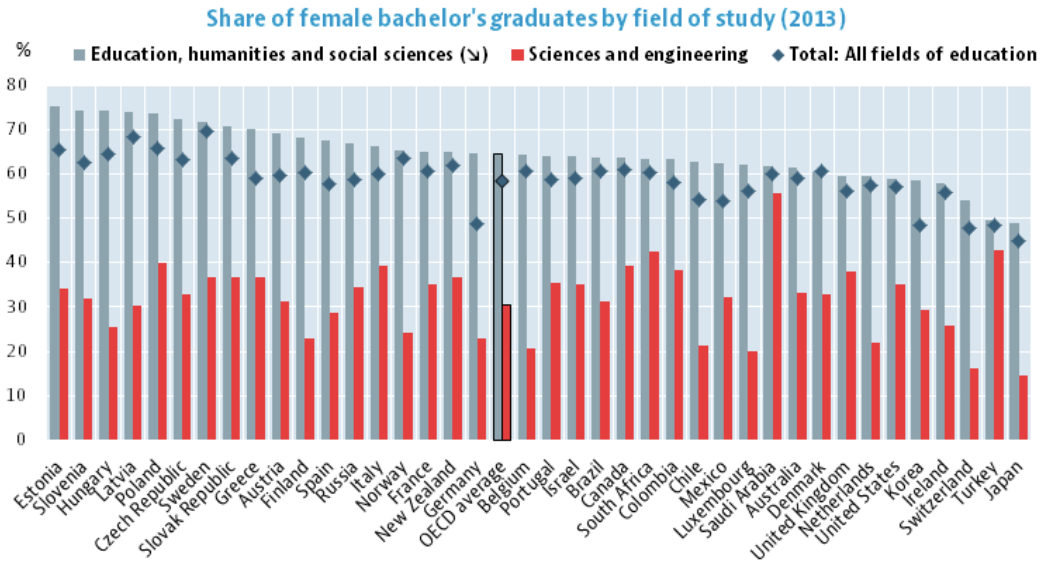
자료: 한국,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일본, 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

〈그림 3-2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1990년부터 한국과 일본에서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상승하는데1990년 시점에서 남자 비율은 한일 간 차이가 없으며 한국에서는 남녀 차이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런데 일본은 1990년 시점에 남학생 33.4%에 비해

여학생 15.2%로 절반밖에 되지 않는다. 이후 2018년까지 일본에서도 상승해 가지만 2018년 여학생의 4년제 대학 진학률은 약50%로 남학생의 그것보다 5%이상 적다. 반면 한국은 2009년부터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많아졌으며 2018년 현재 남학생 65.9%에 비해 여학생이 73.8%로 5%이상 더 많이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고 있어 일본과는 대조적이다.

2014년 OECD가 발표한 남녀 교육격차 통계(25-34세 인구 고등교육이수자 비율)를 살펴보면 2014년 시점에서 한국이 OECD 국가 34개국 중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이 가장 높다. 그 중에 여성이 남성보다 대학진학률이 낮은 나라는 일본과 터키 뿐이다[58]. 남녀차별적인 교육 현황은 대학 진학률 뿐만 아니라 〈그림 3-20〉의 전공 과목에서도 나타난다. 일본은 취업으로 이어지는 이공계를 전공으로 선택하는 여학생이 OECD국가 중에서 가장 적고 그 현황은 터키보다도 심각하다(가장 오른쪽이 일본, 오른쪽에서 다섯 번째가 한국).

〈그림 3-23〉 남녀 대학 전공 비율 국가간 비교(2013)



자료: OECD, Gender Gap in Education, 2013[59]

[58] Source: OECD (2015), Education at a Glance 2015: OECD Indicators.

[59] https://www.oecd.org/gender/data/gender-gap-in-education.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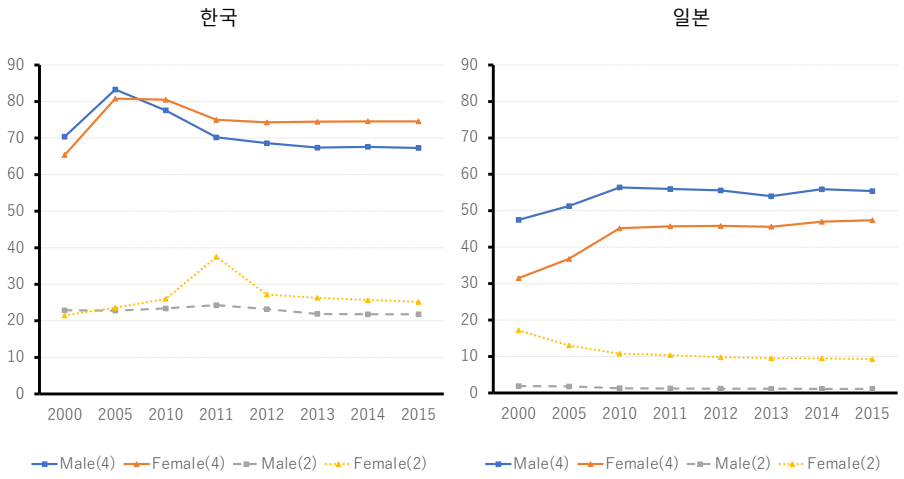
아사히 신문(2018.10.17)은 이러한 남녀차별적인 교육현황에 대하여 시카고 대학 야마구치 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 '어차피 돈벌이를 못한다면 학력보다 가사육아…여성차별은 합리적인가' 라는 특집을 꾸몄다[60]. 그는 일본 여성이 놓여져 있는 상황에 대하여 '고용 구조'와 '성역할 분업의식'이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한다. 앞에서도 확인했지만 일본형 고용관행은 종신고용과 연공 임금이라는 '보장'과 불규칙한 야근 등 '구속'의 교환체제이다. 그 결과 남성보다 가사와 육아를 많이 부담하게 되는 여성들은 고용의 틀에서 제외되기 쉽고 보조적으로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우에노 치즈코는 오늘날 젊은 사람이 동경하는 '정규직 남편과 전업주부 부부는 고도성장기에 완성된 회사에 예속된 '사축(社畜)'인 남편과 가정 안에 박혀있는 '가축(家畜)'인 아내로 인한 갈라파고스화된 가족제도'라고 했다[61]. 그 결과 여성이 장시간 노동 남편을 보조하여 가사와 육아를 담당하게 된다는 젠더 분업적인 고용구조 속에서 일본 부모들은 교육 투자를 딸보다 아들에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이 구조를 재생산하고 있는 주체이기도 했다. 한국은 적어도 교육만큼은 아들 딸 차별없이 시키고 있으며 오히려 오늘날 아들보다 딸의 대학진학률이 높아 부모의 딸에 대한 교육자세가 일본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일본 부모의 딸과 아들 간 차별적인 교육 상황은 다음 〈그림 3-24〉에서도 확인된다.

---

[60] 아사히 신문, 2018월10월17일. 「어차피 돈을 벌 수 없다면 학력보다 가사·육아…여성차별은 합리적인가? (どうせ稼げぬなら学歴より家事育児…女性差別は合理的か)」 https://www.asahi.com/articles/ASLBD7FYQLBDULFA02Q.html

[61] 혹은 '전업주부는 사축의 전속 가정부이다'라는 표현도 한다. 文春新書에서 출판된 「일하는 여성의 운명」(하마구치(濱口), 2015) 출판을 기념하여 上野와 濱口의 대담 특집. 「일하는 여성은 활약할 수 있는가? 하마구치 케이이치로(濱口桂一郎)×우에노 치즈코(上野千鶴子)" 조직의 논리와 여성의 논리가 대격론!」 (https://books.bunshun.jp/articles/-/2987?page=2) 우에노(上野)는 후루치치(古市)와 공저에서도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우에노(上野)·후루이치(古市), 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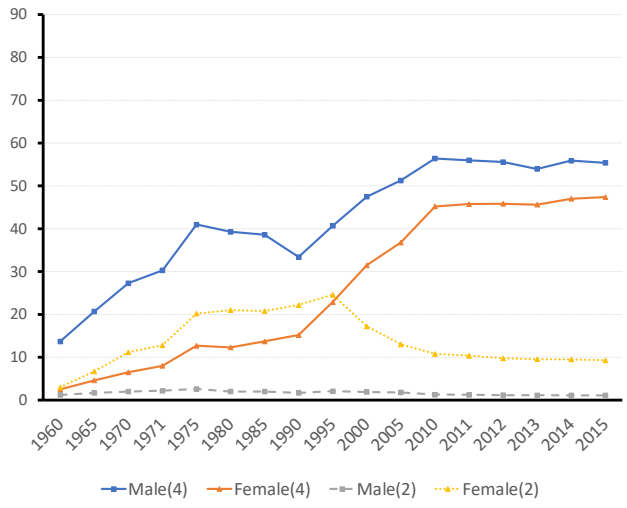
〈그림 3-24〉 한일 남녀 2년제, 4년제 대학 진학률(2000-2015)



자료: 한국,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연보」 각년도;
일본, 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 각년도

〈그림 3-24〉는 4년제 대학 및 2년제 대학 진학 상황을 비교한 것이다. 한국은 2010년 이후부터는 2년제 대학 및 4년제 대학 모두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더 많다. 반면 일본은 2년제 대학에 다니는 남자는 거의 없고 여자의 고등교육은 2000년 이전까지만 해도 2년제 단기대학 진학이었으며 남녀 분리적인 고등교육 기회가 제공되어 있었다. 2년제 대학에 진학하는 남학생이 거의 없으므로 2년제 대학의 존재자체가 여자를 위한 교육기관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남녀분리적인 고등교육 이수기회 성격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고자 1960년 이후 고등교육이 팽창해 가는 상황을 확인하자.

〈그림 3-25〉 일본 남녀 2년제, 4년제 대학 진학률(1960-2015)



자료: 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 각년도

〈그림 3-25〉에서 확인되듯이 일본 남녀 대학 진학률은 1960년 이후 서서히 증가해 갔다. 그런데 1995년까지만 해도 남자와 여자의 대학교육은 다른 성격을 가졌다. 남자는 4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으며 여성은 2년제 대학 진학이 일반적이었다. 일본에서 1965년대에서 1995년까지 약 30년 동안 여성 진로 선택의 압도적 다수가 2년제 대학 진학이었고 1949-1976년생 여성 대부분의 고등교육은 4년제보다 2년제 대학 진학이었으며 '남자는 대학, 여자는 2년제 대학'이라는 고등교육의 젠더 트럭이 정착되었다. 일본에서 교육기회 확대가 2년제 대학 급성장으로 이루어진 것이 일본 여자 고등교육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으며 고도성장기에 여자는 2년제 대학이라는 젠더 트럭을 통해 학교 교육 속에 젠더 격차를 현재화시킨 시대이기도 했다(오시지마(押嶋)·콘도우(近藤), 2000: 37-39). 1990년 여자 2년제 대학 진학률이 22.2%인 것에 비해 4년제 대학은 15.2%였으며 1995년에도 여자 단기대학 입학비율은 24.6%, 4년제는 22.9%였다가 2000년 이후 여성의 2년제 대학 진학률과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처음으로 역전되었다. 이 배경에는 일본의 장기 저출산으로 인한 대학의 학생수 감소로 인해 2년제 대학을 4년제 대학으로 전환하는 학교가 증가했기 때문이다[62]. 대학 입학시의 연령 18세

[62] 일본 2년제 대학은 1996년 598개교를 절정으로 이후 감소해 간다. 그 대신 2000년 이후

인구 추이를 확인해 보면 전후 베이비붐 세대인 단카이 세대가 18세를 맞이할 1968년에 253만명으로 절정을 찍은 후 계속 감소해 갔으나 이들 자녀세대 인 단카이 주니어 세대에서 다시 증가한다. 1992년에 205만명으로 다시 절정을 찍은 후 일본의 18세 인구는 계속 감소해 2000년에 151만명, 2010년에 121만명, 2019년에는 114만명까지 줄어들었으나 4년제 대학의 수는 계속 증가했으며 대학진학률도 상승해 갔다[63]. 이러한 배경으로 일본의 여성 4년제 대학 진학률이 여학생들이 남학생과 같은 교육수준을 획득하려고 증가했다기보다는 원래 2년제 대학으로 진학하던 여성들이 4년제 대학으로 가게 되며 자연스럽게 전환되어 갔던 성격이 강하다. 과거 30년동안이나 여성의 진로로서 대세였던 2년제 대학 진학이라는 젠더 트럭은 경로의존적으로 오늘날에도 여러 지표에서 확인이 되며 나아가 자녀 양육태도에도 미치는 영향이 여전히 큰 것으로 이해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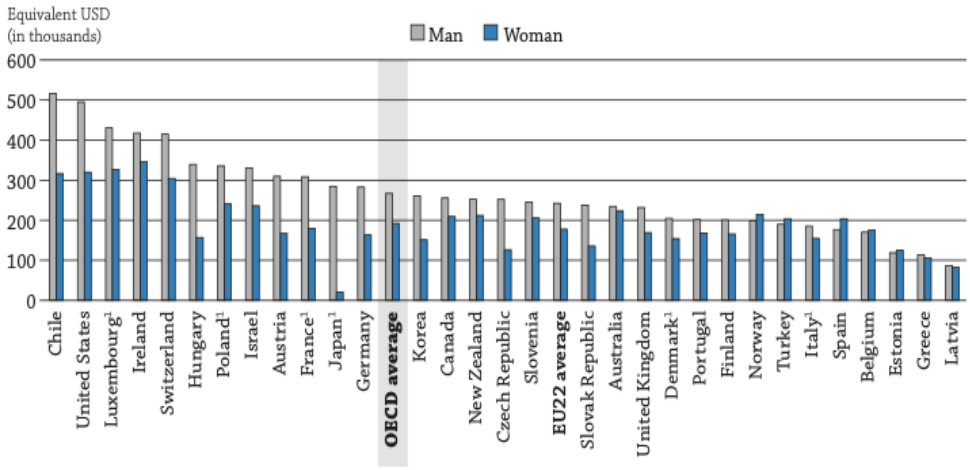
그렇다고 21세기에 들어 전세계가 남녀평등으로 지향하는 추세에서 일본 부모들 만이 딸에 대해 차별적인 교육을 시키는 이유를 단지 문화적 측면으로만 설명할 수는 없다. 이 배경에는 여성이 고등교육을 성취하여 얻을 수 있는 대가 즉 실질적인 경제적 수익이 일본이 OECD국가 중 가장 낮다는 경제적 이익 측면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다음 〈그림 3-26〉에서 OECD '그림으로 보는 교육 2018(Education at Glance 2018)' 자료를 살펴보자[64].

저출산으로 인해 학생이 줄어드는 와중에도 4년제 대학은 계속 증가해 갔다. 1995년에 565개교였던 4년제 대학은 아동수가 감소해 가는 추세와 달리 계속 증가해 2020년에는 795교까지 증가했다. 대신 2년제 대학은4년제 대학으로 전환되어 가면서 1996년에 598개교였다가 2020년에는 323개교까지 감소했다(문부과학성 학교기본조사, 각년도). 이 추세에 따라 여학생 대학진학률 또한 1995년 이후 2년제보다 4년제 진학률이 상승해 갔다.

[63] 내각부 '18세 인구와 고등교육 기관으로의 진학률 등의 추이' https://www8.cao.go.jp/cstp/tyousakai/kihon5/1kai/siryo6-2-7.pdf (2021.06. 25 접속)

[64] 'OECD Education at Glance 2018 OECD INDICATOES' Private net financial returns for a man or a woman attaining tertiary education (2015). (As compared with returns to upper secondary education, in equivalent USD converted using PPPs for GDP, future costs and benefits are discounted at a rate of 2%.) https://www.oecd-ilibrary.org/docserver/eag-2018-en.pdf?expires=1625321303&id=id&accname=guest&checksum=056094251C3FA2583BEAA03C1AD61D5D

〈그림 3-26〉 OECD 가맹국 남녀 고등교육 이수로 인한 사적 수익



자료: Source: OECD (2018), Tables A5. 1. 「Private net financial returns for a man or a woman attaining tertiary education (2015)」에서 인용

OECD는 고등교육 학비나 진학 및 미진학 시의 생애 임금 등을 기준으로 각국 남녀별 '고등교육 사적수익' (Private net financial returns for a man or a woman attaining tertiary education) 을 시산(試算)하고 있다. 그것에 의해 대학진학이나 대학원 진학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일본 여성의 사적 수익은 OECD 여성 평균의 1/9 이하에 불과하다. 게다가 일본 남성과 비교해 봤을 때 여성의 고등교육 성취로 인한 수익률이 1/13 이하 수준에 불과해 남녀수익차이가 OECD 국가 중 최대임을 알 수 있다. 이정도 차이가 난다면 일본 부모 또한 딸에게의 교육투자를 한정된 자원 속에서 제한적으로 하게 되는 동기부여가 충분하다고 보여진다. 아사히 신문에 의하면 2015년 베네세 교육종합연구소가 조사한 미취학 아이를 가지는 어머니를 대상으로 한 '유아 생활 조사'(n=3,200)에서도 '자녀 진학에 대한 기대'는 남자는 '4년제 대학 졸업까지'가 79.7%인 것에 비해 여자는 66.9%로 10%이상 차이가 난다고 소개했다[65]. 이렇듯이 일본에서는 여성에 대한 대학 교육 투자나 여성들의 커리어 형성에는 본인의 노력 이전에 교육에 대한 부모의 태도가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후쿠시마, 2020: 133). 동시에

[65] 아사히 신문 2018년10월10일. '여자가 대학이라니' 진학 안시키는 풍조, 배경에 있는 경제 격차 https://digital.asahi.com/articles/ASLB35RCXLB3UTIL04C.html 이 해 2018년은 일본에서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처음으로 50%를 넘어 50.1%를 기록한 해였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측면 즉 여성이 교육성취를 이루어도 실질적 경제적 대가를 노동시장을 통해서는 얻을 수 없다는 뿌리 깊은 문제가 숨어 있다. 이는 앞에서 확인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소득차이가 한국, 대만보다 훨씬 크며 대부분의 여성이 그러한 노동을 맡고 있다는 것으로 설명된다. 뿐만 아니라 대기업 '정규직' 간에도 남녀 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키노시타(木下), 1995; 키타가와(北川), 1995; 모리(森), 2005; 카와구치(川口), 2008; 하시모토(橋本), 2009)[66] 개선을 원하는 소송까지도 이루어졌으나[67] 여전히 일본형 고용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지속되고 있다.

한국에서는 이미 자녀수가 줄어든 상태에서 부모 세대가 아들 딸 구별 없이 행한 적극적인 교육투자의 결과로서 젊은 여성들의 교육수준이 (그 어머니 세대보다) 획기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에, 이들의 적극적 사회활동 및 자아실현으로서의 노동시장 참여는 이미 보편적 가치를 구성한다(장경섭, 2018: 230). 물론 고등교육 이수가 바로 직업적 지위 획득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성역할의 내재화는 고위직 진출 상황에도 장해물이 된다.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여성 스스로가 내재화하여 고위직 진출을 목표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적어도 사회경제적인 지위가 높은 여성의 증가 즉 지도적 입장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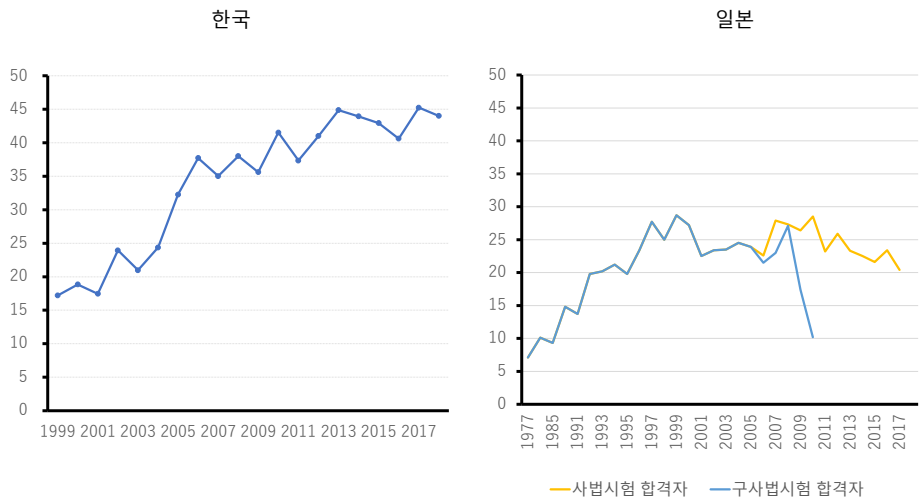
---

[66] 후생노동성(2014)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를 살펴보면 남성 정규직 사원은 입사후 연령이 증가할수록 임금이 증가해 50대에서 절정을 맞이하여 연공서열이 살아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때 남성은 입사 시 20-24세로 기본 월급은 20.6만엔인데 50-54세에는 43.6만엔까지 상승했다가 이후 서서히 하락한다. 반면 여성 정규직 사원은 입사시 20-24세에서 19.8만엔 받은 월급이 남성이 절정을 맞은 50-54세에서 마찬가지로 절정을 맞이하지만 29.2만엔에 그친다. 입사시 남녀 정규직 사원이 비슷하게 받기 시작한 월급이 50-55세가 되면 남성이 2배이상 월급이 상승한 것에 비해 여성은 1.5배 이하에 머문다. 이러한 이유로 대기업 프리미엄은 남성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지적된다.

[67] 후생노동성 '제37회 노동정책 심의회 고용균등법 분과회'의 남녀고용기회균등법에 대한 배포자료 '여성노동에 관한 주된 재판예'만 살펴봐도 대기업에서 승진, 임금 나아가 출산 휴가로 인한 불이익 등 남녀차별에 대하여 여직원이 기업을 대상으로 제기된 소송이 수없이 많다. 그 주 내용은 '가구주'인 남편에 대해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아내 또한 수입이 있는 경우 수당지급이 제외되었거나, 같은 근속연수, 연령인 동기와 임금차이가 크다는 소송들이다. 이는 일본의 대기업이 개인의 능력에 맞게 월급을 지급하는 게 아니라 국가 대신 가족복지를 담당해 왔기에 '가족수당'이 포함되는 임금체제, 때문에 여성은 대부분 '가구주'가 아니기에 그러한 수당을 받을 수 없고 승진 대상에서 제외되어 온 관습에서 발생한 소송들이다. 닛산 자동차, 이와테 은행, 산요물산, 스미토모 전기, 스미토모 과학, 노무라 증권, 쇼와 쉘 등 일본을 대표하는 유명한 대기업들을 대상으로 소송이 제기되어 왔다.

있는 여성의 증가가 조직을 바꿔가기 때문에 사회제도와 분위기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며 여성의 인권의식이나 성역할평등의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그럼 고등교육 이수가 고위직 진출로 이어지는 현황을 확인하자. 다음 〈그림3-27〉은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을 나타낸다.

〈그림 3-27〉 한일 변호사 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



자료: 한국, 인사혁신처「사이버국가고시센터」, 출처: 여성정책연구원「국가고시 합격자(성별)」
일본, 변호사 인구 「일본 변호사 연합회[6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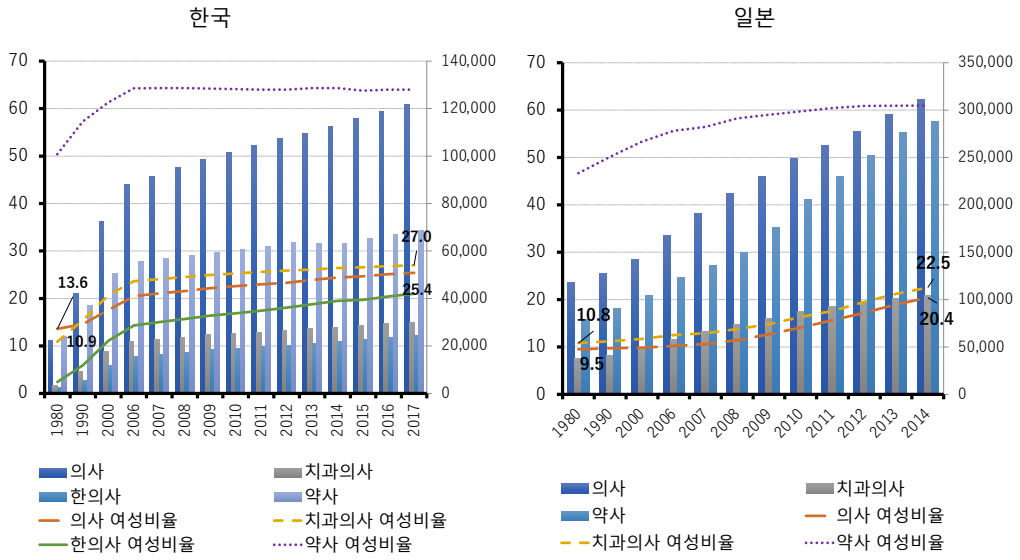
Note: 일본은 2005년도부터 신시험 도입, 구사법고시와 병행되어 구사법고시는 2011년도에 폐지
한국은 2012년도부터 신시험 도입, 구사법고시와 병행되어 구사법고시는 2017년도에 폐지

한국은 2000년 이후 과거 20년 동안 빠른 속도로 여성의 사법 전문가 진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오늘날 변호사 시험 합격자 비율은 2010년부터 40% 이상을 차지한 이후로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 반면 일본은 1999년의 28.7%를 절정으로 한번도 30%를 넘은 적이 없으며 최근 들어서는 오히려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학생시절에는 남녀 성적 차이가 없는데 대학진학 시에는 여학생이 스스로 성역할을 내재화하고 있어 이공계를

[68] https://www.nichibenren.or.jp/library/ja/jfba_info/statistics/data/white_paper/2017/1-1-1_tokei_2017.pdf

피하는 것은 물론이고 동경대, 교토대 등 최고의 학벌로 진학하는 것도 피하는 것이 결국 여성의 고위직 진출을 막고 있다. 동경대에서 여학생이 작성하고 있는 프리 페이퍼 「biscUiT」는 2019년 가을 '여자 20%의 벽'이라는 특집을 마련했다. 동경대에는 '동경대 여자는 거절'인 동아리가 존재하고 같은 대학 여학생이라는 이유로 남학생한테서 배제당하는 차별에 대해 소개도 하고 '대학입시 경쟁에 남녀차별은 없으나 입학 시점에 이미 숨겨진 성차별이 시작된다. 동경대 수험자 수부터 이미 분명한 남녀차이가 있다'는 것을 문제시하고 있다.[69] 남녀차별적인 진로선택은 사법분야 뿐만이 아니다. 의료분야 전문가 진출도 한국보다 낮다.

〈그림 3-28〉 한일 의료분야 종사자 중 여성 비율



자료: 한국, 보건복지부 「보선복지통계연보」;
일본, 후생노동성 통계국 「의사·치과의사 약사 수의 연차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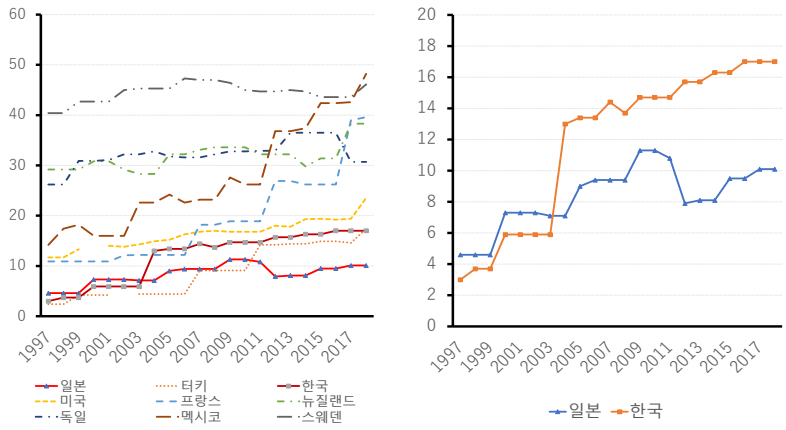
〈그림 3-28〉에서 확인되는 의료분야 진출이 사법분야처럼 여성비율이 높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기성세대까지 포함한 누적 수치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기성세대 여성들이 대부분 고등교육을 받을 수 없었고 2018년 현재 한국의 55-64세 여성 대학

[69] 아사히 신문, 2020년2월29일. 「동경대가 한번도 넘은 적이 없는 '여자 20%의 벽' 그 배경은」 https://www.asahi.com/articles/ASN2X4V2QN2NUTIL047.html

이수자(2년제 대학 이상) 비율이 15.47%인 것에 비해 25-34세는 75.71%이다. 무려 60% 이상이나 차이가 나는데 일본은 같은 해 55-64세 여성이 40.27%인 것에 비해 25-34세는 63.87%이다. 이러한 배경을 감안하면 일본이 한국보다 훨씬 먼저 여성이 전문직으로 진출해야 했음에도 한국에서 대학진학이 대중화된 1990년대 이전인 1980년에 이미 의사, 치과의사, 약사의 모든 비율이 일본보다 높다. 2018년 일본 의대 부정 입시 문제가 부상되었고 복수의 대학 의대가 여학생 점수를 감점하여 남학생을 우대하는 부정 사건이 있었음도 밝혀졌다. 명백한 여성 차별 사건이었고 일본 국내에서는 일부 시위가 있었으나 이 사건 역시 조용히 지나갔다[70].

마지막으로 〈그림 3-29〉에서 정치분야 여성의 진출상황을 살펴보자.

〈그림 3-29〉 한일 여성 국회의원 진출 현황(1997-2018)



[70] 2018년 7월 자식을 동경의과대학으로 부정입학시켰다고 문부과학성 국장이 체포된 오직사건(汚職事件)를 계기로 일본 국내 의대에서 일률적으로 여학생에 대해 감점을 해 왔던 것이 내부조사 결과로 밝혀졌다. 이후 쇼와 대학, 고베 대학, 이와테 의대, 가나자와 의대, 후쿠오카 대학, 준텐도 대학, 키타자토 대학, 니혼 대학, 성 마리안나 의대 등 잇따라 부적절한 감점 조정을 해 온 사실을 밝혔다. 그 외에도 입시에 있어서 '동창생으로부터 추천을 받은 수험생 리스트 작성', '보호자가 동창생 여부인 자료' 등을 작성시켰던 대학들까지 합쳐 수십개교가 의혹 대상으로 보도되었다. 국회의원으로 인한 부정입시 연결 사실도 밝혀졌다. '동경의과대학이 부정을 해온 기간으로 추론하면 피해자는 적어도 2만명 이상'이라고 한다. 사건 계기가 된 동경의과 대학의 남학생 합격률은 여학생의 3.11배였다. 자녀에 대한 대학 부정 입학을 계기로 한 사건이었으나 한국에서 일어난 비슷한 사건인 최순실 딸 이화여대 입학, 조국 딸 의대 입학 뉴스 보도와 국민의 대응과 온도 차이가 매우 컸다.

자료: Inter-Parliamentary Union, 「Women in national parliaments」 (2019) [71]

사실 한국과 일본 모두 여성의 정치분야 진출이 결코 활발한 것은 아니다. 그런데 한국은 2003년 이전까지만 해도 여성 비율이 일본보다 낮았는데 2003년에서 2004년에 걸쳐 여성의원 비율이 급증했다. 지역적 지지 기반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노무현 대통령에게 있어서 여성으로부터의 지지를 얻는 것은 김대중 이상으로 절실한 과제였다. 그래서 그는 여성의 실질적인 대표성을 향상시키는 제도 개혁을 추진하여 여성이라는 새로운 지지 기반을 형성시키려고 했으며 여성부를 설치하여 국회의원의 쿼터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계기로 여성이라는 정치 액터가 정치결정 과정을 좌우하는 권력자원이 되어갔다(崔佳榮(최가영), 2019). 여성의 정책을 제안하는 부분은 여성에 의한 것이 일반적이기에(Sawer, 2002: 8-9) 여성의 정치참여, 특히 여성 국회의원의 증가는 여성 정책이 발전하는 경향이 확인된다고 한다(Bonoli and Rober, 2010: 102; 崔佳榮, 2019: 202에서 재인용). 이러한 배경으로 한국이 2004년 이후 여성 의원 수가 급증했으며 이후 여성을 위한 정책이 활발히 전개되어 간다. 한국의 여성 정책 확대과정에 대해서는 뒤에서 살펴보기로 하자.

이상 한국이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여성의 교육수준이 상승해 남녀평등지향적인 방향으로 변해 왔다. 일본은 한국과 달리 21세기에 들어서도 20세기에 성립한 일본형 고용을 고수하려고 방향을 조정했으며 기업도 인구의 절반인 여성 인력을 활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계, 의료계, 정치계의 전문가 진출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21세기를 맞이하고 있다. 어릴 때부터 여성성을 몸에 익히고 학교 및 가정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고등교육 기회도 제한을 받고 여성으로서의 역할을 기대받아 살아왔기에 진로 선택의 결과가 아니라 선택 전부터 이미 성역할이 강하게 내재된 젠더화된 생애과정을 재생산하고 있다.

3) 여성운동과 여성정책의 전개 vs 백래시와 일본형 복지정책

[71] http://www.ipu.org

1990년대 후반의 금융위기 이후 노동시장에서의 남녀 위치가 어떻게 변화했는지 공적 영역 변화는 이미 확인한 바 있다. 여기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어떤 가족정책 및 여성정책을 전개하여 오늘날 주로 가족영역에서 여성의 지위 변화 즉 젠더 평등으로 다가왔는지 정책을 중심으로 비교하고자 한다. 먼저 일본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일본형 고용관행-종신고용, 연공서열, 연공임금-은 개인 임금이 아닌 가족 임금을 지급하는 대신에 가장에게 장시간노동을 요구하고 가사와 육아에 전념하는 전업주부가 있어야 성립되는 가족 모델이었다. 전후부터 1990년대까지 대부분의 사람이 형성할 수 있었던 근대화 과정에서 성립한 가족을 일본에서는 '근대가족'이라고 부르고(서구에서는 '전통가족') 이는 오치아이(落合, 1989)가 정리하듯이 공사 분리, 정서적 결합의 중시, 자녀 중심주의, 그리고 성역할분업을 특징으로 하는 것이었다. 근대가족은 서구에서는 1920-1960년대에, 일본에서는 1970-80년대에 서구보다 짧게 '반압축적'으로 형성되었다(Ochiai, 2013). 그것은 당시 오치아이(落合, 2004 [1994]) 표현을 빌리자면 '재생산 평등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누구나 결혼을 하고 자녀를 가지며 가족을 형성한다는 근대가족 형성의 기회가 평등하게 분배된 시대였다.

경제성장을 이룬 일본에서 1973년을 '복지 원년(福祉元年)'으로 부르며 복지국가를 건설하자고 했으나 그 해에 오일 쇼크가 닥쳤다. 이후 일본은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지 못한 채 복지의 발전과 삭감을 동시에 병행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이것이 '일본형 복지사회' 정책 내실이었으며 정부는 정통적인 일본의 미덕인 '자조(自助)와 가족과 공동체 안에서의 상호부조(相互扶助)'를 강조했다. 정책 방향은 '가족기반 충실'책이며 근대가족을 강화시키는 내용이었다. 사실 이 때부터 자민당이 내세우는 가족으로 인한 '자조'의 정신이 오늘까지도 이어져 있다. 2020년 코로나 이후 국민이 국가에 대해 보상을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현 스가 수상은 '자조 (自助) , 공조 (共助) , 공조 (公助) , 그리고 키즈나(絆)[72]'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반복해 왔다[73]. 이 뜻은 국가의 개입을 최소한으로 하고

---

[72] 끊기 어려운 정(情)이나 인연, 유대를 뜻한다.

[73] 2010년 민주당 정권이 아동수당을 채택했을 때 자민당은 '바라마키(선심성 정책)'라고 비판을 했으며 '자원도 없는데 바로 '공조'를 내세우는 민주당'이라고 비판해 자민당은 '자조(自助) 자립(自立)하는 개인을 존중하고 그 조건을 정리하는 것과 함께 공조(共助) 공조(公助)하는 구조를 마련하겠다고 2010년1월 방침에 기재했다(자민당 광고본부 자료 참조: https://www.jimin.jp/policy/policy_topics/recapture/pdf/061.pdf). 민주당은 자민당이 '지나친

가족이 알아서 해결하고(자조), 회사가 지원하고(공조), 그래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은 국가가 도와주겠다(공조)라는 것이며 가족으로 인한 복지를 강요하는 것이다. 전업주부가 다수파를 차지한 당시 '생계부양자인 남편과 전업주부인 아내'라는 남녀역할 분업형 가족모델이 지배적이었기에 전업주부를 보호하는 정책이 잇따라 만들어졌다. 아내의 법적 상속제도 인상, 기업에 근무하는 남편을 두는 아내의 연금 보험료 면제(배우자특별공제: 1985년), 부양배우자가 있는 사람에 대한 세금 경감 조치(소득세의 배우자 공제: 1986년), 후생연금제도에서 유족연금 제도 등이 마련되었다(미키(三木), 2002; 하시모토(橋本), 2002). 반면 소수파인 저소득층 유자녀 맞벌이 가정 혹은 모자 가정에 대한 지원은 모성보호 대책 및 복지대책으로 취급되었다. 이러한 가족주의적 개혁은 여성 고용이 1950년대부터 증가하였던 것을 억제시켜 1970년대에서 오늘까지 여성 고용 확대는 파트타임노동이라는 형태에서만 나타나게 만들었다(Ochiai, 2010). 이는 오늘날도 대부분 기혼여성이 이 때 만들어진 배우자특별공제로 인해 '피부양자'로 인정되는 한도 안에서 노동시간을 조절하게 되었기 때문이다[74]. 이로 인해 서구 사회에서 제2차 인구전환과 동시에 일어난 젠더 혁명은 일본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일본은 정책적으로 오히려 1980년대에 젠더 역할을 강화하여 가족주의를 제도화시켰으며 이후 큰 개혁없이 오늘날에 이른다. 물론 장기화된

'자조(自助)'를 요구하는 신자유주의'라고 서로를 비판해 왔다. 자민당의 노선은 '일본형 복지'가 시작된 1973년부터 '자조'이다. 1997년 하시모토 수상은 '버블경제 붕괴 후 부실 채권 처리에서 '자기 책임'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발언했으며, 2001년 코이즈미 총리는 '관(官)에서 민(民)으로'를 슬로건으로 연금 개혁과 의료 개혁, 생활 보호 비용 절감으로 사회제도를 축소, 오늘날 일본의 '자기책임 사회' 기초를 창출했다. '2021년 3월 4일 참의원 예상위원회에서 스가 수상은 '코로나 상황에서도 사업을 잘하는 사람들이 있다. '먼저 자조'라고 강조했으며(아사히 신문 2021.03.04. 수상 '먼저 자조', '사업 실적 내는 사람들이 있다'), 경제위기도 코로나 위기도 언제나 '자조'로 극복해야 하는 가족주의 사회체제를 오래 강화해 왔다.

[74] 전업주부가 파트노동할 때 기준으로 두는 금액이 103만(오늘날 150만엔)이며 '103만엔 벽'이라고 불려 왔다. 연간 소득이 이 범위를 넘으면 배우자 회사에서 나오는 부양수당이 없어지며 소득세, 주민세를 지불할 의무가 생긴다. 연수입 103 만엔 미만이면 공제 38 만 엔의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배우자 공제'), 103 만 엔을 넘으면 '배우자 특별 공제'로 바뀌고 사회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월급에서 후생연금, 건강보험료를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150만엔까지는 '배우자 공제'와 같이 전액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150만엔을 넘으면 연봉에 따라 공제액이 감액되어 201.6만엔에서 0이 된다. 이전에는 103만엔 초과에서 공제액이 감액되었는데 2018 년에 150 만엔으로 인상되었다. 이후 150만엔까지 단계적으로 공제가 없어진다. 2019년 총무성 '노동력조사'를 보면 일본 맞벌이 가구의 절반 이상이 150만엔 이내로 일하고 있다.

저출산이 심각해지자 아베 정권은 아베노믹스로 재원을 확대시키고 그것으로 아동보육 무상화 재원을 확보해 재분배 정책에도 힘을 썼지만 자민당은 1973년에 형성한 '일본형 복지'를 신자유주의 이름 하에서 추진된 '자기책임(自己責任)'과 '자조'의 정신으로 가족이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인식시켜 왔다. Esping-Andersen(2009)에 의하면 '가족주의'란 소득 분배 및 돌봄 분담의 쌍방에 있어서 가족이 그 성원의 복지에 대해 최대한 책임을 가져야 한다는 이념이다. 이러한 이념은 근대 복지국가 초기단계에는 실질적으로 대부분 국가에서 가족주의를 전제로 해 왔는데 이는 국가로 인한 복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1970년대 이후 처음으로 북유럽 국가들이 탈가족화정책을 실현했으며 이후 유럽 국가들이 복지정책을 네 가지 방향성으로 발전시켜 왔다. 오늘날 복지국가 초기단계 즉 복지의 부재를 가족주의라고 부르게 되었는데 사실 가족주의 성격도 한정된 재원 안에서 취사선택되는 정책방향에 따라 다양한 방향으로 발전되어 왔다. 한국과 일본이 흔히 가족주의 복지 레짐에 속한다고 분류되어 왔으나 그 성격은 공통점도 많지만 차이점도 많고 앞으로 향하는 방향도 매우 다르기에 오늘날 가족변화 양상도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면 같은 가족주의 사회인 한국은 어떤 정책을 택해 왔을까? 일본보다 압축적인 근대화를 경험한 한국은 '복지국가를 건설한다는 것과 동시에 복지를 삭감해야 한다'는 모순된 과제에 부딪혔다(미야모토(宮本) , 2013). 김대중 대통령은 IMF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신자유주의와 지구화 영향 속에서 복지를 건설해야 했으며 경제성장을 기반으로 건설하는 '생산적 복지'라는 개념을 만들었다. 분배를 추구하는 진보정권에서 신자유주의적 정책을 추진하면서 분배를 한다는 모순적인 대응이다. 따라서 '생산적 복지'가 강조한 '노동과 복지의 연계'가 신자유주의적인 '워크페어(workfare)'적인 성격이었는지 '액티베이션(activation)'적인 성격이었는지 평가가 나뉜다고 한다[75] . 오치아이(落合, 2013)는 한국을 포함한 일본 외의 동아시아 사회를 '신자유주의적 가족주의'라고 부르고 일본은 '순수한 가족주의'라고 부르고 있다. 그런데 본 연구자가 여기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은 일본이 80년대에 만들어진 가족주의 강화 모델을 오늘날까지도 유지해 온 것에 비해 한국은 이 때부터 빠른 속도로 여성정책이 전개되어 남녀평등으로 향해 왔다는 점이며 그 점이 양국의 가족주의 성격을 다르게 만든 결정적인 차이라고 생각한다.

---

[75] 이 논쟁에 대해서는 金淵明編(김연명, 2006)에 잘 정리되어 있다.

그러나 이 여성정책 전개는 단지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한 것은 아니다. 경제 위기 이전부터 민주화 이후 남녀평등은 여성의 인권문제였으며 오랫동안 이어진 여성운동의 결실이 법적 개정으로 움직인 것이다. 한국의 가족정책은 가족법 개정의 역사라 할 수 있다. 1957년 민법이 개정된 이후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에 걸쳐 가족법 개정운동이 멈춘 적이 없었다(양현아, 2011). 그 핵심은 호주제 폐지운동이며 한국 최초 민법 안이 마련되던 1950년대부터 시작되었다. 호주제 폐지는 1970년대와 1980년대 가족법 개정사에서 가장 중심적인 의제였고 1990년대와 2000년대에도 그 운동은 끊임없이 지속되었다. 호주제도 폐지운동은 50여년 한국 가족법 개정 운동의 역사가 고스란히 집약되어 있다(양현아, 2011: 313). 여성들은 1995년 '여성발전기본법' 제정 이후 남성중심주의의 근간이었던 '호주제도' 폐지, 이혼 후 여성의 재혼을 6개월 금지하던 '가족법'의 개정[76] 등을 실현시켜 여성의 법적 지위 상승과 남성중심의 가부장제에서 벗어나는데 현저한 공헌을 해 왔다(야카나카(山中), 2008: 37). 한국 가족법 개정사는 한국에서 발흥한 페미니즘의 모습을 보여준다. 가족법 개정운동은 가부장적 가족법을 비판하고 대안을 모색한 여성주의 운동이었고, 전통과 근대성의 기로에 선 한국 가족제도에 대한 비판 운동이었으며, 시민들의 삶 속에서 의제를 발견하고 결집한 사회운동이었고, 입법부와 행정부에 압력을 가했던 정치운동이었다. 이 점에서 한국 가족법 개정은 한국의 여성운동, 법과 사회의 역동성, 가족과 여성의 위치 등이 복합적으로 담긴 법사회학적, 여성사적 텍스트임을 보여준다(양현아, 2011: 273).

2000년대 김대중, 노무현 정권 기에는 정부기관으로 여성에 관한 정책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여성부'를 발족시켜(2000년, 이후 2010년부터 '여성가족부'로 명칭 변경), 정치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결정과정에 여성 참가를 획기적으로 강화시켰다. 김대중 대통령은 지방의회 및 국회에 여성 쿼터제도를 도입하는 것으로 여성의원수를 대폭 증가시켰으며 여성부에는 페미니스트 활동가를 관료로 받아들였다. 김대중 대통령이 진행한 일련의 제도적 개혁은 다음 노무현 정권이 여성정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제도적 기초가 되었다.

---

[76] 일본은 여전히 호적제도를 유지하며 여성의 이혼 후 재혼금지기간이 6개월에서 현재 100일로 단축되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정권의 '생산적 복지'를 계승해 '참여 복지'를 복지이념으로 내세웠으며 저출산 문제와 가족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여성 노동력 참여 증가와 육아 및 돌봄 문제 해결을 시급한 과제로 다루었다. 김대중 대통령이 도입하여 노무현 대통령 때 강화시킨 쿼터 제도가 도입된 후의 여성의원 증가 추세를 살펴보자.

〈표 3-6〉 쿼터 제도가 도입된 후의 여성의원 증가 추세, 한국(1988-2016)

연도	여성의원 비율	비례구				선거구			
		의석수	입후보자수	당선자수	비율	의석수	입후보자수	당선자수	비율
1988	2.0	75	13	6	8.0	224	14	0	0.0
1992	2.7	62	16	7	11.3	237	21	1	0.4
1996	3.0	46	22	7	15.2	253	21	2	0.8
2000	5.9	46	32	11	23.9	227	33	5	2.2
2004	13.0	56	91	29	51.7	243	66	10	4.1
2008	13.7	54	83	27	50.0	245	132	14	5.7
2012	15.7	54	79	28	51.9	246	63	19	7.7
2016	17.0	47	75	25	53.2	253	98	26	10.3

자료: 崔佳榮(최가영, 2019: 110)에서 인용

출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통계 시스템

앞서 〈그림 3-29〉에서도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 상승을 확인했지만 이 〈표 3-6〉에서 쿼터제도 도입으로 인해 여성 의원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제도가 도입된 2000년도에 5.9%로 1996년의 3.0%에 비해 약 2배나 증가했으며 이후 2004년에는 13.0%로 2000년의 5.9%에 비해 2배이상 증가했다. 이러한 정책적 개입으로 인해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이 1996년 3.0%에서 2016년에는 17.0%까지 대폭 상승한 것이다. 어떻게 보면 21세기에 들어 많은 선진국에서 남녀평등을 향해 빠른 속도로 사회가 변화해 왔으며 한국 또한 그 변화가 뒤늦게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왔다고 볼 수 있다. 한번 형성된 제도는 경로의존적으로 유지가 되기에 이후 보수정권 시대에서도 여성을 위한 정책이 전개되어 갔다.

한국에서의 가족정책은 가족법 개정의 역사 그대로였다. 가족정책이란 국가가 가족을 위해서 하는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고 거기에는 명시적 가족정책과 명시적이지 않지만 가족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가족정책이 포함된다. 가족정책에는 가족법, 여성정책과 인구정책, 모성 관련 복지제도, 가족상담, 소득 유지정책 및 교육, 주택과 건강 정책까지 포함된다(Harding, 1996; 박민자, 1995; 양현아, 2011: 43에서 재인용). 한국은 호주제도의

성차별성을 정확하게 적시하고 양성평등을 향해 끊임없이 싸워 왔다. 호주제도는 '가'와 가부장을 중심으로 국민들을 조직하고 가족 내 인권 보살핌 같은 사안을 가족 내부의 것으로 하여 공적 사안으로 보이지 않게끔 하는 데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부정적 의미의 가족정책'(양현아, 2005; 2006)이라 할 수 있다. 양현아(2011)에 의하면 호주제도가 내포하는 차별성은 아들에 대해서 딸을, 아버지에 대해서는 어머니를 차별할 뿐 아니라, 이혼 혹은 재혼한 어머니와 사는 자녀들도 부모와 사는 자녀들에 비교해 차별한다. 즉 차별 받는 여성과 '관련된' 사람들에게까지 그 효과를 미치는 발달된 차별의 시스템이다. 그것은 여성간 차별의 기제로도 작동하여 기혼녀에 비해 이혼녀나 재혼녀를 차별하고 결국 모든 여성들이 혼인관계 속에 부속되도록 훈육한다. 요컨대 호주제도는 남성과 여성을, 그들에 의해 매개된 여성과 남성을, 여성과 여성간을 분류하고 배치하는 매우 발달된 체계적 차별제도였으며, 서구의 평등권 심사가 상정하는 동일한 위치에 놓인 사람들을 다르게 취급하는 개인간 차별보다 훨씬 광범위한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차별제도라 할 수 있다(양현아, 2011: 354)[77]. 오랫동안 여성을 가부장적 시스템 속에서 억압해 온 호주제도는 한국 여성운동의 끊임없는 투쟁 끝에 2005년 드디어 폐지되었다. 이 시점에서 한국 가족법에서 여성이 어디에 있는지 혹은 어디에 있었는지를 살피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양현아, 2011: 514). 그는 신분적으로 열등하고 '가족 내 존재'로 구속되었던 여성이 남성에 대해 그리고 친/가족체계에 대해 대등한 주체가 될 수 있던 여성을 '가족적 존재'로 묶어두던 호주제도와 호적제도 폐지는 성과 본, 가족의 범위,

---

[77] 양현아(2011)가 논의하는 이 여성 간의 차별에 대해 설명을 붙이자면 한국은 친족관계가 매우 발달된 관계의 네트워크라고 할 수 있는 가족관계를 이룬다. 조선시대 상복제도인 유복친(有服親)에서 고려되는 친척의 종류는 무려 136종이며 이러한 집단 속에서 친척간에 만들어내는 관계의 가짓수는 거의 무궁무진하다(정광현, 1967: 464-66, 양현아, 2011에서 재인용). 양현아는 '모성의 등급화'를 통해 젠더와 신분질서가 동시에 정비되던 조선시대 모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데 이는 한 여성은 남편에게 부인이요 자식에게 어머니며 부모에게는 딸이고 시부모에게는 며느리이며 동시에 형제의 자매면서 숙모·고모·이모가 되고 형수와 제수, 조카와 손녀딸이 된다는 관계 속에서 정해지는 여성의 명칭과 맥락에서 여성의 위치가 결정되는 가족관계 범주의 신축성을 말한다. 마찬가지로 여성이 결혼을 통해 기혼녀·미혼녀·이혼녀·과부로 분류되며 어머니가 됨 또한 생모·적모·계모·서모·양모처럼 분류되어 여성간에 등급을 매기는 것으로 통제했다. '그녀'의 위치는 가변적이며 그때마다 (재)설정된다는 것이다. 이렇듯이 한국에서는 가족범위가 확실히 정해져 온 게 아니기에 한국에서 사용되는 가족 개념은 때로는 확장되고 때로는 축소된다는 모호성을 가진다. 이러한 한국의 가족주의와 가족개념의 모호성에 대해서는 백광렬·이상직·사사노(2018)의 연구가 참고가 된다.

양자제도 등이 개정되어 여성의 가족과 남편에의 종속 정도가 약화되었다고 평가한다. 호주제도 폐지 이후 2008년에는 '가족관계등록법'이 새로 개설되어 호주가 아니라 성인 개인을 기준으로 그의 배우자, 그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포함하게 되었다. 그로 인해 1. '부성주의'원칙의 수정, 2. 성 변경의 자유, 3. 부모 양자 제도 도입 등 부성 강제조항이 대폭 완화되었다(후쿠시마, 2020).

이렇게 여성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사회경제적 지위가 개선되어 가는 와중에 한쪽으로는 경제위기 이후 강화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적 무한 경쟁 체제하에서 남성이 근본적으로 위협받는 상황이 여성 운동에 대한 반감의 토대가 되었다 (강준만, 2018). 강준만(2018)은 2000년 이후 급격히 야기된 남들의 반격(Backash), 젊은 남녀가 대립해 가는 한국 상황을 「소통하는 페미니즘: 한국 페미니즘 논쟁사, 2008-2018(1)-(3)」으로 하여 세 편의 논문에 정리하였다(강준만, 2018a; 2018b; 2018c). 그는 인터넷 상의 커뮤니티 사이트가 발달된 한국에서는 2010년 개설된 극우성향의 혐오 전문 사이트 '일간베스트저장소=일베'의 등장이 페미니스트 혐오를 10대들에게까지 확산시켰다고 지적한다. 이후 남녀의 갈등은 '메갈리아' 의 등장과 함께 '잉여', '미소지니(misogyny)', '페미 요정' 등 남녀갈등적 단어와 담론이 확산되어 갔다. 후쿠시마(福島, 2020a) 는 1990년대 이후 한국의 청년 담론을 소개하면서 2000년대의 '88만원 세대'는 사회적 약자로서의 청년, 2010년대의 'N포 세대론'은 생애과정 붕괴로서의 청년, 2010년대 후반에 전개된 '수저 계급론'으로 대표된 청년 담론은 '계급과 젠더의 갈등'으로 1990년대 이후 청년담론을 통해 청년이 놓여져 있는 상황변화를 기술했다. 2010년대 후반의 청년을 단지 사회적 약자로 치부할 수 없을 정도로 세대내 불평등이 이미 가시화되고 사회문제로 부각되었다. '능력 있는 부모'를 가진 자녀는 '금수저'라고 불리기 시작했으며 '능력 있는 부모'란 바로 386세대의 성공한 부모를 가리킨다. '사회 양극화 방지', '인권', '평등'을 내세운 진보성의 상징이었던 386세대의 모순에 대해 강준만이 '강남좌파'라고 지칭한 바 있고(강준만, 2011) 386세대가 지금 한국사회의 불평등을 만들어낸 주체라는 시각이 주목받기 시작했다(예를 들어 이철승, 2019; 김정훈 외, 2019; 김성일, 2020; 조귀동, 2020). 한국의 청년담론은 단지 세대간 불평등을 호소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세대내 불평등 갈등을 일으켰다. 뿐만 아니라 서지현 검사 고발이 기폭제가 된 후 전국민의 관심을 고조시키며 폭발적으로 확산되어 간 미투운동은 남녀갈등을 더욱더 부각시켰다.

이렇게 오늘날 한국의 불평등은 계급과 젠더를 내포한 세대간 불평등 및 세대내 불평등 갈등으로 발전해 갔다. 한국의 미투운동은 일일이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여러 분야에서 폭로가 터져나오는 가운데 안희정 충남도지사의 성폭행 파문, 한국을 대표하는 노벨문학상 후보였던 고은의 수십년 간에 걸친 상습적인 성추행 폭로, 오거돈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 박원순 서울시장의 성희롱 고백으로 인한 자살 등 일반 시민뿐만 아니라 명예나 권력이 있는 공적인 사람까지 가해자일수도 있다는 충격과 함께 공적인 사람까지 끌어내리는 한국의 미투운동은 일본의 미투운동과는 커다란 온도차이를 느끼게 한다.

2010년 이후 폭발적으로 벌어진 한국의 뜨거운 남녀갈등 사회분위기와는 달리 일본에서는 미투 운동의 움직임을 거의 찾아볼 수 없으며 저명한 정치인이나 저널리스트에게 당한 성폭력을 고발해도 피해 여성의 책임으로 전가되는 등 2차 피해가 이루어지는 것이 다반사였고 여성들은 침묵했다(후쿠시마(福島), 2020b: 146). 여기서도 나오는 논리 또한 2000년이후 일본사회에 만연하는 '자기책임'론의 연장선에 있다고 본다. 대표적으로 2015년 아직 세계적으로 미투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당시 일본 TBS 방송 워싱턴 극장이었던 아마구치 노리유키씨로부터 당한 받은 성폭행을 이토 시오리가 고발했다. 이 사건[78]은 서지현 검사 고발처럼 일본에서의 미투운동 기폭제가 될 만큼 과감하고 영향력있는 고백이었으나 일본인의 반응은 '자기책임'론으로 귀결되었으며 '사회문제', '젠더문제'로 발전되지 못했다. 아동에 대한 성폭력은 남녀노소 모두에게 공감과 분노를 가져다 주지만 성인 여성의 성폭력 사건의 경우는 조사 단계에서부터

---

[78] 동경지방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했으며 이후 당시 수상이었던 아베 신조와 친한 사이였던 야마구치에 대한 소송은 심사 전에 불기소 처리되었다. 이에 자민당 수기타 의원은 "여성은 얼마든지 거짓말을 하니까"라고 코멘트했는데 여성의원이 본인이 여성임에도 여성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여성이 여성성을 이용하여 권력 있는 남자한테 다가갔다고 봤다. 일본 여론 또한 '여성의 자기책임'론으로 바라봤다. 이토는 이후 BBC 등 런던을 거점으로 해외 미디어를 이용해 이 사건에 대해 호소해 왔으며 2017년에는 「Black Box」라는 책을 출간해 이 사건에 대해 고백했다.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하여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기에 이토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자 가해자인 야마구치는 반대로 이토를 고소했다. 이토의 4년이 넘는 투쟁 끝에 2019년12월 재판은 이토의 청구를 인정하여 야마구치에게 330만엔을 보상하도록 명령하고 야마구치의 반소는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2020년「TIME」지는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0인'에 이토를 선정했다. 소개문은 동경대 명예교수인 여성 연구자 우에노 치즈코가 집필하여 "그녀로 인한 성폭력에 대한 과감한 고발은 일본 여성의 인생을 영원히 바꿨다. 정치적 권력에 가까운 피고인은 형사소송을 피할 수 있었으나 그녀는 민사소송으로 이겨냈다"고 평가했다.

여성의 개인적인 책임을 묻는 것이 관행처럼 되어 있다. 특히 일본의 경우 미디어는 피해 여성의 편이 아니다(후쿠시마(福島), 2020b: 148). 후쿠시마(福島, 2020b)는『82년생 김지영』과 『Black Box』를 읽은 독자 후기를 분석하면서 "일본에서는 익명성에 기대어 '공감의 목소리'를 내는 것이 일본적인 특징일 것이다. 피해자는 물론 피해자에게 다가가는 목소리조차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는 한 낼 수 없는 것이 일본사회의 현실이다. 그리고 이것은 많은 사건들이 사회운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평가하고 있다(후쿠시마(福島), 2020b: 148-149).

본 연구자는 일본사회는 성인 뿐만 아니라 아동에 대한 성폭력에 대해서도 관대한 사회라고 본다. 2017년6월 성범죄에 대한 형법이 무려 110년만에 개정되었다. 그러나 개정 후에도 여전히 '동의 없는 성행위를 행한 가해자가 처벌을 받지 않는다', '13세 이상 아동에 대한 성교는 성인과 동등하게 취급한다' 등 메이지 40년에 만든 가부장제가 담긴 법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다. 「내각부 남녀공동참획: 남녀간에 있어서의 폭력에 관한 조사(2017)」에 의하면 여성의 13명 중 1명이 '동의없이 강제로 성폭력을 당한 적이 있다'고 답하고 있는데 일본에서는 성범죄가 성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요건이 너무 까다로운 채로 남아있어 여성의 목소리를 반영한 법 개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또한 성교 동의연령이 13세라는 기준은 메이지 시대에 만들어진 것인데 2017년 형법개정에서도 개정되지 않았다. 한국 또한 성교동의 연령이 13살이었으나 2020년 4월에 일어난 '텔래그램 n번방 사건' 재발방지를 위한 법개정이 이루어져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16세 미만 청소년과 성관계를 갖는 사람은 강간죄로 처벌받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020년 5 월 공표됨과 동시에 즉각 시행되었다.

일본에서는 여성 쪽에서의 정책적인 요구도 없었으나 국가 또한 여성에 대한 아무런 정책도 전개하지 않았다. 20세기에 성립된 근대가족을 강화시키는 정책을 그대로 고수하고만 있을 뿐이다. 일본에서도 여성의 목소리가 없는 것은 아니었으나 개별적인 목소리 뿐이지 한국처럼 목소리가 모아져 하나의 운동으로 법적 개정을 이루어낼 정도의 영향력은 없었다[79]. 일본에서 미투운동이 활발해지지 않았던 배경에는 여성으로서의 행복을 여전히 원하는 부모 밑에서 딸에게 맞는 교육을 받고 국가는 가족주의를

[79] 예를 들어 1990년대부터 요구해 온 '선택적 부부별성'에 대해서는 2015년에 '합법', 2021년6월에도 다시 '부부 별성은 합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져 '부부별성'을 선택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지 못했다.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향해 감과 함께 이미 활발해진 젠더 백래쉬에 대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이 스스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상당히 용기가 있는 행위라 침목을 지켜온 것으로 여겨진다.

3절. 연구 가설

이상의 기존 이론과 기존 연구 논의에서 오늘날 한국의 가족변동 속도를 이해하기 위해 이하의 연구문제와 연구 가설을 제시한다.

연구문제1.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는 왜 일본보다 빠른가?

McDonald(2000a; 2000b)와 Esping-Andersen and Billari(2015)를 중심으로 이론화된 젠더평등적 접근에서는 성역할태도가 젠더 분업에서 평등으로 향하는 U자의 이행과정에서 출산율이 하락하고 이어서 평등으로 향할 때 출산율이 회복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성이 공사영역에서 맡아야 할 일이 균형상태에 있는지가 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총노동시간이 남녀 사이에 동일하다면 공평성 측면(Gender Equity)에서는 젠더평등이라고 볼 수 없더라도 남녀평등 균형이 잡힌 상태(Gender Equality)라면 출산율이 그다지 하락하지 않는다. 교육수준, 취업기회 등 공적 영역에서 여성 개인으로서 어느 정도 자아실현을 이루었음에도 가정영역에서 여성에게 책임이 전담된다면 성역할은 불균형을 일으켜 출산율이 하락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지 공적 영역에서 남녀평등이 이루어지는 것이 출산율을 회복시키는 것이 아니라 공사 영역에서 여성(어머니)에게 부과되는 역할의 균형 상태가 중요하다고 봐야 한다.

한국에서는 1990년대 후반부터 전개된 남녀평등으로 향하는 일련의 여성정책과 남자의 고용 불안정화 그리고 여성의 고학력화가 동시적으로 일어났기에

연구가설1-1. 한국은 성역할태도가 남녀평등으로 향하는 U자 이행과정에서 일-가정 양립이 일본보다 균형을 잡지 못한 갈등적인 상태에 놓여져 있을 것이다. 여성의 교육수준

상승으로 공적 영역에 진출하려는 태도가 증가했음에도 가정 영역 책임 또한 여성이 져야 한다는 태도가 뿌리깊게 남아있어 남녀역할이 불균형상태에 놓여져 있을 것이다.

연구가설1-2. 한국은 일본과 비교해 가족가치에 있어서 세대 차이가 클 것이다. 특히 압축적 고학력화로 인해 젊은 여성 사이에서 성역할 평등을 지향하는 사람이 증가했을 것이며 공적영역에서의 자아실현을 우선시하는 태도가 확인되어 결혼과 자녀에 대한 지향성이 떨어졌을 것이다.

반면 일본은 80년대 이후 가족주의를 강화시키는 '일본형 복지' 정책을 전개하여 노동시장에서도 남자의 정규고용을 보호하고 여자를 비정규직으로 전환시켜 대응해 왔기에

연구가설1-3. 일본은 생계부양자모델에 근거한 남녀역할 분업을 지향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며 한국보다 일-가정 양립에 있어 균형잡힌 성역할태도를 보일 것이다.

연구가설 1-4. 일본은 남자보다 여자의 교육수준이 낮음으로 인해 남자보다 여자 사이에서 남녀역할 분업 지향적인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울러 남자보다 여자 사이에서 결혼과 자녀에 대한 지향적인 태도가 확인될 것이다.

연구가설 1-5. 일본은 한국에 비해 세대 간 교육수준 편차가 크지 않기에 가치관의 세대 차이가 한국보다 적을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젠더 본질주의적인 가치를 강하게 유지하는 집단이 많은 국가에서 출산율이 낮다는 견해에서 접근하면

연구가설1-6. 한국이 일본보다 거시적으로 젠더 본질주의적인 가치규범을 내재하는 집단이 많을 것이다.

서구 이론에서는 제2차 인구전환과 저출산의 관계에 대해 혹은 젠더평등과 출산율의 관계에 대해 이론화시켜 왔으나 동아시아 사회에서는 출산이 오르지 결혼 제도 안에서 이루어지기에 결혼가치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구문제 2. 결혼가치는 성역할태도와 함께 자녀가치와 상관관계를 가지는가?

연구가설 2-1.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사람은 자녀에 대해서도 지향적인 가치를 가질 것이다. 결혼가치가 약화된 사람은 자녀가치 또한 약해졌을 것이다.

연구가설 2-2. 성역할태도가 분업지향적인 사람은 결혼과 자녀에 대한 지향적인 가치가 높을 것이다. 성역할태도가 균형을 잡지 못한 이중부담을 지지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결혼과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하락했을 것이다.

한국은 일본에 비해 혼인율 감소 속도보다 출산율 하락 속도가 급격하기에

연구가설 2-3. 한국은 일본에 비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사람이 많은데 자녀에 대한 지향성이 일본보다 떨어졌을 것이다. 오늘날 급진적인 출산율 하락을 일으킨 젊은 세대에서 현저하게 나타날 것이다.

제4장. 성역할태도 및 규범

1절. 성역할태도 유형

1) 한일 유형: 어머니 역할과 경제적 책임의 갈등 vs 전업주부지향의 안정

방법론에서도 언급했지만 이 장에서 성역할분업 태도 분석에 사용하는 문항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표4-1〉과 같다.

〈표 4-1〉 성역할태도에 대한 질문

Q1A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도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
Q1B	어머니가 취업하면 취학 전 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Q1C	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하면 가정생활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
Q1D	여성이 취업하는 것도 괜찮으나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 머무르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
Q1E	전업주부가 되는 것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다.
Q2A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
Q2B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

Q1A-Q1C는 어머니 취업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질문하고 있는데 어머니가 일하면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Q1D, Q1E는 여성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이 가정의 일이라는 가치관을 내재하고 있는지를 다른 각도에서 물어보고 있다. 그리고 이 때까지 여성의 가정 내 일의 중요성을 여러 각도에서 물어봤다면 Q2A는

여성에게도 경제적인 책임이 있는지 가계기여 책임에 대해 물어보고 있다. 마지막으로Q2B는 성역할태도 분석에서 자주 사용되는 전형적인 문항이며 남성은 경제적 책임, 여성은 가정의 책임이 있다는 것에 대한 찬반의견을 묻는 문항이다. 한국과 일본의 응답 패턴을 살펴보자. 〈표4-2〉에서 나라별 차이를 보다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한국과 일본에서 각각 절반을 넘는 의견에 대해 굵은 글자로 표시했다.

〈표 4-2〉 성역할태도에 대한 찬반의견 한일 비교

한국		Q1A	Q1B	Q1C	Q1D	Q1E	Q2A	Q2B
	찬성	**73.70**	**81.11**	**75.24**	**54.50**	**91.10**	**86.19**	47.48
	반대	26.30	18.89	24.76	45.50	8.90	13.81	**52.52**
일본								
	찬성	**85.83**	29.85	36.89	**52.04**	**86.80**	**66.91**	32.69
	반대	14.17	**70.15**	**63.11**	47.96	13.20	33.09	**67.31**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을 코호트 및 성별로 자세히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나 본격적인 분석에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인 국가 차이를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평균값을 이용한 거시적인 비교는 기존 연구에서 논의되어 온 시각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도 있다.

이 자료의 응답은 1. 강하게 찬성에서 5. 강하게 반대까지 5단계 척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본은 연구방법에서도 언급했지만 찬반의견을 명확히 나타내는 대답을 선호하지 않고 대답에 '찬성도 반대도 아니다'라는 응답이 있으면 거기에 대답이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林・林, 1995) 여기에서는 각 나라의 대답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라 3번의 대답을 제외한 찬반의견으로 100%가 되도록 응답비율을 계산하여 비교하고자 한다(N=한국 1,396, 일본 1,212).

먼저 첫번째 문항인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도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에 대한 찬반의견을 보면 양국 모두 찬성 의견이 더 많지만 한국의 반대 의견이 26.3%로 일본의 14.17%보다 높고 어머니 취업이 자녀와 따뜻한 관계를 맺기에 약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 다음 두 가지 질문에서 한국과 일본 사이에 큰 차이가 나타나는데 먼저 '어머니가 취업하면 취학 전 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에 대한 찬반 의견이 한국에서는 81.11%나 찬성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반대 의견이 70.15%로 압도적이다. 다음 '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하면 가정생활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는 75.24%가 찬성하고 있는 반면 일본에서는 63.11%가 반대하고 있다. 어머니 취업이 가정생활, 특히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견해가 한국에서 더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여성의 역할이 가정에 있다는 가치관을 반영하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자. '여성이 취업하는 것도 괜찮으나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 머무르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한국의 54.5%가 찬성, 일본도 52.04%가 찬성하고 있어 의견이 반반으로 나뉜다고 할 수 있지만 양국 모두 찬성 의견이 조금 더 높다. 그리고 '전업주부가 되는 것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다'에 대한 찬반의견은 한국이 91.1%, 일본도 86.8%가 찬성하고 있어 양국 모두 여성이 가정에서 맡은 여성의 역할에 대해 높은 가치를 인정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정 외에서의 여성 역할 및 전형적인 성역할 고정관념에 대해 살펴보자.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에 대한 찬반의견을 보면 한국이 거의 대부분인 96.19%가 찬성하는데 비해 일본은 66.91%가 찬성하고 있다. 여성에게 경제적인 역할을 기대하는 것은 일본보다 한국에서 강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성역할분업태도의 핵심적 개념으로 많은 기존 연구에서 다루어 온 문항에 대한 찬반의견을 보면 한국은 52.52%가 반대 의견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일본은 67.31%로 더 많은 사람들이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남녀역할을 공사영역으로 구분하는 것에 대해 일본이 한국보다 강하게 반대하면서도 여성의 경제적인 책임 요구는 한국보다 덜한 것으로 나타나며 또 어머니 취업에 대해서도 가정이나 자녀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았다. 반면 한국은 남녀 성역할 분업에 대해서는 찬반의견이 절반으로 나뉘는데 여성의 경제적인 책임에 대해서는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그러면서 동시에 여성이 취업하면 가정이나 특히 자녀에게 안좋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생각을 공유하고 있어 가정 내외의 일을 여성이 다 잘해야 한다는 어머니로서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이상의 성역할태도 문항에 대한 대답 경향만을 봐도 '남자는 일, 여자는 가정'이라는 항목만으로 성역할분업태도의 전체를 파악할 수 없는 복합적이며 모순적인 측면들이 얽혀 있는 가치구조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전체적인 그림을 같은 대답패턴의

개인을 묶고 유형화시켜 보면 한일 사이에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 그리고 그것이 성별 및 코호트별로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음 장에서 자세한 분석에 들어가보도록 한다.

2) 내부 차이: 여성의 급진적 평등지향 vs 전업주부지향의 증가

위에서 확인한 것처럼 한국과 일본의 성역할태도는 차이가 있음으로 한국의 유형과 일본의 유형을 따로 도출해 국가의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하고자 한다. 한국의 성역할태도 유형과 일본의 성역할태도 유형은 각각 어떻게 나타날까? 먼저 한국의 유형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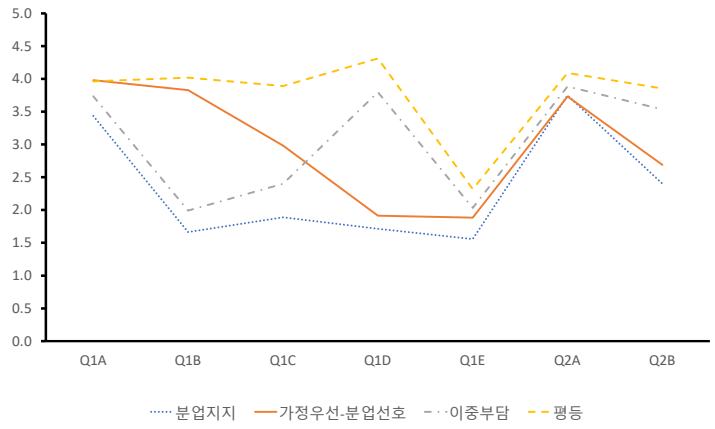
한국의 성역할태도 유형을 도출하기 위해7개 문항의 응답에 대해 MPlus7.0을 사용해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한 집단의 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2집단부터 5집단까지 집단을 증가시키며AIC, BIC, ssBIC, LMRT, Entropy지수를 확인하면서 모형 적합도를 확인하였다. 각 모형에 따른 적합도를 살펴보면 다음 〈표4-3〉과 같다. AIC, BIC, ssBIC는 낮을수록 적합한 모형을 의미하지만 이 결과에서는 모형수가 늘어날수록 값이 내려갔기에 모형 설명력을 알려주는 Entropy값을 비교해 최종적으로 4개 집단 모형을 선택했다. 성역할태도에 대한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한 기존 연구에서 유형을 4개 이상으로 분류한 연구는 없었고 3개(Yamaguchi, 2000; 최민진, 2019) 혹은 4개로 분류하여(Brinton and Lee, 2016; Shin, 2017; Knight and Brinton, 2017; William, Shin and Risman, 2019; Grunow et al, 2018) 비교분석했다는 점도 참고하여 해석가능성까지 고려해 종합적으로 집단수를 결정하였다. 만약에 집단이 5개로 늘어나면 Entropy값이 내려가기에 4개가 적절한 분류수로 판단된다. 한국의 성역할태도 유형을 4개 집단으로 나눴을 때 분석 대상의 각 집단 소속 비율은 37.61%, 9.81%, 41.62%, 10.96%였다.

〈표 4-3〉 한국의 성역할태도에 대한 잠재집단 모형 적합도

Classes	N	Entropy	Criteria						
			AIC	BIC	ssBIC	LMR	LMR(P-Value)	BLRT	BLRT(P-Value)
2	1396	0.814	29203	29319	29249	-15011.460	0	-15011.460	0
3	1396	0.795	28962	29120	29024	-14579.65	0	-14579.645	0
4	1396	0.835	28660	28859	28738	-14451.16	0	-14451.162	0
5	1396	0.821	28481	28722	28576	-14291.94	0.0017	-14291.942	0

다음으로 응답 패턴을 기반으로 각 잠재집단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는 〈그림4-1〉과 같다. 〈그림4-1〉처럼 도출된 집단을 특징에 따라 각각 '분업지지', '가정우선-분업지지', '이중부담', '평등'으로 명명한다. 성역할태도를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유형화시킨 기존 연구는 대부분 최근 서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고(Brinton and Lee, 2016; Grunow, Begall, and Buchler, 2018; Knight and Brinton, 2017; Scarborough, Sin, and Risman, 2019) 국내에서는 한국에서 1개(최민진, 2019), 일본에서 2개(Yamaguchi, 2000; 山口, 1999)의 연구밖에 이루어지기 않았기에 주로 서구 기존 연구결과에서 도출된 유형과 대응할 수 있게 이름을 명명했다.

〈그림 4-1〉 한국의 성역할태도 잠재집단 유형



각 유형의 응답 값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인 태도(평등)를, 점수가 낮을수록 보수적인 태도(분업지지)를 나타내도록 코딩했다. 응답 패턴에 따른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자. 먼저 '분업지지'가 모든 응답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데 그 중에서 Q1A의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도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와 Q2A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에서 점수가 높게 나타나 한국에서는 보수적인 가치를 지닌 집단에서도 경제적인 책임감은 강하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전형적인 성역할 분업에 대해서는 강하게 찬성의견을 보이는 강한 보수적인 가치체계를 내재하고 있다. 그리고Q2A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어떤 유형에서도 점수가 높다. 이 점수는 ‘분업지지’ 지향이 3.75이며 가장 평등지향인 ‘평등’ 유형에서도 4.09로 나타나 다른 가치규범 유형별 점수 차이에 비해 유형간 점수 차이가 매우 적다. 한국에서는 여성의 취업 성격이 M자형을 그리기에 보수적인 가족가치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왔으나 여성의 취업률이 낮은데도 한국에서는 어떤 유형에서든 여성의 경제적인 기여에 대해 높게 요구되는 점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가정우선-분업지지’를 보면 ‘분업지지’ 유형 다음으로 전통적인 가치규범을 내재하고 있으나 ‘취업하고 있는 어머니도 취업하지 않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자녀와 따뜻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다’와 ‘전반적으로 여성이 전일제로 취업을 하면 가정생활은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에 대해서는 진보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그런데 ‘어머니가 취업하면 취학 전 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태도를 표시하고 있어 이 유형은 어머니가 취업하는 것만으로 자녀와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지만 가정생활이나 자녀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가치규범을 내재하고 있다. 나머지 남녀역할 분업에 대해서도 ‘분업지지’ 유형과 비슷한 정도로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며 여성 역할이 가정에 있다는 가치도, 전업주부가 맡은 무급노동도 가치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인정한다. 이러한 가치 체계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기혼여성의 취업형태가 대부분 풀타임노동인데 일본보다도 자녀교육에 있어서의 교육책임자로서 어머니 역할이 중요시되는 문화가 있어서 경험적인 지식에서 도출된 가치규범인 것으로 이해된다. 한국의 고학력 어머니들이 출산 후 노동시장에 복귀하지 않고 자녀교육에 전념하는 도구화된 어머니 역할의 수행은 이러한 가치규범 체계의 표출인 것처럼 보인다.

다음 '이중부담' 유형을 살펴보자. 이 유형은 어머니가 취업하면 자녀와의 관계에서 가정생활도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강한 가치규범을 내재하는 점에서는 '분업지지' 유형과 비슷한데 '여성이 취업하는 것도 괜찮으나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 머무르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에 대해 강하게 반대의견을 나타낸다. 남녀 역할분업에 대해서도 '분업지지' 유형보다 강한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여성의 가구소득 기여에 대해서도 보다 강한 책임감을 나타낸다. 여성의 역할이 가정에만 있다는 점에 반대하여 남녀역할 분업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보여주지만 어머니가 취업하면 자녀와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는 점에서도 강한 찬성의견을 나타내 가정 내외의 책임이 어머니가 지녀야 하는 이중역할 가치규범을 내재하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의 견해에 따르면 전통지향에서 평등지향으로 향하는 도중에서 여성이 이중역할을 맡아야 할 때 여성이 가정 내외 일을 맡은 부담으로 출산율이 가장 낮아지고 다시 완전히 평등하게 역할이 분배가 되면 출산율이 회복된다고 이론화되어 왔다(Espong-Andersen, 2009; McDonald, 2006; 2010). 그런데 성역할규범을 유형화시켜 보면 알 수 있듯이 사회전체가 같은 가치규범을 내재화하고 있는 게 아니고 사람마다 다른 가치규범을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단순히 한국이 서구에 비해 전통지향 혹은 이중역할 규범을 내재하는 집단이 많기에 출산율이 낮다고 논의하는 게 아니라 이중부담에 속하는 사람의 비율과 그들의 인구학적 특징을 잘 파악해야 구성원 내부에서 벌어지는 차이를 통시적으로(通時的; 코호트 간 차이) 그리고 공시적으로(共時的; 코호트 내부 차이) 파악하여 당사자들이 기존의 제도와 가치규범 속에서 어떻게 가치규범을 변용시키며 새로운 의미부여를 해 왔는지 그리고 그것이 오늘날의 가족형성 가치와 어떤 관계를 맺는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평등' 유형을 살펴보자. 이 집단은 어머니 취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며 여성이 일을 해도 자녀와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되지는 않는다고 생각 하는 유일한 집단이다. 여성의 역할이 가정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남녀 역할분업에 대해 가장 강하게 반대하여 여성의 가구소득 기여에 대한 책임에 대해서도 가장 강하게 찬성한다. 그런데 이는 한국의 모든 유형에 해당하는 점이기는 하지만 '전업주부가 되는 것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다'라는 응답에 대해서는 크게 찬성하는 보수적인 가치규범도 동시에 내재하고 있다. 서구 기존연구에서 제시되는 것처럼 성역할태도에 관한

가치규범이 전통에서 평등으로 2차원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안에 진보적인 측면과 전통적인 측면이 동시에 공존하고 있기에 평등의 유형 또한 나라마다 다르다고 해야 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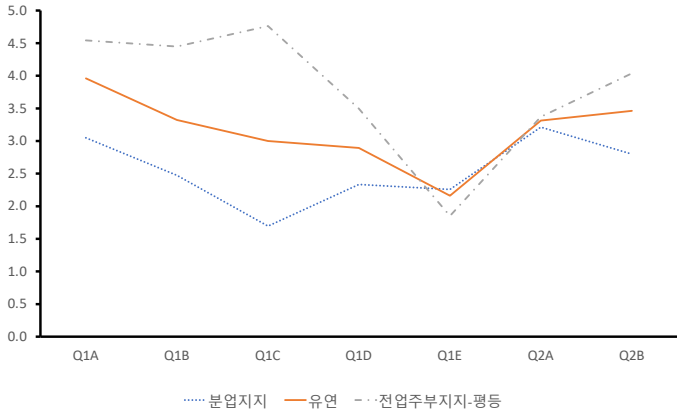
그러면 일본의 성역할태도에서는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 잠재집단 모형 적합도는 한국의 모형을 선택할 때와 마찬가지로 AIC, BIC, ssBIC, LMRT, Entropy지수를 확인하면서 2집단부터 5집단까지 집단을 증가시키며 각각의 값을 비교하여 결정하였다. 특히 최종적으로는 모델 설명력을 말하는 Entropy값이 가장 높으면서 LMR의 P값이 유의한 세 가지로 나누는 게 가장 적절하다고 판단되어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표 4-4〉 일본의 성역할태도에 대한 잠재집단 모형 적합도

Classes	N	Entropy	Criteria						
			AIC	BIC	ssBIC	LMR	.MR(P-Value	BLRT	BLRT(P-Value)
2	1204	0.774	25450	25562	25492	-13201.751	0	-13201.751	0
3	1204	0.814	25165	25317	25222	-12702.86	0.088	-12702.86	0
4	1204	0.804	24992	25185	25064	-12552.26	0.0023	-12552.26	0
5	1204	0.848	24825	25060	24914	-12457.82	0.1247	-12457.82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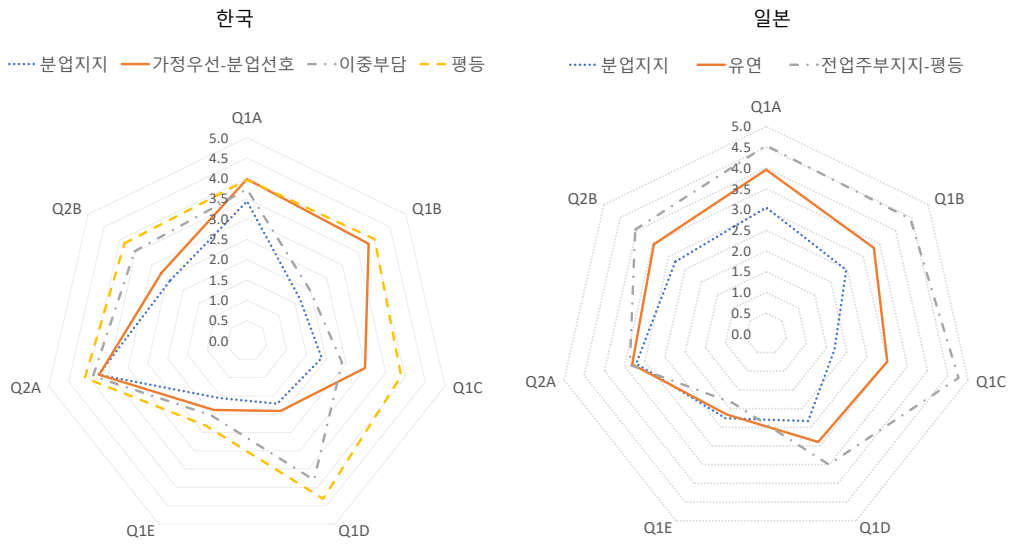
다음으로 응답 패턴을 기반으로 각 잠재집단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는 〈그림4-2〉와 같다. 〈그림4-1〉처럼 도출된 집단을 유형 특징에 따라 각각 '분업지지', '유연', '전업주부지지-평등'으로 명명했고 각 유형에 속하는 비율은 각각 21%, 39%, 40%였다.

〈그림 4-2〉 일본의 성역할태도 잠재집단 유형



그럼 일본의 특징을 살펴보자. 일본은 한국의 유형과 비교했을 때 어머니 취업에 대한 가치 규범과 남녀 성역할분업에 대한 가치규범이 나란히 함께 간다. 즉 어머니 취업에 대해 가장 긍정적인 태도를 보이는 '전업주부지지-평등' 집단에서는 남녀 성역할 분업에 대해서도 반대의견을 나타내며, 반대로 어머니 취업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규범을 내재하는 '분업지지' 집단에서는 남녀 성역할분업에 대해서도 찬성의견을 나타낸다. 그리고 '유연' 집단은 딱 그 중간에 있는 가치규범을 내재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일본의 특징은 이 세 가지 유형 중 어느 유형에서도 '전업주부가 되는 것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다'에 대해서 크게 찬성하고 있으나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모든 유형에서 찬성의견이 낮다는 점에 있다. 그리고 총합적인 응답 패턴으로 봤을 때 가장 평등지향적인 '전업주부지지-평등' 유형에서 전업주부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Q1E). 이 집단은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남녀 역할분업에 대해서는 가장 강하게 반대하면서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다른 유형과 큰 차이 없이 찬성의견이 낮고 전업주부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어 여성 취업에 대해 긍정적이면서 가구소득 기여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가치체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는 일본형 평등지향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가치 규범은 제도적으로 전업주부를 우대하면서 여성의 파트타임노동을 촉진하는 현재 일본의 법제도와 함께 가는 부분이라 다음 절에서 자세히 논의하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의 유형을 자세히 비교해 보면 그 차이를 〈그림4-3〉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3〉 한국과 일본의 성역할태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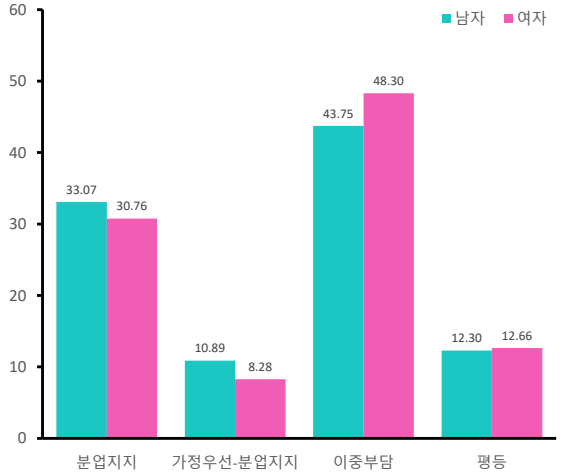


〈그림4-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과 일본 유형의 큰 차이는 바로 Q2A의 여성의 가구소득 기여에 대한 책임 의식에 대한 차이에서 찾을 수 있다. Q2A 점수는 한국에서는 어떤 유형에서도 점수가 높은데 비해 일본은 어떤 유형에서도 점수가 낮다. 이는 성역할에 대해 보수적이든 진보적이든 어떤 유형에 속하는 한국 사람도 여성의 가구소득 기여책임에 대한 요구를 강하게 인정한다는 것이다. 그것에 비해 일본은 어떤 유형에 속하는 사람도 여성의 경제적 기여에 대해서는 아주 낮은 책임의식을 가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한국은 어떤 유형에서도 여성의 높은 책임감을 공유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어떤 유형에서도 여성의 경제적 책임의식이 낮다고 할 수 있다. 한 가지 더 차이가 뚜렷하게 보이는 점은 Q1D의 '여성이 취업하는 것도 괜찮으나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 머무르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에서 찾을 수 있다. 한국은 '분업지지' 지향 유형에서는 점수가 아주 낮지만 '평등' 지향 유형에서는 점수가 아주 높아 '분업지지'와 '평등' 유형 사이에 큰 가치 규범 차이가 존재하지만 '평등' 지향에 있는 집단에서는 여성의 행복을 가족과 자녀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Q1D). 한국의 '평등' 유형은 여성도 남성도 경제활동을 똑같이 수행하고 여성의 역할이 가정 외에도 있다는 점을 공유한다. 그것에 비해 일본은 '평등' 지향에서도 이 항목에 대한 응답은 모두 낮은 점수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Q1D). 물론 점수의 차이는 있으나 한국에 비해 일본은

진보적인 가치관을 공유하는 집단에서도 여성의 행복이 가정과 자녀에 있다는 점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일본의 가장 평등지향적인 태도를 가진 '전업주부지지-평등' 지향은 Q1A-Q1C 그리고 Q2B의 점수가 한국의 평등 유형보다 높아 어머니의 취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이며 가정이나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렇듯이 일본형 평등 집단은 남녀역할 분업에 대해서는 반대의견을 표현하는 진보적인 태도를 나타내는데 Q1D, Q1E, Q2A의 점수가 전체적으로 아주 낮은 것으로부터 여성의 행복이 결혼과 자녀 양육에 있다는 가치규범이 한국보다 강하며 여성의 취업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가정 책임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있다. 따라서 남녀 역할분업에 대해서 반대하면서 가계의 경제책임을 질 생각은 없고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가계기여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태도임을 이 결과에서 읽을 수 있다. 이 부분은 기존 연구에서 성역할태도가 보수적이며 가족주의적 사회구조 속에서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어렵다고만 논의되어 온 한국과 일본의 성역할 담론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던진다. 같은 '평등' 지향이라고 해도 각 사회에서 추구하는 평등의 모습 자체에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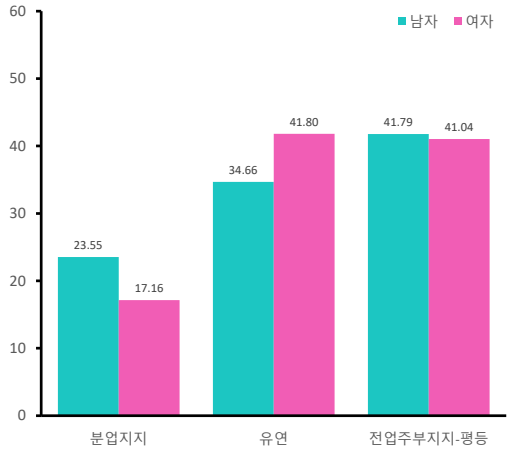
다음으로 나라별로 각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을 비교해 보자. 〈그림3-4〉는 한국의 성역할태도의 잠재집단 유형에 속하는 성별 분포 비율 비교이다.

〈그림 4-4〉 한국의 성역할태도 잠재집단 성별 분포



〈그림4-4〉를 보면 한국 사람은 대부분 '분업지지'와 '이중부담' 유형에50 속하며 전체의 약 80%를 차지한다. 많은 기존 연구에서 한국을 '분업지지'와 '평등' 사이에서 어느 나라보다도 보수적인 국가임을 지적해 왔는데 본 연구 결과에서도 전통적인 가치 지향을 지닌 사람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여성의 가정 외 진출 의식이 높은 집단도 동시에 존재한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업지지'보다 조금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게 여성이 가정 내외 일을 다 맡는 '이중부담'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중부담'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유형에서는 모두 여자보다 남자가 많았다. 한국 여성들은 남성보다도 가정 일에 대한 책임의식이 강하고 동시에 가구소득 기여에 대한 책임감도 큰 것으로 나타나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남녀간 큰 차이는 없다. 다음은 일본을 살펴보자.

〈그림 4-5〉 일본의 성역할태도 잠재집단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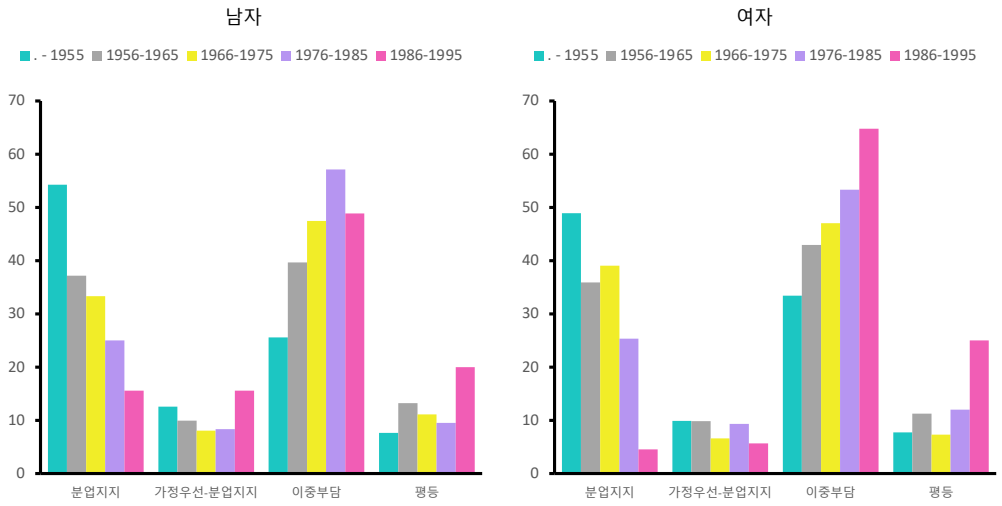


〈그림4-5〉의 일본 성역할태도를 살펴보면 '분업지지'와 '유연' 유형에서 남녀 차이가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분업지지'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여성 17.16%, 남성 23.55%로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은데 '유연'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여성이 41.80%로 나타나 남성의 34.66%보다 많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 더 보수적인 점을 지적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 견해와 맥을 같이 하는 결과이다. 그리고 '전업주부지지-평등' 유형에는 남녀 차이가 거의 없다. 일본 사람은 이 세 가지 유형에 골고루 속하지만 '분업지지'보다

'유연'과 '전업주부지지-평등' 유형에 각각 약 40%씩 속해 이 두 가지 유형이 대부분 사람들이 지지하는 성역할태도 가치규범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은 본 연구의 관심인 성별 및 코호트별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4-6〉 한국의 성역할태도 잠재집단 성별 및 코호트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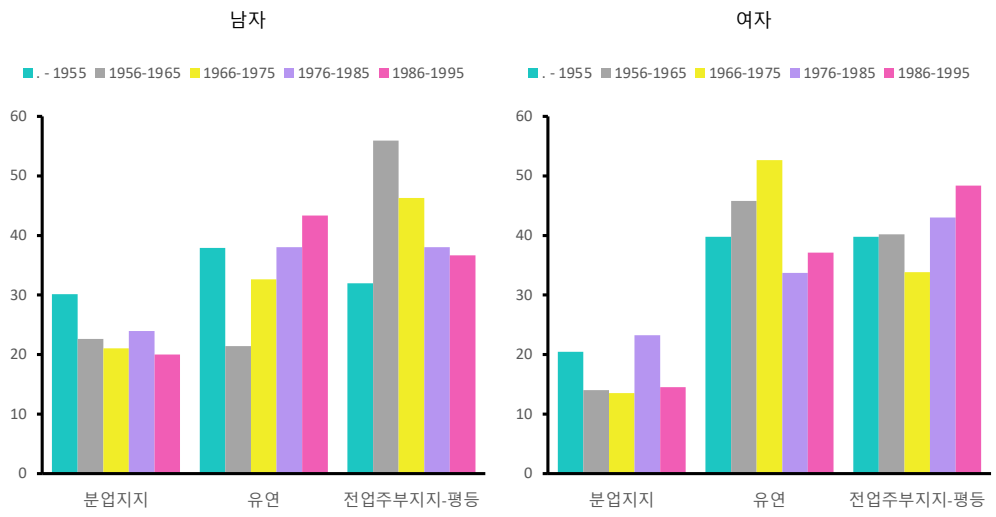
〈그림4-6〉을 보자. 한국 사람의 약 40%가 속하는 '분업지지' 유형을 살펴보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1955년 이전 출생 코호트에서 가장 많고 연령이 내려갈수록 '분업지지'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빠른 속도로 감소한다. 남성의 경우 코호트가 젊어질수록 감소하는데 비해 여성의 경우 1975년 출생 코호트까지는 40% 정도 높은 비율을 유지하다가 1976-1985년생에서 감소하기 시작하고1986-1995 출생 코호트 여성 사이에서는 가치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보인다. 이 코호트에서는 '분업지지' 유형에 속하는 여성은 사라져 버렸다. '분업지지' 유형은 1986년 이후 출생 코호트에서는 찾기 힘든 유형이 되었고 남성은 그러한 변화가 느슨한데 비해 여성은 아주 급속도로 변화해 남녀차이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1986-1995년 출생 코호트는 '분업지지'에서 '평등' 지향으로 많이 변화했으며 이 변화는 남성보다 여성 사이에서 더 급격하다. '평등' 유형은 한국사회 전체의 10% 정도밖에 되지 않는데 그 숫자는 1986-1995년 코호트가 많이 차지하기에 높아진 비율이며 다른 코호트 사람들은 '평등' 유형에는 거의 속하지

않는다. 1986-1995년생은 다른 코호트에 비해 가치관 측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보이며 남녀 차이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86년 이후 출생 코호트에서 남성의 20%, 여성의 25%가 '평등' 유형에 속하고 있어 무려 1/4정도가 '평등'을 지향하는데 아직 여전히 '분업지지'에 속하는 사람이 1/4이상을 차지하는 다른 코호트와 전혀 다른 가치관을 내재하고 있는 집단이라 할 수 있다.

다음으로 '가정우선-분업지지' 지향은 전체의 10%정도 밖에 되지 않는데 여성의 경우 1986-1995년 출생 코호트에서 5%대까지 감소한 반면 남성은 15%대까지 증가해 젊은 세대에서도 남녀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 여기서도 세대 차이 및 남녀 차이가 큰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은 한국 사람들이 공유하는 가치규범인 '이중부담' 유형은 여성의 경우 연령이 내려갈수록 아주 깨끗하게 증가하는 추세임을 확인할 수 있다. 1955년 이전 출생 코호트에서는 33%밖에 속하지 않았는데 1986-1995년 출생 코호트에서는 거의 두 배 가까운 65%의 여성이 속하는 유형으로 증가했고 1956년생 이후 코호트에서 서서히 증가해 젊은 세대에서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는 가치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남성의 경우도 여성보다 비율은 낮지만 연령이 내려갈수록 서서히 증가하는 추세인데 1986-1995년생에서는 다시 49%로 감소해 여성의 65%와 비교하면 15% 정도 차이가 나며 남녀차이가 큰 것을 확인할 있다. 전체적으로 한국은 코호트 차이가 크고 코호트별로 보면 남녀차이가 존재해 코호트가 젊어질수록 '분업지지'에서 '평등'으로 이동하긴 하지만 특히 1986-1995년생에서 여성의 변화 속도가 남성보다도 급속하다. 한국은 코호트에 따른 가치변화 속도가 빠르며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전혀 다른 가치규범을 동시대에 공유한다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변화의 속도는 남성보다 여성 사이에서 더 빠르다.

다음으로 일본을 살펴보자.

〈그림 4-7〉 일본의 성역할태도 잠재집단 성별 및 코호트별 분포



일본은 〈그림4-7〉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한국만큼 뚜렷한 코호트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분업지지'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1955년 이전 출생 코호트에서 비율이 높았지만 이 세대에서도 '분업지지'보다 '유연', 혹은 '전업주부지지-평등'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더 많다. 남성의 경우 젊은 코호트로 내려갈수록 조금씩 '분업지지'에 속하는 사람의 비율이 감소하지만 여성의 경우 그렇다고 할 수 없고 1976-1985년 출생 코호트인 잃어버린 세대에서 오히려 다시 증가하고 있다. 경기침체 영향을 강하게 받은 이 세대에서 보수로 회귀하는 모습이 기존 연구의 지적처럼 여기서도 확인이 된다. '전업주부지지-평등'은 일본형 평등 유형이지만 어떻게 보면 전업주부를 지향하는 가치가 강한 집단이라 전통회귀라고도 읽을 수 있다. 최근 일본의 젊은 세대 여성들 사이에서 전업주부 지향이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되며(국립사회보장 · 인구문제연구소 '제5회전국가정동향조사', 2013년도), 오늘날 20대 사이에서 전업주부가 하나의 커리어로 인식되어 있다고 한다(2010년 NHK조사). 오늘날 여성들이 원하는 역할에 대해서 오구라치카코는 '신 전업주부 지향'이라고 명명했다. 이것은 여성이 힘들게 노동시장에 나가지 않고 주부가 되는 것으로 남편의 경제력과 자녀라는 자원을 통해 본인의 위치를 확보한 다음에 자아실현을 위해 '취미적인 일'을 한다는 삶을 추구한다는 것이다. 이

자료에서도 요즘 일본 여성들 중 전업주부 지향형이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또 이 유형에서는 여성의 경제적인 책임의식이 낮은데도 남성은 일, 여성은 가정이라는 가치규범에는 반대하고 있어 '신 전업주부 지향'의 측면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유연'에 속하는 사람은 남성의 경우 1956-1965년 출생 코호트에서 21%까지 크게 감소했다가 이후 연령이 내려갈수록 서서히 증가하여 1986-1995년 출생 코호트에서는 43%를 차지한다. 일본의 '유연' 유형은 '분업지지'와 '평등' 사이의 중도적인 성역할 분업의식을 가지며 어머니 취업에 대해서도 크게 찬성도 반대도 아닌 중도적인 태도를 지니기에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석된다. 실제로 이 자료에서도 일본인의 응답 패턴이 한국과 비교해 '찬성'과 '반대' 사이에 '찬성도 반대도 아님'이 있을 때 중간을 택하는 응답 비율이 높은 것이 확인이 된다. 일본 사람은 찬반의견을 명확히 응답하는 것을 피하는 경향이 있고 선택사항에 '찬성도 반대도 아님' 같은 중간이 있다면 응답이 거기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는 점은 다른 국제비교 연구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나며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되고 있다(林・林, 1995; 岩井, 2009). 따라서 일본 정부가 설계하는 여론조사나 사회조사에서는 중심점이 없는 4점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岩井, 2003; 杉田・岩井, 2003) 국제비교 조사의 경우 이런 일본인의 응답 패턴을 고려해 작성되는 것이 아니기에 그대로 사용할 수밖에 없지만 일본인에게 이러한 경향이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비교해야 하고 이 연구에서도 이러한 경향이 또 하나의 특징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의 경우를 보자. '유연'에 속하는 여성 비율이 1975년 출생 코호트까지 서서히 증가했다가 1976년생 이후 코호트에서 감소한다. 이 감소 폭이 '전업주부 지지-평등' 유형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전업주부 지지-평등' 유형은 완전한 남녀 역할 분업을 선호하는 게 아니라 성역할 분업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여 어머니 취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지만 전업주부에 대한 가치 인정은 다른 어느 유형보다도 강하고 평등지향이면서 가구 소득에 대한 기여 책임은 약해 이중 역할을 맡으려고 하는 유형도 아니다. 이 집단은 일본의 기혼 여성 대부분의 생애를 차지하는 파트타임 노동을 맡고 있는 전업주부의 생애 패턴을 반영 혹은 지지한 유형이라 할 수 있고 이 유형은 한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일본의 '유연'과 '평등'은 전업주부-파트타임노동 혹은 전업주부-취미적 일을 추구하는 유형으로 나타나 완전한 여성의 경제적인 자립 혹은 남녀평등을 추구하는 유형이

나타나지 않았다. 요즘 젊은 여성 사이에서 전업주부 지향이 늘어나는 보수회귀 현상이 나타난다고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어 왔는데(이와사와(岩澤), 1999; 나카이(中井), 2000; 야마다(山田), 2009,) 이 자료에서도 남녀 역할에 대해서는 평등지향이면서 전업주부를 강하게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여성이 젊은 세대에서 늘어나고 있는 점이 확인된다. 반면에 남성의 경우1956-1965년 출생 코호트에서 '전업주부지지-평등'이 50%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가장 높았으나 일본 경제가 1990년대부터 거의 30년 동안 침체한 것을 반영해 젊은 코호트일수록 비율이 감소하여 1986-1995 출생 코호트에서는 37%까지 줄었다. 같은 세대 여성 사이에서는 48%로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것과 대조적이고 남녀차이가 확실히 존재한다.

일본은 1950년대에 출현하고 1960년대에 대중화되어 1970년대에 정점을 이룬 '직장인 남편과 전업주부 어머니, 2명의 자녀'라는 오치아이 에미코(오치아이(落合), 1994[2004]) 가 '전후 가족 체제'라고 부른 이른바 근대가족을 대부분의 국민이 평등하게 실현할 수 있었던 시기이다. 이렇게 모든 사람이 결혼할 수 있고 2-3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었던 사회가 된 것을 오치아이는 '재생산 평등주의'라고 명명했으며(오치아이(落合), 1994[2004])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약 20년 동안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보고 성장하여 1990년까지 대부분이 결혼을 한 코호트인 1965년생 코호트까지 그러한 가치규범을 내재화하고 있는 점도 이 자료에서 읽을 수 있다. 이후 코호트에서 근대가족 형성이 어려워지면서 남성 사이에서 서서히 전업주부 지향형이 감소하는데 비해 여성의 경우도 실현이 어려워지면서 1966-1975년 코호트에서 감소하다가 1986년 이후 잃어버린 세대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임을 읽을 수 있다. 젊은 여성 사이에서 벌어지는 보수화 경향을 지적한 많은 기존 연구 지적을 뒷받침하는 일본형 평등지향인 전업주부 추구 유형이 증가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타난다.

2절. 성역할태도 유형과 사회인구학적 특징

1) 한국: 젊은 대졸 미혼 여성의 '평등' 지향

이 절에서는 위에서 도출된 성역할태도의 잠재집단별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검증하기 위해 Vermunt(2010)가 제시한 3단계 추정법(3-Step Approach)을 적용하여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했다. 3단계 추정법은 처음부터 독립변수와 통제변수를 모형에 포함시켜 공변수를 통제하여 잠재집단을 도출하는 방법이다. 이 회귀분석을 통해 어떤 잠재집단(종속변수)에 어떤 인구학적 특성을 가지는 사람(설명변수)이 속할 가능성이 높은지에 대해 추정할 수 있다. 일반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과 같이 카테고리 종속변수의 카테고리 간 비율비의 대수(로그 오즈: log odds raito)에 예측변수가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회귀분석으로 보는 것인데 종속변수가 관측된 변수가 아닌 복수의 응답변수(성역할태도에 관한 일곱 가지 문항)에서 추측된 잠재집단변수인 점이 일반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과 다른 점이다.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지적되어 온 변수를 설명변수에 투입했다.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독립변수는 국가, 성별, 코호트인데 기타 설명변수들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교육수준, 수입, 혼인상태, 현재고용상태, 어린시절 어머니 취업 여부를 통제변수로 모델에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의 결과부터 〈표4-5〉에서 확인하자.

〈표 4-5〉 한국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3단계 추정법을 적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분업지지 vs 가정우선-분업지지 (1)	분업지지vs 이중부담 (2)	분업지지 vs 평등 (3)	가정우선-분업지지 vs 이중부담 (4)	가정우선-분업지지 vs 평등 (5)	이중부담 vs 평등 (6)
교육수준	(Ref=중졸)						
	고졸	-0.17 (.415)	.092 (.271)	.235 (.418)	.266 (.438)	.409 (.555)	.143 (.431)
	2년제 졸업	-0.38 (.825)	.825* (.356)	.665 (.587)	1.200 (.815)	1.040 (.990)	-.160 (.583)
	4년제 졸업	.236 (.573)	.296*** (.326)	.565*** (.473)	1.061+ (.562)	1.330* (.676)	.269 (.461)
수입		-.169 (1.254)	-.901 (.892)	-1.938 (1.257)	-.732 (1.243)	-1.77 (1.602)	-1.04 (1.197)
현재고용상태	(Ref=임금노동자)						
	전업주부	.065 (.528)	-.651* (.283)	-1.129* (.530)	-.716 (.537)	-1.19 (.727)	-.478 (.552)
	무직	.111 (.507)	.010 (.327)	.240 (.424)	-.101 (.513)	.130 (.600)	.231 (.423)
	학생	.012 (1.136)	.594 (.991)	1.060 (.978)	.582 (.687)	1.048 (.764)	.467 (.472)
혼인상태	(Ref=기혼)						
	미혼	.554 (.631)	.685+ (.350)	1.050* (.503)	.131 (.600)	.496 (.720)	.365 (.468)
	이혼/사별	.181 (.522)	.184 (.297)	.546 (.407)	.003 (.527)	.365 (.608)	.363 (.422)
어린시절 어머니 취업 여부	(Ref=취업했음)	.262 (.310)	.039 (.185)	.144 (.253)	-.224 (.309)	-0.12 (.364)	.106 (.245)
성별	(Ref=남자)	-.219 (.338)	.557** (.202)	.444 (.269)	.776* (.329)	.663+ (.385)	-.113 (.254)
코호트	(Ref=.-1955)						
	1956-65	.551 (.421)	.546* (.275)	1.119** (.424)	-.006 (.437)	.567 (.5600	.573 (.443)
	1966-75	-.001 (.554)	.484 (.298)	.388 (.505)	.486 (.571)	.389 (.734)	-.096 (.521)
	1976-85	.521 (.686)	.825* (.365)	.576 (.620)	.304 (.675)	.055 (.868)	-.249 (.625)
	1986-95	1.841+ (1.11)	1.883* (.851)	1.799+ (.990)	.042 (.871)	-.042 (1.049)	-.083 (.720)

Note. N of observation = 1,396.
*** p < .001, ** p < .01, * p < .05, + p < .10

종속변수인 한국의 성역할태도 잠재집단은 총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고 종속변수인 각 유형에 대해 두 가지씩 유형간 비율비(Percentage Raito)의 대수(Log Odds)에 대해 예측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다항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것이며 총 여섯 가지 조합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다. 결과(1)은 성역할태도가 '분업지지' 유형인 사람과 '가정우선-분업지지'인 사람을 비교한 것이며 준거집단(Reference Group)은 '분업지지' 유형이다. 마찬가지로 결과 (2), (3)에서도 준거집단은 '분업지지' 유형이며 (2)는 '분업지지' 유형과 '이중부담' 유형의 비교, (3)은 '분업지지' 유형과 '평등' 유형의 비교 결과다. 결과 (4)와 (5)에서는 '가정 우선형 분업지지'가 준거집단이며, (4)는 '가정우선-분업지지'와 '이중부담' 유형의 비교, (5)는 '가정우선-분업지지'와 '평등' 유형의 비교 결과다. 결과 (6)에서는 '이중부담' 유형과 '평등' 유형을 비교한 것이며 여기서는 '이중부담' 유형이 준거집단이다.

먼저 성역할태도가 '분업지지' 유형인 사람과 '가정우선-분업지지'인 사람을 비교한 결과 (1)을 보면 유의수준5%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하나도 확인되지 않았기에 '분업지지'와

‘가정우선-분업지지’에 속하는 사람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다음으로 성역할태도가 ‘분업지지’인 사람과 한국 사람 중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하는 ‘이중부담’인 사람을 비교한 결과 (2)를 보면 많은 설명변수에서 유의한 차이가 확인된다. ‘분업지지’ 유형보다 ‘이중부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의 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자. 먼저 교육수준을 보면 ‘분업지지’ 보다 ‘이중부담’에 속할 가능성(승산)이 중졸에 비해 2년제 대학 졸업자가 2.28배(=exp(.83)), 4년제 대학 졸업자가 3.65배(=exp(1.30)) 높다. 그리고 남자에 비해 여자가 1.75배(=exp(.56)), 코호트는 1955년 이전 출생 코호트에 비해 1956-1965년생은 1.73배(=exp(.55)), 1976-1985년생은 2.28배(=exp(.83)), 1986-1995년생은 6.57배(=exp(1.88)) ‘분업지지’ 유형보다 ‘이중부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젊어질수록 ‘분업지지’보다 ‘이중부담’에 속할 가능성이 확실히 높아지는 경향이 확인된다. 그리고 ‘분업지지’보다 ‘이중부담’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집단의 특징을 보면 임금노동자에 비해 전업주부가 0.52배(=exp(-.65)) ‘이중부담’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이 확인된다. 전업주부는 가정역할에 대해서만 충실하면 되기에 이중부담을 선호하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이 수도 있으나 본인이 스스로 원해서 주부역할을 맡는 것인지, 직업생활을 원하는데도 주부역할을 맡는 것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본 연구결과에서는 한국에서 전업주부인 사람들이 ‘역할분업’보다 ‘이중부담’을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학력수준이 올라갈수록, 젊은 사람일수록, 여자일수록 ‘분업지지’를 지향하지 않고 ‘이중부담’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분업지지’ 유형과 성역할 ‘평등’ 유형을 비교한 결과 (3)을 보자. ‘분업지지’ 유형보다 ‘평등’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은 중졸에 비해 대졸자가 4.78배(=exp(1.57)),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가 2.86배(=exp(1.05)), 남자에 비해 여자가 1.56배(=exp(.44)), 1955년 이전 코호트에 비해 1956-1965년 코호트가 3.62배(=exp(1.12)), 1986-1995년 코호트가 6.04배(=exp(1.80))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임금노동자에 비해 전업주부는 ‘분업지지’보다 ‘평등’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0.32배(=exp(-1.13)). 이 두가지 유형의 비교는 가장 보수적이라 할 수 있는 성역할 ‘분업지지’와 가장 진보적이라 할 수 있는 성역할 ‘평등’을 비교해 어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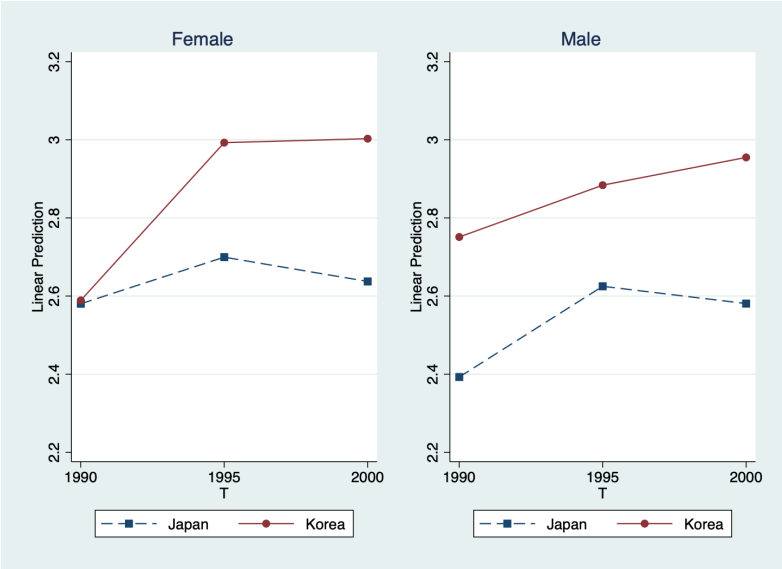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가지는 사람이 '평등'을 지향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 대졸자, 미혼, 여자, N포세대인 1986-1995코호트에서 '평등'지향적인 가치를 가짐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가정우선-분업지지'와 '이중부담' 유형을 비교한 (4)를 보면, 남자에 비해 여자가 2.17배(=exp(.78)) '가정우선형-분업지지'보다 '이중부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설명변수는 영향력을 갖지 못했다. '가정우선-분업지지'와 '평등' 유형을 비교한 (5)에서는 대졸에서 3.78배(=exp(1.33), 여자에서 1.94배(=exp(.66) '가정우선형-분업지지'과 '평등'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중부담'과 '평등' 유형을 비교한 결과인 (6)을 보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여기까지 정리하면 유형간에 분명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분업지지'와 '이중부담'과 '분업지지'와 '평등' 유형의 비교에서였다. 한국에서는 교육수준이 높아질수록, 미혼일수록, 여자일수록, 1986-1995년 코호트일수록 아주 낮은 '분업지지' 지향적인 태도가 확인되었으며 이들은 '이중부담'이나 '평등'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전업주부는 그러한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990년대 들어 한국에서 고등교육이 팽창해 갔으며 젊은 세대에서는 대졸이 표준화가 되었다. 그리고 1990년대말 경제위기 이후 한국에서는 남자고용도 불안정해지자 여자의 직업생활의 중요성이 확대되었다. 본 연구결과에서도 여성의 작업지향성은 성역할 '이중부담'과 '평등' 지향의 증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일-가정 둘 다 양립하려고 하는 '이중 부담'지향이 압도적으로 많이 지지되지만 남녀간 보다 대등한 관계를 원하는 '평등' 지향 또한 1986-1995년 여자 사이에서 급진적으로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

여기서 보조자료를 살펴보면서 한국 여성에게 '경제적 책임'을 묻는 태도가 언제부터 나타났는지를 확인해 보자.

〈그림 4-8〉 한일 여성의 경제적 기여 책임에 대한 태도:
'남편이나 아내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에 대한 찬반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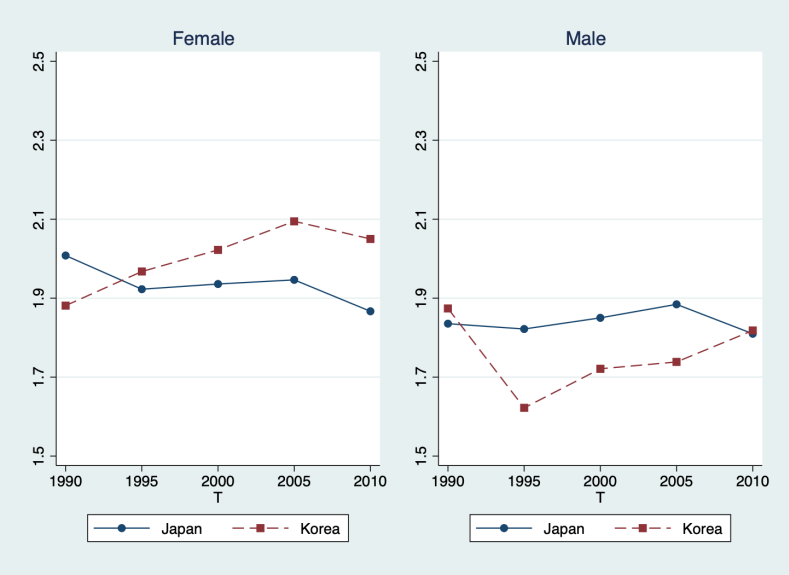
자료: WVS에서 연구자가 작성

본 연구에서 분석한 WVS 자료는 점수가 높을수록 남녀평등지향적인 태도를, 반대로 낮을수록 성역할분업 지향적인 태도를 나타내도록 코딩했다[80]. 왼쪽 그림에서 한일 여성을 비교해 보면 1990년 당시에 한국과 일본 여성 사이에 큰 차이는 없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많은 기존연구에서 한국의 성역할태도가 일본보다 보수적인 가족지향임이 지적되어 왔으며 2장에서는 1990년 말부터 양국이 갈라지는 모습을 확인했다. 그런데 변화는 1990년대 말에 앞서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한일 여성간 경제적 책임감에 커다란 차이가 나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 여성 사이에서 여성의 경제적 기여 책임에 대해 찬성하는 정도가 강해지며 일본에서도 약간 강해지긴 하지만 느슨한 변화 정도이다.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의 변화를 보면 한국이 1995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데 비해 일본은 오히려 약해진다. 이러한 가치변화는 앞의 〈표2-3〉에서 확인한 것처럼 일경련의 종업원 집단별 고용관리 방침(1995)으로 인해

[80] 이 자료는 5년마다 이루어졌으며 자료 분석에 있어서 시계열로 분석해야 하기에 모집단의 속성 차이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이하의 변수를 통제했다. 1. 성별, 2. 연령, 3. 혼인 여부, 4. 수입, 5. 주관적 계층의식, 6. 생계부양자 여부, 7. 취업상태의 총 일곱가지 변수이다.

여성을 비정규직 노동자로 전환시키면서 남자 기간노동자를 보호한 배경이 여성에게 가계책임에 대한 의식을 약화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 남자 또한 같은 경향을 보여준다. 반면 한국여성은 남성노동이 원래 안정적이지 않았고 경제위기 이후에 더 취약했다는 기존연구의 평가(〈표2-4〉)를 반영하듯이 여성 스스로의 경제기여 책임이 강해졌으며 남자보다 강하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1990년대 후반의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그러한 계기가 여성의 경제적인 기여책임을 강화시킨 게 아니라 그 전에 이미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많이 강화되어 있었다는 점에 있다. 이 자료에서는 한국여성들이 경제위기로 남성 생계부양자가 위협받으면서 스스로 경제적 책임의식을 강화시켰다기보다는 경제위기 이전부터 이미 여성의 경제적 기여 책임의식이 강해졌는데 이후 그러한 생각을 유지해 간 것으로 보여진다. 또 이 자료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일본 남자가 여자한테 경제적인 책임 기여를 기대하지 않는다는 점에 있다. 1990년대 초반의 경제위기를 맞으면서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약간 강화되었지만 1995년에서 2000년 사이에 다시 약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국가의 정책이나 사회 구조가 바로 가치관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지만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함께 변해가는 모습이 확인된다. 한국이 20세기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가속화된 산업 공동화·세계화 속에서 남성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지위가 급격하게 불안정화되고 남녀 간 노동시장 지위 분리 차등이 덜한 서비스업의 고용규모가 지속적으로 커지면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범세대적으로 확대되어 갔다(장경섭, 1998: 53). 여성이 사회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마음가짐은 경제위기가 닥치기 전인 1990년대 초반에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그림 4-9〉 한일 남성 우선 일자리 허용도:
'남자가 여자보다 우선적으로 일을 할 권리가 있다'에 대한 찬반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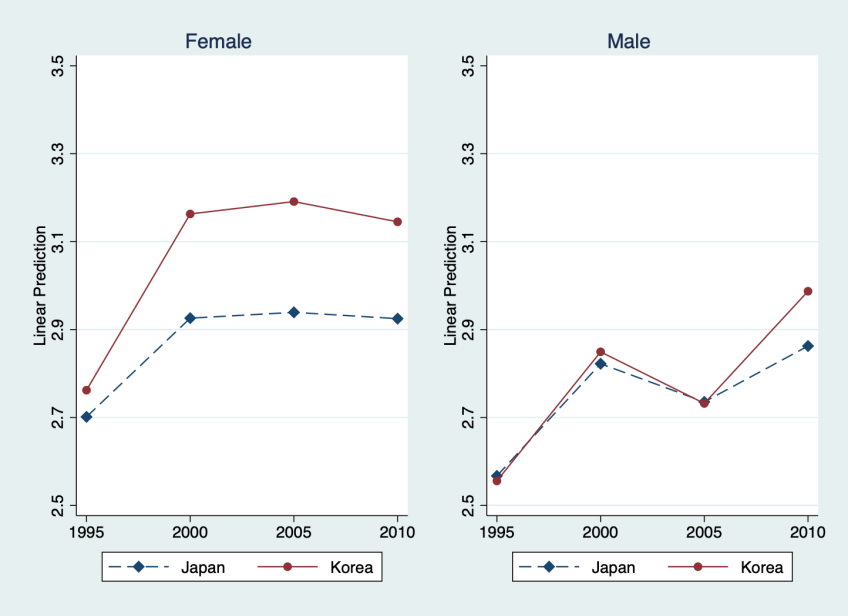


자료: WVS에서 연구자가 작성

〈그림4-9〉에서 남녀 성역할 분업의식에 대하여 다르게 묻는 질문을 통해 한일비교한 결과를 살펴보자. '남자가 여자보다 우선적으로 일을 할 권리가 있다'라는 질문에 대해 한일 모두 여자가 남자보다 반대의견이 강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특히 한국 여자의 변화가 크다. 1990년까지만 해도 일본 여자보다 한국 여자가 더 남자를 우선으로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으며 남녀차이도 거의 없었다. 그런데 1990년 이후 한국 여자는 빠른 속도로 반대 의견이 강해지는 것에 비해 한국 남자는 찬성하는 방향으로 향해 남녀사이에서 의견이 갈라진다. 경제위기라는 큰 사건이 닥치기 전임에도 남녀 대학진학률이 상승해 가는 1990년대 초반에 이미 한국 여성 사이에서-직업적 독립 의식, 경제적 기여책임-은 이미 강화되어 가고 있었다. 반면 한국 남자는 1990년에서 1995년 사이에 남자의 고용을 우선으로 보호해 달라는 방향으로 변했다가 이후 2010년에 걸쳐 서서히 남녀평등적인 사고로 향한다. 그러나 1990년 시점과 2010년 시점을 비교해 보면 과거 20년동안에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남자 우선권에 대한 태도는 남녀간의 생각 차이가 크게 벌어졌다. 이러한 남녀 간의 가치관 차이는 2장 3절 3)에서 확인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남녀갈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한국에서는 대기업과 중소 기업

간의 소득차이가 일본보다도 크고 대기업자체가 매우 적었다. 경제위기는 남자의 고용 또한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오늘날 고등교육을 받은 젊은 남녀사이에서 이러한 한정된 '좋은 직장'을 둘러싸고 치열한 경쟁이 진행 중이며 '좋은 대학' 입학을 위해 10대를 다 희생한 청년들은 이제 대학입학 후에도 '스펙'을 쌓기 위해 끊임없이 경쟁을 이겨내야 한다. 이러한 오늘날의 한국 청년 취업환경의 변화는 가치관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난다. 반면 일본은 1990년 시점에서는 남자보다 여자의 동의가 적었으나 2010년까지의 과거 20년 사이에 여자는 서서히 동의하는 방향으로 변해간다. 일본 남자 또한 2005년까지 반대의견이 다소 강해졌으나 2010년에 다시 동의하는 방향으로 변해갔다. 1990년대에 일본이 한국과 달리 남자 고용을 보호하는 정책을 취해 여성이 비정규직화가 되자 여성이 스스로 남자 고용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했다. 1990년대에 한일 양국이 모두 경제위기를 맞았으나 양국의 대응방식이 남자고용을 보호하는지 혹은 남자라는 이유로 보호하지 않는지 서로 다른 방향으로 양국의 노동시장이 갈라졌다. 이 자료에서 나타나는 가치관의 변화 방향 또한 양국이 선택한 노동시장에서의 남자 위치 변화를 반영하듯이 한국 여성이 이미 마음의 준비를 하고 스스로가 독립하여 경제적인 역할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을 강화시켜 나갔다면 일본 여성은 남자한테 우선권을 주고 남자의 보호 하에서 안정적인 가정을 꾸리는 것에 동의하는 방향으로 변해갔다. 중요한 것은 여기서 코호트 효과를 제외한 사회 전체 동향만을 비교해 봐도 양국 사이에는 뚜렷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딸을 독립적인 존재로 키운 것은 바로 한국의 부모임을 함께 확인해 보자.

〈그림 4-10〉 한일 부모의 아들과 딸 차별적인 교육투자 자세:
'대학교육은 여자보다 남자에게 더 중요하다'에 대한 찬반의견(1995-2010)



자료: WVS에서 연구자가 작성

한국 여성의 교육 팽창과정 그리고 한국과 일본 부모가 딸을 다르게 키우는 점에 대해서는 2장3절1)에서 확인했다. 여기서는 그러한 남녀차별적인 교육투자에 대한 국민의 찬반의견을 살펴본다. 일본에서는 오늘날도 부모가 남녀 차별적인 교육투자를 하는 점에 대해 확인했었다. 한국 부모들은 이제 아들 딸 상관없이 자녀에 대해 고등교육을 시켜왔고 현재에 와서는 오히려 여자의 대학진학률이 남자보다 더 높다. 이러한 기제를 만드는 것은 부모의 가치관 차이인데 이 자료에서 잘 나타난다. 남성이 여성보다 딸 교육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공통점을 가지지만 여성의 딸에 대한 교육투자자세에 있어서는 양국이 큰 차이를 보인다. 1995년까지만 해도 한국과 일본의 어머니는 딸 교육에 대해 비슷한 수준으로 그다지 중요성을 느끼지 않고 있었으나 1995년 이후 한국의 어머니는 딸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 인식을 확대해 간다. 2000년 이후 일본과 한국 어머니 사이에는 딸에 대한 교육투자 자세에 있어서의 생각 차이가 매우 커진다. 2010년에는 한국 아버지도 딸에 대한 교육투자의 중요성을 확대했으며 일본 어머니보다도 더 중요성을 느끼고 있다. 이러한 부모의 자식에 대한 교육 자세 차이가

바로 대학교육 진학이라는 성과와 여성의 직업적 독립의식에도 반영되었을 것이며, 이 자료를 통해 2장에서 확인한 실태와 가치가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변해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

2) 일본: 젊은 대졸 여성의 '전업주부' 지향

위에서 한국에 대해 잠재집단 예측변수를 분석하였는데 같은 방법으로 일본에 대해서도 3단계 추정법을 적용해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했다. 일본에서는 성별, 출생 코호트, 교육수준, 수입, 혼인 상태, 현재 고용상태, 어린시절 어머니 취업 여부라는 사회인구학적인 특징이 잠재집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일본의 결과를 〈표4-6〉에서 확인하자.

〈표 4-6〉 일본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3단계 추정법을 적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분업지지 vs 유연 (1)	분업지지 vs 전업주부지지-평등 (2)	유연 vs 전업주부지지-평등 (3)
교육수준	(Ref=중졸)			
	고졸	-.187 (.356)	.282 (.333)	.469 (.297)
	2년제 졸업	-.223 (.433)	.315 (.401)	.538 (.348)
	4년제 졸업	-.009 (.429)	.726+ (.387)	.735* (.341)
수입		-.427 (.743)	-.085 (.626)	.342 (.512)
현재고용상태	(Ref=임금노동자)			
	전업주부	-.422 (.343)	-1.002** (.325)	-.579 (.289)
	무직	-.028 (.377)	-.026 (.319)	.002 (.300)
	학생	-.570 (.725)	-.289 (.603)	.282 (.531)
혼인상태	(Ref=기혼)			
	미혼	-.612+ (.357)	-.381 (.300)	.231 (.293)
	이혼/사별	.292 (.387)	-.439 (.395)	-.731* (.334)
어린시절 어머니 취업 여부	(Ref=취업했음)	.129 (.245)	.153 (.215)	.023 (.197)
성별	(Ref=남자)	.698** (.263)	.549* (.235)	-.149 (.199)
코호트	(Ref=.-1955)			
	1956-65	.219 (.377)	.446 (.323)	.227 (.288)
	1966-75	.678* (.345)	.299 (.314)	-.379 (.267)
	1976-85	.071 (.398)	-.127 (.345)	-.198 (.336)
	1986-95	1.709** (.662)	1.265* (.564)	-.444 (.464)

Note. N of observation = 1,204.
*** p < .001, ** p < .01, * p < .05, + p < .10

일본의 성역할태도 잠재집단은 총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고 각각 총 세 가지 조합의 비율비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다. 결과 (1)은 성역할태도가 '분업지지'인 사람과 '유연'인 사람을 비교한 것이며 준거집단은 '분업지지' 유형이다. 마찬가지로 결과 (2)에서도 준거집단은 '분업지지' 유형이고 '분업지지' 유형과 '전업주부지지-평등' 유형의 비교이며, (3)은 준거집단인 '유연'과 '전업주부지지-평등'의 비교 결과다.

먼저 성역할태도가 '분업지지'와 '유연'을 비교한 결과 (1)을 보면 '분업지지'보다 '유연'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남자에 비해 여자가 2.01배(=exp(.70)), 1955년 이전생에 비해 1966-1975년생이 1.67배(=exp(.68)), 1986-1995년생이 5.52배(=exp(1.71))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유의수준 10%이지만 '유연 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집단은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였다(0.54배, =exp(-.61)). 거꾸로 말하면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는 '분업지지'에 속할 가능성이 1.84배 높다는 것이며 일본 미혼 여성의 보수적인 성역할태도 지향임이 확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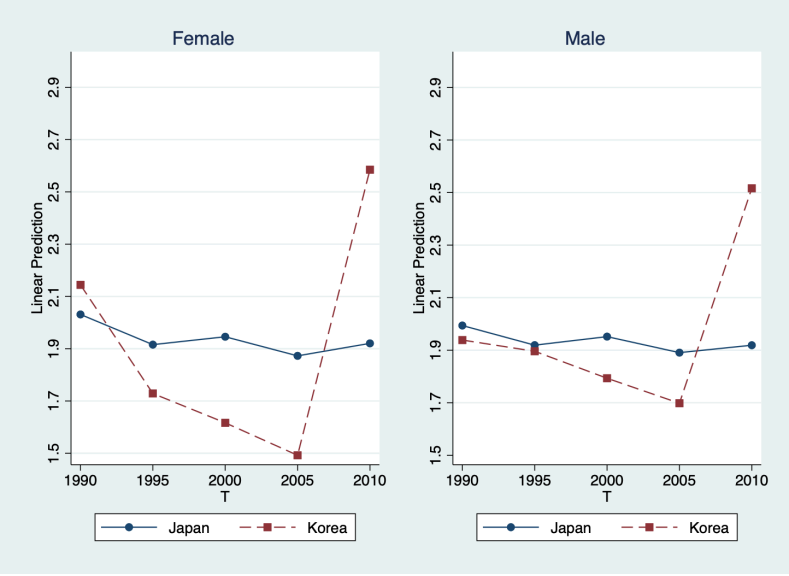
다음으로 '분업지지'와 '전업주부지지-평등'을 비교한 결과 (2)를 보면 '전업지지-평등'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대졸이 2.67배(=exp(.73)), 여자가 1.73배(=exp(.55)), 1986-1995년생이 3.54배(=exp(1.27))로 나타났다. 반대로 '전업주부지지-평등'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집단은 전업주부였다(0.37배, =exp(-1.00)). 전업주부 스스로가 본인들이 처한 상황을 지지하지 않는 것은 현실에서는 대부분의 전업주부가 파트타임 노동을 하면서 가계보조적인 노동에 종사하고 있기에 본인이 맡고 있는 입장을 인정해야 하므로 가정일에 전념하는 전업주부가 현실적으로는 실현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일본에서 대졸자, 여성, 1986-1995년생 사이에서 '전업지지-평등'지향에 속할 가능성이 높고 '유연'에 속할 가능성은 여성, 1986-1995년생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연'에는 대졸자가 빠진다는 점에서 일본에서 고등교육을 받은 여성이 경제적 자립을 지지하는 것도 아니라는 한국과는 대조적인 모습이 확인된다. '유연'과 '전업주부지지-평등'을 비교한 결과 (3)에서도 '유연'보다 '전업주부지지-평등'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 대졸자가 2.09배(=exp(.74) 였다.

일본의 결과를 정리하면 남자에 비해 여자가, 1955년 이전 코호트보다 1986-1995년생이 '분업지지'보다 '유연' 혹은 '전업주부지지-평등'에 속할 가능성이 높았다. 그리고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분업지지'보다 '유연'에 속할 가능성이 낮았고

임금노동자보다 전업주부가 '분업지지'보다 '전업주부지지-평등'에 속할 가능성이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학력의 효과는 '분업지지'보다 '유연' 및 '유연'보다 '전업주부지지-평등'에 속할 가능성이 대졸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은 전통적인 성역할태도에서의 탈피에 영향을 미치지만 한국과 비교하면 그 효과는 일본에서 작고 코호트 효과도 작게 나타난다. 그리고 기혼자보다 미혼자가 '유연' 보다 '분업지지'에 속할 가능성이 높다는 보다 보수적인 성역할태도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 또한 한국과 대조적인 결과이다.

일본여성 사이에서 지지되는 전업주부에 대한 인식을 시계열로 확인해 보자.

〈그림 4-11〉 한일 전업주부 지지도: '전업주부가 되는 것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만큼이나 가치있는 일이다'에 대한 찬반의견(1990-20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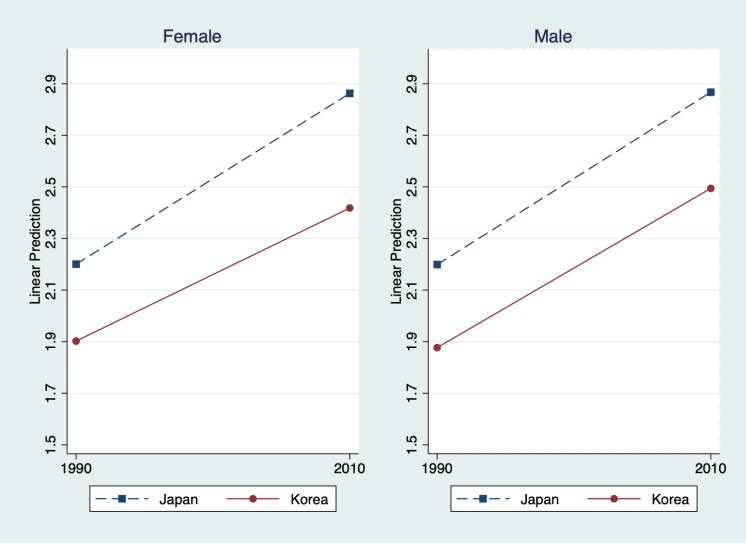


자료: WVS에서 연구자가 작성

이 자료에서는 일본 여성이 1990년에서 2010년 사이에 전업주부를 가치있는 존재로 인식하는 태도를 서서히 강화시켜 갔으며 남자 또한 마찬가지 경향을 읽을 수 있다. 반면 한국에서는 1990년에서 2005년 사이에 남녀 모두 강하게 인정해 갔다가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부정하는 방향으로 가치관의 전환이 일어났다.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이정도로 급진적인 가치변화가 일어난 이유는 잘 모르지만 이 자료에서도 일본에서는

1990년이후 전업주부의 존재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변했다면 한국이 2010년에는 부정하는 태도로 변해 여기서도 역시 여성의 경제적인 기여책임 의식의 확대가 가정역할에만 전념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치관이 변해갔던 것으로 이해된다. 그런데 한국의 여성 고용은 일본과 달리 파트타임이 아닌 풀타임 노동이 대부분이다. 가정에서의 책임이 여전히 여성에게 있다는 모습은 성역할태도에서도 잘 나타났었지만 그러한 가치는 시계열로 어떻게 변해왔는지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그림 4-12〉 한일 어머니 취업에 대한 태도: '어머니가 취업하면 자녀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게 된다'에 대한 찬반의견(1990-2010)



자료: WVS에서 연구자가 작성

이 자료는 1990년과 2010년 두 시점에서만 같은 질문이 이루어졌는데 한일 모두 어머니 취업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변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남자보다 여자가 보다 긍정적인데 일본 여성보다는 한국 여성이 부정적인 점이 확인된다. 한일 모두 '가족주의 복지'레짐 속에서 육아는 여성(가족)이 맡아야 하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어머니가 어떻게 일하는지가 양국의 차이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 여성의 파트타임노동은 가정의 일을 병행할 수 있는 단시간 노동이기에 대부분 자녀가 유치원에 다니는 동안만 짧게 일한다. 이러한 형태의 노동 방식은 어머니가 일을 해도 자녀에게 어려움을 준다고

생각하기 어렵다. 반면 한국에서는 대부분 풀타임으로 일하기에[81] 경제적 기여책임이 있으니 일해야 하지만 가정역할 또한 여성의 일로 인식되어 있기에 갈등이 야기될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사회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국에서 과거 20년 동안 어머니 취업에 대해 긍정적인 인식으로 변해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젊은 세대에서 보다 더 긍정적이라는 점은 위 연구결과에서 확인한 바 있다.

3절. 소결

성역할태도에 대해 묻는 일곱 가지 문항에 대한 찬반의견을 비교해 보면 전반적으로 한국이 일본보다 보수적인 가치규범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나 잠재집단분석(LPA)을 통해 유형화시킨 결과 한국과 일본은 보수-진보를 떠나서 가치규범 체계의 차이점이 확실히 드러났다. 분석의 결과 한국의 성역할은 '분업지지', '가정 우선-분업지지', '이중부담', '평등' 유형의 네 가지, 일본의 성역할은 '분업지지', '유연', '전업주부지지-평등' 유형의 세 가지가 도출되었다. 한국과 일본의 특징적인 유형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반적으로 한국은 어머니 취업에 대해 일본보다 부정적이라는 점에 있었다. 성역할태도가 가장 진보적인 '평등' 유형에서도 한국이 일본에 비해 어머니가 취업하면 자녀 및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한국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는 성역할태도 '이중부담'과 '분업지지' 유형에서는 어머니가 취업하면 취학전 자녀가 큰 어려움을 겪게 되고 가정생활도 어려움을 겪으며 자녀와 따뜻한 관계를 맺기가 어려워진다고 생각한다. 그에 비해 일본은 어머니 취업에 대해 긍정적이며 보수적인 가치를 지닌 '분업지지' 유형에서도 어머니 취업이 취학전 자녀에게 어려움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의 '분업지지' 및 '이중부담' 유형보다 훨씬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양국의 차이는 바로 어머니의 취업 방식 차이-파트타임 노동과 풀타임 노동-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여겨진다.

---

[81] OECD 2020년 데이터를 보면 여성의 파트타임 노동자 비율은 일본이 39.5%로 OECD국가 중 네덜란드, 스위스 다음에 이어 세 번째 비율이 높고 한국은 22.1%로 OECD평균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OECD Parttime Employment Rate). https://data.oecd.org/emp/part-time-employment-rate.htm

그런데 두번째 특징으로서 일본은 한국에 비해 어머니 취업에 대해 긍정적이면서 '여성이 취업하는 것도 괜찮으나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 머무르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에 대해 어떤 유형에서도 동의를 나타내며 '전업주부지지-평등'에서는 어머니 취업에 대해 전적으로 찬성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이 원하는 것은 가정에 머무르고 자녀를 키우는 것에 있다'는 점도 받아들이고 있다. 이러한 태도 또한 일본 기혼여성의 일하는 방식에서 초래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파트타임노동은 전업주부의 정체성을 가지면서 보조적으로 단시간 노동을 하기 때문에 가정일에 충실한 여성과 일(파트타임)하는 여성의 정체성이 충돌하지 않는다. 일본 기혼여성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전업주부+파트타임이라는 생애과정은 어머니 취업도 받아들이면서 여성의 행복이 가정에 있다는 것도 받아들일 수 있기에 상호배타적인 가치가 아니다. 반면 한국에서는 가장 평등지향인 '평등' 유형에서는 이 문항에 대해 매우 강하게 반대하는 태도를 보였으며 서로 대조적인 가치규범을 내재하는 점이 확인되었다.

양국의 차이를 보여주는 세번째 특징은 여성의 경제적 책임 여부에서 나타난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에 대해 한국은 어떤 유형에서도 강한 경제적 기여 책임 의식을 나타내는 것에 비해 일본은 어떤 유형에서도 동의가 약하다. 한국이 '분업지지' 유형에서 '평등' 유형을 이행할수록 경제적 책임 의식이 강해지는 것에 비해 일본은 가장 진보적인 가치규범을 내재하는 유형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동의가 다른 유형과 전혀 차이가 나지 않고 아주 약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일본의 평등 지향 유형은 전업주부를 지향하고 여성의 역할을 가정에 있다고 인정하며 경제적인 책임을 맡으려고 하지 않는 전통적인 가치와 남녀 역할 분업에 대해서 부정하여 어머니 취업에 대해 전적으로 인정하고 평등 지향적인 가치가 혼재하기에 '전업주부지지-평등'이라고 명명했으며 이 가치규범이 일본에서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 취업이 가정에 부정적인 효과를 초래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여성의 경제적인 기여 책임에 대해 어떤 유형에서도 강하게 인정하다는 점에서 일본과 또 다른 모순적이며 갈등적인 가치규범을 내재하는 점이 드러났다.

네번째로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전형적인 성역할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본이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반대의견이 강하다. 같은 '분업지지' 유형이어도 일본은 강하게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고

같은 '평등'(일본은 '전업주부지지-평등') 유형에서도 한국보다 약간 반대의견이 강하다. 여기에서도 또 다른 모순이 드러난다. 한국은 어떤 유형에서도 여성의 경제 기여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남녀 역할을 분리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보다 전체적으로 반대의견이 약한데 여성의 일이 가정에 있다는 의견에 대해서는 '평등' 지향적인 유형일수록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어머니 취업에 대해서는 어떤 유형에서도 가정 및 자녀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고 있다. 한국의 '평등' 유형은 그나마 어머니 취업에 대해서 다른 유형보다 긍정적이지만 일본의 '전업주부지지-평등'에 비하면 어머니 취업에 대해 긍정적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 역시 여성의 일하는 방식에서 초래되는 차이라고 여겨진다. 한국은 여성의 일은 집에 머무는 것이 아니며 돈을 벌어야 하지만 그래도 남자가 일을 하고 여자가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주된 역할 구분에 대해서는 인정하고 있다. 주된 남녀 역할은 분업한 상태에서 여성도 일을 하고 돈을 벌어야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어머니가 취업하면 자녀 및 가정에게 악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딜레마 상태에 놓여있다. 이것은 한국의 기혼여성의 노동이 대부분 장시간 노동이며 가정과 일의 양립이 어려운 상황에서 돈은 벌어야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가정이 희생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초래된 현실에서 나타나는 가치규범이라고 해석된다. 반면 일본은 전통적인 가치와 평등 지향이 혼재하는 일본형 평등의식을 가지는데 결국 일본 기혼 여성의 취업 방식과 그것에 대한 법적지원 이 가치관에도 반영되는 것으로 본다.

다섯번째 특징은 한국이 이러한 가치규범에 대해 세대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았으며 또 한국에서는 변화의 방향도 확실하다는 점에 있다. 특히 젊은 여성 사이에서 가치규범이 '분업지지' 에서 '평등'으로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1955년 이전 출생 코호트에서는 '분업지지' 유형이 절반 이상의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는데 연령이 젊어질수록 '분업지지' 유형에 속하는 비율이 감소했으나 1986-1995년 코호트 여성은 완전히 이 유형에서 사라져 버렸다. 이 코호트 여성들은 '평등' 지향으로 많이 이동했으며 같은 연령대 남자 또한 '평등' 유형이 많이 증가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유형은 '이중부담'인데 이 가치규범 또한 연령이 젊어질수록 급격히 증가해 왔으며 특히 여성 사이에서 뚜렷했다. 본 연구자는 이러한 여성 사이에서 급진적으로 '평등' 지향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한국에서 젊은 세대 특히 여성 중심으로

‘젠더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 서구 이론에서 말해지듯이 혁명의 첫번째 단계인 여성의 가정 외 진출이 인식 면에서는 이미 완성되었으며 이제 2단계인 남성의 가정 내 진출 인식이 이루어야 하는 단계에 와 있다. Esping-Anderson(2009)는 ‘베커 평형’ 상태에서 벗어나 ‘성평등 평형’을 향한 과정에서 출산율이 떨어진다고 했는데 본 연구에서도 이론대로 한국의 출산율 저하는 2000년 이후 여성의 경제적 기여책임 고조와 함께 빠른 속도로 일본보다 떨어진 원인으로 작동한다고 본다. 기존의 제도와 사회 전체의 가치규범은 전통적인 가치를 유지한 채 일부 연령대 여성을 중심으로 전통적인 역할분업에 반대하여 남녀평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급하게 변했던 만큼 현실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런데 Esping-Anderson(2009)는 ‘베커 평형’ 상태에서 벗어나 ‘성평등 평형’을 향한 과정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데 성평등적인 가치관이 확신되어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를 넘은 후에는 속도가 붙어 빠른 속도로 사회가 평등으로 향한다고 봤다. 그렇다면 한국이 지금 일부 여성사이에서만 이루어지는 변화인만큼 아직 갈등적인 상태에 있다고 판단되지만 나중에 평등적인 가치가 사회전체로 퍼져나가고 크리티컬 매스를 넘으면 다시 출산율도 서서히 회복해 가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결과를 비교해 보면 ‘분업지지’보다 ‘평등’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한국에서 대졸자, 미혼인 사람들이고 전업주부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1986-1995년 코호트에서도 10% 수준이지만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대졸자, 싱글, 여자 사이에서 ‘전업주부지지-평등’ 지향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1986-1995년생 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적 흐름으로 전통에서 평등으로 젊은 집단을 중심으로 이행하는 경향에 있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지지되었으나 한국과 일본에서 추구하는 평등의 형태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양국이 젊은 집단을 중심으로 한마디로 남녀평등으로 이행한다고 해버리면 잘못 이해되는 것이다. 추구하는 평등의 형태가 서로 다르기에 이 때까지 보이지 않았던 한국과 일본 사회에 숨겨진 성역할에 대한 잠재가치구조를 드러내는 것으로 양국 사회의 남녀가 배치되는 상황 및 역할이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제5장. 결혼가치 한일비교

1절. 결혼가치 유형

1) 한일 유형: 일본보다 강한 결혼지향성

이 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결혼에 대한 가치규범을 비교한다. 분석에 사용한 문항을 다시 확인하면 다음 〈표5-1〉과 같다.

〈표5-1〉 결혼가치에 대한 질문

Q4A	결혼한 사람이 결혼 안 하는 사람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다.
Q4B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해야 한다.
Q4C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
Q4D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

Q4A는 결혼한 사람이 결혼 안 하는 사람보다 더 행복하다는 결혼 자체에 행복이라는 의미 부여를 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이며, Q4B는 출산을 하고 싶으면 결혼을 해야 한다는 결혼과 출산을 꼭 연결시키는 가치규범을 내재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Q4C는 결혼과 동거를 연결시키는 가치규범을 내재하는지 묻고 있으며 Q4D는 결혼 후 부부생활에서 문제를 해결 못할 때 이혼을 허용하는지에 대해 묻는 문항이다. 이 네 가지 문항을 종합적으로 보면 결혼하는 사람이 더 행복하고 동거와 출산은 결혼 내에서 해야 하며 한번 결혼하면 이혼 안 하는 것이 좋다는 결혼에 대한 의미부여가 전형적인 근대 가족 규범과 연결되는지를 묻고 있다. 한국과 일본의 응답 패턴을 살펴보자.

다음 〈표5-2〉에서는 나라별 차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절반이 넘는 의견에 대해 굵은 글자로 표시했다.

〈표5-2〉 결혼가치에 대한 찬반의견 한일 비교

한국	Q4A	Q4B	Q4C	Q4D
찬성	**77.69**	**92.00**	26.44	37.30
반대	22.31	8.00	**73.56**	**62.70**
일본				
찬성	49.64	**85.00**	**57.03**	**57.81**
반대	**50.36**	15.00	42.97	42.19

먼저 첫번째 문항인 '결혼한 사람이 결혼 안 하는 사람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다'에 대한 찬반의견을 보면 한국의 77%가 넘는 사람이 찬성하는 것에 비해 일본은 약 절반의 사람이 반대하고 있어 양국에서 결혼하는 것 자체에 행복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는 데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이 결혼하지 않은 사람보다 행복하다는 가치규범이 훨씬 강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Q4B의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해야 한다'에 대한 찬반의견을 보면 한국이 92%, 일본이 85%로 양국 모두 대부분의 사람이 혼외 출산에 대해 부정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결혼과 출산이 강하게 연결되어 있어 일본에서 오늘날 임신을 계기로 결혼하는 임신 선행형 결혼이 전체 혼인신고의 1/4을 차지하고 있고2006년에 30%를 넘는 수준까지 증가했다가 이후 25%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총 출생수에서 차지하는 혼외출산 비율은 2018년 2.29%에 불과하다(후생노동성 인구동태통계, 2018). OECD가 발표하는 통계를 살펴보면 한국은 혼외출산이 OECD 국가 중 2.2%로 가장 낮으며 일본이 2.3%로 그 다음으로 낮다[82]. OECD 국가 평균이 40.7%인 것과 비교해 한국과 일본에서는 결혼과 출산은 함께 해야 한다는 강한 가치규범을 공유하고 있으며 그러한 모습이 자료에서도 확인된다. 다음으로 Q4C는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에 대한 찬반의견인데 한국에서는 70%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것에 비해 일본에서는 57%가 찬성하고 있다. 결혼과 동거를 연결시키는 가치규범이 한국이 일본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결혼과 동거

[82] Family indicators, Share of birth outside of marriage(2018)
http://www.oecd.org/els/family/database.htm 2021년02월25일 접속.

그리고 출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가치규범을 공유하고 있는 반면 일본은 결혼과 출산의 연결은 강하지만 동거에 대해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허용적인 태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Q4D의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에 대한 찬반의견을 보면 한국은 약 63%의 사람들이 반대하는데 비해 일본은 약 58%가 찬성하고 있다. 한번 결혼하면 이혼하지 않고 평생 한사람과 보내야 한다는 근대가족적 가치규범이 한국이 일본보다 더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면 양국간 차이를 유형화시켜 성별 및 코호트별로 보다 자세히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음 장에서 자세한 분석에 들어가보도록 한다.

2) 내부 차이: 결혼규범 고수 vs 결혼규범 고수와 이탈의 양극화

국가별로 비교했을 때 한국인과 일본인은 결혼에 대한 가치 규범이 공통점과 함께 차이점도 크게 나타났는데 유형화시켜 보면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 한국의 유형과 일본의 유형을 따로 도출해 국가의 특징을 세밀하게 분석해보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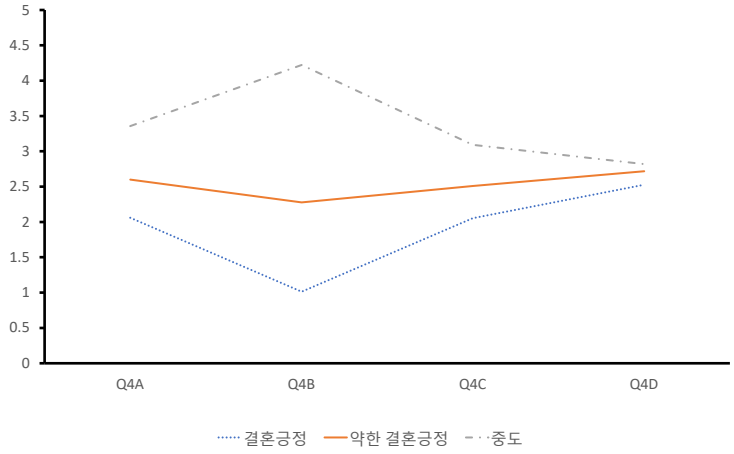
먼저 한국의 유형을 도출한다. 이 분석에서도 MPlus 7.0을 사용해 결혼가치에 대한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하였다. 적합한 계층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2집단부터 4집단까지 집단을 증가시키며AIC, BIC, ssBIC, LMRT를 확인하고 Entropy값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3개의 집단 모형을 선택했다. 모형 적합도를 설명하는 Entropy값은 0.967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한국의 결혼가치 유형을 3개 집단으로 나눴을 때 분석 대상의 각 집단 소속 비율은 각각 46.92%, 6.96%, 46.13%였다.

〈표 5-3〉 한국의 결혼가치에 대한 잠재집단 모형 적합도

Classes	N	Entropy	Criteria						
			AIC	BIC	ssBIC	LMR	LMR(P-Value)	BLRT	BLRT(P-Value)
2	1396	0.896	16603.9	16672	16631	-8555.651	0	-8555.651	0
3	**1396**	**0.967**	**16334.6**	**16428.9**	**16372**	**-8288.935**	**0**	**-8288.935**	**0**
4	1396	0.997	14113.5	14234	14234	-8149.308	0.117	-8149.308	0

다음으로 응답 패턴을 기반으로 각 잠재집단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는 〈그림5-1〉과 같으며 도출된 집단을 특징에 따라 각각 '결혼긍정', '약한 결혼긍정', '중도'로 명명한다.

〈그림 5-1〉 한국의 결혼가치에 대한 잠재집단 유형



각 유형의 응답 값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인 태도를, 점수가 낮을수록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내도록 코딩했다. 응답 패턴에 따른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자. 먼저 '결혼긍정'의 네 가지 문항에 대해 가장 점수가 낮은데 결혼 유형의 경우 큰 차이는 문항 Q4B의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해야 한다'에서 나타난다. '결혼긍정' 집단은 자녀와 결혼의 연결이 가장 강한 집단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Q4A의 '결혼한 사람이 결혼 안하는 사람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다'에 대해서도 다른 집단보다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 나머지 두 가지 문항인 동거와 이혼에 대해서는 모든 집단에서 보수적이고 특히 이혼에 대한 태도에는 집단간 큰 차이가 없다.

다음으로 '약한 결혼긍정'를 살펴보면 모은 응답에서 문항 간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중도적인 태도를 가진다. 그래도 역시 다른 문항에 비해 Q4B의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해야 한다'에서 가장 보수적인 태도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중도'를 살펴보면 다른 집단에 비해 모든 응답에서 덜 결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특히 결혼과 자녀를 연결시키는 사고에서 가장 자유로운 집단이다. 결혼가치에서는 문항마다 진보적인 가치와 보수적인 가치가 혼재하지 않고 모든 유형에서도 일관성 있는 가치규범을 내재하고 있다.

결혼과 자녀, 동거, 이혼이라는 가치관이 각각 따로 생각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가 보수적이면 다른 가치도 보수적이고 반대로 하나가 진보적이면 다른 가치도 수반되는 함께 가는 가치규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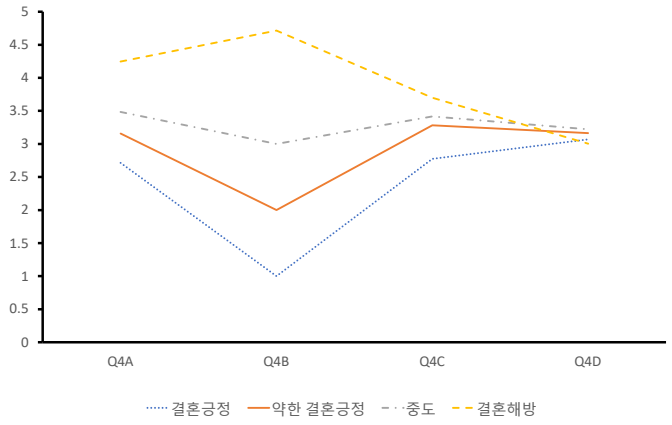
다음으로 일본의 유형을 살펴보자. 모형 적합한 계층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2집단부터 5집단까지 집단을 증가시키며AIC, BIC, ssBIC, LMRT를 확인하고 Entropy값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네 가지의 집단 모형을 선택했다. 모형 적합도를 설명하는 Entropy값은 0.977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결혼가치 유형을 네 가지 집단으로 나눴을 때 분석 대상의 각 집단 소속 비율은 각각 13.50%, 13.42%, 44.67%, 28.42%였다.

〈표 5-4〉 일본의 결혼가치에 대한 잠재집단 모형 적합도

Classes	N	Entropy	Criteria						
			AIC	BIC	ssBIC	LMR	LMR(P-Value)	BLRT	BLRT(P-Value)
2	1204	0.904	14895	14961	14920	-7744.112	0	-7744.112	0
3	1204	0.926	14566	14657	14600	-7434.312	0	-7434.312	0
4	**1204**	**0.977**	**13446**	**13563**	**13490**	**-7264.904**	**0.008**	**-7264.904**	**0**
5	1204	0.875	13399	13542	13453	-6699.981	0.0003	-6699.981	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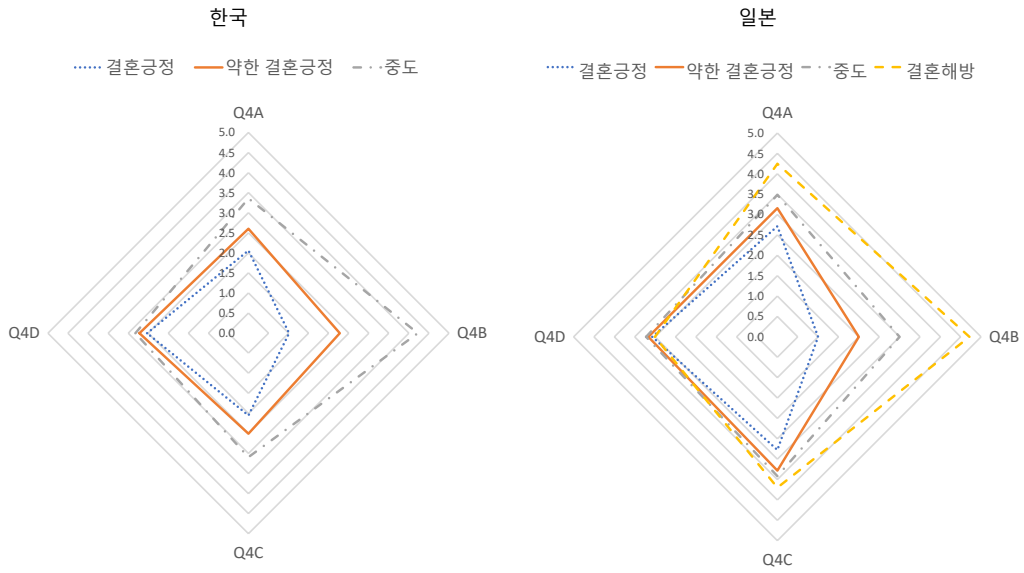
다음으로 응답 패턴을 기반으로 각 잠재집단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는 〈그림5-2〉와 같다. 〈그림5-2〉처럼 도출된 집단을 유형 특징에 따라 각각 '결혼긍정', '약한 결혼긍정', '중도', '결혼해방'으로 명명한다.

〈그림 5-2〉 일본의 결혼가치에 대한 잠재집단 유형



전체적인 경향은 한국과 비슷하게 나타나며 양국 모두Q4B의 '출산은 결혼 내에서 해야 한다'는 대한 태도가 유형 간 차이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난다. 한국과 일본의 큰 차이는 전체적으로 모든 모형의 점수가 일본이 훨씬 높다. 즉 한국이 일본보다 결혼긍정인 태도를 지닌 집단이 많다는 것이다. 일본의 '중도'와 한국의 '중도' 유형이 가장 점수가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한국에서는 일본의 '결혼해방'처럼 결혼가치가 아주 약해진 집단은 확인되지 못했다. 그리고 한국의 '약한 결혼긍정'과 일본의 '결혼긍정' 유형에서 Q4A의 '결혼한 사람이 결혼 안 하는 사람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다'의 점수가 크게 차이가 나타날 정도로 한국에서는 결혼한 사람을 행복한 사람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일본보다 강한 것이 확인된다. 한국은 Q4B의 '출산은 결혼 내에서 해야 한다'를 제외한 나머지 결혼 가치 측면에서는 일본에 비해 결혼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결혼해방'을 보면 Q4A의 '결혼한 사람이 보다 행복하다'는 것과 Q4B의 '결혼 내에서 출산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아주 진보적인 태도를 가지는 집단이다. 흥미로운 것은 일본의 '결혼해방' 집단도 동거와 이혼에 대해서는 다른 집단과 비슷한 태도를 가지며 크게 찬성하는 것도 아니다. 결혼가치는 양국이 도출된 유형이 비슷하게 나왔지만 일본이 한국보다 진보적인 모습임을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의 유형 차이를 〈그림5-3〉에서 확인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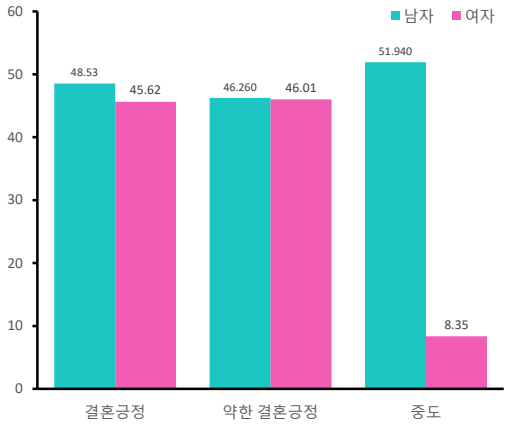
〈그림 5-3〉 한국과 일본의 결혼가치 유형



〈그림5-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전체적으로 일본이 한국보다 점수가 높아 한국에 비해 결혼에 대해 보다 덜 지향적인 가치규범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한국은 같은 '결혼긍정' 유형끼리 비교해 봐도 일본보다 훨씬 점수가 낮아 일본보다 결혼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 한국 '중도'의 특징은 일본 '중도'에 비해 결혼 긍정적인데 Q4B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해야 한다'에 대해서만 크게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이는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를 위해 결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결혼은 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생각하지만 자녀를 갖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은 아니다'고 생각하는 집단이라고 이해된다. 한국에서는 Q4A '결혼한 사람이 결혼 안하는 사람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다'와 Q4C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에 대해서는 일본에 비해 인정도가 높다. 일본처럼 이 측면에 대해 덜 인정하는 '결혼해방' 유형은 도출되지 않았다. 이상으로 한국에서는 일본에 비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남녀가 함께 살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야 하고 결혼한 사람이 안하는 사람보다 행복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자녀를 위해 결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가치규범을 가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결혼에 대한 가치규범은 네 가지 문항에 대한 각 유형별 점수 모두 한국이 일본보다 훨씬 보수적인 가치규범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과 일본의 공통점은 양국 다 이혼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가치규범을 내포하고 있다는 점에 있다. Q4D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에 대해서는 양국 모두 어떤 유형에서도 점수가 낮고 이혼에 대해 부정적이지만 한국이 보다 이혼에 대해 부정적인 가치규범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각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 비율을 비교해 보자. 다음 〈그림5-4〉는 한국의 결혼가치의 잠재집단 유형에 속하는 비율을 성별로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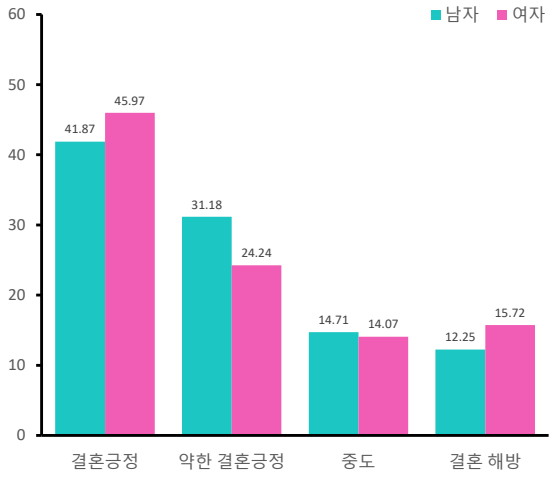
〈그림5-4〉 한국의 결혼가치에 대한 잠재집단 성별 분포



〈그림5-4〉를 보면 한국 사람의 대부분이 '결혼긍정'과 '약한 결혼긍정' 유형에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나머지 '중도'에는 남자 5.20%, 여자 8.35%밖에 속하지 않는다. '결혼긍정'과 '약한 결혼긍정'은 각각 비슷한 비율로 나머지 절반씩 차지하며 남녀 차이도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결혼긍정' 유형에 여자보다 남자가 조금 더 속하는 것은 남자가 여자보다 보수적이라고 지적해 온 기존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다음은 일본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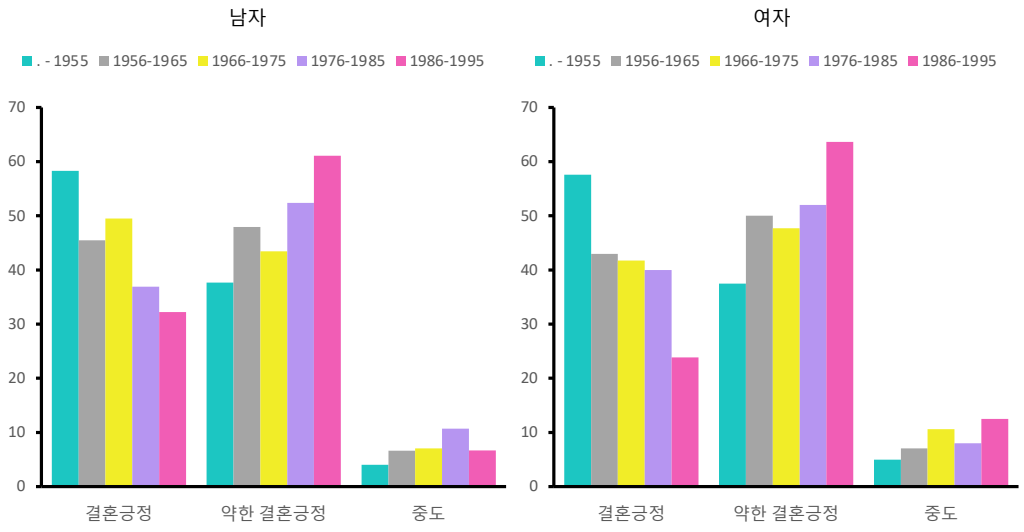
〈그림 5-5〉 일본의 결혼가치에 대한 잠재집단 성별 분포



〈그림5-5〉의 일본 결혼가치를 살펴보면 '결혼긍정'과 '약한 결혼긍정'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가장 보수적인 유형인 '결혼긍정' 유형에는 남자의 41.87%, 여자의 45.97%가 속하고 거의 절반의 사람들이 보수적인 결혼가치를 갖고 있는데 일본은 한국과 달리 남자보다 여자가 보다 보수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약한 결혼긍정'에는 여자의 24.24%, 남자의 31.18%가 속하며 '결혼긍정'과 '약한 결혼긍정'을 합친 70% 정도의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결혼가치를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5-4〉 한국의 결혼가치 유형에서 90%가 '결혼긍정'과 '약한 결혼긍정'에 속한 것을 살펴봤는데 일본은 그보다 조금 더 분산된다. 일본의 나머지 30% 정도의 사람들이 '중도'와 '결혼해방'에 속하는데 여자가 각각 15%와 16%씩 속하여 남자의 각각 14%와 12%씩에 비해 여자의 결혼가치가 약해진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에서는 '결혼긍정' 집단이 남자보다 여자가 많지만 결혼가치가 아주 약해진 '결혼해방' 유형에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이 속한다.

그러면 코호트별로 살펴보면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 먼저 한국부터 살펴보자.

〈그림 5-6〉 한국의 결혼가치 잠재집단 성별 및 코호트별 분포



〈그림5-6〉을 보자. 한국인의 절반이 속하는 '결혼긍정' 유형을 살펴보면 남자는1955년 이전 출생 코호트에서 가장 많고 1956-1965코호트에서 약간의 반전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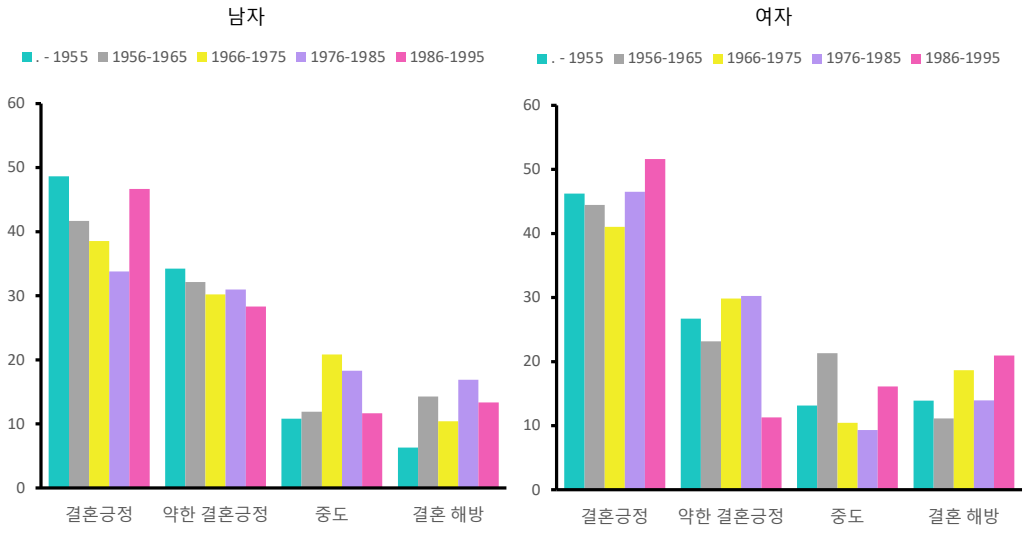
있지만 대체로 연령이 내려갈수록 '결혼긍정'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서서히 감소한다. 여자의 경우 1955년 이전 코호트에서 가장 많은 점은 남자와 같으나 남자의 경우 젊은 코호트일수록 감소하는데 비해 여자의 경우 1975년 출생 코호트까지는 40% 정도 높은 비율을 유지하다가1986-1995 출생 코호트에서 급격한 변화가 보인다. 이 코호트에서 여자는 성역할태도 및 결혼가치에 대해서도 큰 변화 추세가 확인된다.

다음으로 '약한 결혼긍정'을 보자. 남자도 여자도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코호트가 젊을수록 증가하는데 특히 1986-1995 코호트에서 증가 폭이 크고 60% 이상이 여기에 속한다(남자 61.11%, 여자 63.63%). 그 이전의 1976-1985코호트는 남녀 모두 절반 가량이 여기에 속한다(남자 52.38%, 여자 52.00%). 그 이전의 1966-1975 코호트에서는 남자의 경우 '결혼긍정'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더 많은데 여자의 경우 1956-1965 코호트부터 이미 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가장 많다.

마지막으로 '중도'에는 여자의 8%, 남자의 5%밖에 없으나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 특히 1965-1975 코호트의 여자는 10%, 1986-1995 코호트의 여자가 12.5% 여기에 속한다. 남자의 경우 88만원 세대에 해당하는 1976-1985 코호트에서 약간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확인된다. 종합적으로 결혼가치는 성별 및 세대차이가 나타나지만 성역할태도가 서서히 변화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결혼가치가 급하락한 집단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처럼 결혼가치가 약해진 '결혼해방' 같은 유형이 도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중도'에 있는 사람 또한 아주 소수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일본을 살펴보자.

〈그림 5-7〉 일본의 결혼가치 잠재집단 성별 및 코호트별 분포



일본은 〈그림5-7〉에서 확인되는 것처럼 전체적으로 '결혼긍정'과 '약한 결혼긍정' 유형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한다. 많은 기존 연구에서 여자보다 남자가 보수적인 것을 지적해 왔는데 일본의 결혼가치에 있어서는 '결혼긍정'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다. 먼저 '결혼긍정' 유형을 보자. 남자는 1955년 이전 출생 코호트에서 '결혼긍정'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으나(48.65%) 이후 세대가 젊어질수록 서서히 감소해 가는데 1986-1995 코호트에서 다시 증가한다(46.67%). 일본의 '결혼긍정' 유형은 한국의 '결혼긍정' 유형에 비해 '결혼=행복'이라고 생각하거나 '동거=결혼'이라고 생각하는 측면에 대해서는 덜 인정하는 편이지만 '출산은 결혼 내에서' 그리고 '결혼하면 이혼하면 안된다'는 가치 규범에 대해서는 비슷하게 인정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에 해당하는 1976-1985 코호트에서 '결혼긍정' 유형에 속하는 남자가 가장 크게 줄어든데(33.80%) 비해 여자의 경우는 1966-1975 코호트까지 서서히 감소했다가(41.05%) 이후 코호트부터 특히 '잃어버린 세대'에서부터 오히려 '결혼긍정' 유형이 증가하기 시작했다(46.51%). 이 코호트의 '결혼긍정' 유형에 속하는 남녀 차이는 13%정도로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 경제위기를 맞이하여 2000년 일본에서 여성의 고용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자 미혼 여성 또한 불안정한 취업 환경 속에 놓여졌다. '청년 비정규직의 증가'라는 불쌍한 청년 담론의 주인공은 남자였으나 2장에서 확인한 것처럼 남자의 비정규직은 그다지 상승하지

않았으며 피해의 주인공은 여자였다. 일본이 남자 고용을 보호하는 것으로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했으며 여자의 생애는 안정된 직업을 가지는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통해 보호되는 구조가 강화되어 갔다. 여기서 나타나는 '결혼긍정' 집단의 남녀차이는 바로 이 배경이 반영된 결과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여자보다 남자의 가치규범이 보다 보수적인데 이 세대 일본의 여자 사이에서 남자보다 결혼 긍정적인 태도가 확인되는 점은 남자보다 불안정 고용에 놓인 여자의 현실을 잘 반영한다.

흥미로운 것은 한국에서는 코호트가 젊을수록 '결혼긍정'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남녀 모두 감소하고 '약한 결혼긍정' 방향으로의 이행이 확실한데 비해 일본은 가장 젊은 1986-1995코호트에서도 '결혼긍정' 집단이 오히려 증가했으며 이 코호트에서도 남자보다 여자 사이에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집단이 많아졌다. 1986-1995 코호트는 남자의46.67%, 여자의 51.61%가 '결혼긍정'에 속한다. 일본의 미혼인구 증가는1990년대부터 가속해 가는데 2000년대에 들어서 만혼화·미혼화 현상이 2장 2절에서 확인했듯이 빠른 속도로 증가해 갔다. 2000년대에 들어 청년의 고용이 불안정화되어 가는 와중에 '아무리 미인이어도 30대 이상, 미혼, 자녀 없는 여자는 '마케이누'라는 담론이 부상되었다. 이후 야마다가 '혼활(婚活)[83]'이라는 개념을 제시해 '취활(취업활동을 줄인 말)'을 하듯이 결혼도 적극적으로 활동해야 할 수 있다'고 하자(야마다(山田)・시라카와(白河), 2008) 일본에서는 '마케이누'가 되지 않기 위한 '혼활 붐'이 일어났다. 야마다는 (연애시장이 자유화가 되기 전에는) 성인이 되면 자동적으로 주변에서 적당한 사람을 소개받고 (자유로운 연애를 하는 사회가 아니어서) 결혼할 수 있었던 시대는 지나가고 이제는 연애시장도 노동시장처럼 자유화가 되었으니 스스로 매력 있는 사람이 되고 좋은 기업에 취업하듯이 좋은 배우자를 적극적으로 찾아야 한다는 메세지를 보냈다. 이후 이 담론은 신문, 잡지에도 다수 등장해 결혼 활동을 지원하는 결혼상담소나 지방 자치체도 다수 등장했다[84]. 아사히 신문(2019. 02. 08)은 결혼 상담소나

---

[83] 구글 뉴스에서 '콘카츠(혼활)'라는 단어를 검색하면 관련 기사가 930만개 나온다(2021년6월15일 현재)). '콘카츠'는 그 만큼 일본 사람들의 관심사이자 일상 언어가 되었다.

[84] 일본 지방자치단체의 결혼지원에 대해서는 '내각부 저출산대책 결혼임신출산육아 끊어짐이 없는 지원 도도부현 결혼지원 대처'를 참조. 지방별로 많은 '혼활' 이벤트가 준비되어 있다.
https://www8.cao.go.jp/shoushi/shoushika/kekkon_ouen_pref.html

혼활 앱 이용자 중 20대가 증가하는 추세임을 소개한다.[85] 불안정한 환경 속에 놓여진 젊은 사람들이 일찍부터 안정적인 생활을 확보하려고 결혼활동에 애쓴다.[86] 본 연구의 분석 결과 또한 2000년 이후 일본에서 벌어진 여성 고용의 불안정화를 배경으로 '마케이누' 담론과 '카리스마 주부'라는 여자로서의 행복을 이겨낸 여성상의 부상, 그 속에서 등장한 '혼활 붐'이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결혼긍정'으로 회귀하는 사회분위기를 만들었고 이는 연구결과에서도 확인되는 가치변화 측면이었다. 특히 여자사이에서 남자보다 결혼을 긍정하는 집단이 증가한 것은 바로 고용불안정이 강하게 작용한 것으로 여겨진다. 2020년5월26일차 마이니치 신문은 "신형 코로나 비정규직 여성 29만명 감소, 남성은 2만명 증가(3월 노동력조사), 단신으로는 살아갈 수 없다"라는 기사를 발표해 일본 여성들이 비정규직조차 잃은 현실을 소개했다. 총무성 노동력조사에 의하면 2020년 연간 평균 완전 실업자수는 210만명으로 전년보다 28만명 증가했다. 동일 기간 남성의 비정규직 고용이 2만명 증가했는데 그에 비추어 실업자 28만명 증가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여성일 것으로 생각된다. 경제위기를 맞으면 남자고용을 지키는 것으로 여성을 고용의 조정 인재로 활용해 온 일본 기업들의 자세는 오늘날도 변화가 없다. 일본 여성들이 남자와 결혼을 통해서만이 안정적인 생활을 꾸릴 수가 있기에 젊은 여성 사이에서 결혼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화된 것은 당연한 흐름이라고 본다. 서비스업은 여성 비정규직이 대부분이었기에 음식점, 호텔, 관광 등 가장 코로나의 타격을 받은 층은 젊은 여성들이었다. 이로 인해 2020년의 자살자수는 남성이 감소한데 비해 여성은 6,976명으로 전년보다 증가했다. 경찰청 및 후생노동성 자살자 통계에 의하면 여성 자살자는2020년 7월 이후부터 증가하고 있다[87]. 여성 실업자 및 여성 자살자 증가는 경제위기 이후 한일 양국의 청년 고용이 불안정화되어 만혼화 및 미혼화 가속 추세라는

---

[85] 아사히신문 2019년2월8일. '결혼 상담소, 증가하는 20대 혼활을 앱이 도와 줌' https://www.asahi.com/articles/ASM283Q4DM28ULFA00D.html

[86] 리크루트 브라이덜 총연(総研) '혼활실태조사 2019'에 따르면 2019년에 결혼한 사람 7.7명 중 1명은 결혼정보 서비스를 이용해 결혼한 것으로 나타나 과거 최고 기록을 경신했다. 혼활 서비스는 결혼을 위한 효과적인 만남을 제공하는 수단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독신자 중 혼활 서비스 이용 경험자 비율이 증가해 4명 중 1명은 이용한 적이 있다고 대답하고 있다. https://www.recruit-mp.co.jp/news/library/20190730_1.pdf

[87] 후생노동성 자살대책 추진실, 경찰청 생활안정국 생활안전기획과 「2020년도 자살자 상황」 https://www.npa.go.jp/safetylife/seianki/jisatsu/R03/R02_jisatuno_joukyou.pdf

현상은 같으나 그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메커니즘은 전혀 다르다는 점이 본 연구를 통해 밝혀졌다. '청년 고용이 불안정하기에 결혼을 안한다/못한다'라는 표면적인 관찰만으로는 한일 사이에서 벌어지는 인구변동의 속도 차이를 설명하지 못해왔다고 본다. 그 메커니즘을 만들어 내는 주체인 청년들의 가족을 바라보는 태도 차이가 분석결과에 잘 반영되어 있었다. 물론 한국이 일본보다 결혼에 대해 대체로 보수적인 태도를 지니지만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결혼지향에서 벗어난 방향으로 이행해 가는 점이 확인되었는데 일본은 오히려 '결혼지향'적인 집단이 여성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 양국의 가족변동을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차이점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결혼해방'을 살펴보면 젊은 세대 남자는 1976-1985 코호트에서는 다른 세대보다 많이 속해 있음에 비해 같은 세대 여성은 남자보다 비율이 낮다. '잃어버린 세대'인 이 코호트는 불안정한 고용환경 탓에 여자 사이에서는 보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집단이 늘어나는 반면 남성은 여성보다 오히려 결혼지향에서 벗어나는 모습이 확인된다. 남성부양자 모델이 살아있는 일본에서는 남자는 안정적인 직업이 있어야 배우자로 선택되므로 일부 안정적인 직업을 가질 수 없는 남자 사이에서는 결혼지향성이 떨어진 것으로 이해된다. 가장 젊은 1986-1995 코호트에서는 남성보다 여성 사이에서 '결혼해방'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많다. 흥미로운 것은 이 코호트 여자는 절반 이상이 '결혼긍정' 유형에 속하지만 나머지는 '결혼해방'에도 20%, '중도'에도 16%가 속해 결혼을 긍정하는 집단과 결혼가치가 약화된 집단으로 태도가 갈라지는 점이 확인된다. 한국은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에 있어서 나이가 젊을수록 '성역할평등', '결혼 비지향'이라는 하나의 방향으로 향하는 데 비해 일본은 같은 세대 내에서도 변화의 방향이 갈라진다.

2절. 결혼가치 유형과 사회인구학적 특징

1) 한국: 고학력자도 결혼규범 고수

이 절에서는 위에서 도출된 결혼가치의 잠재집단별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 3장 2절의 성역할태도에서 사용한 Vermunt(2010)가 제시한 3단계 추정법(3-Step Approach)을 적용해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성별,

코호트, 교육수준, 수입, 혼인 상태, 현재 고용상태, 어린시절 어머니 취업 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 각 변수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의 결과부터 확인하자.

〈표 5-5〉 한국의 결혼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3단계 추정법을 적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결혼긍정 vs 약한 결혼긍정 (1)	결혼긍정 vs 중도 (2)	중도 vs 약한 결혼긍정 (3)
교육수준	(Ref=중졸)			
	고졸	.362+ (.211)	.349 (.410)	.013 (.413)
	2년제 졸업	.414 (.304)	-.020 (.645)	.434 (.637)
	4년제 졸업	.361 (.253)	.294 (.485)	.068 (.489)
수입		-.444 (.616)	-1.583 (1.259)	1.138 1.244
현재고용상태	(Ref=임금노동자)			
	전업주부	-.113 (.223)	-.210 (.426)	.097 (.420)
	무직	.018 (.258)	-.680 (.706)	.698 (.681)
	학생	-.290 (.412)	-.418 (.636)	.128 (.581)
혼인상태	(Ref=기혼)			
	미혼	.584* (.277)	.606 (.468)	-.022 (.445)
	이혼/사별	-.413+ (.247)	.643 (.412)	-1.055* (.416)
어린시절 어머니 취업 여부	(Ref=취업했음)	.077 (.142)	.464+ (.271)	-.387 (.266)
성별	(Ref=남자)	.308* (.154)	.845** (.281)	-.537* (.273)
코호트	(Ref=.-1955)			
	1956-65	.486* (.207)	1.973** (.624)	-1.488* (.627)
	1966-75	.467* (.238)	2.618*** (.649)	-2.150*** (.653)
	1976-85	.588* (.292)	2.438*** (.756)	-1.850* (.752)
	1986-95	.967* (.460)	2.984*** (.920)	-2.016* (.877)

Note. N of observation = 1,394.
*** p < .001, ** p < .01, * p < .05, + p < .10

한국의 결혼가치 잠재집단은 총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고 〈표5-5〉는 종속변수인 유형의 유형 간 비율비(Percentage Raito)의 대수(Log Odds)에게 예측 변수가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본 것이다. 결과 (1)은 결혼가치가 '결혼긍정'과 '약한 결혼긍정'을 비교한 것이며 준거집단은 '결혼긍정' 유형이다. 결과 (2) 또한 준거집단을 '결혼긍정'에 둔 '결혼긍정'과 '중도' 유형의 비교이며, (3)은 준거집단을 '중도' 유형에 둔 '중도'와 '약한 결혼긍정'과의 비교 결과이다.

여기서는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사람과 덜 지향적인 사람 차이를 설명하는 인구학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1)과 (2)의 결과에 대해 기술한다. 먼저 결혼가치가 '결혼긍정'과 '약한 결혼긍정'을 비교한 결과 (1)을 보면 '결혼긍정'보다 '약한 결혼긍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기혼자에 비해 미혼자가 1.79배(=exp(.58)),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취업한 사람에 비해 취업 안한 사람이 1.08배(=exp(.077)), 남자에 비해 여자가 1.36배(=exp(.3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호트 효과를 보면 1955년 이전 출생 코호트에 비해 1956-1965년 코호트가 1.63배(=exp(.49)), 1965-1975년 코호트가 1.59배(=exp(.47), 1976-1986년 코호트가 1.80배(=exp(.59)), 1986-1995년 코호트가 2.63배(=exp(.97))로 연령이 낮아질수록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미혼, 여성, 어머니가 전업주부였던 사람, 젊을수록 덜 '결혼긍정'적인 가치로 이행하는 것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결혼긍정' 유형과 '중도' 유형을 비교한 결과 (2)를 확인하면 '결혼긍정'보다 '중도'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취업한 사람에 비해 취업 안한 사람이 1.59배(=exp(.46)), 여자가 2.33배(=exp(.85)), 1956-1965년생이 7.19배(=exp(1.97), 1966-1975년생이 13.71배(=exp(2.62), 1976-1985년생이 11.45배(=exp(2.44), 1986-1995년생이 19.77배(=exp(2.98)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서는 결혼가치가 가장 긍정적인 집단과 덜 긍정적인 집단을 비교하고 있기에 코호트 효과가 더욱 더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1986-1995년생은1955년 이전세대보다 무려 20여배나 결혼에 대해 덜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 것이 확인되었다.

정리하면 한국에서는 여성, 어머니가 전업주부, 그리고 연령이 젊어질수록 결혼가치가 덜 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일본: 여성 사이에서의 결혼가치 양극화

한국에서 사용한 동일한 방법으로 일본에 대해서도 3단계 추정법을 적용해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일본에서는 위에서 확인한 사회인구학적 특징이 잠재집단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까? 일본의 결과를 확인해 보도록 하자.

〈표 5-6〉 일본의 결혼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3단계 추정법을 적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결혼긍정 vs 약한 결혼긍정	결혼긍정 vs 중도	결혼긍정 vs 결혼해방	약한 결혼긍정 vs. 중도	약한 결혼긍정 vs 결혼해방	결혼해방 vs 중도
		(1)	(2)	(3)	(4)	(5)	(6)
교육수준	(Ref=중졸)						
	고졸	.479+ (.282)	.250 (.321)	-.255 (.346)	-.229 (.363)	-.734 (.385)	.505 (.413)
	2년제 졸업	.224 (.329)	.000 (.402)	-.319 (.420)	-.224 (.445)	-.543+ (.462)	.319 (.512)
	4년제 졸업	.715* (.326)	.252 (.394)	.148 (.419)	-.463 (.435)	-.567 (.458)	.104 (.507)
수입		-.735 (.471)	-1.297+ (.684)	-1.374+ (.605)	-.563 (.711)	-.639 (.648)	.077 (.824)
현재고용상태	(Ref=임금노동자)						
	전업주부	.087 (.249)	-.368 (.323)	-.468 (.347)	-.455 (.336)	-.555 (.359)	0.100 (.411)
	무직	-.458+ (.274)	-.485 (.381)	-.467 (.368)	-.027 (.407)	-.010 (.401)	-.017 (.485)
	학생	-.114 (.487)	.237 (.513)	-.555 (.700)	.351 (.582)	-.441 (.741)	.792 (.767)
혼인상태	(Ref=기혼)						
	미혼	.370 (.268)	.126 (.324)	.253 (.351)	-.244 (.329)	-.117 (.364)	-.127 (.410)
	이혼/사별	.206 (.294)	.018 (.364)	.025 (.399)	-.188 (.381)	-.182 (.423)	-.006 (.470)
어린시절 어머니 취업 여부	(Ref=취업했음)	.262 (.179)	.331 (.237)	-.094 (.232)	.070 (.250)	-.355 (.246)	.425 (.289)
성별	(Ref=남자)	.337 (.180)	.821*** (.242)	.621* (.244)	.484+ (.254)	.284 (.257)	.201 (.304)
코호트	(Ref=.-1955)						
	1956-65	.496+ (.255)	.218 (.371)	.842* (.352)	-.279 (.373)	.345 (.363)	-.624 (.444)
	1966-75	.242 (.248)	.474 (.324)	.589 (.337)	.232 (.341)	.347 (.354)	-.115 (.411)
	1976-85	-.110 (.301)	.397 (.358)	-.108 (.439)	.507 (.392)	.002 (.470)	.505 (.515)
	1986-95	.176 (.407)	.235 (.512)	.433 (.617)	.058 (.545)	.256 (.645)	-.198 (.714)

Note. N of observation = 1,200.
*** p < .001, ** p < .01, * p < .05, + p < .10

일본의 결혼가치 잠재집단은 총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고 〈표5-6〉에 그 분석결과를 제시한다. (1)은 결혼가치가 '결혼긍정' 유형을 준거집단으로 두고 '결혼긍정'과 '약한 결혼긍정'의 비교 결과, (2)는 준거집단을 '결혼긍정'에 두고 '결혼긍정'과 '중도'를 비교한 결과이며, (3)은 '결혼긍정'을 준거집단으로 두고 '결혼긍정'과 '결혼해방'을 비교한 결과이다. 준거집단을 '약한 결혼긍정'에 두고 '약한결혼긍정'과 '중도'의 비교 결과가 (4), 준거집단을 '약한 결혼긍정'에 두고 '약한 결혼긍정'과 '결혼해방'과의 관계를 본 것이 결과 (5)이다. 마지막으로 '중도'를 준거집단에 두고 '결혼해방'과 '중도'와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 결과 (6)이다.

여기서도 결혼가치가 긍정적인 집단과 약해진 집단과의 차이를 알아내는 것이 연구목적이기 때문에 연구결과(1), (2), (3)의 결과에 대하여 해석한다. 먼저 결혼가치가 '결혼긍정'과 '약한 결혼긍정'을 비교한 결과인 (1)을 살펴보자. 결혼가치가 '결혼긍정'보다 '약한 결혼긍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집단은 중졸에 비해 고졸이 1.61배(=exp(.48)), 대졸이 2.044배(=exp(.72)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코호트 효과는 5%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나머지 변수에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나 10% 수준으로 봤을 때에는 임금노동자에 비해 무직인 사람이 (0.63배,

=exp(-.46)) ‘결혼긍정’보다 ‘약한 결혼긍정’에 속하는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여기서는 ‘결혼긍정’보다 약간 결혼가치가 떨어지는 집단은 학력상승과 함께 가능성이 증가하여 직업이 없으면 낮아지는 것으로 요약된다.

다음으로 ‘결혼긍정’과 ‘중도’를 비교한 결과 (2)를 보면 5% 수준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보이는 설명변수는 성별 차이에서만 나타났고 남자에 비해 여자가 2.27배(=exp(.82) ‘결혼긍정’ 유형보다 ‘중도’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면 결혼가치가 가장 지향적인 집단과 가장 덜 지향적인 집단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 ‘결혼긍정’ 유형과 ‘결혼해방’ 유형을 비교한 결과 (3)을 살펴보자. 남자에 비해 여자가 1.86배(=exp(.62), 1955년 이전 코호트에 비해 1956-1965년생이 2.32배(=exp(.84)) ‘결혼긍정’ 유형보다 ‘결혼해방’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수입이 높을수록 ‘결혼긍정’ 유형보다 ‘결혼해방’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결과도 나왔으며(0.25배, =exp(-1.37) 일본에서는 수입이 높으면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를 지닌다는 점이 확인된다.

한국에서는 어떤 유형과 유형을 비교해도 성별 및 코호트 차이가 확실히 나타났던 것에 비해 일본은 코호트차이는 거의 영향력이 없었으며 연령이 낮아질수록 결혼가치가 덜 지향적인 경향이 확인되지 않았다. 오히려 1956-1965년생만이 다른 코호트보다 결혼가치가 약화된 집단이었다. 또 한국에서 제시된 결과와 마찬가지로 학력수준은 결혼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아니었다. 수입이 높을수록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결혼가치를 지닌다는 점은 한국에서 나타나지 않았던 결과였고 일본에서는 경제적인 여유가 있는 집단에서 결혼에 대해 보다 지향적인 가치를 지닌 것을 보여진다.

3절. 소결

결혼가치에 대한 네 가지 문항을 사용해 한국과 일본의 결혼에 대한 가치규범을 유형화시킨 결과 한국에서는 ‘결혼긍정’, ‘약한 결혼긍정’, ‘중도’ 유형의 세 가지, 일본에서는 ‘결혼긍정’, ‘약한 결혼긍정’, ‘중도’, ‘결혼해방’의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전체적으로 모든 유형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결혼한 사람이 결혼 안 하는 사람보다 대체로 더 행복하다’라는 가치 규범이

한국에서는 아주 강하게 나타났고 가장 결혼 긍정적인 '결혼긍정' 유형을 양국간 비교해 봐도 한국이 일본보다 더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다. 그리고 '결혼할 의사가 없이 함께 사는 것도 괜찮다'에 대한 가치규범 역시 한국이 일본보다 부정적이었고 함께 살려면 결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했다. 한국과 일본은 이혼에 대해서는 모두 부정적인 태도를 공유하고 있어 '부부 사이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이혼하는 것이 가장 좋은 해결책이다'에 대해서는 일본 또한 부정적이지만 한국에서 일본보다 대체로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자녀를 원하는 사람은 결혼해야 한다'에 대해서는 한국의 '결혼지긍정'과 일본의 '결혼긍정'이 모두 비슷한 수준으로 동의하고 있는데 한국에서는 다른 세 가지 측면에서 일본보다 보수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이 문항에 대해서만 매우 진보적(부정적)이었다. 즉 한국의 '중도' 유형은 결혼과 출산을 연결시키는 가치규범에 대해서만 다른 결혼가치 측면에 비해 극단적으로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코호트별로 보면 한국에서는 나이가 젊을수록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가 약해지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그렇다고 해도 한국에서는 결혼가치가 그다지 약해진 것은 아니고 변화의 방향만 확실하지 일본에 비해서는 대체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규범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결혼에 대한 긍정적이 가치가 떨어진 '중도'에 속하는 비율은 10%정도에 불과했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결혼가치가 약해졌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결혼긍정'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1986-1995년생 여성 사이에서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반면 일본은 한국 여자와는 대조적으로 '결혼긍정' 유형에 속하는 집단이 남자보다 여자 사이에서 많고 1976-1985년생부터 증가해 1986-1995년생 사이에서 어느 코호트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그러나 반면에 결혼가치가 완전히 약해진 '결혼해방' 유형에 속하는 여자도 일부 1985-1996년생 사이에서 증가했으며 결혼가치가 약해진 집단과 지향적인 집단으로 갈라졌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한국에서는 어떤 유형과 유형을 비교해도 코호트 및 성별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미혼, 여성, 코호트가 젊을수록 덜 '결혼긍정'적인 가치를 지니는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아질수록 결혼긍정적인 태도를 덜 지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고 '결혼해방'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여자, 1956-1965년생였으며 반면에 수입이 높아질수록 '결혼해방'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한일 젊은이들이 결혼에 대하여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점이 확인되었다. 기존 연구에서는 결혼의 변화를 둘러싸고 일부 논자는 경제적인 이유로 결혼을 못하는 사람이 증가했다고 보고(비자발적), 일부 논자는 여자가 스스로 하지 않게 되었다고 보고(자발적) 대립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즉 '한국에서는 탈가족주의적 가치지향이 발견되지 않는다'고 보거나(박경숙·김영혜·김영숙, 2005; 은기수, 2006; 박기남, 2011; 장경섭, 2011, 성미애, 2014; 최필선·민인식, 2015; Chang and Song, 2010) 오히려 과거보다 결혼에 대한 중요한 의미부여가 강화되었다(이재경 · 김보화, 2015)고 보는 입장이다. 대립하는 입장은 서구의 후기 근대적 모습처럼 개인주의의 확산으로 인해 결혼을 안하는 사람이 증가했다고 보고 결혼 해방, 여성의 반박으로 보는 입장에서는 '결혼으로부터 벗어나기(Retreat from Marriage)'로 파악한다(우해봉, 2009; 유홍준·현성민, 2010). 그런데 아직까지는 결혼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며 일부 만혼화·미혼화가 관찰되더라도 모든 여성이 같은 가치가치를 지니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코호트별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에 차이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코호트 내에서도 가치관 차이가 확인되었는데 이 두가지 입장은 서로 일리가 있는 부분이다. 그런데 전체 거시적인 동향으로는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결혼으로부터 벗어나기'적인 태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일부 결혼가치가 약해진 집단이('중도') 확인되었으나 전체의 10%에 불과했고 일본처럼 완전히 결혼가치가 약해진 '결혼해방' 집단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결혼가치가 약해지지는 않았으나 덜 결혼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집단이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증가한 것은 확인되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1986년 이후 출생 코호트를 중심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를 지닌 집단이 증가했으며 '결혼으로부터 벗어나기'가 아닌 '결혼으로 돌아가기'적인 태도가 관찰되었다. 반면 같은 코호트 내 젊은 여성 사이에서 '결혼해방' 유형에 속하는 집단도 증가해 변화의 방향이 하나가 아니었다.

제6장. 자녀가치 한일비교

1절. 자녀가치 유형

1) 한일 유형: 양육은 인생의 부담 vs 양육은 인생의 기쁨

이 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자녀에 대한 가치규범을 비교한다. 분석에 사용한 문항을 다시 확인하면 다음 〈표 6-1〉과 같다.

〈표 6-1〉 자녀가치에 대한 질문

Q7A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
Q7B	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자유는 너무 많이 제약된다.
Q7C	자녀를 가지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크다.
Q7D	자녀를 가지면 부모의 커리어 기회가 제한된다.
Q7E	자녀가 있으면 사회적 지위 상승에 도움이 된다.
Q7F	성인이 된 자녀는 노후 생활에 중요한 도움을 주는 존재다.

문항을 보면 Q7A, Q7E, Q7F는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묻고 있고 Q7B-Q7D는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에 대해 묻고 있다. 그리고 Q7A는 순수하게 자녀가 있는 그 자체에 대해 긍정적인 가치부여를 하고 있다면 Q7E와 Q7F는 자녀의 도구적인 가치를 묻고 있다. Q7B-Q7D는 각각 자녀가 있으면 자유, 경제적, 커리어가 제한된다는 것에 대해 동의하는지 물어보는 질문이다. 한국과 일본의 응답 패턴을 살펴보자.

다음 〈표 6-2〉 한국과 일본의 차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5단계 응답을 찬성과 반대의 두 항목으로 재구성했으며 절반을 넘는 의견에 대해 굵은 글자로 표시했다.

〈표 6-2〉 자녀가치에 대한 찬반의견 한일 비교

한국	Q7A	Q7B	Q7C	Q7D	Q7E	Q7F
찬성	94.08	66.34	64.37	66.18	59.36	73.86
반대	5.92	33.66	35.63	33.82	40.64	26.14
일본						
찬성	93.42	44.20	50.48	51.74	57.56	87.59
반대	6.58	55.80	49.52	48.26	42.44	12.41

먼저 첫번째 문항인 Q7A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에 대한 찬반의견을 보면 한국(94.08%)이나 일본(93.42%) 모두 자녀가 가져다 주는 순수한 즐거움에 대해 대부분 동의한다. 양국간의 차이가 나는 부분은 다음 질문이다. Q7B '자녀가 있으면 부모의 자유는 너무 많이 제약된다'에 대한 찬반의견을 보면 한국이 약 66%가 찬성하는 것에 비해 일본은 약 56%가 반대하고 있어 일본보다 한국에서 자녀가 부모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Q7C '자녀를 가지는 것은 경제적 부담이 크다'에 대한 찬반의견을 보면 한국이 약64%가 찬성, 일본도 약 50%가 찬성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이 문항에 대해서는 완전히 절반으로 의견이 나뉘는 것에 비해 한국에서는 보다 찬성하는 사람들이 많아 자녀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일본보다 크게 느끼는 사람들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Q7D '자녀를 가지면 부모의 커리어 기회가 제한된다'에 대해서도 한국의 약 66%가 찬성, 일본은 약 52%가 찬성하고 있다. 이 세 가지 질문에서 한국이 일본보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느끼는 사람이 많고 커리어나 자유가 제한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Q7E '자녀가 있으면 사회적 지위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문항에서는 자녀를 통해 본인 지위 상승을 의도하는 사람들이 한국(59.36%) 이나 일본(57.56%) 모두 절반 이상 동의한다. 마지막으로 Q7F '성인이 된 자녀는 노후 생활에 중요한 도움을 주는 존재다'라는 자녀의 또 다른 도구적인 측면에 대해 한국인(73.89%)보다 일본인(87.59%)이 찬성하는 사람이 많다.

다음은 이러한 거시적인 국가간 차이를 유형화시켜 나라별, 성별, 코호트별로 보다 자세히 비교해 보도록 하자. 다음 장에서 자세한 분석에 들어가보도록 한다.

2) 내부 차이: 자녀 불필요 vs 자녀 필요

〈표 6-2〉에서 확인했듯이 국가 차이에 대해 거시적으로 빈도분석한 결과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자녀가치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처럼 나타났다. 각 나라별로 응답 패턴을 잠재집단분석을 통해 유형화 시켜보면 어떤 차이가 나타날까? 혹은 빈도분석 결과처럼 아주 비슷하게 나타날까? 자녀가치 분석에 있어서도 질문에 대한 응답은 1점에서 5점으로 대답하고 있어서 점수를 연속변수로 취급해 '강하게 찬성'인지 그냥 '찬성'인지의 차이까지 연구결과에 반영되도록 자료의 장점을 그대로 살려서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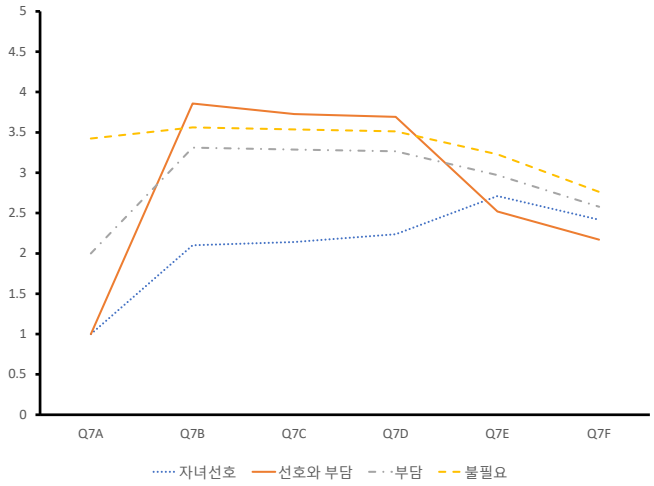
먼저 한국의 유형을 도출한다. 자녀가치에 대한 분석에서도 MPlus 7.0을 사용해 동일하게 잠재집단분석(LPA)을 실시했다. 적합한 집단수를 선택하기 위하여 2집단부터 6집단까지 집단을 증가시키며AIC, BIC, ssBIC, LMRT 값을 확인하고 Entropy값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네 가지의 집단 모형을 선택했다. 여기서 종합적인 값으로 판단할 때 다섯 가지 유형도 고려했으나 네 가지로 했을 때와 다섯 가지로 했을 때 도출되는 모형이 굳이 복잡하게 구별할 필요가 없는 아주 유사한 모형이 하나 증가했을 뿐인 점과 다섯 번째 유형에 속한 사람이 전체의 5%밖에 되지 않는 점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네 가지 모형을 선택했다. 네 가지 모형을 선택했을 때도 모형 적합도를 설명하는 Entropy값은 0.929로 아주 높게 나타난다. 한국의 결혼가치 유형을 네 가지 집단으로 나눴을 때 분석 대상의 각 집단 소속 비율은 각각 16,28%, 29.91%, 39.60%, 14.20%였다.

〈표 6-3〉 한국의 자녀가치에 대한 잠재집단 모형 적합도

Classes	N	Entropy	Criteria						
			AIC	BIC	ssBIC	LMR	LMR(P-Value)	BLRT	BLRT(P-Value)
2	1396	0.824	24074.5	24174.1	24114	-12381.078	0	-12381.078	0
3	1396	0.841	23742.3	23878.5	23796	-12018.27	0	-12018.27	0
4	1396	0.929	23196.5	23369.4	23265	-11797.922	0	-11797.922	0
5	1396	0.94	20503.4	20713	20586	-10444.706	0	-10444.706	0
6	1396	0.932	20280.1	20526.3	20377	-10211.718	0.0001	-10211.718	0

다음으로 응답 패턴을 기반으로 각 잠재집단이 어떠한 특징을 보이는지 분석한 결과는 〈그림 6-1〉과 같으며 도출된 집단을 특징에 따라 각각 '자녀선호', '선호와 부담', '부담', '불필요'로 명명했다.

〈그림 6-1〉 한국의 자녀가치에 대한 잠재집단 유형



각 유형의 응답 값은 점수가 높을수록 진보적인 태도를, 점수가 낮을수록 보수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응답 패턴에 따른 유형의 특징을 살펴보자. 먼저 '자녀선호'는 이 자녀에 대한 총 여섯 가지 문항에 대해 전체적으로 모두 낮은 점수인 집단이며 나머지 세 가지 유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경제적, 커리어적, 시간적)을 가지지 않는 유일한 집단이다. 모든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집단이라 '자녀선호'라고 명명했다.

다음은 '선호와 부담' 유형을 살펴보자. 이 유형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측면에 대해서는 어느 유형보다 높게 동의하고 있다. 즉 자녀가 있는 그 자체가 가져다 주는 행복을 높게 평가(Q7A)하는 동시에 자녀의 도구적인 측면 즉 자녀가 있으면 본인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Q7E)하거나 노후에 도움이 된다(Q7F)는 문항 모두 어느 집단보다 높게 동의하고 있다. 반면 자녀의 부정적인 측면-경제적인 부담(Q7C)과 자유 제한(Q7B), 커리어 방해(Q7D)-에 대해서도 동시에 어느 집단보다 높게 인정하고 있다. 이 유형의 특징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와 부정적인 가치를 동시에 어느 집단보다 높게 느끼고 있는 '자녀선호'와 '부담'이 공존하는 집단이라 '선호와 부담'으로 명명했다.

다음으로 '부담' 유형을 살펴보도록 하자. 이 유형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직전에 살펴본 두가지 유형보다 덜 인정하는 가치관을 가지는 집단이다. 그리고 자녀 양육에 대한 부담감도 높게 느끼고 있다. 한국에서는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은 '자녀선호' 유형을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집단에서 높게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덜 느끼고 부정적인 가치를 높게 느끼고 있는 유형이라 '부담'이라고 명명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 유형을 보자. 이 집단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가 가장 낮고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에 대하여 다른 유형과 달리 유일하게 전혀 인정하지 않는 집단이다. 나머지 자녀의 도구적인 측면에 대해서도 그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다. 하지만 동시에 자녀의 부정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강하게 인정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는 '자녀선호'와 '부담' 유형이 가장 높게 느끼고 있으나 '불필요' 유형에서도 부담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다. 종합적으로 이 집단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 가치를 느끼지 못하고 부정적인 가치를 느끼고 있는 집단이라 자녀가치 '불필요' 유형이라고 명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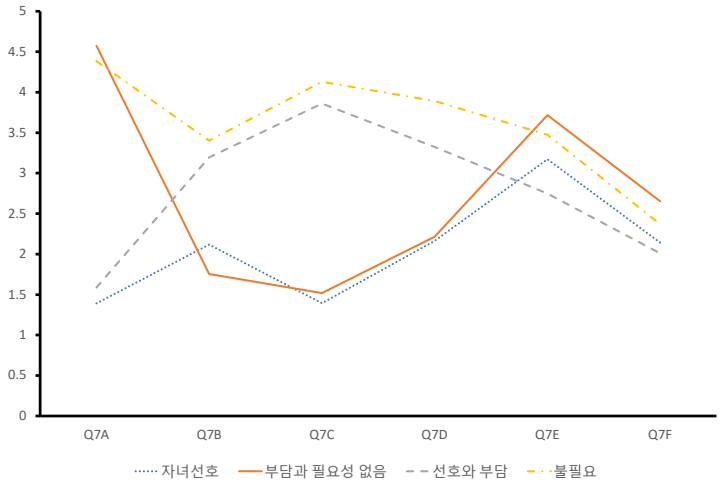
다음 〈표 6-4〉에서 일본의 유형 선택 기준값을 살펴보자. 모형 적합한 계층수를 파악하기 위하여 2집단부터 6집단까지 집단을 증가시키며AIC, BIC, ssBIC, LMRT를 확인하고 Entropy값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네 가지의 집단 모형을 선택했다. 모형 적합도를 설명하는 Entropy값은 0.903으로 아주 높게 나타났다. 일본의 결혼가치 유형을 네 가지 집단으로 나눴을 때 분석 대상의 각 집단 소속 비율은 각각 38.82%, 1.92%, 55.34%, 3.92%였다.

〈표 6-4〉 일본의 자녀가치에 대한 잠재집단 모형 적합도

Classes	N	Entropy	Criteria						
			AIC	BIC	ssBIC	LMR	LMR(P-Value)	BLRT	BLRT(P-Value)
2	1204	0.849	21654	21751	21690	-11183.315	0	-11183.32	0
3	1204	0.858	21321	21453	21370	-10808.049	0.0003	-10808.05	0
4	1204	0.903	21186	21354	21249	-10634.258	0.0033	-10634.26	0
5	1204	0.882	21042	21246	21119	-10560.141	0.0031	-10560.14	0
6	1204	0.867	20881	21120	20970	-10481.174	0.0006	-10481.17	0

다음으로 응답 패턴에 기반하여 각 잠재집단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는지 분석한 결과는 〈그림 6-2〉와 같으며 도출된 집단을 유형 특징에 따라 각각 '자녀선호', '부담과 필요성 없음', '선호와 부담', '불필요'로 명명한다.

〈그림 6-2〉 일본의 자녀가치에 대한 잠재집단 유형



일본의 응답 패턴에 따른 유형의 특징을 확인하자. 먼저 '자녀선호'는 자녀에 대한 총 여섯 가지 문항에 대해 Q7E, Q7F를 제외하면 모든 문항에서 가장 점수가 낮은 보수적인 가치를 가지는 집단이다. 이 유형은 '부담과 필요성 없음' 유형과 함께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경제적인 부담(Q7C)과 자유 제한(Q7B), 커리어 방해(Q7D)-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부정하는 집단이다. '자녀선호' 유형은 자녀가치에 대한 모든 가치 측면에서 자녀에 대한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부담과 필요성 없음' 유형에서는 Q7A의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라는 문항에 대해 가장 강하게 반대의견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면서 나머지 문항에 대해서는 '자녀선호'와 비슷한 대답 패턴을 보이는데 자녀에 대한 도구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가장 반대의견이 강하다. 즉 자녀에 대한 부담감은 느끼지 않으나 자녀에 대한 필요성 또한 느끼지 않아 '부담과 필요성 없음' 유형이라고 명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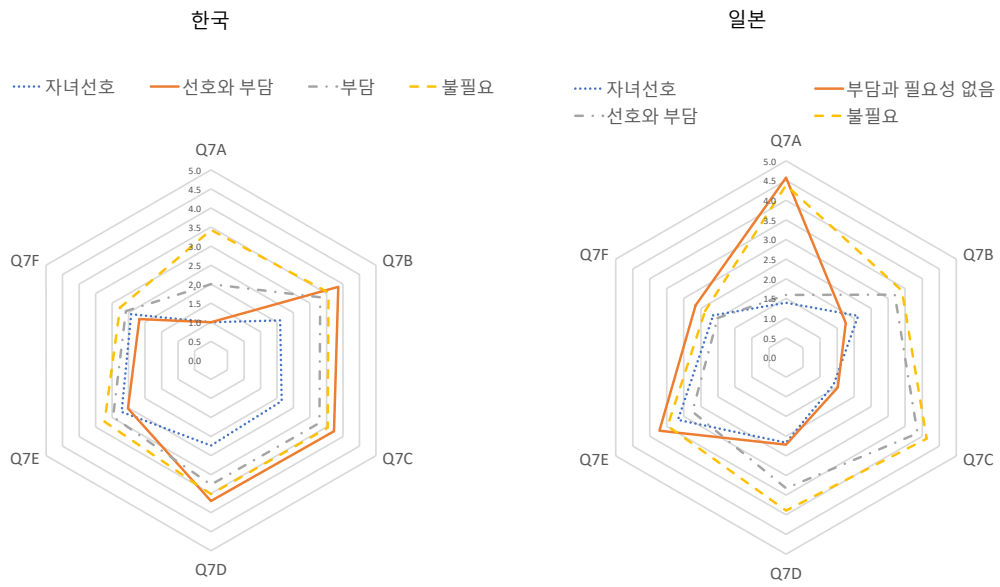
나머지 두가지 유형은 자녀에 대한 부담감이 강한 유형이다. '선호와 부담' 유형을 살펴보면 자녀가 있으면 자유가 제한되거나(Q7B) 커리어에 방해가 되거나(Q7D) 경제적으로 부담된다(Q7C)는 문항에 대해 모두 높게 동의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 집단은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모두 강하게 찬성하고 있어 부정적인 측면과 긍정적인 측면에 대해 동시에 인정하는 자녀 선호적인 가치와 부담감이 공존하고 있어 '선호와 부담'으로 명명했다.

마지막으로 '불필요' 유형을 보면 자녀에 대한 여섯가지 가치 측면에 대하여 모든 덜 자녀지향적인 대답을 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도 별로 느끼지 않고 부담감은 어느 유형보다 강하게 느끼고 있어 자녀가치 '불필요'라고 명명했다.

한국과 일본의 유형 차이를 〈그림 6-3〉에서 자세히 비교해 보자.

〈그림 6-3〉 한국의 자녀가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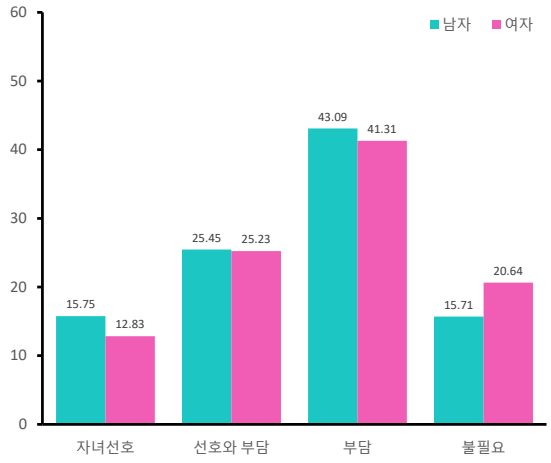


〈그림6-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한국과 일본 유형의 큰 차이는 한국에서는 '자녀선호'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자녀에 대한 부정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집단이 대부분이고 Q7B-Q7D의 점수가 전체적으로 모두 높은데 비해 일본에서는 이 세가지 문항 중 자녀의 존재가 부모의 자유를 제한한다(Q7B)는 문항에 대한 찬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자녀를 가장 덜 선호하는 '불필요' 유형에서도 이 점수는 낮다. 그리고 같은 '자녀선호' 유형끼리 비교해 봤을 때 두 나라에서 점수에 큰 차이가 나는 부분은 경제적인 부담감(Q7C) 그리고 '자녀가 있으면 사회적 지위 상승에 도움이 된다'는 항목이다(Q7E).

한국의 자녀선호 유형은 일본보다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감을 강하게 느끼고 있고 동시에 자녀가 본인 지위 상승을 위한 도구적 가치임에 동의하는 경향이 강하다. 기타 나머지 유형에서도 한국이 일본에 비해 자녀의 도구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Q7E). 그리고 양국의 '불필요' 유형을 비교해 보면 한국은 일본형 '불필요' 유형에 비해 자녀에 대한 순수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Q7A의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큰 즐거움이다'에 대해서 비교적 높게 인정하고 있다. 자녀에 대한 도구주의적인 성격 중 자녀가 있으면 본인이 빛난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한국에서 보다 강하고(Q7E) 자녀가 노후생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경향은 일본에서 더 강하다(Q7F).

다음으로 각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 비율을 비교해 보자. 다음 〈그림 6-4〉는 한국의 자녀가치의 잠재집단 유형에 속하는 비율을 성별로 나타낸 것이다.

〈그림 6-4〉 한국의 자녀가치에 대한 잠재집단 성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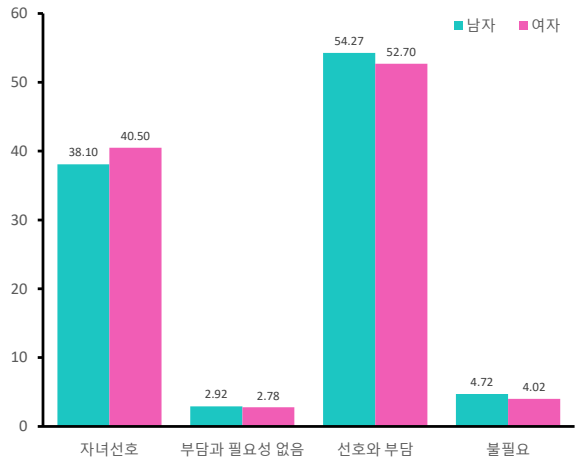


〈그림 6-4〉를 보면 한국에서 '부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선호와 부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가지 유형에 전체의 60% 이상이 속한다. 나머지 '자녀선호'와 '불필요' 유형에는 각각 16%, 18% 정도씩 속하는데 '자녀선호'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가장 적다. 남녀차이를 살펴보면 '자녀선호'와 '선호와

부담' 그리고 '부담' 유형에서는 여성보다 남성이 더 많지만 '불필요' 유형에서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아 남성보다 여성 사이에서 자녀가치가 약해진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은 일본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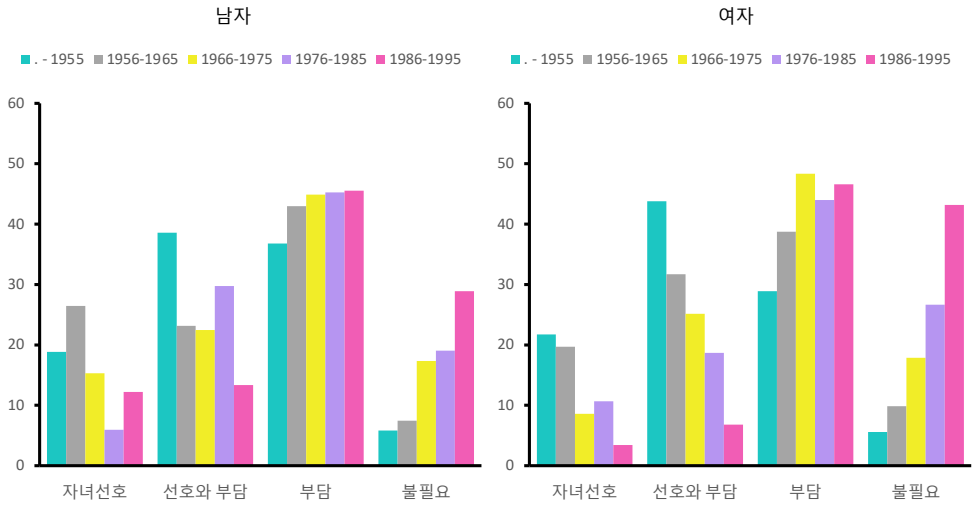
〈그림 6-5〉 일본의 자녀가치에 대한 잠재집단 성별 분포



〈그림 6-5〉의 일본 자녀가치를 살펴보면 '자녀선호'와 '선호와 부담' 유형에 무려 전체의 90% 이상이 속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유형은 '선호와 부담' 유형이며 일본인의 절반 이상인 약 55%가 이 유형에 속한다. 반면 자녀에 대해 매우 보수적인 가치를 보유하는 '자녀선호' 유형에도 전체 약 40%가 속해 한국에 비해 일본이 자녀에 대한 지향적인 가치를 가지는 사람이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머지 '부담과 필요성 없음' 유형은 여성의 2.78%, 남성의 2.92%가 속하고 '불필요' 유형에는 남녀 각각 4.72%, 4.02%가 속한다. 전체적으로 남녀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지만 여기서도 한국과 달리 '자녀선호'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일본에서는 남성보다 여성 사이에서 많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면 이 결과를 코호트 및 성별로 살펴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먼저 한국부터 살펴보자.

〈그림 6-6〉 한국의 자녀가치 잠재집단 성별 및 코호트별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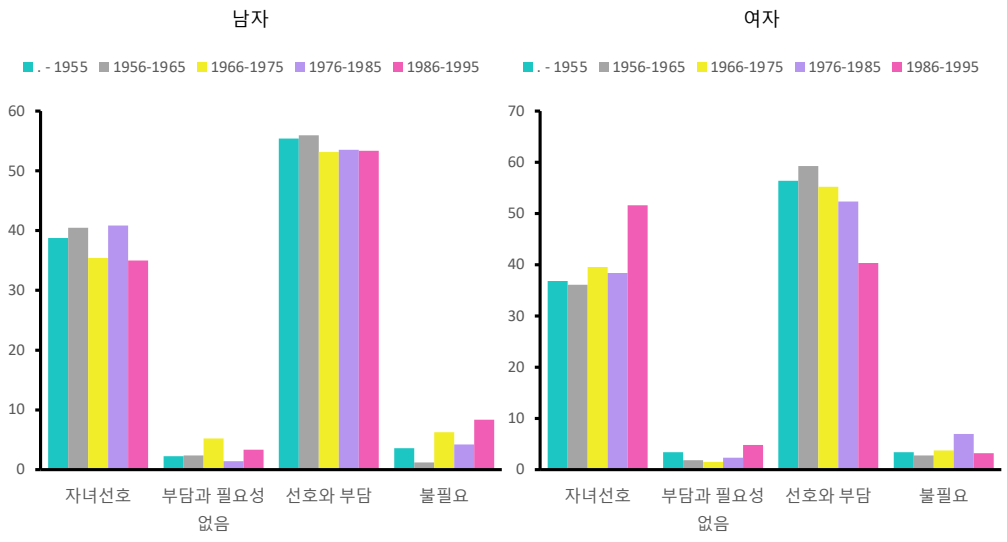


〈그림 6-6〉을 보면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속하는 '자녀선호' 유형에는 남자의 경우 1956-1965년생에서 가장 많이 속하고 이후 세대에서는 서서히 감소한다. 남자는 88만원 세대에서 '자녀선호'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여성 또한 '자녀선호'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젊을수록 감소한다. 한국에서는 '부담' 유형에 남녀 모두 가장 많이 속하는데 이 유형에도 연령이 젊을수록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임을 읽을 수 있다. 다음으로 한국에서 많은 사람이 속하는 유형은 '선호와 부담'인데 이 유형 또한 연령이 젊을 수록 속하는 사람이 감소하는데 특히 여성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유형은 자녀에 대하여 긍정적인 가치도 가장 강하게 인정하면서 부정적인 가치도 가장 강하게 인정하는 양면성이 공존하는 유형이었는데 이제 젊은 사람은 자녀에 대한 '선호'적인 가치가 급속하게 감소하고 부담감을 느끼는 경향이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자녀선호' 및 '선호와 부담' 유형에 속하는 젊은 사람이 자녀가치 '불필요' 유형으로 이행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그 변화는 여성 사이에서 급진적으로 나타난다. 가장 젊은 코호트인 1986-1995년생 남성의 1/3, 여성의 약 절반이 '불필요' 유형에 속하는 것이 확인이 되며 자녀에 대한 가치변화는 결혼과 성역할태도보다도 훨씬 크고 빠른 변화임이 확인된다. 이 점은 한국의 초저출산이 결혼 지연으로 인해 초래되었다고 바라보고 온 기존 연구(예를 들어 이철희, 2012)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던진다. 결혼

감소가 출생아수 감소를 야기했다면 먼저 결혼 가치가 하락하고 나중에 자녀가치가 하락해 가거나 동시에 함께 하락해야 하는데 한국에서의 가족변동은 가치관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에서는 먼저 자녀가치가 급하락하고 결혼가치는 그다지 약해지지 않는 상황에서 초저출산이 진행중이라고 파악해야 할 것이다. 한국의 결혼가치는 아직 젊은 세대에서도 일본에 비해 지향적인 가치규범을 공유하는 집단이 대부분이었으며 젊은 여성 사이에서 일부 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집단이 증가했을 뿐 결혼가치가 완전히 약해진 집단은 발견되지 않았다. 젊은 세대에서 자녀가치 '불필요'가 급진하는 상황은 서구 사회의 경험처럼 결혼의 의미가 없어지고 '결혼으로부터 벗어나기', '결혼의 탈제도화', '결혼의 규범적 침식(Coontz, 2005)'은 가치 측면에서는 관찰되지 않은 채 '자녀로부터 벗어나기'가 관찰된다. 자녀에 대한 가치는 출산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여겨지는데 한국의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이 정도로 '불필요' 유형에 속하는 집단이 증가했다면 앞으로 무자녀 부부가 늘어나거나 유배우출산율이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음으로 일본의 자녀가치에 대해 살펴보자.

〈그림 6-7〉 일본의 자녀가치 잠재집단 성별 및 코호트별 분포



일본은 〈그림 6-7〉에서 확인되듯이 '자녀선호'와 '선호와 부담' 유형에 전체 90% 이상의 사람들이 속하며 성별 및 코호트 차이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데 1986-1995년생

여성 사이에서만 큰 변화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남녀 각각 40% 정도가 '자녀선호' 유형에 속하고 자녀에 대한 가치는 전 세대에 걸쳐 공유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왔기에 성별 및 코호트 차이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1985-1995년생 여성 사이에서 '자녀선호'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급증해 절반 이상인 52%나 차지한다. 반면 이 코호트 여성은 '선호와 부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40%로 다른 코호트와 비교해 감소했다. 젊은 여성에게서 자녀에 대한 부담감이 줄고 매우 선호적인 가치가 증가했다는 결과는 자녀가 매우 부담스럽고 필요성이 급하락한 한국의 여성과 정적으로 대조적인 양상이다. 결혼가치에서도 확인되듯이 일본 젊은 세대에서 가족에 대한 보수적인 가치로 회귀했다는 기존 연구에서의 지적(예를 들어 阿部, 2013; 坂本·原田, 2015; 藤本, 2015; 山田, 2009; 2013)이 본 연구결과에서도 관찰되며 보다 구체적으로 성역할태도, 결혼가치, 자녀가치의 세 가지 측면에서도 특히 여성 사이에서 그러한 경향이 강한 점이 확인되었다. 젊은 여성의 보수회귀 현상과 함께 추가적으로 관찰되는 것은 같은 세대 남성 사이에서는 '불필요' 유형이 8.3%로 다른 코호트보다 높게 나타난 점이다. 그렇다고 해서 남성도 대부분이 이전 코호트와 비슷하게 '자녀선호' 유형에 40% 가까이 속하고 '선호와 부담' 유형에 50% 이상이 속하기에 아주 일부 소수 집단의 경향으로 보이는 태도변화이다. 기존 담론에서 언급되어 온 보수 회귀 현상은 남녀 모두 같은 양상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젊은 여성 사이에서 뚜렷하게 나타난다.

2절. 자녀가치 유형과 사회인구학적 특징

1) 한국: 대졸, 미혼, 무직, 여성 사이에서 자녀 불필요

이 절에서는 위에서 도출된 자녀가치의 잠재집단별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밝히기 위해 마찬가지로 Vermunt(2010)이 제시한 3단계 추정법(3-Step Approach)을 적용해서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여기서도 성별, 코호트, 교육수준, 수입, 혼인 상태, 현재 고용상태, 어린시절 어머니 취업 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 각 변수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한국의 결과부터 확인하자.

〈표 6-5〉 한국의 자녀가치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3단계 추정법을 적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자녀선호 vs 선호와 부담 (1)	자녀선호 vs 부담 (2)	자녀선호 vs 불필요 (3)	선호와 부담 vs 부담 (4)	선호와 부담 vs 불필요 (5)	부담 vs 불필요 (6)
교육수준	(Ref=중졸)						
	고졸	-.326 (.337)	.189 (.285)	.209 (.432)	.515* (.260)	.536 (.416)	.020 (.393)
	2년제 졸업	.209 (.597)	.606 (.521)	.753 (.670)	.398 (.359)	.544 (.544)	.146 (.503)
	4년제 졸업	-.386 (.443)	.147 (.373)	.987* (.499)	.533+ (.310)	.374** (.455)	.841* (.421)
수입		.434 (1.26)	1.123 (1.048)	.155 (1.304)	.689 (.768)	-.278 (1.061)	-.967 (.933)
현재고용상태	(Ref=임금노동자)						
	전업주부	.429 (.421)	.441 (.372)	-.329 (.494)	.012 (.250)	-.758+ (.413)	-.770+ (.394)
	무직	-.012 (.428)	.235 (.378)	1.095* (.439)	.247 (.305)	.107** (.369)	.860* (.349)
	학생	-.368 (.890)	.280 (.630)	.229 (.655)	.649 (.627)	.598 (.668)	-.051 (.429)
혼인상태	(Ref=기혼)						
	미혼	-.204 (.710)	.428 (.581)	1.372* (.610)	.632 (.376)	.575*** (.420)	.943** (.315)
	이혼/사별	-.540 (.365)	-.029 (.307)	-.416 (.488)	.511+ (.287)	.124 (.472)	-.387 (.449)
어린시절 어머니 취업 여	(Ref=취업했음)	.256 (.251)	.369 (.213)	.398 (.267)	.113 (.174)	.142 (.239)	.029 (.212)
성별	(Ref=남자)	.190 (.269)	.095 (.228)	.779** (.280)	-.095 (.191)	.589* (.250)	.685** (.218)
코호트	(Ref=.-1955)						
	1956-65	-.499 (.332)	.051 (.288)	.485 (.465)	.550* (.254)	.984* (.442)	.435 (.431)
	1966-75	.183 (.434)	.768* (.376)	.540** (.527)	.585* (.282)	.357** (.465)	.772+ (.444)
	1976-85	.925 (.614)	1.338* (.536)	.993** (.675)	.413 (.352)	1.068* (.539)	.655 (.500)
	1986-95	-.137 (1.050)	.467 (.824)	1.127 (.903)	.604 (.623)	1.264+ (.749)	.660 (.591)

Note. N of observation = 1,394.
*** p < .001, ** p < .01, * p < .05, + p < .10

한국의 자녀가치 잠재집단은 총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고 분석결과는 〈표6-5〉에 제시한다. 결과(1)은 준거집단을 '자녀선호'에 두고 자녀가치가 '자녀선호'와 '선호와 부담'을 비교한 결과이며 결과 (2) 와 (3) 또한 준거집단을 '자녀선호'에 두고 (2)는 '자녀선호'와 '부담'을 비교, (3)은 '자녀선호'와 '불필요' 유형을 비교한 결과이다. (4)와 (5)는 준거집단을 '선호와 부담' 유형에 두고 (4)는 '선호와 부담'과 '부담'과의 비교, (5)는 '선호와 부담'과 '불필요'와의 비교를 제시한 결과다. 마지막으로 결과 (6)은 '부담'과 '불필요' 유형을 비교한 결과이며 준거 집단은 '부담' 유형이다.

본 연구의 관심은 모든 유형과 유형의 차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 자녀가치가 약해진 집단의 특징을 파악하는 것에 있다. 따라서 여기서는 연구결과 (1), (2), (3)에 대해서만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자녀가치가 '자녀선호'인 사람과 '선호와 부담'인 사람을 비교한 결과 (1)을 살펴보면 두 가지 유형 간의 차이를 설명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수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녀선호'와 '부담' 유형을 비교한 결과 (2)에서는 두가지 코호트가 유의미한 변수로 나타난다. 1966-1975년생은 2.16배(=exp(.768)), 1976-1985년생은 3.81배 '자녀선호' 유형보다 '부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치 '부담' 유형은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속하는 유형이었는데 젊은 세대에서 자녀선호적인 가치가 감소해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이행하는 점이 확인된다. 마지막으로 '자녀선호' 유형과 '불필요' 유형을 비교한 결과 (3)을 보자. '자녀선호' 유형보다 '불필요'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대졸자가 2.68배(=exp(.987)), 무직자가 2.99배(=exp(.1.095), 미혼자가 3.94배(=exp(.1.372), 여성이 2.19배(=exp(.779), 1966-1975년생이 4.66배(=exp(1.540) , 1976-1985년생이 7.34배(=exp(1.993) '자녀선호' 유형보다 '불필요'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리하면 고학력, 미혼, 여성, 무직자, 1966-1985년생이 결혼가치가 '불필요'인 가능성이 높은 집단인 것이다.

2) 일본: 고학력, 미혼은 경제적 부담감 증가

일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3단계 추정법을 적용해 다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여기서도 동일하게 성별, 코호트, 교육수준, 수입, 혼인 상태, 현재 고용상태, 어린시절 어머니 취업 여부를 통제한 상태에서 각 변수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일본의 결과를 확인하자.

〈표 6-6〉 일본의 자녀가치 잠재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3단계 추정법을 적용한 다항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자녀선호 vs 부담과 필요성 없음 (1)	**자녀선호 vs 선호와 부담 (2)**	자녀선호 vs 불필요 (3)	부담과 필요성 없음 vs 선호와 부담 (4)	부담과 필요성 없음 vs 불필요 (5)	선호와 부담 vs 불필요 (6)
교육수준	(Ref=중졸)						
	고졸	.244 (.875)	**.850** (.315)**	-.179 (.513)	.492 (.878)	-.587 (.989)	-1.029 (.521)
	2년제 졸업	1.196 (.873)	**.973** (.262)**	-.011 (.642)	-.412 (.873)	-1.663 (1.081)	-.984 (.646)
	4년제 졸업	.333 (1.016)	**.936** (.310)**	.004 (.595)	.304 (1.017)	-.703 (1.148)	-.932 (.595)
수입		1.447 (1.544)	**-.150 (.490)**	-.382 (1.169)	-1.168 (1.526)	-1.263 (1.914)	-.233 (1.150)
현재고용상태	(Ref=임금노동자)						
	전업주부	-.338 (.517)	**-.135 (.240)**	.905 (.517)	.164 (.512)	1.177 (2.514)	1.040 (.512)
	무직	-.635 (.575)	**.263 (.260)**	1.654** (.575)	.900 (.566)	1.916 (3.403)	1.391* (.566)
	학생	.946 (1.648)	**.493 (.477)**	.931 (.935)	-1.498 (1.626)	-1.260 (1.936)	.438 (.873)
혼인상태	(Ref=기혼)						
	미혼	1.298 (.919)	**1.094*** (.295)**	1.689** (.54)	.469 (.891)	1.314 (1.046)	.594 (.500)
	이혼/사별	2.106* (.849)	**.608* (.299)**	-.170 (.855)	-.772 (.828)	-1.389 (1.193)	-.777 (.854)
어린시절 어머니 취업 ㅇ	(Ref=취업했음)	-.349 (.536)	**.225 (.172)**	.579 (.395)	.389 (.525)	.697 (.670)	.353 (.392)
성별	(Ref=남자)	-2.413* (1.034)	**.215 (.178)**	.582 (.441)	1.460 (1.031)	1.637 (1.135)	.367 (.434)
코호트	(Ref=.-1955)						
	1956-65	.481 (.995)	**.347 (.259)**	1.891 (.613)	-.123 (.979)	1.121 (1.181)	1.543 (.611)
	1966-75	.538 (.623)	**.398+ (.241)**	1.353 (.601)	-.159 (.616)	.709 (.858)	.955 (.596)
	1976-85	-1.252 (.791)	**.238 (.288)**	.911 (.791)	1.495 (3.737)	1.870 (4.744)	.673 (.78)
	1986-95	-2.416 (.962)	**-.343 (.413)**	.176 (.962)	2.119 (13.174	2.371 (14.809	.519 (.909)

Note. N of observation = 1,198.
*** p < .001, ** p < .01, * p < .05, + p < .10

일본의 자녀가치 잠재집단은 총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고 회귀분석 결과는 〈표6-6〉에 제시한다. 결과 (1)은 자녀가치가 '자녀선호' 유형을 준거집단으로 두고 '자녀선호'와 '부담과 필요성 없음'을 비교한 것이며, 결과 (2) 또한 준거집단을 '자녀선호'에 두고 '자녀선호'와 '선호와 부담'을 비교한 결과이다. 결과 (3) 또한 '자녀선호'를 준거집단으로 두고 '자녀선호'와 '불필요' 유형을 비교한 결과이다. (4)와 (5)는 준거집단을 '부담과 필요성 없음'에 두고 (4)는 '부담과 필요성 없음'과 '선호와 부담'을 비교한 결과이며, (5)는 '부담과 필요성 없음'과 '불필요' 유형을 비교한 결과이다. 마지막으로 '선호와 부담' 유형을 준거집단에 두고 '선호와 부담'과 '불필요'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 결과 (6)이다.

여기서도 본 연구의 연구관심이 모든 유형 간 차이를 알아내는 것이 아니기에 일본에서 90%를 넘는 대부분 사람들이 속한 유형 간 차이인 연구결과 (2)를 함께 살펴보도록 한다. 결과 (2)의 '자녀선호'와 '선호와 부담' 유형의 비교를 살펴보면, '자녀선호' 유형보다 '선호와 부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학력수준으로는 중졸에 비해 고졸이 2.34배(=exp(.85)), 2년제 대학졸업자는 2.65배(=exp(.94)), 대졸자는 2.55배(=exp(.94)) 그리고 혼인상태에서는 미혼자가 2.99배(=exp(1.09)), 이혼/사별 경험자는 1.84배(=exp(.61)) '선호와 부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체로 학력 수준이 높은 집단, 기혼이 아닌 집단에서 '자녀선호'보다 '선호와 부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성별차이와 코호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본의 자녀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서 코호트 및 성별 효과는 영향력을 가지지 않았는데 그러한 결과는 그만큼 일본에서는 전 세대에 걸쳐 남녀 사이에서 널리 비슷한 자녀에 대한 안정적 가치를 공유해 왔다는 것이다. 일본의 출산율 하락은 한국보다 일찍부터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으며 결혼 감소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가치 측면에서 분석한 본 연구결과에서는 일본인의 자녀가치는 전 세대에 걸쳐 오랫동안 별로 변화하지도 않았으며 오히려 최근 젊은 코호트에서 자녀에 대한 선호적인 가치가 강화된 것이 확인되었다. 일본의 출산율 하락 원인을 요인분해(要因分解)한 연구에서 일본의 저출산은 유배우율의 감소가 70%, 유배우 출산율의 감소가 30% 설명력을 가진다고 분석되어 왔는데(廣嶋, 2000a; 2000b) 2장 2절에서 확인했듯이 일본은 한국보다 유배우율이 낮은데도 한국보다 출산율이 높았다. 반대로 한국은 2000년 이후에도 일본보다 유배우율이 높은 상태에서 일본보다 빠른 속도로 출산율이 하락해 갔다. 이 현상과 본 연구의 연구 결과를 함께 검토하면 한국에서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출산율 감소는 단지 결혼의 감소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고 자녀가치의 급하락이 결혼가치 하락보다 먼저 진행되어 버린 점에서 설명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3 절. 소결

한국과 일본의 자녀가치를 비교하기 위해 자녀가치를 묻는 여섯 가지 문항에 대하여 잠재집단분석(LPA)을 통해 유형화시키고 국가비교와 미시적인 코호트 및 성별 비교를 통해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비교했다. 나아가 회귀분석을 통해 각 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한국에서는 '자녀선호', '선호와 부담', '부담', '불필요' 유형의 네 가지, 일본에서는 '자녀선호', '부담과 필요성 없음', '선호와 부담', '불필요'의 네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다. 먼저 거시적인 양국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자녀를 가지는 것으로 초래되는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어 '자녀선호'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자녀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커리어적 면에서

기회나 자유가 제한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부모의 자유가 제약된다는 점에 대한 부담감이 일본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가치가 가장 보수적인 '자녀선호' 유형끼리 비교해 봤을 때도 한국은 일본에 비해 자녀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감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도구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차이가 났었고 '자녀의 존재가 본인 사회적 지위 상승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본보다 한국에서 강하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보수적인 '자녀선호' 유형끼리 또는 가장 자녀가치가 약해진 '불필요' 유형끼리 비교해 봐도 한국이 일본보다 자녀의 도구적인 가치를 인정하는 경향이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에 대한 또 다른 도구적인 측면인 '자녀가 노후 생활에 도움이 된다'는 가치관에 대해서는 일본 사람이 속하는 대부분 유형에서 한국보다 인정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자녀선호' 유형끼리 또는 '선호와 부담' 유형끼리 비교했을 때 '자녀의 성장을 지켜보는 것이 인생의 즐거움'이라고 느끼는 정도는 한국이 일본보다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녀가치 각 유형에 속하는 사람의 비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이 '자녀선호'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가장 낮았고 그 다음으로 '불필요'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남자 15%, 여자 20% 정도로 적지 않은 비율을 차지했었다. 가장 많은 유형은 '부담' 유형이었고 한국의 40% 이상을 차지했으며 '선호와 부담' 유형 또한 전체 1/4을 차지했었다. 한국에서 자녀에 대한 지향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집단이 감소했고 부담이나 불필요로 느끼는 집단이 많아진 점이 확인되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자녀선호'인 집단이 40%, '선호와 부담'인 집단이 50%이상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나머지 두 가지 유형인 '부담과 필요성 없음' 및 '불필요' 유형에는 전체의 10%도 차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한국과 달리 자녀지향적인 가치를 보유하는 집단이 전체의 9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집단이 증가하지는 않았다. 이는 일본이 한국에 비해 전 세대에 걸쳐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자녀가치를 공유해 왔던 것으로 이해되며 자녀가치가 급진적으로 부담으로 느끼는 한국과 대조적인 차이가 드러났다.

유형별 차이를 코호트 및 성별로 살펴본 결과에서는 한국에서 여성을 중심으로 급진적인 변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성역할태도, 결혼가치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코호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자녀선호' 및 '선호와 부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연령이 젊어질수록 감소해 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일본과 달리 변화의 방향이

확실했다. 즉 '자녀선호'에서 '불필요'로 자녀에 대한 가치가 급속도로 젊을수록 증가해가는 것이 확인되었다. 1986-1995년생 사이에서는 '자녀선호'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사라졌다. 반면 일본에서는 한국의 젊은 여성과 대조적으로 1986-1995년생 여자 사이에서 자녀가치가 '자녀선호'에 속하는 사람이 오히려 증가했으며 무려 50%가 넘었다. 이 또한 또한 일본의 젊은 세대에서 가족가치가 보수화되었다는 기존 연구의 논의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자녀가치에 있어서는 일부 여자사이에서만 확인된 경향이지 남자는 그렇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각 유형 소속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한국에서는 '자녀선호' 유형보다 '불필요'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4년제 대학졸업자, 무직자, 미혼자, 여자일수록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1966-1975년, 1976-1985년생도 그 가능성이 높아지는 집단임이 확인되었다. 반면 일본은 두가지 유형에서의 차이를 보면 '자녀선호' 유형보다 '선호와 부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중졸에 비해 고졸 이상의 모든 학력수준에서, 기혼에 비해 미혼자와 이혼/사별을 경험한 사람 사이에서 '자녀선호' 유형보다 '선호와 부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에서는 한국처럼 성별 및 코호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000년 이후 한국의 출산율 하락이 문제로 부각되자 정부는 오늘날까지 많은 예산을 투입해 여러 대책을 펼쳐 왔다. 서론에서 소개했지만 한국정부는 과거 4년 동안 저출산 대책에 128조원을 썼음에도 한국의 출산율은 멈추지 않고 하락해 갔으며 오히려 2000년 이후의 출생아수 감소 폭은 일본의 2배 정도로 속도가 붙어 감소해 갔다. 본 연구 결과에서는 2000년 이후 한국의 가족가치 변화를 이끌어온 주체는 남자보다 여성들이었으며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유지된 채 자녀가치가 먼저 하락했었다. 이 결과는 결혼 인구의 감소가 저출산을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기존의 논의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던진다. 결혼 및 자녀가치를 자세히 분석한 본 연구결과에서는 한국에서는 앞으로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했다고 해서 자녀를 낳는 게 아니라 유배우 출산율이 하락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날 한국과 일본에서 벌어지는 저출산은 형태로 나타나는 현상이 비슷하더라도 저출산을 동원하는 메커니즘이 양국간에 서로 다름이 확인되었다. 일본에서는 1986-1995년생 여자 사이에서 결혼가치를 선호하는 집단이 오히려 증가했으며 한국의 여성들이 향하는 '불필요'와는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었다. 일본은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결혼지향 및 자녀지향적인 가치가 강화되었다면 한국에서는 그 가치들이 약화되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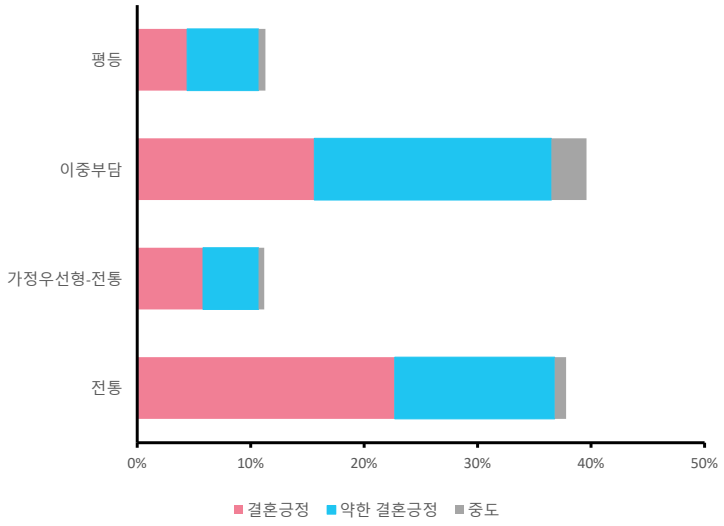
제7장. 각 가치관의 상관관계

1절.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

1) 유형간 상관관계: 강한 상관 관계인 한국, 무상관의 일본

제4장에서 성역할태도의 유형, 제5장에서 결혼가치의 유형, 제6장에서 자녀가치의 유형을 나라별로 도출해 비교해 봤는데 이 장에서는 각 유형과 유형이 어떤 관계를 가지는지 살펴보도록 한다. 먼저 한국을 살펴보도록 보자. 다음 〈그림 7-1〉은 한국의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를 그린 것이다.

〈그림 7-1〉 한국의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역할태도 유형은 '이중부담'이고 그 다음으로 많은 유형은 '분업지지'이다. 이 두 가지 유형의 교차를 보면 성역할이 '분업지지'인 사람은 결혼가치도 '결혼긍정'인 사람이 많고 '중도' 유형의 비율이 줄어든 경향이 확인된다. 반면 성역할태도가 '이중부담'인 사람은 결혼가치에서 '결혼긍정'인 사람이 줄어든 반면에 '약한 결혼긍정'인 사람이 많고 '중도' 유형인 사람도 증가한다.

다음으로 이러한 각 관계가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차이인지에 대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분석을 위해 사용한 프로그램은 RStudio이다.

〈표 7-1〉 한국의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

성역할태도/ 결혼가치	분업지지	가정우선-분업지지	이중부담	평등
결혼긍정	1.82*** (.11)	1.13 (.18)	.67*** (.11)	.56*** (.18)
약한 결혼긍정	.57*** (.11)	.87 (.18)	1.47*** (.11)	1.68** (.17)
중도	.87 (.22)	1.05 (.35)	1.06 (.21)	1.14 (.32)

* p < .05.
** p < .01.
*** p < .001.

〈표 7-1〉은 성역할태도 유형(Row)과 결혼가치 유형(Column)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값이다. 예를 들어 성역할태도가 '분업지지'인 사람이 결혼가치가 '결혼긍정'이 될 가능성(Odds Raito)이 몇 배가 되는지 보기 위해 성역할태도 '분업지지' 유형=1(설명 변수), 나머지 세 가지 유형은 성역할태도 유형=0(더미 변수)으로 정의하고 결혼가치 '결혼긍정' 유형=1(종속 변수), 나머지 결혼가치 유형=0(더미 변수)으로 정의해 관계를 추정한 결과이다. 즉 설명 변수, 종속 변수 모두 1 혹은 0인 이항 변수로 정의해 두가지 관계를 추정했다. 이 방법으로 이하 나머지 유형과 유형의 관계에 대해서도 각각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는데 성역할태도 유형과 결혼가치 유형의 관계, 결혼가치 유형과 자녀가치 유형의 관계에 대해 한국과 일본 나라별로 살펴봤다. 총 분석 패턴은 한국은 성역할태도 네 가지 유형과 결혼가치 세 가지 유형의 조합인 4×3=12 패턴, 성역할태도 네 가지 유형과 자녀가치 네 가지 유형의 조합인 4×4=16 패턴 그리고 결혼가치 세 가지 유형과 자녀가치 네 가지 유형의 조합인 3×4=12패턴의 총 40패턴에 대해 분석했다. 일본은 성역할태도 세 가지 유형과 결혼가치 네 가지 유형의 조합인 3×4=12 패턴, 성역할태도 세 가지 유형과 자녀가치 네 가지 유형의 조합인 3×4=12 패턴 그리고 결혼가치 네 가지 유형과 자녀가치 네 가지 유형의 조합인 4×4=16패턴의 총 40패턴에 대해 각각 분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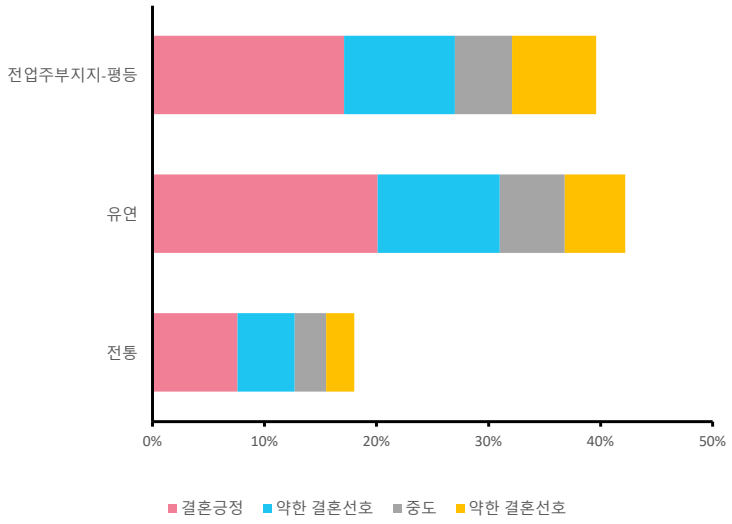
회귀분석 결과 한국의 성역할태도 네 가지 유형과 결혼가지 세 가지 유형의 조합인 4×3=12 패턴 중 유의한 관계를 가진 유형은 총 여섯 패턴이었다. 먼저 성역할태도가

‘분업지지’인 유형부터 보자. 성역할태도가 ‘분업지지’인 집단은 결혼가치가 ‘결혼긍정’이 될 가능성이 1.82배 높다(p<.0001). 그리고 성역할태도가 ‘분업지지’인 사람은 결혼가치가 ‘중도’가 될 가능성이 0.57배 높다(p <.0001). 즉 성역할태도가 ‘분업지지’인 사람은 결혼가치가 ‘결혼긍정’으로 될 가능성이 두배 가까이 높아지지만 결혼가치가 ‘약한 결혼긍정’이 될 가능성이 절반 가까이 낮아진다는 뜻이다.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는 ‘분업지지’와 ‘결혼긍정’의 서로 강한 상관관계가 확인이 된다. 성역할태도가 ‘가정우선-분업지지’인 사람은 어떠한 결혼가치 유형과도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성역할태도가 ‘이중역할’인 사람은 결혼가치 유형이 ‘결혼긍정’이 될 가능성이 0.67배가 높고(p<.0001), 결혼가치가 ‘중도’가 될 가능성이 1.47배 높다(p<.0001). 마지막으로 성역할태도 유형이 ‘분업지지’ 유형인 사람은 결혼가치 유형이 ‘결혼긍정’이 될 가능성이 0.56배가 높고(p<.0001), 결혼가치 유형이 ‘중도’가 될 가능성이 1.68배 높다(p=.003). 결혼가치 유형이 ‘중도’는 성역할태도 유형과 아무런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정리하면 한국에서는 성역할태도 유형이 ‘분업지지’인 사람은 결혼가치 유형이 ‘결혼긍정’이 될 가능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높아지지만 결혼유형이 ‘약한 결혼긍정’이 될 가능성은 낮아진다. 반면 성역할태도 유형이 ‘이중부담’인 사람들은 결혼 유형이 ‘결혼긍정’일 가능성이 낮아지고 ‘약한 결혼긍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으로 성역할태도 유형이 ‘평등’인 사람들은 결혼가치 유형이 ‘결혼긍정’이 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중도’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성역할태도 유형이 ‘분업지지’인 사람들은 결혼가치도 ‘결혼긍정’일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비해 성역할태도 유형이 ‘이중역할’이나 ‘분업지지’인 사람들은 결혼가치 유형이 ‘결혼긍정’이 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약한 결혼긍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가 상관관계를 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는 모든 유형에서 상관이 있는 것은 아니고 성역할태도의 ‘가정우선-분업지지’와 결혼가치의 ‘중도’ 유형은 어떤 유형과도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다음은 일본을 살펴보자. 〈그림 7-2〉는 일본의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를 그린 것이다.

〈그림 7-2〉 일본의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



일본에서 가장 많은 성역할태도 유형은 '유연'이었고 그 다음으로 비슷한 수준으로 많은 유형은 '전업주부지지-평등'이었다. 이 두가지 유형이 전체의 80% 이상을 차지하였으며 나머지 '분업지지' 유형은 전체의 20% 미만을 차지한다. 성역할태도 유형과 결혼가치 유형의 관계를 살펴보면 결혼가치는 어떤 유형에서도 '결혼긍정'이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약한 결혼긍정' 유형이 차지한다. '전업주부지지-평등' 유형에는 '결혼해방' 유형도 상당 부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미묘하게 나타나는 유형간 교차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한국과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 보자. RStudio를 사용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시도했다.

〈표 7-2〉 일본의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

성역할태도/ 결혼가치	분업지지	유연	전업주부지지-평등
결혼긍정	.95 (.14)	1.16 (.21)	.90 (.36)
약한 결혼긍정	1.06 (.16)	1.02 (.13)	.94 (.66)
중도	1.11 (.20)	.864 (.17)	1.07 (.17)
결혼해방	.91 (.21)	.81 (.25)	1.30 (.17)

* p < .05.
** p < .01.
*** p < .0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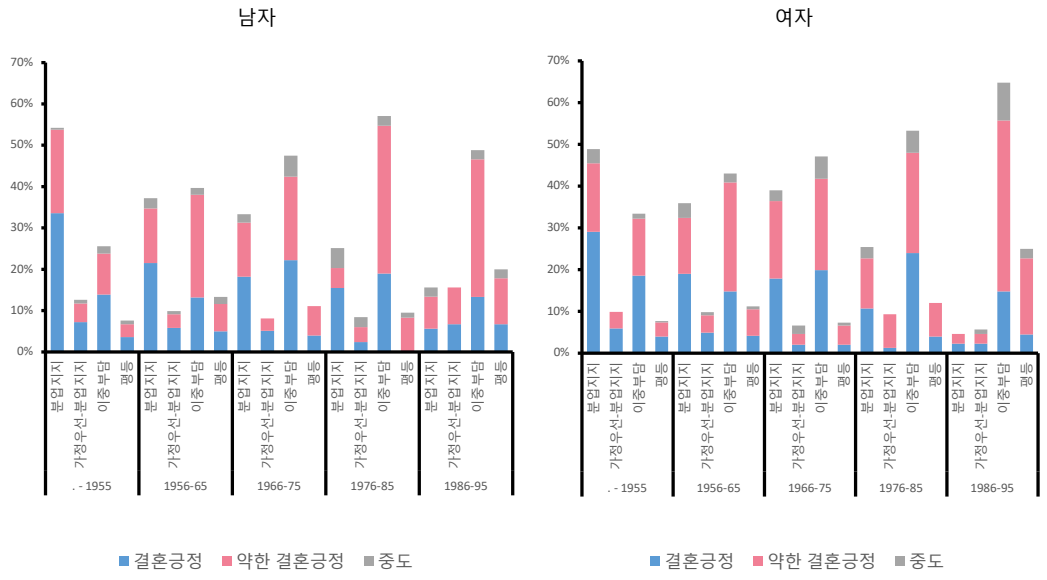
〈표 7-2〉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는 유의한 관계가 하나도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국에서는 성역할태도 유형이 '분업지지'이면 결혼유형도 '결혼긍정'일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일본에서는 두 가지 가치 측면에서 유의한 관계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일본사람은 성역할태도가 '분업지지'이든 '유연'이든 혹은 '전업주부지지-평등' 유형이든 결혼가치가 '결혼긍정'일 수도 있고 '약한 결혼가치'일 수도 있으며 어느 유형에도 서로 속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기존 연구에서는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를 진보와 보수의 이분법으로 나눠서 성역할태도가 분업 지지하는 태도와 평등 지향적인 태도 사이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결혼가치도 이동하는 것을 가정해 왔지만 본 연구결과에서는 성역할규범 자체도 복수 지표를 사용하면 나라별로 사람들의 가치구조가 다양하고 복잡하다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성역할태도의 유형 자체가 나라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결혼가치와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도 같은 경향으로 확인되는 것이 아니었다. 한국의 성역할태도 유형은 결혼 유형과 상관관계를 보였지만 일본의 성역할태도 유형은 결혼가치와 아무 관계가 없었다. 즉 성역할태도 가치규범자체가 한국과 일본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나기에 결혼가치 또한 다르게 나타났으며 각 나라 가치구조는 꼭 진보와 보수 사이를 단순히 선형 이동해 가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 확인된다. 한국의 성역할태도 유형은 어느 정도 결혼 유형과 가치규범이 비슷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확인되었지만 일본에서는 전혀 상관관계를 갖지 않았기에 이 분석결과는 단순히 여러 가지 지표를 요약하고 평균값을 사용해 각 나라 경향을 비교해

온 기존 연구의 결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던지며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의 관계는 단순히 정적인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할 수 없다고 봐야 할 것이다.

2) 가치관 교차: 젊은 세대 양상 비교

이 때까지는 한국과 일본의 나라별 전체적인 경향을 비교하였지만 여기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각 유형간 관계를 코호트 및 성별로 비교해 보도록 한다. 나라의 전체적인 평균값과 코호트 및 성별 차이가 크면 세대간, 성별 차이로 생기는 마찰이 기존의 사회 규범 및 가치관과 갈등을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고자 한다. 다음 〈그림 7-3〉은 한국의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 유형의 관계를 코호트 및 성별로 그린 것이다.

〈그림 7-3〉 한국의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 유형 코호트 및 성별 교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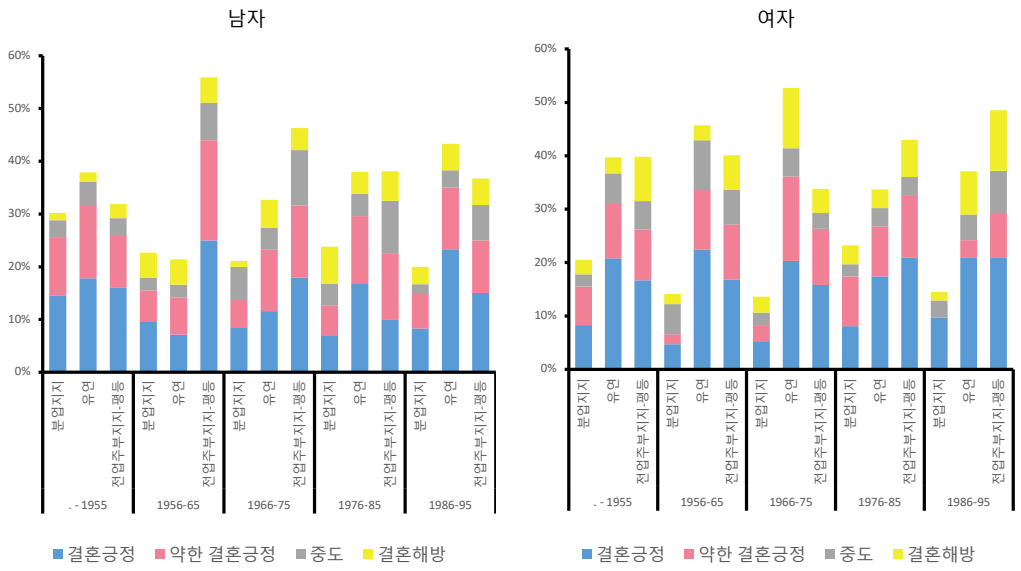
앞에서 한국의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의 상관관계를 확인했는데 여기서는 젊은 코호트에서 확인되는 두 가지 가치 측면의 교차를 살펴보도록 한다. 한국은 세대 차이가 크기 때문에 두 가치 가치관 결합에 있어서도 거시적인 상관관계와 코호트별 경향이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1955년 이전 출생코호트에서 성역할태도 '분업지지' 유형과 결혼가치 '결혼긍정' 유형의 조합이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하는 유형이었다. 그런데 1986-95년생은 성역할태도 '이중부담'과 결혼가치 '약한 결혼긍정' 유형의 결합에 대부분이 속한다. 남자보다 여자 사이에서 변화가 급진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불과 반세기도 걸리지 않은 사이에 한국 사람의 가치관이 크게 달라진 모습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1986-1995년생 여자 사이에서 그 변화가 급진적이다. 1955년 이전 출생 코호트에서는 여자의 절반인 48.9%가 성역할 '분업지지' 유형에 속했는데 1976-1985년생 사이에서는 25.4%로 거의 절반 가까이 감소하고 1986-1995년생은 4.6%까지 더욱 감소하여 이제는 5% 미만밖에 되지 않는 유형이 되어 버렸다. 한국에서 성역할태도와 결혼 유형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점은 앞부분에서 확인한 바 있다. 중요한 것은 성역할태도에 있어서는 젠더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목격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결혼가치가 약해진 것은 아니다. 가장 변화가 큰 1986-1995년생 사이에서도 대부분 '약한 결혼긍정' 유형이 늘어난 것이지 '중도' 유형이 크게 늘어난 것은 아니다. 성역할태도 유형이 '평등'이나 '이중부담'이어도 결혼가치는 '약한 결혼긍정'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뿐이었다. 결혼가치는 '결혼긍정' 유형이 대폭 줄었으나 '약한 결혼긍정' 유형이 증가했을 뿐이지 '중도' 유형에 속하는 사람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은 아니다.

정리하면 한국에서의 성역할태도는 1976-1985년생 사이에서 서서히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고 1986-1995년생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관찰이 된다. 그러나 결혼가치에 있어서는 '결혼긍정'이 줄어들고 '약한 결혼긍정'이 늘어났을 뿐 '중도'가 급증한 것은 아니다.

그렇다면 일본은 젊은 코호트에서 어떤 유형 간 교차가 관찰될까? 다음 〈그림7-4〉는 일본의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 유형의 관계를 코호트 및 성별로 그린 것이다.

〈그림 7-4〉 일본의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 유형 코호트 및 성별 교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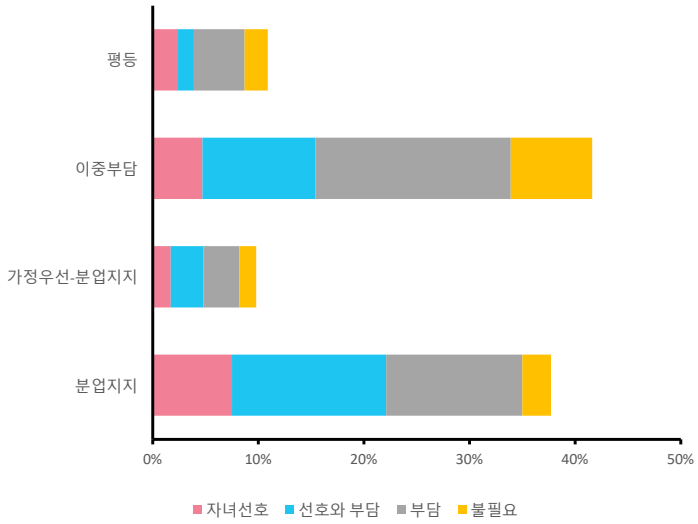
일본은 성역할태도에서 세 가지 유형이 도출되었는데 역할분업을 지지하는 '분업지지' 유형, 상황에 따라 역할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는 '유연' 유형, 그리고 남녀역할분업을 부정하면서도 동시에 전업주부를 지향하는 '전업주부지지-평등'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일본에서는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 유형 간에 아무 상관관계가 없었다. 그러나 어떤 유형과 유형의 교차가 가장 젊은 세대에서 지지되는지는 확인할 수 있다. 일본은 잃어버린 세대인 1976-1985년생 그리고 그 다음 사토리세대인 1986-1995년생 여성 사이에서 성역할태도는 '전업주부지지-평등'이자 결혼가치가 '결혼긍정'인 유형 간 교차에 가장 많은 여성들이 속한다. 반면 남자는 성역할태도가 '중도'이자 결혼가치가 '결혼긍정'인 유형 간 교차에 가장 많은 사람이 속한다. 결혼가치에 있어서는 남녀 모두 '결혼긍정'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많지만 그 속에서 서로 이성에 대해 기대하는 성역할이 다르다는 점이 결혼 감소의 하나의 요인이라 볼 수 있다.

2절.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

1) 유형간 상관관계: 강한 상관 관계인 한국, 일부 상관을 가진 일본

1절에 이어서 성역할태도 유형과 자녀가치 유형과의 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한국을 살펴보자. 다음 〈그림7-5〉는 한국의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를 그린 것이다.

〈그림 7-5〉 한국의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



한국에서 가장 많은 성역할태도 유형은 '이중부담'과 '분업지지'였는데 이 두가지 유형에 속하는 자녀가치 유형을 살펴보면 성역할이 '분업지지'인 사람은 자녀가치도 '자녀선호'인 사람이 많고 '불필요'의 비율이 줄어든다. 반면 성역할태도가 '이중부담'인 사람은 자녀가치에서 '자녀선호'인 사람이 줄어들고 '불필요' 유형인 사람이 증가하며 '부담' 유형인 사람도 증가한다.

그렇다면 한국에서의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 유형간 관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지를 확인해 보자.

〈표 7-3〉 한국의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

성역할태도/ 자녀가치	분업지지	가정우선-분업지지	이중부담	평등
자녀선호	1.50** (.15)	1.11 (.24)	.51 (.16)	1.55* (.21)
선호와 부담	1.96*** (.12)	1.09 (.19)	.70** (.12)	.34*** (.24)
부담	.70** (.12)	.79 (.19)	1.42** (.11)	1.21 (.17)
불필요	.33*** (.19)	1.19 (.25)	1.84*** (.15)	1.63* (.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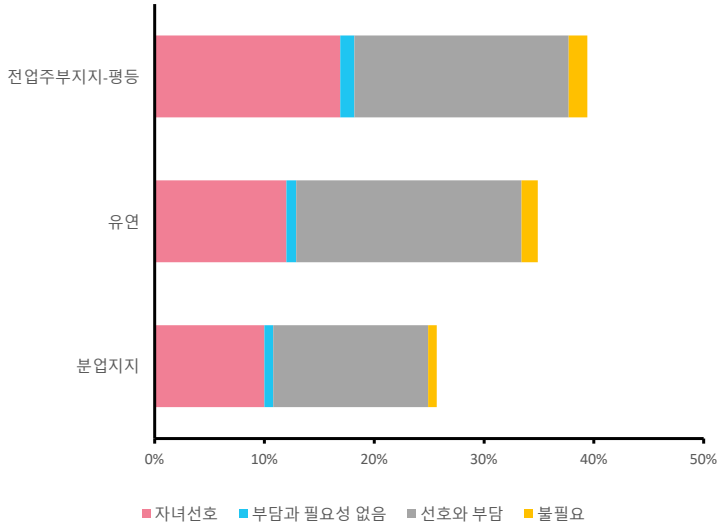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표 7-3〉은 한국의 성역할태도 유형(Row)과 자녀가치 유형(Column)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값이다. 유의한 관계를 가진 유형 간 조합은 총 16 패턴 중 11 패턴이었으며 대부분의 조합에서 유의한 상관을 가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먼저 성역할태도가 '분업지지'인 유형부터 보자. 성역할태도가 '분업지지'인 사람은 자녀가치가 '자녀선호'가 될 가능성이 1.50배 높다(p=.006). 그리고 성역할태도가 '분업지지'인 사람은 자녀가치가 '선호와 부담'이 될 가능성이 1.96배 높아진다(p<.0001). 그리고 성역할태도가 '분업지지'인 사람은 자녀가치가 '부담'일 가능성이 0.70배(p=.002), '불필요'일 가능성이 0.33배(p<.0001)가 된다. 즉 성역할태도 '분업지지' 유형에서는 자녀가치가 '자녀선호'와 '선호와 부담'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비해 자녀유형이 '부담'과 '불필요' 유형이 될 가능성이 낮아진다. 한국에서 성역할태도 유형이 '분업지지'인 사람은 자녀가치 유형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성역할태도가 '가정우선-분업지지'인 사람은 자녀가치의 어떤 유형과도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 다음으로 성역할태도 유형이 '이중부담'인 사람은 자녀가치가 '자녀선호'일 가능성이 0.51배(p <.0001), '선호와 부담'일 가능성이 0.70배(p = .004) 높아지는 것에 비해 '부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1.42배(p=.002), '불필요'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1.84배(p <.0001) 높아진다. 즉 성역할태도

유형이 '이중부담'에 속하는 사람은 자녀가치가 '자녀선호', '선호와 부담'이 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아지며 '부담'과 '불필요'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성역할태도 유형이 '평등'인 사람을 살펴보면 자녀가치가 '자녀선호'에 속할 가능성이 1.55배(p=.036) 높아지고 자녀가치가 '선호와 부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0.34배(p<.0001) 높아진다. 그리고 자녀가치의 '부담' 유형과는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았으며 '불필요' 유형에 속할 가능성은 1.63배(p=.024)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역할태도 유형이 '평등'인 사람은 자녀가치 유형이 '자녀선호'일 가능성이 1.5배가 높아지는 것에 비해 '선호와 부담' 유형에 속할 가능성은 낮아진다는 것은 흥미로운 결과다. 그러면서 '불필요' 유형에 속할 가능성도 높아진다는 결과는 성역할태도 유형과 자녀가치 유형 또한 '자녀선호'와 '평등'을 단순히 선형 이동하는 것이 아니며 같은 '분업지지'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문항에 따라 생각하는 바가 다르기에 구별하여 분석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국의 자녀가치 유형이 '자녀선호'인 사람들은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커리어적 부담을 느끼지 않고 순수하게 자녀의 성장을 기뻐하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자녀의 도구적인 가치도 인정하는 편이었다. 반면 '선호와 부담' 유형은 자녀 양육에 대한 경제적, 시간적, 커리어적 부담을 강하게 느끼면서도 자녀에 대한 도구적인 가치를 가장 강하게 느끼는 집단이었다. 자녀는 필요하나 키우는 부담이 아주 크다고 느끼는 자녀가치의 '선호와 부담' 유형과 성역할태도가 '평등' 유형이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비해 비슷하게 자녀의 도구적인 가치를 인정하되 자녀 양육에 대해 경제적 시간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 자녀가치 '자녀선호' 유형과 정적인 상관 관계를 가진다. 즉 성역할태도 유형이 '평등'인 사람들은 자녀가치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은 덜 느끼고 자녀에 대한 도구적인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반면 자녀는 꼭 필요하지 않다고도 느끼는 경향이 강하고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짐이 확인되었다.

다음으로 일본의 교차를 살펴보자. 다음 〈그림 7-6〉은 일본의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를 그린 것이다.

〈그림 7-6〉 일본의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



일본에서 가장 많은 성역할태도 유형은 '전업주부지지-평등'이었고 다음으로 '유연' 유형인데 '분업지지' 유형에도 전체 25% 정도의 사람들이 속하고 전체적으로 골고루 각 유형에 분포되어 있다. 각 성역할태도 유형별 자녀가치 유형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일본에서 자녀가치는 '자녀선호'와 '선호와 부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대부분이고 나머지 두 가지 유형에 속하는 사람들은 소수이자 각 성역할태도 유형별로 그 비율도 그다지 달라지지 않는다. 일본인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자녀가치인 '자녀선호'와 '선호와 부담' 유형을 살펴보자. 먼저 자녀가치 '자녀선호' 유형은 성역할태도가 '분업지지'보다 '전업주부지지-평등'으로 이동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확인된다. 마찬가지로 자녀가치가 '선호와 부담' 유형은 성역할태도가 '분업지지'에서 '전업주부지지-평등' 유형으로 이동할 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는 '분업지지'보다 '유연' 그리고 '전업주부지지-평등'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일본에서의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 관계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보자.

〈표 7-4〉 일본의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

성역할태도/ 자녀가치	분업지지	유연	전업주부지지-평등
자녀선호	.84 (.15)	1.08 (.12)	1.05 (.12)
부담과 필요성 없음	3.63*** (.36)	.41* (.43)	.66 (.38)
선호와 부담	1.03 (.14)	1.01 (.12)	.97 (.12)
불필요	.73 (.39)	1.02 (.30)	1.2 (.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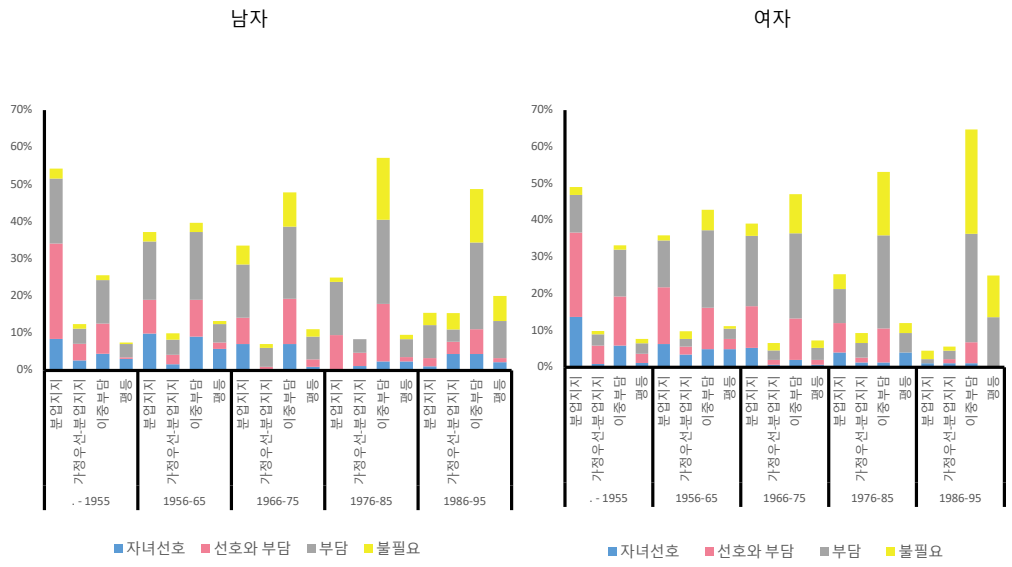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표 7-4〉는 일본의 성역할태도 유형(Row)과 자녀가치 유형(Column)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한 값이다. 유의한 관계를 가진 유형간 조합은 총 12패턴 중 2 패턴밖에 없었으며 한국의 결과와 달리 대부분의 조합에서 유의한 상관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일본에서 상관관계를 가진 유형간 조합은 성역할태도 유형이 '분업지지'일 때 자녀가치 유형이 '부담과 필요성 없음'이 될 가능성이 3.63배(p <.0001)가 되는 경우와 성역할태도가 '분업지지'일 때 자녀가치 유형이 '부담과 필요성 없음'이 될 가능성이 0.41배(p=.038)가 되는 경우의 두가지다. 즉 성역할태도 유형이 '분업지지'인 사람은 자녀가치 유형이 '부담도 필요성도 없음' 유형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비해 성역할태도 유형이 '유연'인 사람은 자녀가치 유형이 '부담'과 필요성 없음' 유형이 될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그런데 '부담과 필요성 없음' 유형에 속하는 사람 자체가 일본인 전체의3%밖에 되지 않았고 코호트 차이도 거의 나타나지 않았기에 여기서 의미있는 경향을 찾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 오히려 일본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속하는 자녀가치 유형인 '자녀선호' 유형과 '선호와 부담' 유형은 아무 상관관계를 가지지 않았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일본 특징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즉 일본은 성역할태도가 어느 유형이어도 자녀가치가 '자녀선호' 유형일 수도 있고 '선호와 부담' 유형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일본은 성역할태도도 세 가지 유형에 골고루 속하고 자녀가치에 대해서는 두가지 유형에 대부분 속하는데 어떤 특별한 유형간 상관관계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2) 가치관 교차: 젊은 세대 양상 비교

그러면 각 유형간 관계를 나라별 및 코호트, 성별로 비교해 보면 어떤 차이가 있을까? 다음 〈그림7-7〉은 한국의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 유형의 관계를 코호트 및 성별로 그린 것이다.

〈그림 7-7〉 한국의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 유형 코호트 및 성별 교차



가치관 교차에서 1955년 이전 출생 코호트와 1986-1995년생을 비교해 봤을 때 자녀가치 유형의 분포 차이가 매우 큰 모습이 확인된다. 1955년 이전 출생 코호트는 남자의 54.3%, 여자의 49.1%가 성역할태도 유형이 '분업지지'에 속하는데 그 중 자녀가치도 '자녀선호'인 사람은 남자 8.5%, 여자 13.7%이며 이들 중 많은 비율을 '자녀선호' 유형보다 '선호와 부담' 유형이 차지하고 있다(남자 25.6%, 여자 23%). 유형과 유형의 관계를 분석한 회귀분석에서 확인했듯이 성역할태도 유형이 '분업지지'인 사람은 자녀가치가 '자녀선호'가 될 가능성이 다른 성역할태도 유형보다 1.5배 높고 '선호와 부담'이 될 가능성도 2배 높았다. 반면 이들이 자녀가치가 '부담'이 될 가능성이 0.7배, '불필요' 유형이 될 가능성이 0.3배로 가능성이 유의하게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 코호트에서 두번째로 많은 성역할인 '이중부담' 유형에서는 자녀가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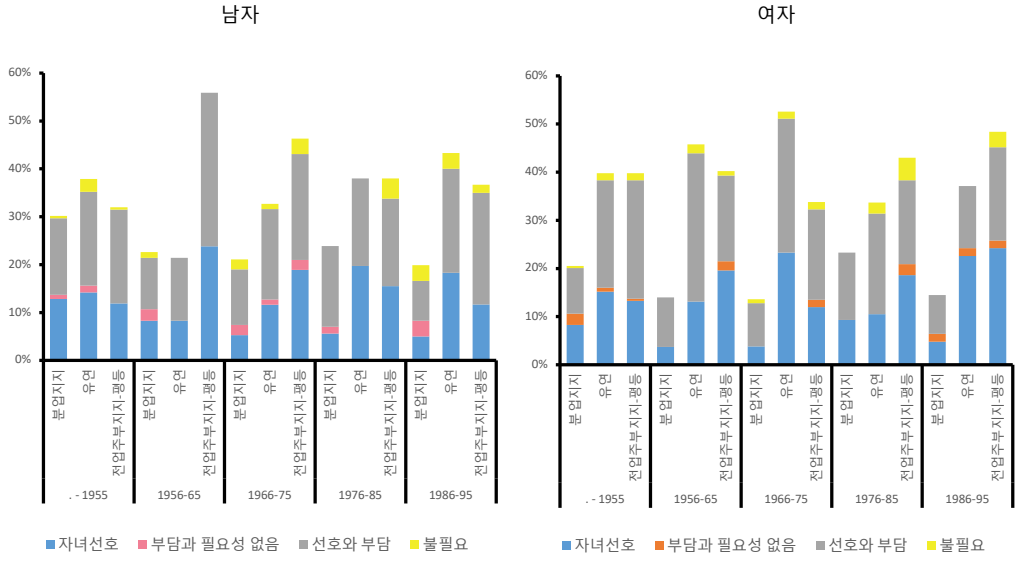
‘자녀선호’가 될 가능성이 0.5배, ‘선호와 부담’이 될 가능성이 0.7배로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녀가치가 ‘부담’이 될 가능성은 1.4배, ‘불필요’ 유형이 될 가능성이 1.8배 높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다 유의했다. 그런데 그러한 유형과 유형 관계를 나타내는 결과는 유형과 유형의 결합자체가 코호트 차이에 의한 부분이 큰 것으로 여겨진다.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도 한국은 코호트마다 큰 차이가 나고 그 코호트마다 나타나는 차이가 바로 유형과 유형의 결합 차이로 나타난다.

1955년 이전 코호트에서 가장 많은 가치관 교차 유형은 성역할태도 ‘분업지지’이자 자녀가치 유형이 ‘선호와 부담’ 유형이었기에 한국은 성역할이 분업 지향적이어도 자녀에 대한 부담은 오래 전부터 느껴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가장 젊은 세대인 1986-1995년생의 가치관 교차를 살펴보자. 남자의 48.8%, 여자의 64.7%가 속하는 성역할 ‘이중부담’ 유형에서 자녀가치가 ‘자녀선호’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남자 4.4%, 여자 1.1%로 거의 사라져 버렸으며 ‘부담’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남자 23.3%, 여자 29.5%로 압도적으로 많다. 두드러진 변화는 성역할태도 유형이 ‘이중부담’인 사람 중 자녀가치가 ‘불필요’ 유형에 속하는 사람은 남자 14.4%인데 여자는 무려 28.4%나 차지한다는 점에 있다. 거의 남자의 두배 가까운 여자들이 성역할태도가 ‘이중부담’이자 자녀가치가 ‘불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 코호트에서 크게 증가한 성역할태도 ‘평등’ 유형을 살펴보면 이들 중 자녀가치가 ‘자녀선호’인 사람은 남자는 2.2%로 약간 남아있으나 여자는 0%로 존재하지 않았으며 자녀가치가 ‘부담’ 유형인 남자가 10.0%, 여자는 13.6%, 자녀가치가 ‘불필요’ 유형인 사람은 남자 6.7%, 여자는 11.4%나 된다. 이 절의 1) 에서 회귀분석을 통해 유형과 유형의 관계를 분석했을 때 유의한 결과로 성역할태도가 ‘평등’인 사람은 자녀가치가 ‘불필요’ 유형이 될 가능성이 1.6배 높으며 성역할태도가 ‘이중부담’인 사람은 자녀가치가 ‘부담’이 될 가능성이 1.4배, ‘불필요’가 될 가능성이 1.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결과를 이 코호트가 잘 반영하고 있다. 이 코호트 전체의 자녀가치를 살펴보면 남자의 12.1%, 여자의 3.3%가 ‘자녀선호’ 유형이며 남자의 13.3%, 여자의 6.8%가 ‘선호와 부담’ 유형에 속한다. 그리고 남자의 45.5%, 여자의 46.5%인 압도적인 다수가 자녀가치 ‘부담’ 유형에 속하고 남자의 28.8%, 여자의 무려 43.2%가 자녀가치 ‘불필요’ 유형에 속한다. 이 코호트 여자 사이에서 자녀가치가 크게 하락한 것이 확인되며 이러한 급진적인 변화는 사회전체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니고 이 세대 여자를 중심으로 나타나는 혁명적인 변화이기에 한국에서 젠더혁명이 이 세대에서 급진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시사한다. 결국 한국의 급진적인 출산율 감소는 전 세대에 걸쳐 자녀가치가 '부담'인 사람이 많았으나 젊은 세대에서 '불필요' 유형에 속하는 여성이 전체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다는 급진적 변화는 1976-1985년생부터 서서히 변화의 징후가 보였다가 1986-1995년생 사이에서 폭발적인 변화로 나타나 이러한 자녀에 대한 가치 변화는 급진적인 출산율 감소와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코호트가 가임기를 맞이할 현재 이후로는 한국의 출산율이 더욱 감소해 갈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에서는 젊은 코호트에서 남녀평등적인 가치 규범이 급증하고 있으며 자녀가치가 급락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그러면 일본은 어떨까? 다음 〈그림 7-8〉은 일본의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 유형의 관계를 코호트 및 성별로 그린 것이다.

〈그림 7-8〉 일본의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 유형 코호트 및 성별 교차



전체적으로 살펴봤을 때 일본은 성역할태도 유형에는 코호트별로 비율 차이가 나타나지만 자녀가치 유형을 보면 젊은 코호트 특히 여자 사이에서 오히려 '분업지지'

유형이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한국과 비교해 정반대 경향이라 할 수 있다. 젊은 세대에서 가장 많이 속하는 유형 간 교차를 확인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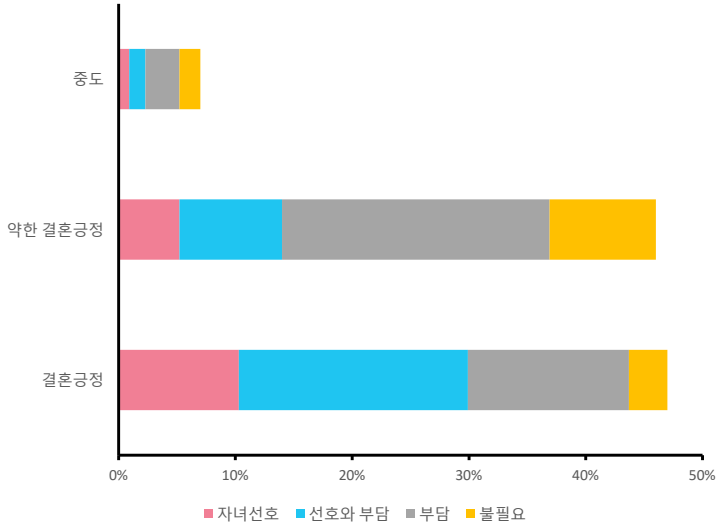
지금 현재 저출산을 이끌어가는 1986-1995년생 코호트 여자 사이에서 이전 세대와 변화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먼저 성역할태도를 살펴보면 여자는 '전업주부지지-평등' 비율이 높아졌으며 그중 자녀가치가 '자녀선호'인 사람이 가장 많아졌다. 1986-1995년생 남자 사이에서는 여성이 보조적인 역할로 일을 해주는 것을 원하는 성역할 '유연'이자 자녀가치 '선호와 부담'인 사람, '자녀선호'인 사람이 비슷한 비율를 차지한다. 이 세대는 남자보다 여자 사이에서 근대가족 지향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전업주부 아내와 샐러리만 남편 그리고 2 명의 자녀' 라는 근대가족은 버블 경제 붕괴 후 1990년 후반부터 실현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여성은 비정규직 고용이 늘어나면서 안정적인 삶을 희망해 다시 근대가족을 희망하는 가치규범이 강화되고 있음이 확인된다. 남자 또한 비슷한 경향을 볼 수 있으나 이 세대 여성이 남성보다 훨씬 근대가족 지향적이다. 일본 여성은 대부분이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는 현실은 커리어 지향적인 노동이 아니라 생활을 위한 노동이 대부분이고 후기 근대사회에서 중요한 '자아실현'은 직업을 통해서는 찾기 어려운 실상이다. 그렇기에 결혼을 하고 자녀 양육을 통해 본인 위치를 확보하려는 것이며 그러한 젊은 여성들의 모습이 확인된다. 이는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일본 젊은 여성들의 보수화 담론과 일치한다. 이 세대 여성 사이에서 가장 많은 성역할태도 '전업주부지지-평등' 유형이자 자녀가치 '자녀선호' 유형은 전체의 24.2%, 다음으로 많은 성역할 '유연' 유형이자 자녀가치 '자녀선호' 유형도 22.6%를 차지해 전체 여성의 절반이상이 자녀가치 '자녀선호' 유형에 속한다. 이 코호트의 남녀 모두가 보수화된 것이 아니라 여자 사이에서 보수로 회귀하는 현상이 확인이 되는 반면 남자는 여성이 취업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이 증가했으며 결혼가치 및 자녀가치가 약해진 점도 확인되었다. 전업주부가 되고 싶은 여자의 증가와 여자의 취업을 원하는 남자의 증가-이 남녀의 불균형이야 말로 일본 청년 결혼시장에서 수요와 공급 불균형으로 귀결되어 결혼을 못하는 집단이 증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3절. 결혼가치와 자녀가치

1) 유형간 상관관계: 강한 상관 관계인 한국, 무상관의 일본

1절에서는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 유형의 관계를, 2절에서는 성역할태도 유형과 자녀가치 유형의 관계를 살펴봤다. 이제 마지막으로 3절에서는 결혼가치와 자녀가치 유형의 관계를 살펴보도록 한다. 다음 〈그림7-9〉는 한국의 결혼가치 유형과 자녀가치 유형의 각 유형간 관계를 그린 것이다.

〈그림 7-9〉 한국의 결혼가치와 자녀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



한국에서 가장 많은 결혼가치 유형은 '결혼긍정'였고 그 다음으로 비슷하게 많은 유형은 '약한 결혼긍정'였으며 이 두가지 유형이 한국사람의 결혼가치 유형 대부분을 차지한다. 먼저 자녀가치 유형 '자녀선호'를 보면 결혼가치 유형이 '결혼긍정'일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결혼가치가 '약한 결혼긍정', '중도'로 이동할수록 비율이 크게 감소한다. 다음으로 자녀가치 '선호와 부담' 유형은 결혼가치가 '결혼긍정'일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며 '선호와 부담' 유형은 결혼가치 '결혼긍정'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그리고 이 유형은 결혼가치가 '약한 결혼긍정', '중도'로

이동할수록 크게 감소한다. 반면 자녀가치 '부담' 유형은 결혼가치 '결혼긍정'보다 '약한 결혼긍정' 유형에서 증가하며 '중도' 유형에서도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결혼가치와 자녀가치 유형이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지를 확인해 보자.

〈표 7-5〉 한국의 결혼가치와 자녀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

결혼가치/ 자녀가치	결혼긍정	약한 결혼긍정	중도
자녀선호	1.44* (.15)	.77 (.15)	.63 (.33)
선호와 부담	2.30*** (.12)	.46*** (.12)	.75 (.24)
부담	.58*** (.11)	1.67*** (.11)	1.10 (.21)
불필요	.44*** (.17)	1.81*** (.16)	1.84* (.26)

* p < .05.
** p < .01.
*** p < .001.

〈표 7-5〉에서 확인되듯이 각 유형별 회귀분석 결과를 보면 한국에서는 결혼가치 유형과 자녀가치 유형의 총 12패턴 중 일곱 가지 패턴에서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결혼가치 '결혼긍정' 유형에서 자녀가치의 모든 유형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이 확인되고 결혼가치 유형이 '약한 결혼긍정'인 사람도 대부분의 자녀가치 유형과 상관관계를 가지는데 '중도' 유형은 한 가지 조합에서만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결혼가치 유형이 '결혼긍정'인 사람들을 살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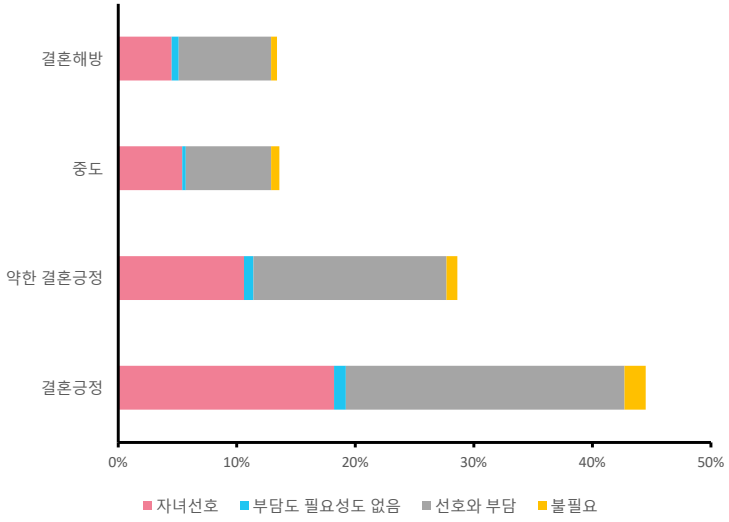
결혼가치 유형이 '결혼긍정'인 집단은 자녀가치 유형이 '자녀선호'가 될 가능성이1.44배(p=.012) 높고 '선호와 부담' 유형이 될 가능성이 2.30배(p<.00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결혼가치가 '결혼긍정'인 집단은 자녀가치가 '부담'일 가능성이 낮고(p <.0001) '불필요'일 가능성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다음으로 결혼가치가 '약한 결혼긍정'인 집단은 자녀가치 '자녀선호'와는 상관관계가 없으나 자녀가치가 '선호와 부담' 유형일 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p<.0001). 반면 결혼가치가 '약한 결혼긍정'인 집단은 자녀가치가 '부담' 유형일 가능성이 1.67배(p<.0001) 높고 '불필요' 유형일 가능성도 1.81배(p<.0001)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결혼가치가 '중도' 유형인 집단은 자녀가치가 '불필요' 유형일 가능성이 1.84배(p=.017)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 결과를 정리하면 한국에서는 결혼가치 유형과 자녀가치 유형이 커다란 상관관계를 가지는 점이 확인되었고 특히 결혼가치가 '결혼긍정'인 사람은 자녀가치 또한 '자녀선호'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결혼가치가 '중도'인 사람은 자녀가치가 '불필요'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 통계적으로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결혼가치 유형과 자녀가치 유형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일본은 어떨까? 다음 〈그림7-10〉은 일본의 결혼가치 유형과 자녀가치 유형의 각 유형간 관계를 그린 것이다.

〈그림 7-10〉 일본의 결혼가치와 자녀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



일본에서 가장 많은 결혼가치 유형은 '결혼긍정'였고 다음으로 '약한 결혼긍정' 유형이었으며 이 두가지 유형이 전체의 70% 이상을 차지한다. 자녀가치 유형은 네 가지 유형이 나타났으나 90% 이상이 '자녀선호' 혹은 '선호와 부담' 유형에 속한다. 먼저 가장 많은 일본사람이 속하는 결혼가치 '결혼긍정' 유형에서는 자녀가치가 '자녀선호'인 집단이 가장 많았고 '약한 결혼긍정' 유형인 집단에서는 자녀가치 유형이 '자녀선호'인 집단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일본에서는 결혼가치와 자녀가치 유형이 서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가지는지를 확인해 보자.

〈표 7-6〉 일본의 결혼가치와 자녀가치의 각 유형간 관계

결혼가치/ 자녀가치	결혼긍정	약한 결혼긍정	중도	결혼해방
자녀선호	1.18 (.12)	.91 (.13)	1.06 (.17)	.78 (.18)
부담과 필요성 없음	.71 (.37)	1.09 (.38)	.87 (.54)	1.79 (.43)
선호와 부담	.88 (.12)	1.14 (.13)	.90 (.17)	1.19 (.17)
불필요	1.06 (.30)	.74 (.35)	1.48 (.38)	.93 (.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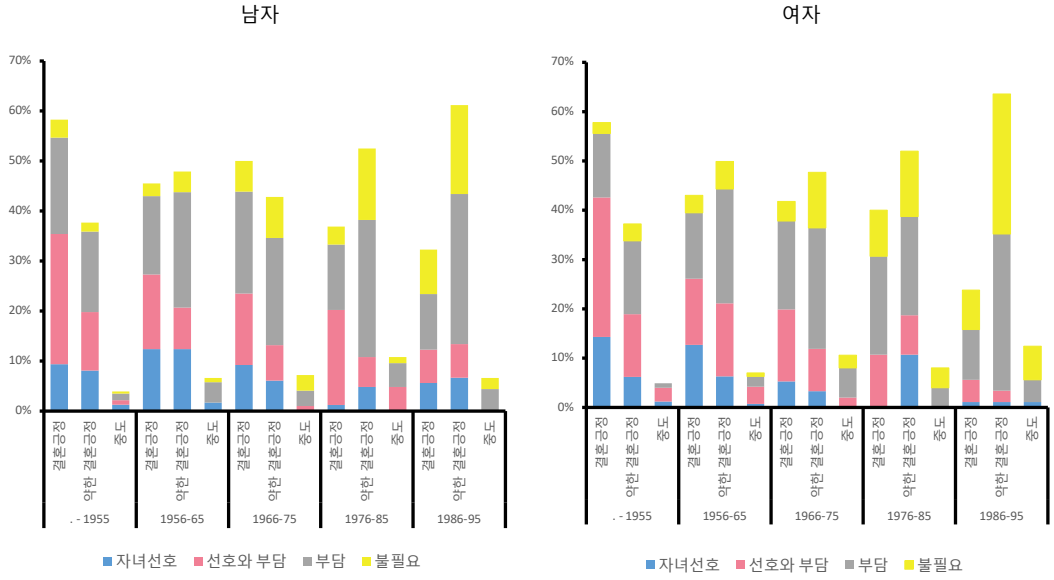
* $p < .05$.
** $p < .01$.
*** $p < .001$.

〈표 7-6〉에서 확인되듯이 일본에서는 결혼가치 유형과 자녀가치 유형 사이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전혀 없음이 확인되었다. 한국에서는 결혼가치 유형이 '결혼긍정'이면 자녀가치 유형도 '자녀선호'일 가능성이 유의하게 높아졌지만 일본에서는 결혼가치 유형과 상관없이 아무 자녀가치 유형에 속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본사람은 결혼가치 유형이 '결혼긍정'든 '약한 결혼긍정'든 자녀가치가 '자녀선호' 유형에 속할 수도 있고 '불필요' 유형에 속할 수도 있는 등 어느 유형에도 속할 수 있기에 어떤 유형 간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한국에서는 성역할태도 유형과 결혼가치, 성역할태도 유형과 자녀가치 그리고 결혼가치와 자녀가치 사이에 서로 강한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음에 비해 일본에서는 거의 상관관계가 없었다는 점이 양국 간 사이에서 나타난 커다란 차이점이라 할 수 있다. 기존 연구의 논의와 연결시키면 일본이 각 가치관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점은 특이하다고 봐야 할 것이다.

2) 가치관 교차: 젊은 세대 양상 비교

마지막으로 결혼가치 유형과 자녀가치 유형이 코호트 및 성별로 어떤 경향을 보이는지 그 차이를 분석해 보자. 다음 〈그림 7-11〉은 한국의 결혼가치 유형과 자녀가치 유형의 관계를 코호트 및 성별로 그린 것이다.

〈그림 7-11〉 한국의 결혼가치와 자녀가치 유형의 코호트 및 성별 교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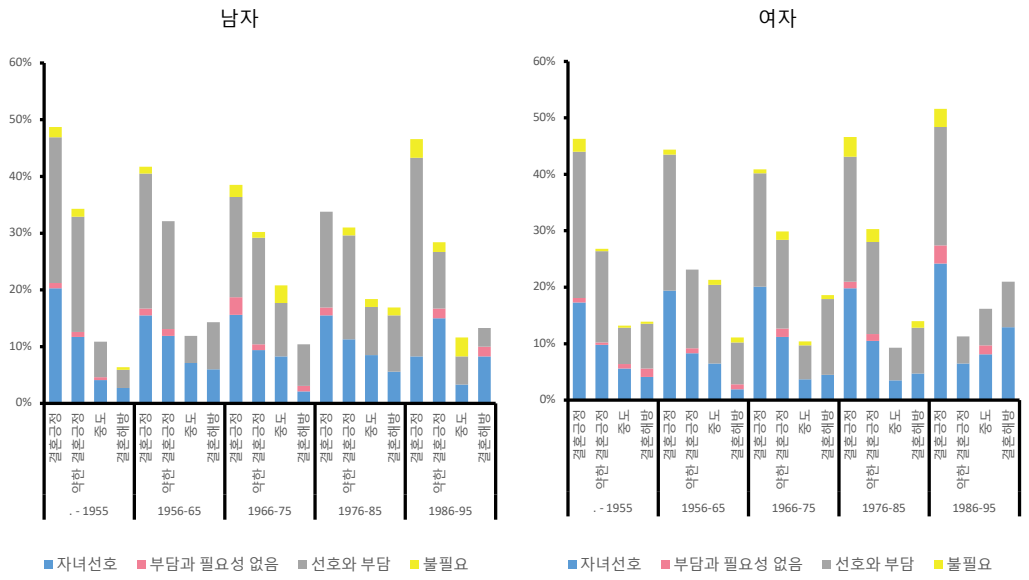
한국의 결혼가치는 세대별로 '결혼긍정' 유형이 서서히 감소해 온 반면 '약한 결혼긍정' 유형이 서서히 증가해 왔다. 그리고 역시 1986-1995년생 사이에서 변화의 폭이 크며 특히 여자 사이에서 '결혼긍정' 유형의 감소와 '약한 결혼가치' 유형의 급증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결혼가치가 약화한 집단이 급증한 것까지는 확인이 되지 않는다. 결혼가치는 도출된 유형자체가 한국이 일본에 비해 훨씬 결혼 긍정적인 가치를 내포했었고 결혼가치 '결혼긍정'이 일본의 '결혼긍정'보다 훨씬 결혼 긍정적인 가치를 나타냈으며 '약한 결혼긍정' 유형 또한 일본 '약한 결혼긍정'보다 결혼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내는 집단이었다. 젊은 세대에서의 자녀가치의 급락에 비해 한국의 결혼가치는 '약한

결혼긍정' 유형이 증가했다고 해도 전체적으로 여전히 보수적인 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한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속하는 결혼가치와 자녀가치 유형 간 결합이 1955년 이전 코호트에서는 압도적으로 결혼가치 '결혼긍정'이자 자녀가치 '선호와 부담' 유형이었다. 그것이 1976-1985년생에서는 결혼가치 '약한 결혼긍정'이자 자녀가치 '부담'으로 변했다. 여자에 있어서는 결혼가치 '약한 결혼가치'이자 자녀가치 '불필요'인 집단도 비슷한 비율로 크게 증가했다. 이 코호트에서 가장 많은 결혼가치 유형 '약한 결혼가치'인 집단 중에 자녀가치 유형이 '부담'인 집단은 남자 30.0%, 여자 31.8%로 거의 1/3을 차지한다. 그리고 결혼가치 유형이 '중도'인 집단 중에 자녀가치가 '불필요' 유형인 집단은 남자 17.8% 여자 28.4%로 여자가 남자보다 10% 이상 많은 것이 확인된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도 결혼가치 유형이 '약한 결혼긍정'인 집단은 자녀가치 유형이 '부담'일 가능성이 다른 유형에 비해 1.7배, 자녀가치 '불필요' 유형이 될 가능성이 1.8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이 코호트에서 그 결과를 분명하게 반영하고 있다. 결혼가치 '중도' 유형 또한 자녀가치가 '불필요' 유형이 될 가능성이 1.8배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상기 그림에서도 그러한 결과가 확인된다. 한국에서 결혼가치보다 특히 자녀가치에서 이 정도로 커다란 코호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은 같은 나라에 다른 나라 사람이 공존하는 정도로 차이가 나는 것이기에 이 커다란 코호트 차이야 말로 한국의 인구변동 속도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측면이라고 이해되며 남녀 차이가 있는 것 또한 그것을 가속시키는 요인이라고 이해된다. 1986-1995년생 여자는 자녀가치가 '부담' 유형인 집단이 절반, '불필요' 유형인 집단이 절반이기에 자녀에 대한 지향적인 가치를 느끼는 사람이 절반을 넘었던 1955년 이전 코호트와는 서로의 가치관의 소통이 불가능할 것처럼 보인다. 성역할태도의 급진적인 변화와 결혼가치의 완만한 변화, 자녀가치의 급진적 변화 이 세가지 상호작용이 오늘날 한국의 가족변동 속도에 박차를 가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국에서는 결혼과 자녀가치 유형 교차에 코호트 및 성별로 큰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이 되었는데 일본은 어떨까? 다음 〈그림7-12〉는 일본의 결혼가치 유형과 자녀가치 유형의 관계를 코호트 및 성별로 그린 것이다.

〈그림 7-12〉 일본의 결혼가치와 자녀가치 유형의 코호트 및 성별 교차



일본은 한국에 비해 코호트별로 서서히 변화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으나 1995년 이전 코호트와 1986-1995년 코호트를 비교해 봐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속하는 유형과 유형의 교차에 큰 변화는 확인할 수 없다. 그것은 여자에 있어서는 결혼가치 '결혼긍정' 유형이자 자녀가치 '자녀선호' 유형의 교차, 남자에 있어서는 결혼가치 '결혼긍정' 유형이자 자녀가치 '선호와 부담' 유형의 교차이다. 자녀가치가 여자에 비해 남자 사이에서 보다 더 '부담'을 느끼는 점은 한국과의 차이이기도 하다. 특히 잃어버린 세대인 1976-1985년생, 유토리 세대인 1986-1995년생 여자 사이에서 결혼가치가 '결혼긍정'이자 자녀가치도 '자녀선호'인 근대가족 선호적 태도가 강화된 점이 확인이 되어 한국의 같은 세대 여성과 대조적인 양상이라 할 수 있다. 이는 일본 사회에서 오랜 기간 유지된 '일본형 고용제도', '일본형 복지 정책'이 손을 잡아 근대가족 틀 속에서 사람들의 생애를 보장해 왔기에 대부분 사람들이 이 틀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기대하며 당연한 생애과정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여자에 있어서는 결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여성 역할로 다시 부상하고 있다. 2000년 이후 비정규직 고용으로 전환된 대부분의 일본 여성은 자아실현을 직업을 통해 찾기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여성의 행복이 가정에 있다고 믿고 자녀를 통해 자아실현 하려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오늘날 이러한

경향은 결혼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애사건이 아니게 된 만큼 더욱더 근대가족을 동경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는 태도의 부상으로 연결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4절. 소결

이 장에서는 LPA분석을 통해 도출된 한국과 일본의 성역할태도 유형, 결혼가치 유형, 자녀가치 유형에 대해 각각의 유형간 관계에 대해 분석했다. 성역할태도-결혼가치-자녀가치의 세가지 유형과 유형의 관계가 각각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를 갖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추정했다. 분석결과 한국은 성역할태도 유형과 결혼가치 유형의 조합 12패턴 중 6패턴에서, 성역할태도 유형과 자녀가치 유형의 조합 16패턴 중 11패턴에서, 결혼가치 유형과 자녀가치 유형의 조합12패턴 중 8패턴에서 유의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유의한 결과가 나온 조합은 대부분 전통적인 유형은 전통적인 유형과, 진보적인 유형은 진보적인 유형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전통적인 유형은 진보적인 유형과, 진보적인 유형은 전통적인 유형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한국에서는 성역할태도와 결혼가치 그리고 자녀가치가 각각 강한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은 성역할태도 유형과 결혼가치 유형의 조합 12패턴 중에서 상관관계를 가지는 유형은 하나도 없었으며 결혼가치 유형과 자녀가치 유형의 조합 16패턴에서도 전혀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일본에서는 어떤 성역할태도 유형에 속해도 특정한 결혼가치나 자녀가치 유형이 될 가능성이 없으며 어떤 결혼가치 유형에 속해도 어떤 자녀가치 유형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음으로 그러한 유형과 유형의 관계 교차가 성별 및 코호트에 따라 어떤 결합으로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교차분석을 했다. 분석결과 한국에서는 기성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코호트가 젊어질수록 이 세가지 가치관이 탈전통적인 가치지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확인되었고 특히 1986-1995년생 사이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물론 다른 세대에서도 젊을수록 서서히 평등지향적인 가치로 가치관의 이동이 확인되지만 같은 속도로 가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아니었다. 1976-1985년생 사이에서 변화의 징후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면 1986-1995년생 사이에서는 한국의 어떤 코호트와도 다른

가치규범의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으며 특히 여자사이에서 그 변화가 급진적이었다. 그리고 흥미로운 것은 성역할태도, 결혼가치, 자녀가치 등 세 가지 가치관의 변화 속도도 달랐다는 점이다. 세 가지 가치가 비슷한 속도로 급진적으로 변화한 게 아니라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던 것에 비해 결혼가치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변화였고 일본에 비하면 전체적으로도, 젊은 코호트에서도 아직은 결혼가치가 약해진 것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에서는 성별 및 코호트로 분석했을 때 한국과 대조적으로 젊은 코호트에서 성역할태도, 결혼가치에 있어 근대가족 지향적인 가치로의 회귀 현상이 관찰되었다. 그것은 일본 경제가 침체된 잃어버린 세대의 시작인 1976-1985년 코호트에서 변화의 징후가 보였다가 1986-1995년생 사이에서 더 뚜렷해졌다. 여성을 보면 성역할태도가 '전업주부지지-평등' 유형에 속하는 여자가 1986-1995년생에서는 50%를 넘었으며 이들 중 자녀의 존재 자체를 소중하게 여기는 자녀가치 '자녀선호'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1986-1995년 코호트 여자는 전업주부지향을 강화시켜 자녀가치를 더욱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확인되며 근대가족 지향성이 강화되어 있었다. 이 점이 자녀가치 '불필요' 유형이 거의 절반을 차지하는 한국의 같은 세대 여성과 정반대 방향을 향한 매우 대조적인 지향성임이 확인된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 경제위기 이후 침체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신자유주 노선을 추진한 자민당은 2000년대에 '자기책임(自己責任)'론을 내세우고 '카치구미(勝ち組, winner)' 와 '마케구미(負け組、 looser)' 담론이 등장하자 여성의 행복은 가정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담론들이 재부상했다. 2003년에 부상된 '마케이누(負け犬, 싸움에 진 개)' 담론은 여자의 행복은 가정에 있다는 여론 분위기를 조성했으며, 같은 시기 요리 연구가 쿠리하라 하루미(栗原はるみ) [88] 를 중심으로 가정역할에 충실하여 완벽하게 해내는 '카리스마 주부'가 다수 미디어에 등장해 여성의 행복은 가정에 있다는 전업주부, 모성

[88] 1992 년에 출판된 「'잘 먹었다'를 듣고 싶어서」는 밀리언 셀러(발행 부수 121 만부)가 되었으며 1994 년에 출판된 속편 「다시 '잘 먹었다'를 듣고 싶어서」와 함께 200 만부 판매를 기록했다. 2005 년 세계 67 개국에서 공모된 5,000 권의 요리책에서 'Harumi 's Japanese Cooking'이 Cookbook of the Year로 선정되어 제10회 미식가 세계 요리책(THE GOURMAND WORLD COOKBOOK AWARDS 2004)에서 일본으로서는 처음으로 상을 받았다. 2009 년 그의 책은 누계 발행부수가 2000 만부를 돌파했으며 발행 출판사인 후소사(扶桑社)는 일본 요리 연구계에서 역사적인 기록이라고 했다.

담론이 강화되어 갔다. 酒井(사카이, 2003)가 '30대 이상, 미혼, 무자녀'는 '마케이누'이며 '기혼, 유자녀' 여성은 '카치이누(勝ち犬, 싸움에 이긴 개)'라고 정의한 바 있는데 '카리스마 주부'는 '카치이누'의 상징으로 전업주부는 빛나는 존재로 TV나 잡지에 많이 등장한 시기였다.[89] 이후에 등장하는 '혼활' 붐과 함께 전업주부가 행복한 여성의 상징임을 보여주는 다수의 여성 잡지도 발행되어 있고 전업주부 연구에서 일본의 여성의 역할을 분석하는 연구도 다수 존재한다(예를 들어 Bardsley, 1999; Hardy, 2017; Ishii, 2004; Ishizaki, 2004; 2008; 이시자키(石崎), 2003;).

당시 일본 정치인 또한 저출산 문제를 출산하지 않는 이기적인 여성의 증가로 바라봐 왔다. 2003년 당시 자민당 저출산문제 조사회장이었던 森喜朗(모리 요시로우) 전 수상은 저출산을 둘러싼 검토회에서 무자녀인 여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자녀를 많이 낳은 여성을 장래 국가가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돌보는 것이 원래 복지 모습인데 자녀를 한 명도 낳지 않는 여성이 본인 마음대로라고 하면 안될 수도 있지만 자유를 구가(謳歌)하여 즐겼다가 나이를 먹은 후에 세금으로 돌봐달라고 하는 것은 사실 말도 안되는 일이다.[90]" 이러한 출산을 둘러싼 일본 정치인들의 발언은 이후 오늘까지 이어져 왔다. 2007년 후생노동성 저출산 담당 대신인 柳沢伯夫(야나기자와 하쿠오)는 저출산 문제에 대해 언급해 "여성은 15세에서 50세까지가 출산을 하는 연령. '출산하는 기계, 장치의 수'가 정해져 있기에 그 역할을 맡은 당사자들 한명 한명이 노력해야만 한다"고 발언한 바 있으며[91] 여성이 자녀를 낳는 기계이고 저출산문제는 여성 한명 한명의 당사자가 노력하여 해결해야 하는 문제로 바라보고 있다. 최근에서는 아소우 타로우(麻生太郎) 부총리 현 재무성 대신이 2019년에 저출산 · 고령화문제에 대하여 "나이를 먹은 사람이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인식이다.

---

[89] 연예인은 예능활동을 하는 사람이라 직업이 있는 사람인데 '카리스마 주부'는 유명한 연예인이 결혼하고 자녀를 낳은 후 예능활동하는 여성에게 많이 사용된다. 오늘날도 인기 연예인은 SNS에 본인 육아하는 모습을 올리면 '카리스마 주부'라고 많이 칭찬받는다. 또 '마마타레'(엄마+ 탤런트)라는 단어가 있는데 연예인 중 결혼도 하고 자녀도 있는 성공한 여성 상징으로 활약한 연예인이다. 직업적으로 성공한 여성도 결혼하고 자녀가 있어야 행복하고 존경받는 여성으로 비추어진다.

[90] 서일본신문(西日本新聞, 2003년7월3일) 기사.

[91] AFP통신 '"여성은 출산하는 기계" 발언의 야나기자와 후생노동성에 대해 아베수상이 엄중 주의' (2007년1월29일) https://www.afpbb.com/articles/-/2174092

국민개보험(国民皆保険) 제도를 유지하는 일본에서 평균수명이 길어지며 고령자가 늘어난 것은 훌륭한 일이다.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문제이니까"라고 말했다가 나중에 철회한 바 있다.[92] 이러한 일본에서 오랫동안 정권을 잡은 자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가들의 발언은 2000년 이후 상당히 반복되어 왔는데 이러한 발언의 근본에는 '여성의 일은 출산, 가사, 육아'라는 공통적인 가치관이 뿌리깊게 내려져 있다. 이러한 가치관은 단지 한 정치인의 발언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정치인 집단 속에 오랫동안 이어져 온 정신이라고 여겨진다. 자민당은 2016년부터 '여성활약추진'을 내세워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이 활약할 수 있는 노동환경의 정비를 기업에게 의무화시키는 것으로 여성이 일하기 쉬운 사회를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여성활약추진법'을 시행했으나 지금까지 과거 일본 정치인들은 여성활약과 정반대인 발언들을 반복해 왔다.

이상 2000년 이후의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여성의 고용이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어 불안정화되자 여성의 희망은 결혼과 양육 외에 찾기 어렵기에 스스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성역할을 내재화하여 가정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생각하는 여성들이 증가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나는 결혼과 자녀 지향적인 여성이 젊은 여자 사이에서 증가한 것은 바로 이러한 사회경제적인 배경의 산물이라고 생각한다.

정리하면 한국은 1986-1995년생 특히 여자 사이에서 폭발적으로 급진적인 가치변화가 나타나며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의 결합에서 성역할이 '평등' 지향적인 사람의 급증과 자녀가치가 '불필요' 유형인 여자, 혹은 성역할이 '이중부담' 유형이자 자녀가치 '부담' 유형인 여자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성역할과 자녀가치의 급진적인 변화에 비해 결혼가치는 조심스럽게 서서히 변화해 결혼가치 자체가 약해진 집단이 증가한 것은 아니었다. 반면 일본은 성역할태도에 있어 1976-1985년생 사이에서 시작해 1986-1995년생 사이에서 더욱 더 '전업주부지향 평등' 유형에 속하는 사람이 증가했고 이들 중 결혼가치가 '결혼긍정'인 여자가 늘어났다. 그러나 한쪽에서는 결혼가치가 약해진 집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젊은 세대에서는 자녀가치가 다시 의미있는 것으로 부상되어

---

[92] 아사히 신문 「아소우씨 "자녀를 출산하지 않는 것이야말로 문제" 발언을 철회」(2019년2월4일) https://www.asahi.com/articles/ASM243SY1M24UTFK00R.html 이 발언에 대한 동영상은 아사히 TV ANN뉴스가 공개하고 있다(2019년2월4일).
https://www.youtube.com/watch?v=5ay_8OBmwMU

‘자녀선호’ 유형에 속하는 집단이 1986-1995년생 여자 사이에서 증가했으며, 일본에서의 자녀가치는 성역할태도 및 결혼가치 유형과 아무 상관없이 자녀에 있어서는 어떤 유형에서도 어떤 코호트에서도 안정적으로 비슷하게 지향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다. 일본에서는 자녀가치의 약화는 관찰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젊은 여자를 중심으로 자녀의 존재가 여자의 인생에 있어서 더욱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집단이 대부분이었다.

제 8장. 결론

본 연구는 '한국의 출산율 하락 속도는 왜 일본보다 빠른가?'라는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서구 이론에서 중요한 설명변수로 다루어져 온 '가치관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비교사회학적 시각으로 비슷한 사회문화적 배경을 가지는 일본과의 비교를 통해 접근했다. 일반적으로 가치관은 행동(형태)에 비해 변화의 속도가 빠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가족가치 변동의 특성은 한국과 일본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족변동 양상 차이를 이해하기 위한 핵심적인 요소라고 보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연구질문에 답하기 위해 다음 세 가지 분석 전략을 취했다. 첫째, 가치관이 사회발전에 따라 이론적으로 전통에서 진보를 향해 선형 이행해 간다는 이분법적인 시각을 넘어 가치 측면에 따라 상이하고 때로는 모순적인 복잡한 가치구조를 가지는 다원적 양상 그대로를 포착하고 비교분석하기 위해 잠재집단분석을 실시했다. 둘째, 방법론적으로 연구대상을 거시적 시각에서 하나의 집단으로 간주하여 평균값을 구해 사회전체 동향을 거시적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취하지 않고 집단 내부 차이(코호트 간 및 코호트 내부 차이, 성별 차이)를 분석했다. 셋째, 방법론적으로 가족가치의 여러 측면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성역할태도-결혼가치-자녀가치의 세 가지 측면을 비교분석한 후 각각의 상관관계에 대해서도 분석했다. 이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룬 코호트 간의 차이를 분석하는 작업은 역사적 변화 속도와 지속의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에 국가간 유형 차이뿐만 아니라 그 속의 코호트 간 및 코호트 내부 차이에 주목하여 변화하는 양상을 기술하고 그 의미를 해석하였다.

이하에서 연구의 주된 결과를 요약하고 결과가 갖는 함의를 정리해 보고자 한다.

1절. 연구의 요약

3장에서 확인한 한국과 일본의 성역할태도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첫째 전반적으로 한국은 어머니 취업에 대해 일본보다 훨씬 부정적인 태도를 공유한다는 점에 있었다. 성역할태도가 가장 진보적인 '평등' 유형에서도 일본에 비해 어머니가 취업하면 자녀 및

가정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생각하는 성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둘째 일본은 한국에 비해 어머니 취업에 대해 긍정적이면서 '여성이 취업하는 것도 괜찮으나 대부분의 여성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집에 머무르며 자녀를 키우는 것이다'에 대해 전체적으로 동의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국과 일본 여성에게 기대되는 역할은 공사영역에서 서로 다르게 모순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다. 한국에서는 어머니도 취업해야 하지만 어머니가 취업하면 가정생활이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생각하는 불안정한 균형(규범적 혼란)을 보였다면 일본에서는 어머니도 취업하는 것이 좋고 취업해도 가정생활에 지장이 없으나 여성의 행복은 가정에 있다고 생각하는 성역할 불균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반면 한국과 일본은 '전업주부가 되는 것도 보수를 받고 일하는 것만큼이나 가치 있는 일이다' 라는 가치에 대해서는 어떤 유형에서도 크게 인정한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양국의 차이를 보여주는 세 번째 특징은 여성의 경제적 기여책임 여부에서 나타난다. '남자나 여자나 모두 돈을 벌어 가계 소득에 기여해야 한다'에 대해 한국은 어떤 유형에서도 강한 경제적 기여 책임을 기대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에 비해 일본은 어떤 유형에서도 동의가 약했다. 그러면서 네 번째 특징으로 '남자가 할 일은 돈을 버는 것이고 여자가 할 일은 가정과 가족을 돌보는 것이다'라는 전형적인 성역할태도를 묻는 질문에 대해서는 일본이 전체적으로 한국보다 반대의견이 강하고 남녀평등지향적인 태도를 보였다.

다섯 번째 특징은 한국이 성역할태도에 대해 세대차이가 크게 나타나는데 비해 일본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 있다. 이는 한국사회가 경험한 압축적 교육 팽창으로 인해 세대간 교육격차가 매우 커서 성역할에 대한 태도가 세대별로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에서는 변화는 하나의 방향을 향해 특히 젊은 여성 사이에서 가치규범이 성역할 평등으로 급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성역할 '분업지지'보다 '평등' 유형에 속할 가능성이 높은 집단은 한국에서 대졸자, 미혼, 1986-1995년 코호트임이 나타났고 성별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본에서도 대졸자, 미혼, 여자, 1986-1995년 코호트에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대적 흐름으로 양국이 학력수준이 높은 젊은 미혼 여성을 중심으로 성역할태도가 평등을 향해 이행하는 경향에 있다는 점이 통계적으로 지지되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국과 일본에서 추구하는 평등의 형태에는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이 본 연구의 중요한 발견이다. '젊은 고학력 여성을 중심으로 가치관이 남녀평등으로 향하고 있다'고 한마디로

논의해 버리면 양국의 차이는 사라지는데 그 속에 숨겨진 양국이 추구하는 성역할 평등 형태의 차이를 드러내는 것으로 양국 사회의 남녀가 배치된 구조 및 역할이 서로 비슷하면서도 매우 다르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4장에서 확인한 한국과 일본의 결혼가치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 정리하면 전체적으로 한국이 일본에 비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나 젊은 세대 특히 여성 사이에서 결혼에 대한 매우 긍정적인 가치는 약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일본에서는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를 높이는 사람이 오히려 증가했으며 동시에 결혼에 대해 큰 가치를 두지 않는 사람도 증가하여 같은 세대 내에서도 변화의 방향이 갈라지는 점이 확인되었다. 회귀분석 결과에서는 한국의 경우 코호트 및 성별 차이가 분명히 나타났다면 일본은 일부 남녀차이가 나타났으나 코호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한국의 결혼가치가 세대별로 빠른 속도로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가 약해지는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성역할태도에 비해 결혼가치는 변화의 폭이 크지 않았다. 반면 일본에서는 원래 다양한 결혼에 대한 가치가 존재했으며 시간이 지나도 하나의 방향으로 향해 변화한다는 경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일본 기존 연구에서 지적되어 온 것처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가치관이 보수화가 되었다는 점을 뒷받침하는 결과가 나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젊은 세대 전체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아니었다. 일본의 결혼가치는 젊은 여성 절반이 결혼을 더욱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만 반면에 결혼 자체에 큰 가치를 두지 않는 집단도 증가했다.

5장에서는 출산율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가치에 대한 한일 차이와 공통점에 대해 분석했다.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한국은 일본보다 자녀 양육으로 인해 초래되는 부담감을 크게 느끼고 있었고 '자녀선호' 유형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자녀에 대한 시간적, 경제적, 커리어적인 면에서 기회나 자유가 제한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자녀에 대한 도구적인 가치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었는데 자녀의 존재가 본인 사회적 지위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일본보다 한국 유형에서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 차이를 코호트 및 성별로 자세히 살펴본 결과에서는 한국의 경우 자녀가치에서도 급진적인 변화 추세를 확인할 수 있었다. 성역할태도, 결혼가치와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는 자녀가치에서도 코호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자녀선호' 및 '선호와 부담' 유형에 속하는 집단이 연령이 낮아질수록 확실히 감소해 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남자보다 여자 사이에서 급진적인 변화가 확인되었다.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결과는 한국에서 젊은 여자를 중심으로 자녀가치 '불필요' 유형에 속하는 집단이 급진적인 증가 추세에 있는 것에 비해 일본 젊은 여성 사이에서는 자녀가 더욱 더 중요한 존재로 인식되어 자녀가치를 강화시킨 집단이 증가했다는 대조적인 가치관에서 찾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한국에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젠더 평등지향으로 급진적인 가치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으나 젠더평등으로 사회전체가 변화한 것이 아니기에 기존 세대의 가치관 및 사회구조와 마찰을 일으켜 자녀에 대한 가치가 급하락한 게 아닌가 생각된다. 동아시아의 출산율 하락은 남녀불평등한 가정생활을 피하는 미혼여성의 결혼기피로 인해 결혼이 감소 혹은 지연되었으나 한번 결혼을 하면 자녀를 낳는다고 보고 왔다(McDonald, 2009). 그러나 본 연구결과에서는 한국의 여성들이 결혼을 기피하는 것보다 자녀출산을 부담으로 여겨 기피하는 가치태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는 젊은 여성 사이에서 결혼가치가 약해진 후에 자녀가치가 약해진 것이 아니라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는 그다지 약해지지 않았다. 애정을 느끼는 사람과 함께 생활하기 위해서는 동거가 아닌 결혼을 해야 하며 결혼한 사람이 더 행복하다고 믿는 태도는 강한데 본인의 직업적 성취를 더 우선시하기에 자녀 양육의 있어서 고등교육까지 받은 젊은 여성에게는 본인 커리어를 포기해서까지 선택해야 하는 강도 높은 어머니 노릇은 처음부터 매력적인 선택으로 느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일본에서는 한국의 젊은 여성과 대조적으로 젊은 여성 사이에서 자녀의 존재를 더욱 더 가치있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기에서도 일본의 젊은 세대 전체에서 자녀에 대한 가치를 높인 것이 아니라 젊은 여성 사이에서만 그러한 경향이 강화된 것이 확인되었으며 남성은 그렇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각 유형별로 사회인구학적 특징을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회귀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한국에서는 4년제 대학졸업자, 무직자, 미혼자, 여자, 1966-1975년, 1976-1985 사이에서 자녀가치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가능성이 높아짐이 확인되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고졸 이상의 모든 학력수준에서, 기혼에 비해 미혼과 이혼/사별을 경험한 사람 사이에서 '자녀선호' 보다 '선호와 부담' 유형에 속하는 집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처럼 성별 및 코호트 차이가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결과는 일본사회에서는 자녀에 대한 가치가 전 세대에 걸친 남녀 사이에서 안정적으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결과라고 해석된다.

6장에서는 3~5장에서 도출된 유형과 유형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분석결과 한국은 성역할태도 유형과 결혼가치 유형, 성역할태도 유형과 자녀가치 유형, 결혼가치 유형과 자녀가치 유형에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유의한 결과가 나온 조합은 대부분 전통적인 유형은 전통적인 유형과, 진보적인 유형은 진보적인 유형과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는 반면 전통적인 유형은 진보적인 유형과, 진보적인 유형은 전통적인 유형과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반면 일본에서는 유형 간에 유의한 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어떤 성역할태도 유형에 속해도 특정한 결혼가치나 자녀가치 유형이 될 가능성이 없으며 어떤 결혼가치 유형에 속해도 어떤 자녀가치 유형이 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

성별 및 코호트별로 분석한 결과에서는 한국은 기성세대에서 젊은 세대로 코호트가 낮아질수록 성역할태도가 평등지향적인 태도를 보이는데 흥미로운 점은 성역할태도가 '평등' 유형에 속하는 사람의 결혼가치가 약간 약화됨이 확인되는 것에 비해 자녀가치는 급진적으로 하락하고 있었으며 결혼가치와 자녀가치가 함께 변화하는 가치관이 아님이 밝혀진 점에 있다. 한국 여성사이에서 급진적으로 진행되는 가치변화는 성역할태도와 자녀가치에서 찾을 수 있었으나 결혼가치에서는 급진적인 변화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 결과는 한국에서는 결혼을 한다고 해도 꼭 자녀를 낳는 것이 아니며 결혼가치보다 먼저 자녀가치가 하락했기에 앞으로 빠른 속도로 유배우 출산율이 저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일본에서는 성역할태도 및 결혼가치와 상관없이 어떤 유형에서도 자녀지향적인 가치를 공유하고 있었던 것과 동시에 결혼에 대한 가치 또한 결혼을 긍정적으로 여기는 집단이 절반을 넘었다. 일본에서는 '결혼긍정' 유형이자 '자녀선호' 유형인 여성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하며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그러한 경향이 더 강화됨이 확인되었다. 이에 일본에서는 결혼을 지원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으로 이어진다고 여겨진다. 이미 결혼을 하고 양육 단계에 있는 여성을 지원하는 현재의 무상 보육같은 정책은 한국 및 일본에서는 그다지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이라고 할 수 없다.

이상 본 연구의 중요한 공헌은 한국과 일본은 서로 다른 형태의 성역할 평등을 추구해 왔다는 점, 한국에서는 결혼가치가 일본보다 긍정적인 채 자녀가치가 먼저 급하락했다는 점, 한국에서 세대간 가치변화가 매우 크게 나타나며 하나의 방향을 향해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밝힌 점에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일본이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남성부양자 가족모델을 지지하여 가족형성 지향적인 태도를 강화시킨 젊은 여성의 증가라는 대조적인 결과가 나왔다. 이상 본 연구를 통해 오늘날 한국과 일본의 출산율 하락을 둘러싼 가족변동은 현상으로 나타나는 양상은 비슷하더라도 젊은 세대가 가족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서로 전혀 다른 방향을 향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2절. 연구의 함의

서구 선행연구에서는 경제발전에 따른 가치 규범 변화는 가족관계나 성별 분업 패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논의되어 왔다(Lesthaeghe, 1983; Rindfuss, Brewster and Kavee, 1996). 가치관은 시대와 사회의 흐름에 따라 변화되고 규범이나 가족제도가 변화하는 것보다 먼저 변화하게 되지만(은기수· 이윤석, 2005) 그 변화속도는 나라마다, 코호트마다, 성별마다 그리고 가치 측면마다 같은 속도가 아님이 확인되었다. 기존의 사회제도와 구성원들의 가치규범이 크게 괴리되어 있다면 그 사회 구성원들의 삶과 마찰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Arpino et al(2015)는 Hirschman(1970)의 이론을 원용해 불평등하게 분배된 성역할에 대해 여성들이 가족 형성을 하지 않거나(exit), 그 구조에 대해 목소리를 내거나(voice), 오히려 받아들이고 충성하는(loyalty) 세 가지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고 논의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역할규범의 확산 수준에 따라 개인이 선택하는 전략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만일 성역할 평등지향적인 태도가 '크리티컬 매스(critical mass)[93]'를 넘으면 변화를 이끌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 목소리를 내는 전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지지만(voice) 그 이전 단계라면 소수파인 여성이 아예 이탈하거나 충성하는 전략을 선택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 오늘날 한국과 일본이 놓여져 있는 상황과 가족에 대한 가치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한국의 젊은 여성들이

[93] 어떤 조직에서 소수파가 영향력을 구사할 수 있게 되기 위해서는 일정 이상의 사람들 지지가 필요한다는 이론이다. Dahlerup(1988)는 물리학에서 어떤 연쇄반응(chain reaction)을 일으키고 새로운 국면으로 진화해 가기 위해 필요한 임계질량인 '크리티컬 매스' 개념을 정치에 응용할 수 있을지를 검토했다. 그 결과 사회과학에서는 자연과학과 달리 변수를 통제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긴 하지만 정치를 변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여성 의원 비율은 약 30%라고 추정한다.

목소리를 내고 항의 전략을 선택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가치 측면에서 이미 성역할태도 평등을 지향하는 1986-1995년생 젊은 여성들이 '크리티컬 매스' 기준인 3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한국에서는 이후 빠른 속도로 남녀평등을 향해 갈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자료는 2012년에 조사된 자료이기에 2021년 오늘날 한국에서 벌어지는 젠더갈등 양상을 보면 이미 급진적인 변화가 급속도로 진행중이라고 보여진다. 그러나 한국은 교육의 세대간 격차가 매우 큰 것처럼 가치관의 세대간 차이도 역시 매우 컸다. 그러므로 만일 젊은 세대 전체가 급진적으로 남녀평등을 향해 가치관을 변화시켰더라도 아직 일부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일어난 변화인 만큼 사회전체로 확대되는 것은 시간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강남역 10번 출구 묻지마 사건', '82년생 김지영' 등을 시작으로 하여 사회 전체에 빠른 속도로 확산하는 한국의 페미니스트 운동은 '항의'를 선택한 여성들의 목소리이기도 하다. 고학력 여성들이 높은 인적자본으로 무장하여 오늘날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일자리 속으로 빠른 속도로 진입해 왔다.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한국사회에서 여자는 한정된 일자리를 얻기 위한 남자와의 경쟁에 적극적으로 뛰어든 것이다. 한국이 지난 세기말 외환위기를 계기로 가속화된 산업 공동화·세계화 속에서 남성노동자들의 노동시장 지위가 급격히 불안정화되고, 남녀 간 노동시장 지위 분리·차등이 덜한 서비스업의 고용규모가 가속적으로 커지면서 여성들의 사회 참여가 범세대적으로 확대되고 있다(장경섭, 2018: 53). 이제 여자는 보호의 대상이 아니고 진지하게 경쟁해야 하는 적대적 관계가 되어 버린 것이 오늘날 한국의 남녀갈등의 부상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94].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이미 남녀평등지향적인 태도가 고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치규범 및 제도는 여성에게 가정책임을 전담키시하는 불평등 구조가 뿌리깊게 남아 있기에 자녀출산으로 인해 부과되는 강도높은 어머니 노릇을 부담으로밖에 느끼지 못해 자녀에 대한 지향적인 가치가 급하락한 것으로 이해된다.

반면 일본에서는 한국의 미투 운동과는 반대 방향으로 페미니즘에 대한 백래시 운동이 일어나고 있다. 전업주부 + 파트타임 노동이라는 생애과정을 대부분 여성이 맡고 있는 일본에서 전업주부를 부정하는 페미니스트 운동은 그들의 존재를 흔드는 위협이기에 오히려 반대하는 보수운동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다(이시카와(石川)·사이토우(齋藤), 2020;

---

[94] 오늘날 한국의 젊은 세대 남녀갈등에 대해서는 김보명(2018), 이미경 외(2021), 이나영(2016), 추지현(2019) 등의 연구에서 자세히 기술되어 있다.

스즈키(鈴木), 2019[95]; 야마구치(山口), 2000).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것처럼 일본에서는 전업주부를 지지하는 형태의 성역할평등을 지지하고 있기에 남녀사이에서 동등하게 역할을 분배하려는 남녀평등은 유형에도 나타나지 않는 소수파이기에 목소리를 내는 전략(voice)은 선택하기 어렵고 결혼을 안하거나(exit) 오히려 자녀양육을 받아들이고 충성하는 전략(loyalty)이 젊은 여성 사이에서 선택 받고 있다고 해석된다.

한국과 일본 여성을 이 정도로 갈라지게 만든 기제는 무엇이었을까? 연구자는 한국에서 90년대 후반에 일어난 '여성의 고학력화'와 '남성의 고용 불안정화' 그리고 여성 스스로가 목소리를 내고 발전시켜온 '여성(가족) 정책의 발전'의 세 가지 측면이 동시에 손을 잡아 나타난 급진적인 가치관 변동이라고 해석한다. 그 중에서도 무엇보다 여성의 '고학력화'가 아주 중요한 변화였다고 본다. 한국의 교육 팽창 증가 속도와 폭이 어느 나라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하고 컸기 때문이다. 학력수준이 가치관에 미치는 영향은 더이상 언급할 필요도 없이 이미 많은 기존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딸에게도 아들과 동등한 고등교육을 시키는 자세가 이미 80년대 부모세대에게 있었고 90년대에는 더 빠른 속도로 딸에게 고등교육을 시켰다. 당시에는 아직 노동시장의 참여 기회가 제한적이어서 여성의 높은 학력자본은 단지 결혼시장에서 장점적인 요소 정도로만 활용되고 있었다. 그러한 와중에 경제위기를 맞아 한국이 선택한 노선은 남자까지 포함한 노동시장의 구조조정이었으며 결국 남자의 고용이 불안정화되었다. 여자도 경제활동에 기여해야 하는 필요성이 높아졌을 때 고등교육을 받은 만큼 이미 여자들의 노동시장 참여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한 가지 덧붙이자면 한국에서는 일본과 달리 경로의존적으로 지켜야 하는 안정적인 가족체제나 고용체제가 형성되기 전에 상황적으로 늘 변화를 경험해 왔고 복지 또한 형성되기 전에 경제위기를 맞았으며 지켜야 하는 정책도 없었다. 안정적인 근대가족 형성과 유지 기간을 출산율 변화 지표에서 분석한 오치아이(落合, 2013)는 이러한 이유로 '반압축적 근대', 다른 아시아국가를 '압축적 근대'로 구별하고 있다. 한국에는 서구 이론에서 일컫는 근대가족 경험이 제대로 없었다. 일본에는 짧게나마 20년정도 근대가족의 안정기가 있었다. 이러한 압축적 근대화의 결과로 오늘날 한국의

---

[95] 鈴木(2019)는 1990년대 후반부터 일어난 일본 여성들이 전개한 보수운동에 대해 연구해 박사논문을 받았다. '남녀공동참획'이라는 남녀평등을 내세운 정부 지침에 반대한 '주부'들의 모습을 자세히 분석하고 있다.향향

여성들이 고등교육이 급상승해 공적영역으로의 진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시작했음에도 가정영역에서의 책임을 여전히 전담해야 하는 상황에 있어 가족형성에 있어 결혼에 대한 긍정적인 가치 하락보다 먼저 자녀에 대한 지향적인 가치가 하락해 버렸다. 한국의 '압축적 여성 고학력화'와 '압축적 여성정책 전개' 그리고 '남자의 고용불안정화'라는 복합적인 결합이 매우 빠른 속도로 동시다발적으로 이루어졌기에 성역할태도에 대한 규범적 혼란을 일으켜 결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가치를 유지한 채 자녀가치가 먼저 하락한 것으로 이해된다.

3절. 연구의 한계 및 후속 연구 제언

한국의 출산율 하락속도를 이해하기 위해 본 연구는 가족가치 변동에 초점을 맞추어 양국의 양상 차이를 살펴봤는데 한국이 일본에 비해 공사영역에서 여성이 부담해야 하는 역할이 부과상태에 있었고 젊은 여성을 중심으로 급진적으로 역할 분담과 자녀 양육을 거부하는 모습이 확인되었다. 한국은 서구사회가 바라보는 것처럼 거시적인 평균값으로 비교했을 때에는 본 연구 결과에서도 '일본보다 보수적'인 가족가치를 지닌 사회이기에 일본보다 출산율이 낮다고도 해석할 수 있으나 미시적으로 내부집단 차이에 주목하면 전혀 그렇다고 할 수 없는 급진적인 가치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국제비교연구에서 사용되는 한국을 대표하는 '평균값'은 도대체 누구를 대표하고 있는지를 모를 정도로 코호트별 가치관 차이가 컸다. 출산율 하락을 설명하는 여러 이론 중 본 연구결과에서 중요한 시각이라고 보는 것은 Esping-Andersen and Billari(2015)가 제시하는 '성평등 균형(Gender Equality Equilibrium)' 개념인데 일본이 공적 영역에서 한국보다 남녀불평등 상황에 놓여져 있음에도 한국에 비해 급격한 출산율 하락을 일으키지 않고 낮지만 안정적인 출산율을 오랫동안 유지해 온 이유는 가정영역에서 경제적 책임을 전담하지 않고 보조적인 역할을 맡고 있기에 (공평성을 지닌 남녀평등이라고 할 수 없으나) 일본형 남녀평등 형태로 오랫동안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서 벌어지는 급진적인 가족가치 변화는 한국에서 안정적인 가족가치가 자리잡은 적이 있는지 의문을 갖게 만든다. 한국이 근대화 과정에서 사회가 빠른 속도로 변화해 온만큼 여성의 역할 또한 상황에 맞게 빠른 속도로 변해왔다고 생각된다. 한국은 국제비교연구에서는 보수적인

가족가치를 지닌 국가로 알려져 왔으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늘 급진적인 가치변화를 주도해 왔기에 일찍부터 딸에 대해 적극적으로 교육 투자해 왔다고 여겨진다. 이 점에 대해서는 시계열 자료를 사용해 한국의 가족가치 변화를 코호트 차이에 주목해 역사적으로 변화의 시기와 특징을 분석해 보는 작업을 후속 연구 과제로 삼고 싶다.

앞으로 한국이 세대간의 및 남녀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가족을 둘러싼 가치관 마찰이 가족변동 속도를 가속시킨다는 본 연구결과의 견해를 검증하기 위해 한국처럼 급격히 '압축적인 근대화'를 실현해 온 사회-대만, 홍콩, 싱가포르 등 아시아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압축적인 고학력화'가 '압축적인 가치변화'를 일으켜 그것이 오늘날 동아시아 사회의 급격한 출산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작업 역시 훗날의 연구과제로 하고 싶다. 그리고 본 연구는 2012년 자료의 한 시점으로만 비교한 연구이기에 앞으로 시간 흐름에 따른 변화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2021년 오늘날의 한국은 이미 2012년 시점보다 훨씬 남녀갈등적인 모습이 확인이 되고 출산율 하락 속도도 빨라졌다. 남녀평등을 지지하는 집단의 수가 '크리티컬 매스'를 넘어 확산기조에 있기에 목소리를 내는 전략(Voice)을 택해 여성들이 미투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왔다. 사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2012년의 10년 전인 2002년도 자료도 사전 연구에서 분석해봤으나 2002년과 2012년의 10년 동안 사이에서는 가족가치관에 큰 변화가 확인되지 않았다. 한국의 가족가치 변동은 쿼터제도 도입(2004년), 여성가족부 설치(2005년), 호주제도 폐지(2008년) 등 일련의 여성정책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2005년 전후 시점에서 가속화된 것으로 이해된다. 앞으로 2022년에 ISSP에서 같은 조사가 이루어질 예정이기에 그 시점에 다시 가족가치 변화를 비교해 보는 것도 연구과제로 삼고자 한다. 한국이 압축적으로 급격하게 사회가 변해가는 만큼 10년후의 모습이 더욱 더 변화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나아가 가족가치에 대해 조사한 다른 자료도 병행해 분석하는 것으로 한국의 압축적인 가치변화에 대한 성찰을 깊게 가져가고자 한다.

참고 문헌

◆한국어 문헌

강준만. 2018a. “소통하는 페미니즘: 한국 페미니즘 논쟁사, 2008~2018(1).” 〈인물과사상〉 244: 44-83.

강준만. 2018b. “소통하는 페미니즘: 한국 페미니즘 논쟁사, 2008~2018(2).” 〈인물과사상〉 244: 46-85.

강준만. 2018c. “소통하는 페미니즘: 한국 페미니즘 논쟁사, 2008~2018(3).” 〈인물과사상〉 244: 47-86.

권현지. 2008. “금융서비스 산업의 고용관계 변화: 비정규 대고객 서비스직의 고용관계 변화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권현지・김영미・권혜원, 2015. “저임금 서비스 노동시장의 젠더 불평등.” 〈경제와사회〉 107: 44-78.

김성일. 2020. “파워 엘리트 85세대의 시민 되기와 촛불 민심의 유예.” 〈문화과학〉 102: 25-49.

김세원・이봉주・김현수・유조안・이상균・장화정(2019). “아동학대행위자 및 학대피해아동 유형화 및 관계에 대한 연구-잠재집단분석을 적용하여.” 〈한국가족복지학〉 66: 115-146.

김영미. 2016. “출산과 성평등주의 다층분석.” 〈경제와 사회〉 112: 41-74.

김영미・계봉오. 2015. “이행의 계곡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나: 여성의 고용과 출산에 관한 성평등적 접근.” 〈한국여성학〉 31(3): 1-30.

김영미・류연규. 2016. “남성의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적 요인에 대한 다층분석: 26개 국가 비교.” 〈사회과학연구〉 32(2): 271-299.

김이선・이상직・권현지. 2019. “위기 속 노동시장 진입 세대의 노동이동을 통해 본 위기 후 한국 여성노동시장.” 〈한국여성학〉 35(1): 1-37.

김혜경. 2013. “부계 가족주의의 실패?: IMF 경제위기 세대의 가족주의와 개인화.” 〈한국사회학〉 47(2): 101-141.

도남희. 2019. “동아시아(한・중・일)의 저출산 정책 변화와 쟁점.” 〈육아정책포럼〉 59: 38-45.

류연규. 2012. “복지국가 젠더격차와 성역할 인식 차이의 관계에 대한 비교연구.”

〈한국복지정책〉 (4): 175-203.
박경숙, 김영혜, 김현숙. 2005. “남녀 결혼시기 연장의 주요원인: 계층혼, 성역할분리규범, 경제조정의 우발적 결합.” 〈한국인구학〉 28(2): 33-62.
박기남. 2011. “한국 가족의 현주소 그리고 젠더관계 변화의 함의.” 〈여성학논집〉 28(2): 179-182.
박민자. 1995. “한국의 가족정책과 가족, 그리고 여성.” 〈덕성여대논문집〉 24. 덕성여자대학교 출판부.
백광렬・이상직・사사노미사에. 2018. “한국의 가족주의와 가족 관념: ‘사회결합’론의 관점.” 〈한국사회학〉 52(4): 115-159.
백주희. 2009. “가족가치관과 성역할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구학적 변인: 국제비교 분석.” 〈가정과삶의질연구〉 27(3). 239-251.
사사노 미사에. 2017. “전후 일본 청년 세대 담론과 생애 변화의 세대별 분석: 삶의 제도화, 표준화, 그리고 다양화.” 〈일본연구〉 72: 37-64.
성미애. 2014. “30, 50 대 비혼 여성의 결혼 및 가족 담론.”가정과삶의질연구〉 32(2): 131-141.
신윤정. 2015. “저출산에 대응한 동아시아 국가의 가족정책 비교.” 〈보건복지포럼〉 223: 80-89.
안현미. 2007. “일본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 지원정책 분석을 통한 한국 저출산정책의 함의-육아・개호휴업법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311-338.
양현아. 2005. “1990 년대 이후 가족정책.” 권태환・김혜란・양현아・한인섭・왕정미『한국 여성정책의 쟁점과 전망: 가족, 성폭력, 복지정책』, 함께읽는책.
양현아. 2006. “여성주의정책으로서의 한국 가족정책의 원리 모색.” 심영희 외 『한국 젠더 정치와 여성정책』. 나남출판.
양현아. 2011. 『한국 가족법 읽기: 전통, 식민지성, 젠더의 교차로에서』. 창비.
양해만・조영호. 2018. “한국의 사회경제적 변화와 탈물질주의: 왜 한국인은 여전히 물질주의적인가?” 〈한국정치학회보〉 52(1): 75-100.
우해봉. 2009. “교육이 초혼 형성에 미치는 영향: 결혼 연기 혹은 독신?” 〈한국인구학〉 32(1) 25-50.
우해봉・장인수, 2017. “인구변동의 국제 동향과 중장기 인구정책 방향.”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숙연. 2013. “젠더-정책레짐(gender policy regime)에 따른 성-고정관념의 지형분석: 세계가치관조사(WVS)에 기초한 탐색적 국제비교.” 〈국가정책연구〉 27(4): 5-38.

원숙연. 2015. “이질동형? 동질이형? 한국-미국-스웨덴의 성노동에 대한 고정관념적 인식 구조와 함의.” 〈정부학연구〉 21(2): 171-199.
유홍준・현성민, 2010. “경제적 지원이 미혼 남녀의 결혼 연기에 미치는 영향.” 〈한국인구학회〉 33(1): 75-101.
은기수. 2006. “가족가치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성별 및 세대간 차이를 중심으로.” 〈가족과 문화〉 19(2): 1-31.
은기수. 2009. “아시아적 가족가치의 동아시아 사회 비교연구.” 〈한국사회학회〉 사회학대회 논문집. 827-848.
은기수. 2018. “한국여성의 경제활동참여와 경력단절.” 〈한국인구학〉 41(2): 117-150.
은기수・이윤석. 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28(1): 107-132.
이미경・김미정・정혜은, 2010. “미혼남녀의 결혼의향과 결혼희망연령에 대한 가족가치관의 영향 추세 연구: 2005 년, 2009 년 전국 결혼 및 출산 동향 조사 자료를 중심으로.” 〈한국인구학〉 33(3): 31-51.
이미경・장다혜・정대현・김선희・김보화・김수아・추지현. 2021. 『미투가 있다/잇다: 끝나지 않는 변화의 연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여성연구원 기획.
이상직. 2020. “전환기 성인 이행 경로의 변화: 1870-1984 년 코홑의교육・노동・가족이력.”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논문.
이상직・김이선・권현지. 2018. “변환 것과 변화지 않은 것: 남녀 대졸자 노동이력으로 본 위기 전후 한국 청년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 〈경제와사회〉 118: 131-181.
이순미. 2015. “외환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성별평등.” 〈한국여성학〉 31(2): 91-129.
이승윤・안주영・김유휘. 2016. “여성은 왜 외부자로 남아 있는가?: 한국과 일본의 여성 조노동시장 비교연구.” 한국사회정책〉 23(2): 201-237.
이재경・김보화, 2015. “2,30 대 비혼 여성의 결혼 전망과 의미: 학력 집단 간 차이를 중심으로.” 〈한국여성학회〉 31(4): 41-85.
이철승. 2019. 『불평등의 세대』 문화과지성사.
이철희. 2012. “한국의 합계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혼인과 유배우 출산율 변화의 효과.” 〈한국인구학〉 35(3): 117-144.
이철희. 2018. “한국의 출산장려정책은 실패했는가?: 2000~2016 년 출산율 변화요인 분해.” 〈경제학연구〉 66(3): 5-42.
이철희・김규연. 2019. “선진국의 역사적 사례에 기초한 여성경제활동인구 변화 전망: 인구구조 변화가 노동인력규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함의.” 〈노동경제논집〉 42(4): 1-29.

장경섭. 2011. “개발국가, 복지국가, 위험가족: 한국의 개발자유주의와 사회재생산 위기.” 〈한국사회정책〉 18(3) : 63-90.

장경섭. 2018. 『내일의 종언? 한국의 사회경제적 위기』. 집문당.

장경섭・진미정・성미애・이재림. 2015. “한국사회 제도적 가족주의의 진단과 함의.” 〈가족과문화〉 27(3): 1-38.

장덕진. 2017. “데이터로 본 한국인의 가치관 변동.” 김우창 외. 『김우창・송복・송호근・장덕진 한국사회 어디로?』. 아시아, 298-348 .

정선영. 2017.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태도의 국가별 차이: 셔엉 경제활동참여율 및 인구사회학적 특성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가족과문화〉 29(2): 70-94.

정이환. 2011. 『경제위기와 고용체제: 한국과 일본의 비교』. 한울.

정이환. 2013. 『한국고용체제론』. 서울: 후마니타스.

정이환. 2013. “노동시장의 사회학적 연구의 쟁점.” 〈경제와사회〉 100: 94-113.

정이환・김영미・권현지. 2012. “동아시아 신흥 선진국의 여성고용: 한국과 대만 비교.” 〈한국여성학〉 28(1): 147-181.

정이환・전병유. 2004. “동아시아 고용체제의 특성과 변화: 한국, 일본, 대만의 고용안정성, 임금구조, 노동시장 분절성의 비교.” 〈산업노동연구〉 10(2): 215-52.

조귀둥. 2020. 『세습중산층사회』 생각의 힘.

조성호. 2015. “한국과 일본의 저출산 현황과 대응 정책.” 〈보건·복지 Issue&Focus〉 298: 1-8.

조성호 외. 2017. “청년층의 경제적 자립과 가족형성에 관한 한일 비교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성호・변수정・김문길 ・김지민. 2019. “청년세대의 결혼 및 출산 동향에 관한 조사연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채민진. 2019. “한국 2,30 대 남녀의 성역할태도와 결혼 인식.”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논문.

최선영. 2020. “한국 여성의 생애과정 재편과 혼인행동의 변화.”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논문.

최선영・장경섭. 2004. “성 분업의 근대적 재구성: 한국 여성의 ‘가족형성기 탈취업’ 경향의 변화를 중심으로.” 〈사회연구〉 8: 173-203.

최필선・민인식. 2015. “첨년층의 취업과 임금이 결혼이행에 미치는 영향: 이산시간 해저드 모형의 응용.” 〈한국인구학회〉 38(2): 57-83.

허은. 2013. “노동시장 계층별 성별직업분리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47(2): 241-266.

허은. 2017. “개인화와 성별분업.” 한국사회학 51(4): 47-78.
홍세희. 2019. 『잠재집단, 잠재전이, 성장혼합모형』. 서울: 박영사.
홍승아・최인희・김난주・김지미. 2018. “성평등관점에서 본 저출산 대응전략 연구: 한국과 일본의 비교연구.” 한국여성정책연구원.
후쿠시마 미노리. 2005. “포스트 청년기 세대의 형성과 성격에 관한 연구: 한일 대학원 진학자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박사학위 논문.
후쿠시마 미노리. 2020. “『82 년생 김지영』에 열광한 일본 독자들, 그 이후는 어떻게 되었을까.” 〈문화과학〉 102: 117-201.

◆영어 문헌

Abegglen, James G. 1958. *The Japanese factory: Aspects of its social organization.* Free Press.
Akaike, Hirotugu. 1987. “Factor analysis and AIC. Selected papers of hirotugu akaike.” *Springer, New York, NY.* 371-386.
Anderson, Thomas, and Hans-Peter Kohler. 2015. “Low fertility, socioeconomic development, and gender equ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3): 381-407.
Arpino, Bruno, Gøsta Esping-Andersen, and Léa Pessin. 2015. “How do changes in gender role. attitudes towards female employment influence fertility? A macro-level analysi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31(3): 370-382.
Asparouhov, Tihomir, and Bengt Muthén. 2014. “Auxiliary variables in mixture modeling: Three-step approaches using M plu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1.3: 329-341.
Atoh, Makoto, Vasantha Kandiah, and Serguey Ivanov. 2004.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Asi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low fertility situation in East and South-East Asian countries. *The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2(1): 42-75.
Bakk, Zsuzsa, Fetene B. Tekle, and Jeroen K. Vermunt. 2013. “Estim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latent class membership and external variables using bias-adjusted three-step approaches.” *Sociological methodology* 43.1: 272-311.
Bardsley, Jan. 1999. “Discourse on Women in Postwar Japan: The Housewife Debate of 1955.” *US-Japan Women's Journal. English Supplement*: 3-47.
Beck, Ulrich. 2002. “Individualization: Institutionalized individualism and its social and political. consequences.” *Sage*. 14.

Becker, Gary S. 1981. "Altruism in the Family and Selfishness in the Market Place." *Economica* 48.189: 1-15.

Bergman, Lars R., and David Magnusson. 1997. "A person-oriented approach in research on developmental psychopathology." *Development and psychopathology* 9.2: 291-319.

Bergman, Lars R., and Kari Trost. 2006. "The person-oriented versus the variable-oriented approach: Are they complementary, opposites, or exploring different worlds?" *Merrill-Palmer Quarterly*: 601-632.

Bonoli, G., & Rober, F. 2010. "The political economy of childcare in OECD countries: Explaining cross-national variation in spending and coverage rat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Research*, 49(1): 97-118.

Brewster, Karin L., and Ronald R. Rindfuss. 2000.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in industrialized nations."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1): 271-296.

Brinton, M.C. 1990. Intrafamilial Markets for Education: An Empirical Example." In Social Institutions: Their Emergence, Maintenance, and Effects, edited by Michael Hechter, Karl-Dieter App, and Reinhard Wippler, 307-330. New York: Aldine.

Brinton, M.C. 1993. *Women and the economic miracle: Gender and work in postwar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Brinton, M. C., & Lee, D. J. 2016. "Gender-role ideology,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post-industrial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05-433.

Charles, Maria, and David B. Grusky. 2018. "Egalitarianism and gender inequality." The inequality reader. *Routledge*. 389-404.

Choe, Minja Kim, Robert D. Retherford, and Seung-Kwon Kim. 2004. "Very low fertility in South Korea: Patterns and prospects." Paper Presented to the 2004 Annual Meeting of the Population Association of America.

Cotter, D., Hermsen, J. M., & Vanneman, R. 2011. "The end of the gender revolution? Gender role. attitudes from 1977 to 2008."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17(1): 259-89.

Dahlerup, Drude. 1988. "From a small to a large minority: Women in Scandinavian politics." *Scandinavian Political Studies* 11(4): 275-298.

Dalla Zuanna, Gianpiero and Giuseppe A. Micheli. 2004. "Introduction", in Gianpiero Dalla. Zuanna and Giuseppe A. Micheli(eds.), Strong Family and Low Fertility: A Paradox? New Perspectives in Interpreting Contemporary Family and Reproductive Behaviour."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7-21.

Dyer, W. Justin, and Randal D. Day. 2015. "Investigating family shared realities with factor mixture modeling."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77(1): 191-208.

Engelhardt, Henriette, Tomas Kögel, and Alexia Prskawetz. 2004. “Fertility and women's employment reconsidered: A macro-level time-series analysis for developed countries, 1960–2000.” *Population studies* 58(1) : 109-120.

England, Paula. 2010. “The gender revolution: Uneven and stalled.” *Gender & society* 24(2): 149-166.

England, Paula. 2016. “Sometimes the social becomes personal: Gender, class, and sexualitie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81(1): 4-28.

Esping-Andersen, G.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John Wiley & Sons.

Esping-Andersen, G. 2009. *Incomplete revolution: Adapting welfare states to women's new roles.* Polity.

Esping-Andersen, G. 2014. “Gender Egalitarianism and the Resurgent Family.” S*tato e Mercato*. 100: 127-144.

Esping-Andersen, G, and Francesco C. Billari. 2015. “Re-theorizing family demographic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 1-31.

Frejka, Tomas, Gavin W. Jones, and Jean-Paul Sardon. 2010. “East Asian childbearing patterns. and policy development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3): 579-606.

Geiser, Christian. 2012. *Data analysis with Mplus*. Guilford press.

Giddens, Anthony. 2004［1992］. 『社会学一第 4 版』. 松尾精文・西岡八郎・藤井達也・小幡雅敏・叶堂隆三・立松隆介・内田健訳. 而立書房. Human societies: *an introductory reader in sociology*. Cambridge, Eng.: Polity Press.

Giddens, Anthony. 2013. *The transformation of intimacy: Sexuality, love and eroticism in modern societies.* John Wiley & Sons.

Goldin, Claudia. 2006. “The quiet revolution that transformed women's employment, education, and family.” *American economic review* 96(2): 1-21.

Goldscheider, Frances, Eva Bernhardt, and Trude Lappegård. 2015. "The gender revolution: A framework for understanding changing family and demographic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2): 207-239.

Goldstein, Joshua R., Tomáš Sobotka, and Aiva Jasilioniene. 2009. “The end of ‘lowest-low’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5(4): 663-699.

Gordon, Andrew. 1988. *The evolution of labor relations in Japan: Heavy industry, 1853-1955.* No. 117. Harvard Univ Asia Center.

Grunow, Daniela, Katia Begall, and Sandra Buchler. 2018. "Gender ideologies in Europe: A. multidimensional framework."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0(1): 42-60.

Hirschman, Albert O. 1970. *Exit, voice, and loyalty: Responses to decline in firms, organizations, and states.* Harvard university press.

Hochschild, Arlie, and Anne Machung. 2012. *The second shift: Working families and the revolution at home.* Penguin.

Imai, Jun. 2011. "The Limit of Equality by 'Company Citizenship': Politics of Labor Market Segmentation in the Case of Regular and Non-Regular Employment in Japan." *Japan's New Inequality: Intersection of Employment Reforms and Welfare Arrangements:* 32-53.

Inglehart, Ronald, Pippa Norris, and Inglehart Ronald. 2003. *Rising tide: Gender equality and. cultural change around the world.* Cambridge University Press.

Inglehart, Ronald, and Christian Welzel. 2005. *Modernization, cultural change, and democracy: The human development sequence.* Cambridge University Press.

Ishii, Kazumi, and Nerida Jarkey. 2004. "The housewife is born: The establishment of the notion and identity of the shufu in modern Japan." *Japanese Studies* 22(1): 35-47.

Ishizaki Yuko. 2004. "The Image of the 'Happy' Housewife as Portrayed in the Women's Magazine Very." Journal of the National Women's Education Center of Japan 8: 61 - 70.

Ishizaki Yuko. 2008. "The Image of the Housewife as Portrayed in the Women's Magazine STORY." *Faculty of Integrated Arts and Social Sciences journal* 18(47).

Knight, Carly R., and Mary C. Brinton. 2017. "One egalitarianism or several? Two decades of gender-role attitude changes in Europ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22(5): 1485-1532.

Kwon, Hyunji. 2015. "Changing Industrial Relations and Labor Market Inequality in Post-Crisis Korea." *Development and Society* 44.

Kyung-Sup, Chang, and Song Min-Young. 2010. "The stranded individualizer under.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n women i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539-564.

Lee, Sunhwa, 2001. "Women's Education, Work, and Marriage in South Korea," Mary Brinton ed., *Women's Working Lives in East Asia,*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4-32.

Lesthaeghe, Ron. 1983. "A century of demographic and cultural change in Western Europe: An exploration of underlying dimension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1-435.

Lesthaeghe, Ron. 2010. "The unfolding story of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6(2): 211-251.

Lesthaeghe, Ron. 2011. "The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A conceptual map for the understanding of late modern demographic developments in fertility and family formation." *Historical Social Research/Historische Sozialforschung*: 179-218.

Lesthaeghe, Ron, and Guy Moors. 2000. "Recent trends in fertility and household formation in the industrialized world." *Review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9(1): 121-170.

Lewis, Jane. 1992. "Gender and the Development of Walfare Regime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2(3): 159-173.

Lewis, Jane. 1997. "Gender and Walfare Regimes: Further Thoughts." *Social Politics: International Studies in Gender, State & society* 4(2): 160-177.

Mason, Karen Oppenheim. 1995. "Gender and demographic change: What do we know?" *Liege, Belgique: International Union for the Scientific Study of Population*.

Mason, Karen Oppenheim, and Yu-Hsia Lu. 1988. "Attitudes toward women's familial roles: Changes in the United States, 1977-1985." *Gender & Society* 2(1): 39-57.

McDonald, Peter. 2000a. "Gender equity in theories of fertility transition."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6(3): 427-439.

McDonald, Peter. 2000b. "Gender equity, social institutions and the future of fertility." J*ournal of. the Australian Population Association* 17(1): 1-16.

McDonald, Peter. 2006. "Low fertility and the state: The efficacy of polic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85-510.

McDonald, Peter. 2009. "Explanations of Low Fertility in East Asia: a Comparative Perspective." In *Ultra-Low Fertility in Pacific Asia: Trends, Causes and Policy Issues*, eds. Gavin Joes, Paul Tay Straughan, and Angelique Chan. Routledge, 23-29.

McDonald, Peter. 2013. *"Societal foundations for explaining low fertility: Gender equity."* Demographic research 28: 981-994.

Mills, Melinda. 2010. "Gender roles, gender (in)equality and fertility: An empirical test of five gender equity indices." *Canadian Studies in Population* 37(3-4): 445-474.

Mills, M., Mencarini, L., Tanturri, M. L., & Begall, K. 2008. "Gender equity and fertility intentions in Italy and the Netherlands." *Demographic research*, 18, 1-26.

Mun, E. and Brinton, M.C. (2014). "Workplace matters: The use of parental leave policy in Japan." *Work and Occupations* 42(3): 335–369.

Muthén, Bengt, and Linda K. Muthén. 2000. "Integrating person-centered and variable-centered analyses: Growth mixture modeling with latent trajectory classes." *Alcoholism: Clinical and experimental research* 24(6): 882-891.

Nishimura & Kwon. 2016. "Divergence in Women's Employment in Korea and Japan: What Shapes the Different Patterns around Childbirth?" *Development and Society*, 45(3) : 467-502.

Nylund, Karen L., Tihomir Asparouhov, and Bengt O. Muthén. 2007. "Deciding on the number of classes in latent class analysis and growth mixture modeling: A Monte Carlo simulation study."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14(4): 535-569.

Ochiai, Emiko. 2011. "Unsustainable societies: The failure of familialism in East Asia's compressed modernity." *Historical Social Research* 36: 219-245.

Ochiai, Emiko. 2014. "Leaving the West, rejoining the East? Gender and family in Japan's semi-compressed modernity." *International Sociology* 29(3): 209-228.

Ochiai Emiko, Yamane Mari, Miyasaka Yasuko, zhou Weihong, Onode Setsuko, Kiwaki Nachiko, Fujita Michiyo and Hong Sang Ook. 2008. "Gender Roles and Childcare Networks in East and Southeast Asian Societies." In Ochiai, Emiko and Barbara Molony(3ds.). *Asia's New Mothers. Cragting Gender Roles and Childcare Networks in East and Southeast Asian Societies*. 31-70.

Ogawa, Naohiro. 2003. "Japan's changing fertility mechanisms and its policy responses." J*ournal of population research* 20(1): 89-106.

Osawa, M., Kim, M.J., and Kingston, J. 2013. "Precarious work in Japan." *American Behavioral Scientist* 57(3): 309–334.

Park, Mee-Hae. 1991. "Patterns and trends of educational mating in Korea." *Korea journal of population and development*, 1-15.

Pepin, Joanna R., and David A. Cotter. 2018. "Separating spheres? Diverging trends in youth's gender attitudes about work and family." *Journal of Marriage and Family* 80(1): 7-24.

Ray Sin. 2017. "The Emergence and Persistence of Gender Ambivalence: A Latent Profile Analysis from 1977-2014." Doctoral Dissertation of Philosophy in Sociology in the Graduate College of the University of Illinois at Chicago.

Raymo, James M., and Hiromi Ono. 2007. "Coresidence with parents, women's economic resources, and the transition to marriage in Japan." *Journal of Family Issues* 28(5): 653-681.

Raymo, J. M., Park, H., Xie, Y., & Yeung, W. J. J. 2015. "Marriage and family in East Asia: Continuity and change." Annual Review of Sociology 41: 471-492.

Rindfuss, Ronald R., Karin L. Brewster, and Andrew L. Kavee. 1996. "Women, work, and children: Behavioral and attitudinal change in the United States."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57-482.

Ryder, Norman B. 1985. "The cohort as a concept in the study of social change." *Cohort analysis in social research.* Springer, New York, NY. 9-44.

Sainsbury, Diane. 1999. "Gender and Democratic Welfare States." Sainsbury, D. (ed). *Gender and welfare state regimes.* Oxford University Press.

Sawer, M. 2002. "The representation of women in Australia: Meaning and make believe." P*arliamentary Affairs* 55(1): 5-18.

Scarborough, William J., Ray Sin, and Barbara Risman. 2019. "Attitudes and the stalled gender revolution: Egalitarianism, traditionalism, and ambivalence from 1977 through 2016." *Gender & Society* 33(2): 173-200.

Schwartz, Shalom. 2013. "Value priorities and behavior: Applying." *The psychology of values: The Ontario symposium.*

Sclove, Stanley L. 1987. "Application of model-selection criteria to some problems in multivariate analysis." *Psychometrika* 52(3): 333-343.

Sechiyama, Kaku. 2013. *Patriarchy in East Asia: A comparative sociology of gender.* Brill Academic Pub.

Shirahase, Sawako. 2000. "Women's increased higher education and the declining fertility rate in Japan." *Review of Population and Social Policy* 9: 47-63.

Song Jiyeoun. 2014. *Inequality in the Workplace: Labor Market Reform in Japan and Korea.* Cornell University Press.

Sung, Sirin. 2014. "Work-family Balance Issues and Policies in KOrea: Towards an Egalitarian Regime?" in Sung, S. & G. Pascal(eds). *Gender and Welfare States in East Asia: Confucianism ore Gender Equality?* 29-48. London: Palgrave Macmillan.

Takahashi, Shigesato. 2004. Demographic investigation of the declining fertility process in Japan. Japanese Journal of Population 2(1): 93-116.

Taylor-Gooby, Peter. 2004. *New risks, new welfare: the transformation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Tein, Jenn-Yun, Stefany Coxe, and Heining Cham. 2013. "Statistical power to detect the correct number of classes in latent profile analysis."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a multidisciplinary journal* 20(4): 640-657.

Tofighi, Davood, and Craig K. Enders. 2008. "Identifying the correct number of classes in growth mixture models." *Advances in latent variable mixture models* 2007(1) : 317.

Tsutsui, Junya. 2013. "The transitional phase of mate selection in East Asian countries." I*nternational Sociology* 28(3): 257-276.

Tsuya, Noriko O. 2015. "Below-replacement fertility in Japan: Patterns, factors, and policy implications." *Low and lower fertility.* Springer, Cham. 87-106.

Van de Kaa Dirk. J. 2001. "Postmodern Fertility Preferences: From Changing Value Orientation to New Behavior."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27, 290-331.

Van de Kaa, Dirk. J. 2002. "The idea of a second demographic transition in industrialized countries." *Birth*, 35(45).

Vermunt, Jeroen K. 2010. “Latent class modeling with covariates: Two improved three-step approaches.” *Political analysis*, 450-469.

Vogel. 2006. *Japan Remodeled*. Cornel University Press.

Won, Sook-Yeon. 2016. “State Policy? Traditional Gender stereopypes? Relative Contributions of Factors Alffecting Positive Work-Family Interfare for WorkiMothers in Korea.” *Gender, Work & Organization* 23(2): 147-164.

Yamaguchi, Kazuo. 2000. “Multinomial logit latent-class regression models: An analysis of the predictors of gender-role attitudes among Japanese women.”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105(6): 1702-1740.

◆일본어 문헌

朝倉むつ子. 1999. 『均等法の新世界：二重基準から共通基準へ』有斐閣選書.

浅野智彦. 2006. 「第一章 若者論の失われた十年」浅野智彦編『検証・ 若者の変貌: 失われた 10 年の後に』勁草書房.

阿部真大. 2006.『搾取される若者たち: バイク便ライダーは見た!』集英社.

阿部真大. 2013. 『地方にこもる若者たち：都会と田舎の間に出現した新しい社会』朝日新書.

有田伸. 2016.『就業機会と報酬格差の社会学—非正規雇用・社会階層の日韓比較』東京大学出版会.

安周林他. 2015. 「日韓台の家族主義レジームの多様性」新川敏光編『福祉レジーム』ミネルヴァ書房.

石川優実編. 2020. 「エトセトラ：女性運動とバックラッシュ」Vol.4. エトセトラブックス.

石崎裕子. 2004. 「女性雑誌 『VERY』 にみる幸福な専業主婦像」 国立女性教育会館研究紀要 8: 61-70.

今野浩一郎. 2010.「雇用区分の多様化」『日本労働研究雑誌』597: 48-51.

岩井紀子, 2003. 「JGSS プロジェクト (2) 調査方法と調査項目」『統計』11 月号：48-55.

岩井紀子・保田時男編. 2009. 『データで見る東アジアの家族観：東アジア社会調査による日韓中台の比較』ナカニシヤ出版.

岩井八郎. 2013. 「戦後日本型ライフコースの変容と家族主義：数量的生活史のデータの分析から」落合恵美子編『親密圏と公共圏の再編成：アジア近代からの問い』京都大学学術出版会.

岩澤美帆・ 三田房美. 2005. 「職縁結婚の盛衰と未婚化の進展」 『日本労働研究雑誌』535: 16-28.

岩澤美帆. 2002.「近年の期間 TFR 変動における結婚行動および夫婦の出生行動の変化の寄与について」『人口問題研究』 58(3)：15-44.
岩澤美帆. 2013. 「失われた結婚、増大する結婚：初婚タイプ別初婚表を用いた 1970 年代以降の未婚化と初婚構造の分析」『人口問題研究』69(2): 1-34.
岩澤美帆・三田房美. 2005. 「職縁結婚の盛衰と未婚化の進展」『日本労働研究雑誌』535: 16-28.
岩澤美帆.2015.「「ポスト人口転換期」 の出生動向: 少子化の経緯と展望」 人口問題研究 71(2): 86-101.
上田信. 1995. 『伝統中国〈盆地〉〈宗族〉にみる明清時代』講談社.
上野千鶴子. 2007. 『おひとりさまの老後』法研.
上野千鶴子. 2013. 『女たちのサバイバル作戦』文藝春秋.
上野千鶴子・古市憲寿. 2011. 『上野先生、勝手に死なれちゃ困ります：僕らの介護不安に応えて下さい』光文社新書.
大竹文雄. 2001. 『雇用問題を考える』東京大学出版会.
大沢真理. 1993. 『企業中心社会を超えて：現代日本を〈ジェンダー〉で読む』時事通信社.
小熊英二. 2019. 『日本社会の仕組み：雇用・教育・福祉の歴史社会学』講談社現代新書.
小倉一哉. 2013. 『「正社員」の研究』日本経済新聞出版社.
小越洋之助. 2006. 『終身雇用と年功賃金の転換』ミネルヴァ書房.
押嶋史章・近藤博之. 2000. 「教育達成のジェンダー構造」盛山和夫編.『日本の階層システム 4：ジェンダー・市場・家族』東京大学出版会.
落合恵美子. 2004 [1994] 『21 世紀家族へ：家族の戦後体制の見かた・超えかた』有斐閣.
落合恵美子・山根麻理・宮阪靖子編. 2007.『アジアの家族とジェンダー』勁草書房.
落合恵美子. 2013. 「東アジアの底出生率と家族主義：半圧縮近代としての日本」落合恵美子編『親密圏と公共圏の再編成：アジア近代からの問い』京都大学学術出版会.
川口章. 2008. 『ジェンダー経済格差：なぜ格差が生まれるのか、克服の手がかりはどこにあるのか』勁草書房.
北川清子. 1995. 「男女雇用機会均等法の限界：期待した初の調停と停滞案への失望」基礎経済科学研究所編『働く女性と家族のいま 1：日本型企業社会と女性』青木書店.
木下武男. 1995. 「企業社会を克服する戦略と女性の位置」基礎経済科学研究所編『働く女性と家族のいま 1：日本型企業社会と女性』青木書店.
金昌震. 2014. 「少子化現象の背景に関する日韓比較」 北海道大学大学院文学研究科研究論集 (14), 225-248.
金美蘭. 2002. 「ジェンダー意識と教育アスピレーションの分化」中村高康・藤田武志・有田

伸編『教育から見る日本と韓国：学歴・選抜・学校の比較社会学』東洋間出版社: 221-236.
金淵明編. 2006. 『韓国福祉国家性格論争』流通経済大学出版界.
金明中. 2015.「日韓比較（6: 非正規雇用その２ 非正規雇用労働者の内訳」ニッセイ研究所研究員の眼 2015-08-11.
河野 稠果. 2007. 『人口学への招待―少子・高齢化はどこまで解明されたか』中公新書.
久米弘子. 1995. 「均等法後の女性雇用の現状」基礎経済科学研究所編『働く女性と家族のいま１：日本型企業社会と女性』青木書店.
熊沢誠. 1989. 『日本的経営の明暗』筑摩書房. 1989.
熊沢誠. 1995. 「日本的経営と女性労働」『日本型企業社会と女性』基礎経済科学研究所（編）.
小越洋之介. 2006. 『終身雇用と年功賃金の転換』ミネルヴァ書房.
酒井順子. 2003. 『負け犬の遠吠え』講談社.
坂本節郎・原田曜平. 2015. 『日本初！たった一冊で誰とでもうまく付き合える世代論の教科書：「団塊世代」から「さとり世代」まで一気にわかる』東洋経済新聞社.
佐藤龍三郎・金子隆一. 2016. 『ポスト人口転換機の日本』 原書房.
新川敏光. 2014. 『福祉国家変革の理路: 労働・福祉・自由』 ミネルヴァ書房.
杉田陽出・岩井紀子, 2003. 「JGSS プロジェクト（3）測定尺度と選択肢」『統計』12 月号: 49-56.
鈴木彩加. 2019. 『女性たちの保守運動：右傾化する日本社会のジェンダー』人文書院
鈴木健介. 2005. 『カーニヴァル化する社会』講談社現代新書.
鈴木徹. 2010a. 「ポスト近代化と東アジアの極低出生力」『人口問題研究』66(1): 1-7.
鈴木徹. 2010b. 『東アジアの家族人口学的変動と家族政策に関する国際比較研究』厚生労働科研報告書.
瀬地山角. 1996.『東アジアの家父長制: ジェンダーの比較社会学』勁草書房.
瀬地山角. 2017. 「東アジアの中の日本の少子化・女性労働・高齢化: 労働力再生産システムの比較社会学」『ジェンダーとセクシュアリティで見る東アジア』勁草書房.
相馬直子. 2012. 「圧縮的な家族変化と子どもの平等 ： 日韓比較を中心に考える（特集 第16回厚生政策セミナー「東アジアの少子化のゆくえ ： 要因と政策対応の共通性と異質性を探る」)」 人口問題研究 68(3), 85-104.
高山武士. 2014. 「はざま世代」が思う、競争と個性」ニッセイ研究所研究員の眼 2014-06-25.
竹ノ下弘久・西村純子, 2005.「性役割意識の規定要因に関する国際比較:韓国と日本の比較から」渡辺秀樹編 『現代日本の社会意識:家族・子供・ジェンダー』慶應義塾大学出版会.

竹中恵美子. 1989. 『戦後女子労働史論』有斐閣.
竹中恵美子・久場嬉子編. 1994. 『労働力の女性化』有斐閣.
橋木俊詔. 2008. 『女女格差』東洋経済新報社.
崔佳榮. 2019. 『韓国の大統領制と保育政策』ミネルヴァ書房.
中井美樹. 2000. 「若者の性役割観の構造とライフコース観および結婚観」 立命館産業社会論集 36(3): 117-127.
永瀬伸子・山谷真名 (2011) 「大企業勤務の大卒正社員女性の就業継続不安：コース別人事に着目して」『キャリアデザイン学会』第７巻:185－197.
中野円佳. 2014. 『育休世代のジレンマ：女性活躍はなぜ失敗するのか？』光文社新書.
仁田道夫. 2003. 『変化の中の雇用システム』東京大学出版会.
橋本健二. 2009. 『「階級社会：現代日本の格差を問う」』講談社.
濱口桂一郎. 2010.『日本の若者と雇用－ OECD 若年者雇用レヒュー』 明石書店.
濱口桂一郎. 2013. 『若者と労働：入社の仕組みから解きほぐす』中央公論出版社.
濱口桂一郎. 2014. 『日本の雇用と中高年』ちくま新書.
林知己・林文, 1995. 「国民性の国際比較」『統計数理』43-1: 27-80.
久本憲夫. 2010. 「正社員の意味と起源」『季刊政策・経営研究』2: 19-40.
廣嶋清志. 2000a.「1970 年代半ばからの合計出生率低下-コーホート出生率によるシミュレーション分析-」『経済科学論集』(島根大学法文学部) 26: 1-39.
廣嶋清志. 2000b.「近年の合計出生率低下の要因分解-夫婦出生率は寄与していないか?」『人口学研究』26: 1-20.
福島みのり. 2020a. 「世代論から読み解く韓国若者論の変容：新世代・８８マンウォン世代・N 放世代を中心に」『現代韓国朝鮮研究』(20)1: 1-12.
福島みのり. 2020b. 「日本社会における『82 年生まれ、キム・ジヨン』の需要：日本の女性は自らの姓をどう言語化したのか」常葉大学外国語学部紀要 36: 1-18.
藤本耕平. 2015. 『つくし世代：「新しい若者」の価値観を読む』光文社新書.
古市憲寿. 2011.『絶望の国の幸福な若者たち』. 講談社.
裵海善. 2012. 「韓国の少子化と政府の子育て支援政策（日本と韓国における少子化対策としての有効な子育て支援施策の比較研究)」 アジア女性研究 21: 24―42.
裵智恵. 2013. 「青少年のジェンダー意識と教育アスピレーション」渡辺秀樹・金鉉哲・松田茂樹・竹ノ下弘久編『勉強と居場所：学校と家族の日韓比較』勁草書房.
姫岡とし子. 2008. 『ヨーロッパの家族史』世界史リブレット.
本田由紀. 2005. 『若者と仕事』 東 京 大 学 出 版 会.
本田由紀. 2008. 『軋む社会: 教育・仕事・若者の現在』双風社.

松江暁子. 2009. 「韓国における少子化対策 (特集 韓国の社会保障--日韓比較の視点から)」海外社会保障研究 167: 79-93.
松田茂樹・裵智恵. 2013. 「家族ぐるみの学歴競争：家庭環境に左右される進学意欲」渡辺秀樹・金鉉哲・松田茂樹・竹ノ下弘久編『勉強と居場所：学校と家族の日韓比較』勁草書房.
松田久一. 2009. 「嫌消費」世代: 経済を揺るがす「欲しがらない」若者たち「2009.12 週刊ダイヤモンド」
宮本太郎. 2003.「福祉レジーム論の展開と課題」埋橋孝文編『比較のなかの福祉国家』ミネルヴァ書房.
宮本みち子. 2002. 『若者か≪社会的弱者≫ に転落する』 洋泉社.
三輪哲. 2009. 「潜在クラスモデル入門.」 『理論と方法』24(2): 345-356.
森ます美. 2005. 『日本の性差別賃金：同一価値労働同一賃金原則の可能性』有斐閣.
山口一男. 1999.「既婚女性の性別役割意識と階層：日米比較」『社会学評論』 50: 231-51.
山口智美・斎藤正美. 2020.「2000 年代の'バックラッシュ'とは何だったのか」石川優実編「女性運動とバックラッシュ」『エトセトラ』etc.books.
山田正弘. 1999. 『パラサイト・シングルの時代』筑摩書房.
山田昌弘. 2007a. 『希望格差社会：「負け組」の絶望感が日本を引き裂く』ちくま文庫.
山田昌弘. 2007b. 『少子化社会日本：もう一つの格差の行方』岩波書店
山田昌弘. 2009.『若者はなぜ保守化するのか』東洋経済新聞社.
山田昌弘・白河桃子.2008. 『「婚活」 時代』. ディスカヴァー・トゥエンティワン.
山田昌弘. 2013. 『なぜ日本は若者に冷酷なのか：そして下降移動社会が到来する』東洋経済新聞社.
山中美由紀. 2008. 「韓国のグローバル化と少子化現象のゆくえ」『フォーラム現代社会学』7: 31-40.
大和礼子. 1995. "性別役割分業意識の二つの次元― 「性による役割振り分け」と「愛による再生産役割」" 『ソシオロジ』40(1): 109-126.
柳采延. 2020. 「専業主婦という選択―産業化以降の韓国の高学歴既婚女性と階層 」東京大学大学院総合文化研究科博士学位論文, 2020 年 3 月.
柳采延. 2021. 『専業主婦という選択 ： 韓国の高学歴既婚女性と階層』勁草書房.

〈**Abstract**〉

Family Values in Korea and Japan: Focusing on Gender and Cohort

Misae Sasano
Department of Soci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post-industrial societies, we can observe a phenomenon deemed the 'crisis of social reproduction.' From around the second half of the 20th century, Western countries have experienced a 'family structural change' through diversification of family identity caused by an increased frequency of late marriages, more individuals remaining single, higher divorce rates, an increased number of childless couples, and lower birth rates. East Asian countries have also begun to experience similar trends since the 1990s. Western-oriented theoretical discussions theorized that changes in family values are an important factor to understand the change in fertility rates, so their studies focused on finding correlations between attitude towards gender roles and fertility rates. East Asian countries, including Korea and Japan, have always been examined using the same factors, gender inequality, patriarchal family values, and inadequate government support for working mothers (due to a Familialism welfare system). But if we pay attention to the speed of family change, especially the pace of fertility declines in Korea and Japan, the differences between the two countries cannot be explained through existing theories or analytical models. Considering that Japan first experienced a decrease in its fertility rate decades before Korea, it is unclear as to why Korea has overtaken Japan so quickly and fallen to the lowest fertility level in the world?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of why fertility rates are falling faster in Korea than in Japan, this study examined 'changes in family values' and analyzed

data from the 2012 International Social Survey Program (ISSP). This study described Korean trends in fertility through a comparative sociological perspective based on the research hypothesis that there is a noticeable attitude change regarding family values between Korea and Japan that has not yet been revealed in previous studies. This research used three strategies to approach and understand the speed of fertility declines in Korea regarding changes in family values. First and theoretically, I challenged the dichotomous view that family values undergo a linear transition towards gender equality depending on social development. Family values can be viewed as a multilevel concept, and these different levels may not always be aligned. Second, I do not analyze only the macroscopic point of view; I focused on intragroup differences between and among cohorts and gender. For countries that have experienced rapid social changes and educational advancement like Korea, although the family value deviation among different generations of people is significant, this variation disappeared when comparing overall values. Third, I systematically examined family values that have been analyzed separately in previous research; three aspects of family values include attitudes towards gender roles, the value of marriage, and the value of having children. Moreover, I investigated correlations among these three aspects of family values. Furthermore, I investigated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people belonging to different latent classes through a 3-step regression analysis. This study tried to understand the 'speed of family change' in Korea systematically by approaching changes in family values through the above research strategy. The main research results are as follows.

In terms of attitudes toward gender roles, Korean people have a more negative view of working mothers, even though women in Korea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the family economically. In Korea, support for gender equality was clear among the young cohort born between 1986 and 1995. This is a radical contrast from the older cohort who preferred a more defined ‘division of labor' among genders and were less inclined to support gender equality. Conversely, most Japanese people especially the young cohort support gender equality and modern family values, which deny divisions of labor based on gender, but do not emphasize the need for women to contribute economically to the household. In addition, young women

accepted and valued the role women as housewives and were less inclined to suggest that women needed to work outside the home fulltime. From the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group that was more likely to support ‘gender equality’ than 'division of labor' groups consisted of the 1986-1995 cohort, college graduates and single people. In Japan, it was also found that college graduates, singles, women, and the 1986-1995 cohort were more likely to support ‘gender equality' than 'division of labor'. However, an essential finding of this study was that there is a big difference in perceptions of gender equality in Korea and Japan, despite support towards gender equality evident among the younger generation in both countries.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gender role equality supported in the two countries in the division of roles, including the public and private spheres. This study shows Korea and Japan are heading towards different gender equality.

In terms of marriage values, Korea overall has a more positive view of marriage than Japan. Compared to Japan, Korean people have a strong belief that married people are generally happier than unmarried people. In addition, Koreans believe it is important to get married before living with the person you love, in contrast to Japanese people, who believe it is acceptable to live with a romantic partner without getting married. These factors contribute to pro-marriage values being higher in Korea than in Japan. However, the number of Korean people who can be classified as 'pro-marriage' has gradually decreased among the young cohort, especially among young women in Korea. On the other hand, while it was observed that the number of young people who were 'pro-marriage' in Japan is over 50%, especially among young women, the overall number of young women who do not view marriage as a necessity is increasing. Among the young Korean cohort, no significant change was confirmed in marriage values compared to the shift in attitudes towards gender roles. Nonetheless, among young women in Korea, marriage values are moving in a direction that is somewhat less pro-marriage than in the past. On the other hand, in Japan, more than half of the young women studied think of marriage as a valuable life choice, although an increasing number of Japanese women do view marriage as a necessity.

As for the value of having children, it was found that Koreans in all cohorts feel a more significant burden raising children than people in Japan. Specifically,

Koreans think that in terms of time, economic security, and career aspirations, opportunities and freedoms are limited by having children. This view is strongest among the young cohort in Korea and especially young women. In contrast to the notable increase in the number of young Korean women who do not view having children as a necessity, having children is recognized as being important to Japanese young women and thus, the number of young Japanese women indicating a necessity for having children was much higher than Korea and even higher than the older cohorts in Japan. It seems that demands of motherhood, which often require women to give up their careers, is not an attractive choice for young, educated women in Korea. In contrast to young women in Korea, having children is perceived as more important and more valuable among Japanese women. These results support the claim that younger generations in Japan are more conservative in terms of family values by accepting traditional gender roles and the necessity of having children. However, in terms of having children, such a trend was confirmed only among young women, not young men.

Finally, I analyzed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three aspects of family valu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n Korea, there was a significant relationship in all aspects including: attitudes towards gender roles and the value of marriage, attitudes towards gender roles and the value of having children, and the value of marriage and the value of having children. Among Korean respondents, correlations with significant results were primarily found in the traditional family value class (‘Gender specific labor division', 'Positive view of marriage', 'Necessity of having children') and the progressive family value class ('Gender equality regarding division of labor,’ ‘Median view of marriage', ‘Children viewed as a non-necessity’) had a positive (+) correlation. Similarly, each aspect of the traditional family value class negatively correlated with each aspect of the progressive family value clas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traditional and progressive family value classes in Japan as attitudes towards gender roles were unlikely to influence the values of marriage value or the values of having children.

Through an analysis of correlations among gender and cohort, the younger Korean cohort shows more support for gender equality and view having children

as unnecessary, However, this cohort still exhibited a positive view of marriage. This revealed that, among young Koreans, the value of marriage and preference for having children was not decreasing at the same rate. A notable change in attitudes supporting increased gender equality and the belief that having children is not a necessity was evident among young Korean women, while a positive view of marriage slightly decreased. From the above results, getting married does not equate to having child in Korea. Since the value of having children is decreasing at a faster rate than weakening beliefs in the necessity of marriage, it is expected that the fertility rate among married couples in Korea will decrease rapidly. In contrast, in Japan, regardless of attitudes towards gender equality and the necessity of marriage, a preference for having children is shared by all generations and is especially strong among young Japanese women.

These research findings confirmed that Korea and Japan are exhibiting different attitudes towards family values. Among young generations, especially among young women in Korea, support for gender equality regarding division of labor is increasing rapidly, while the desire for having children is falling sharply, as positive attitudes towards marriage are decreasing gradually compared to Japan. In contrast, Japanese young women showed a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s having children and marriage compared to Korea. Thus, while Koreans value marriage more than having children, Japanese women value both marriage and having children, but compared to Korea, Japanese value having children more than marriage. Still, the fertility rate is decreasing in Japan due to the inability of young Japanese women to find suitable marriage partners in the current economic environment. It appears that although the low fertility phenomena we can observe today is similar in Korea and Japan, each country has different reasons for this phenomenon in terms of family values.

Keywords: Family Values, Gender role Attitudes, Marriage Values, Child Values, Gender, Generation, Latent Profile Analysis, ISSP
Student Number: 2011-31256